

# CBETA電子佛典集成

---

CBETA Chinese Electronic Tripitaka Collection  
eBook

J37nB392

## 寒松操禪師語錄

清 智操說 德昊編（依駒本印）

# 目次

- [編輯說明](#)
- [章節目次](#)
  - [像](#)
  - [贊](#)
  - [序](#)
    - [錢謙益序](#)
    - [祁能佳序](#)
    - [淨符序](#)
  - [目錄](#)
  - [開堂疏](#)
    - [青龍開堂疏](#)
    - [國山開堂疏](#)
    - [白雲寶嚴開堂疏](#)
    - [安樂院開堂疏](#)
    - [禮菴上梁開堂疏](#)
    - [弁山開堂疏](#)
  - [住松江青龍隆福禪寺語錄](#)
  - [再住松江青龍隆福寺語錄一](#)
  - [再住松江青龍隆福寺語錄二](#)
  - [住常州國山善權禪寺語錄](#)
  - [住安慶白雲山香爐寺語錄](#)
  - [住安慶寶嚴山雲際寺語錄](#)
  - [再住常州國山善權寺語錄](#)
  - [住常州荊谿安樂禪院語錄](#)
  - [住常州洞山善卷禮菴語錄](#)
  - [住湖州弁山龍華禪寺語錄](#)
  - [再住安慶白雲香爐寺語錄](#)
  - [座元寮秉拂語錄](#)
  - [機緣問答](#)
  - [普說](#)
  - [拈頌古一](#)
  - [拈頌古二](#)
  - [源流宗旨頌](#)
    - [源流頌](#)

- [宗旨頌](#)
  - [君臣五位](#)
  - [正偏五位](#)
  - [王子五位](#)
  - [功勳五位](#)
  - [三滲漏](#)
  - [四轉位](#)
  - [四賓主](#)
  - [三墮](#)
  - [四料揀](#)
  - [四照用](#)
  - [四喝](#)
  - [三關](#)
  - [函蓋乾坤](#)
  - [截斷眾流](#)
  - [隨波逐浪](#)
  - [三種生](#)
  - [華嚴六相](#)
  - [三界唯心](#)
  - [萬法惟識](#)
  - [曹洞](#)
  - [臨濟](#)
  - [沩仰](#)
  - [雲門](#)
  - [法眼](#)
- [佛事](#)
- [筆語](#)
  - [上百老和尚](#)
  - [與坦菴方學士](#)
  - [答檀越借牛](#)
  - [復善權西堂時一大師](#)
  - [與諸山同門](#)
  - [致諸山同門](#)
  - [復雲間眾護法](#)
  - [致諸山同門](#)
  - [辭荊谿眾護法](#)
  - [請靈機大師](#)
  - [與明因眾大師](#)

- [與善權主人](#)
- [請北溟大師](#)
- [復同門](#)
- [賀同門](#)
- [像贊](#)
  - [經寫彌陀](#)
  - [圓通大士](#)
  - [初祖](#)
  - [十八羅漢](#)
  - [雲門湛老和尚](#)
  - [弁山瑞老和尚](#)
  - [青龍百老和尚](#)
  - [白題](#)
- [雜著](#)
  - [寶劍連環頌](#)
  - [蜜蜂頌](#)
  - [牧牛頌](#)
  - [十二時歌](#)
  - [贈天成監院](#)
  - [訓童行](#)
  - [示禪人](#)
  - [示張淨菴醫士](#)
  - [示李道人](#)
  - [壽檀越](#)
  - [示化士](#)
  - [絕糧](#)
  - [化大殿](#)
  - [化磚](#)
  - [化米](#)
  - [化知浴](#)
  - [化油燭](#)
  - [化齋僧田](#)
  - [化柴](#)
  - [化梓法寶](#)
  - [化知浴疏](#)
  - [王孝子序](#)
  - [祭祖文](#)
  - [建青龍隆福寺普同塔記](#)

- [送牌位入祖庭定約](#)
- [自序](#)
- [方外英華](#)
  - [別硯](#)
  - [招隱](#)
  - [細林同友人雪夜讀莊子](#)
  - [訪陳其年史雲臣賦得白雲深處](#)
  - [春宵遣懷次百老人韻](#)
  - [中秋次韻贈東澗公](#)
  - [和東坡戒殺詩](#)
  - [寒晚同徐竹逸儲雪持限韻](#)
  - [南安太守艸書歌](#)
  - [寄懷王玠右名世兩兄弟](#)
  - [秋日寄懷獨立和尚](#)
  - [金山寺](#)
  - [隆福寺](#)
  - [青龍塔](#)
  - [昇仙臺](#)
  - [酒餅山](#)
  - [白鶴江](#)
  - [通波塘](#)
  - [杏花村](#)
  - [會龍菴](#)
  - [獅子橋](#)
  - [醉眠亭](#)
  - [綠野橋](#)
  - [戒衣亭](#)
  - [古寺春回](#)
  - [浮圖秋月](#)
  - [竹院晚涼](#)
  - [平田煙雨](#)
  - [橋畔僧歸](#)
  - [松林雪霽](#)
  - [靜夜聞鐘](#)
  - [龍江夕照](#)
  - [聽琴](#)
  - [東岡文讌](#)
  - [晚涼](#)

- [送介丘錢大游九華](#)
- [秋燕](#)
- [江天聞鴈](#)
- [游大山菴次老人韻](#)
- [祝友](#)
- [自適](#)
- [詠竹](#)
- [寓吳江包朗威張九臨…](#)
- [雲門漫興](#)
- [懷北溟大師](#)
- [訪何山幽禪寺有感](#)
- [游僊](#)
- [送陳確菴孝廉歸粵東](#)
- [早行](#)
- [贈王思受](#)
- [訪千華和尚](#)
- [同聖集九一令詒坐于田秋零之和鶴堂](#)
- [游浮山](#)
- [重游浮山](#)
- [贈柘園侯記原次宋荔裳觀察韻十二首](#)
- [柘園雜詠次侯記原韻十二首](#)
- [時一大師過訪聯句](#)
- [十僧詠](#)
  - [引](#)
  - [山僧](#)
  - [禪僧](#)
  - [講僧](#)
  - [詩僧](#)
  - [老僧](#)
  - [病僧](#)
  - [孤僧](#)
  - [遊僧](#)
  - [貧僧](#)
  - [癩僧](#)
  - [逃禪](#)
- [過崑山訪乾一諸彖史](#)
- [詠影](#)
- [寄東岡諸子](#)

- [祝張揆原工部](#)
- [善權寺](#)
- [游善權洞](#)
- [春江](#)
- [初夏偶成](#)
- [喜青龍前殿落成](#)
- [喜青龍大殿落成](#)
- [喜梅源普同塔落成](#)
- [九峰環翠](#)
- [三泖回瀾](#)
- [湖山日出](#)
- [海門晴眺](#)
- [學潭泛月](#)
- [孔宅尋春](#)
- [江浦潮生](#)
- [昇仙舊臺](#)
- [夾橋雙剎](#)
- [隆福聞鐘](#)
- [清明值雨](#)
- [訪吳司成梅村](#)
- [和貫齋旻山人過訪](#)
- [為百老人求坦菴方學士塔銘次韻留別](#)
- [寄懷顧茂倫](#)
- [過九峰艸堂…](#)
- [細林晚眺分得青字](#)
- [鏡湖艸堂分得啼字](#)
- [同乾一登二十三峰閣分得龍字](#)
- [喜徐松之過訪](#)
- [游投子寺有感](#)
- [顧茂倫王咸平選先師…](#)
- [看忙](#)
- [固窳](#)
- [渡嶺](#)
- [汎舟](#)
- [鉏荳](#)
- [答友](#)
- [送客](#)
- [看月](#)

- [乞菊](#)
- [禱雨](#)
- [試耕](#)
- [巡夜](#)
- [春雨](#)
- [回里吟十首](#)
- [善權百老人萬松嶺塔上種樹詩十首](#)
- [山居](#)
- [姑蘇夜泊](#)
- [澱山遠眺](#)
- [元放故居和王介遠韻](#)
- [送曹道士之茅山](#)
- [過佛日寺](#)
- [漁父](#)
- [歸樵](#)
- [送山夫道人住點易臺](#)
- [漁火](#)
- [九日](#)
- [跋](#)
- [九峰艸](#)
  - [鳳凰十詠](#)
  - [三星閣](#)
  - [鐵漢亭](#)
  - [日止園](#)
  - [錦谿橋](#)
  - [山月軒](#)
  - [芙蓉莊](#)
  - [南村宅](#)
  - [來儀堂](#)
  - [梅花樓](#)
  - [摩霄壁](#)
  - [厓公八詠](#)
    - [採藥徑](#)
    - [藏書函](#)
    - [覽德坡](#)
    - [鼓琴石](#)
    - [釣魚磯](#)
    - [洗鶴灘](#)

- [鄭公莊](#)
- [陸寶村](#)
- [余峰十詠](#)
  - [徵君故廬](#)
  - [道人舊址](#)
  - [講寺竹林](#)
  - [香谿石徑](#)
  - [沐堂曉日](#)
  - [塔院午鐘](#)
  - [層霞高閣](#)
  - [白雲曲沼](#)
  - [梅花書屋](#)
  - [東山艸堂](#)
- [細林十詠](#)
  - [崇直曉鐘](#)
  - [金沙夕照](#)
  - [丹井靈源](#)
  - [西潭夜月](#)
  - [素翁仙塚](#)
  - [義士古碑](#)
  - [洞口春雲](#)
  - [晚香遺址](#)
  - [甘白澗泉](#)
  - [五爻奇石](#)
- [玉屏八詠](#)
  - [紫芝巖](#)
  - [玉蓮池](#)
  - [仙人床](#)
  - [學士亭](#)
  - [興雲嶺](#)
  - [苦節碑](#)
  - [宜晚堂](#)
  - [景華橋](#)
- [大陸八詠](#)
  - [丹霞嶺](#)
  - [赤鹿坡](#)
  - [平原村](#)
  - [寶樹菴](#)

- [直珠浦](#)
- [大陸亭](#)
- [醉眠石](#)
- [白雪灘](#)
- [橫雲十詠](#)
  - [連雲峰](#)
  - [麗秋壁](#)
  - [碧崇巖](#)
  - [雙冷澗](#)
  - [太原碑](#)
  - [來谷潭](#)
  - [清風院](#)
  - [忠孝祠](#)
  - [謫仙菴](#)
  - [白龍洞](#)
- [天馬十詠](#)
  - [二俊堂](#)
  - [三高塚](#)
  - [雙松臺](#)
  - [一柱石](#)
  - [濯月泉](#)
  - [看劍亭](#)
  - [八仙坡](#)
  - [半珠菴](#)
  - [留雲壁](#)
  - [揖秀軒](#)
- [崑崗十詠](#)
  - [婉孌堂](#)
  - [神虎穴](#)
  - [紅菱渡](#)
  - [楊柳橋](#)
  - [乞花場](#)
  - [白駒泉](#)
  - [涌月臺](#)
  - [紫藤徑](#)
  - [玉光亭](#)
  - [攬翠閣](#)
- [九峰九詠](#)

- [一峰梧館](#)
- [二峰嘯亭](#)
- [三峰靜軒](#)
- [四峰隱廬](#)
- [五峰吟閣](#)
- [六峰琴齋](#)
- [七峰雪堂](#)
- [八峰竹樓](#)
- [九峰奕圃](#)
- [鳳凰山](#)
- [厓公山](#)
- [佘山](#)
- [神山](#)
- [薛山](#)
- [機山](#)
- [橫雲山](#)
- [天馬山](#)
- [崑山](#)
- [石鼓山](#)
- [再登二十四峰關](#)
- [九峰主人歌](#)
- [跋](#)
- [拈來艸](#)
  - [秋夜懷諸乾一董德仲倪思曼](#)
  - [祝齊司馬](#)
  - [祝張太史](#)
  - [秋日送北溟和尚游雲門](#)
  - [祝戴文學](#)
  - [行](#)
  - [住](#)
  - [坐](#)
  - [臥](#)
  - [賦得緣雲擬住最高峰](#)
  - [收春亭為徐平谷賦](#)
  - [阻雨柳上](#)
  - [石萬蒲](#)
  - [和胡旋九過訪弁山原韻](#)
  - [過天童訪友](#)

- [冬日偶成](#)
- [秋夜](#)
- [舟泊垂虹亭贈客過訪](#)
- [熊司馬蔣太史同游張公洞](#)
- [寄介大師](#)
- [訪徑山主人](#)
- [和徐太史秋日見寄](#)
- [懷湘翁和尚](#)
- [曉泛太湖](#)
- [不流泉](#)
- [程純十楊昂霄聚五程敬三謙益同移竹種](#)
- [楊箕六羽公南一代工飲弁山峯片次戴月樓韻](#)
- [十七夜雨後看月和韻](#)
- [次韻留別戴月樓](#)
- [蘆菴八詠](#)
  - [引](#)
  - [蘆室](#)
  - [菊徑](#)
  - [澆屋梅](#)
  - [返照谿](#)
  - [迴瀾閣](#)
  - [宿鷺江](#)
  - [菡萏池](#)
  - [瓢月窩](#)
- [五旬初度](#)
- [春日偶成](#)
- [嚴太史丁亥史同游怪石塢分韻得斑字](#)
- [考槃謾興](#)
- [過雲際寺](#)
- [細林懷古](#)
- [蘆灣釣艇](#)
- [潮迴古岸](#)
- [舟中值雪](#)
- [鴈字二首](#)
- [江夏張千戶全家殉節和韻](#)
- [和拙菴大師崢峒山寄懷](#)
- [和霞胤大師春日過訪韻](#)
- [和汪周十季青過訪韻](#)

- [春日閒居和韻二首](#)
- [輓默符大師](#)
- [南洲和尚白雲夜話](#)
- [偕諸禪者雙石庵移貓竹](#)
- [社日新晴同諸子集戴文學草堂次韻二首](#)
- [宗學博過訪和韻](#)
- [圓通大殿上梁兼贈笑翁和尚](#)
- [和戴恂九春日過訪韻](#)
- [讀衍慶堂詩](#)
- [宗堂種桂](#)
- [竹筆筒銘](#)
- [端硯銘二首](#)
- [竹秘閣銘](#)
- [題畫](#)
- [春日遊鐵壁居](#)
- [竹杖](#)
- [蒲團](#)
- [瘿瓢](#)
- [先師窰堵自辛亥至甲子…](#)
- [龍華十詠](#)
  - [彌勒峰](#)
  - [青龍岡](#)
  - [獅子昂](#)
  - [象王峰](#)
  - [花石澗](#)
  - [寶珠池](#)
  - [六和泉](#)
  - [天井嶺](#)
  - [嘯月臺](#)
  - [怪石塢](#)
- [皖桐八詠](#)
  - [桐梓晴嵐](#)
  - [練潭秋月](#)
  - [投子曉鐘](#)
  - [孔城暮雪](#)
  - [浮山夕照](#)
  - [樅川夜雨](#)
  - [竹湖落鴈](#)

- [荻埠歸帆](#)
- [禮菴八詠](#)
  - [離墨峰](#)
  - [善卷洞](#)
  - [九斗壇](#)
  - [萬松嶺](#)
  - [洞山泉](#)
  - [明月池](#)
  - [藏直塔](#)
  - [待仙橋](#)
- [寶巖八詠](#)
  - [吳中石像](#)
  - [宋世槐陰](#)
  - [石屋嵐橋](#)
  - [考峰峙錫](#)
  - [東林叶月](#)
  - [西澗鳴泉](#)
  - [石蛙含珠](#)
  - [金雞宿水](#)
- [白雲八詠](#)
  - [香爐寺](#)
  - [白雲山](#)
  - [遶佛徑](#)
  - [出水蓮](#)
  - [流金](#)
  - [步月臺](#)
  - [帶玉谿](#)
  - [迴龍岡](#)
- [龍門八詠](#)
  - [龍門](#)
  - [瀑布](#)
  - [羅漢峰](#)
  - [天方池](#)
  - [白龍潭](#)
  - [雨珠崖](#)
  - [古藤洞](#)
  - [獅子峰](#)
- [山居](#)

- [經脫白處](#)
- [六十自敘](#)
- [讀木崖集](#)
- [訪投子青祖塔](#)
- [寓靈泉陳越樓姚羹湖丹楓潘木崖戴叔冶方世五東來過訪](#)
- [編百老和尚全錄有感](#)
- [懷淨土](#)
- [舟發楊子江訪青龍北和尚議刻先師遺稿](#)
- [再發楊子江會青龍方丈丐梓百老人法檀](#)
- [三發楊子江抵青龍圓成先老和尚全錄](#)
- [回青龍北和尚送老師全集入楞嚴大藏](#)
- [囑託楞嚴經主事](#)
- [留別青龍北和尚](#)
- [秋夜吟](#)
- [送耿玉齋歸楚](#)
- [游虎丘](#)
- [夕照](#)
- [題點易臺](#)
- [蘆花](#)
- [贈送袁重其](#)
- [再游西湖](#)
- [登太平寺萬壽閣](#)
- [即景回文次韻](#)
- [後序](#)
- [卷目次](#)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贊助資訊](#)

## 編輯說明

- 本電子書以「CBETA 電子佛典集成 Version 2023. Q4」為資料來源。
- 漢字呈現以 Unicode 3.0 為基礎，不在此範圍的字則採用組字式表達。
- 梵文悉曇字及蘭札字均採用羅馬轉寫字，如無轉寫字則提供字型圖檔。
- CBETA 對底本所做的修訂用字以紅色字元表示。
- 若有發現任何問題，歡迎來函 [service@cbeta.org](mailto:service@cbeta.org) 回報。
- 版權所有，歡迎自由流通，但禁止營利使用。

## 寒松操禪師說法之圖

寒松操禪師說法之圖



## 贊

鷲嶺一華嵩山五葉代轉金輪遞翻珠氎青原南岳甘露揚鑣杖橫兔角拂豎龜毛瑞百二翁模範天降乳滴曹谿為時龍象首得寒公作大導師酬機爍電出語成詞開法青龍宗風獨唱泐水波激崑峰月朗錫飛國岫大振全提狼突鷓張彼何人斯師顧嗒焉浮雲敝屣讓而不戶古善卷子雖隱安樂守塔志堅冒險築室孝義兩全蒼弁屢邀席繼祖苑塵垢金剛糝糠鐵面喬松千丈斗南一人凜矣高秋盎焉熙春。

荊溪法弟子陳維崧頓首贊

## 寒松操禪師語錄序

方今教外別傳之書流為世間何啻千萬識者憂其多而不可程也余獨以為不然蓋佳言妙句並非文字無絲毫意識之可尋故古之今之金聲玉振放之瀾綸宇宙收之不存涓滴千燈千照皆可以存其心養其性寒松大師蓋其人矣師神充氣浩眼正心空係洞宗正傳第三十世瑞老人之冢孫百和尚之嫡嗣也屢遷名剎倒卓烏藤啟天下之聾聵其垂手年深機辨縱橫雲蒸霞變四方問道者接踵而至其一言半句如珠在淵如寶在山雖欲隱藏沉痾詎可得耶信乎佳言妙句照世明燈開人心目豈小補哉。

虞山錢謙益沐手拜撰

達磨西來原無文字厥後宗師曲垂方便故有法寶流傳正謂道本無言因言顯道棒頭有眼機用全超寒松和尚出世多年宗風大振高懸寶鏡照徹十方拈一條棒尚無佛祖開兩片皮豈有滲漏是以橫說豎說正說倒說如世寶翁信手拈來取之不竭用之不窮俾大地人虛往實歸無不獲益雖然畢竟家珍在於何處讀是錄者請下一語。

山陰祁熊佳拜手敬題

## 寒松操禪師語錄序

今天下衣伽黎而坐曲彙者大江以南盈數百家求其不墜前人風烈為當世之所推許者蓋未可以僕數今於寒松和尚屈一雄指焉憶昔入就老人住百丈自余與百兄數人揚歷座下於時象蹴龍踏人人以古道自期曾幾何時而諸兄皆作先哲矣余以衰邁無似閉戶窮山雖祖燈羸成而邪說未息思得英傑十餘輩與之并力撐拄則亦可以上報先宗下接後學慧命而四顧寥寥莫為之應中夜撫膺百感交集幸斯道未喪爾者寒公與一二同人振拔於吳越江楚間於是望玉笥峰頭漸有喜色而寒公七坐名藍爐火轟爍猶為四方之所奔趨有投子大慧風烈祖武箕裘真堪不愧其語錄具在讀之者自能辨其機用也寒公住善權時遭法門大故而一杖飄然如棄

傳舍至今義興士大夫多其高風昔人論文章必及其人品余於茲錄亦云。

廬陵偶道人淨符題於錢塘之白岳山中

### 寒松操禪師語錄目錄

- 像
- 贊
- 序
- 開堂疏
- 第一卷
  - 住松江青龍隆福禪寺語錄
- 第二卷
  - 再住松江青龍隆福寺語錄
- 第三卷
  - 再住松江青龍隆福寺語錄
- 第四卷
  - 住常州國山善權禪寺語錄
  - 住安慶白雲山香爐寺語錄
- 第五卷
  - 住安慶寶嚴山雲際寺語錄
  - 再住常州國山善權寺語錄
- 第六卷
  - 住常州荊谿安樂禪院語錄
  - 住常州洞山善卷禮菴語錄
- 第七卷
  - 住湖州弁山龍華禪寺語錄
- 第八卷
  - 再住安慶白雲香爐寺語錄
- 第九卷
  -
- 第十卷
  - 座元寮秉拂語錄
  - 機緣問答
- 第十一卷
  - 普說
- 第十二卷
  - 拈頌古
- 第十三卷

- 拈頌古
- 第十四卷
  - 源流宗旨頌
- 第十五卷
  - 佛事
- 第十六卷
  - 筆語
- 第十七卷
  - 題贊
  - 雜著
  - 自序
- 第十八卷
  - 方外英萼
- 第十九卷
  - 九峰艸
- 第二十卷
  - 拈來艸

### 青龍開堂疏

伏以五葉花開嵩岫並敷於鷲嶺千流派涌洞源大演於龍江後五百年而再逢實千萬載之希邁恭惟寒翁大和尚猊座下桐谿踵跡梅塢韜光道業深淵探泗泓之正脈機投直指得弁嶽之真宗足福足慧足英才峙泰衡於宇內全彰全收全妙用羅星斗於胸中敬承奕世箕裘振起傳家衣鉢惟此青龍古剎首稱唐宋名藍性空師弄月吹雲鐵笛之餘音猶在百和尚敲風打雨烏藤之正令森嚴鳳起蛟騰纔見禪林美盛錫飛杯度又聞主席空虛若非入室白眉莫整高賢之矩必也超宗異目能承前哲之風懸寶鏡而罔象失威秉吹毛而野干碎膽庚等儒門樗櫟凡世菲葑蹭蹬宦途已醒浮華之夢優游法海將求解脫之方輸玉帶於無言何妨機鈍呼瓶鵝而隨出尚荷慈深惟冀俯念愚蒙即垂久可幢幡影動一天花雨蔽空來龍象聲喧滿逕香塵隨步涌欣法輪而大轉喜佛道以興隆草木含輝結彩雲於越嶠湖山增色布紫蓋於吳天異口同音引領合掌謹啟。

順治十七年三月十三日雲間(包爾庚 諸嗣郢)等疏

### 國山開堂疏

伏以洞水湯湯千古淵源開勝地國山奕奕三生功業勅名藍欲繼志以光前必丕承之有後恭惟寒翁大和尚克家麟趾弘道馬駒一柱砥中流挽頽波於叔季十年撐法社纘貽緒於艱危試之彼而有然施於此宜更效茲善

權禪寺肇自唐朝列祖風規隳於近代致使野狐山鬼清晝跳梁遂令偃柏雷書終朝失色乃明監院初開草昧驅豺虎而剪荆榛迨百老人大振綱宗坐狻猊而趨雲水擅東南一方之勝增唐宋三李之光辣掌寧拳方破眾生之夢雙林隻履條歸震旦之靈雖繼席再易其人寸木難支大廈而闡法久虛上座兩期已閉香廚問鼎潛謀輒垂涎於旦暮徹桑良策期禦侮於高明敢邀錫杖西飛慰父心以承父業試看鐵輪高運膺天眷以護天人曜等賦性凡愚皈心虔切愧乏黃金布地敢居護法之倫幸有赤膽包身願執降魔之杵伏願俯從眾志式肯邇來青龍興而善權又興箕裘迭紹子孝著而宗風益著花葉重芳殿閣千尋騰寶光於午夜松楸十里分翠色於諸天仰冀丙原可勝寅肅臨啟無任悚切翹勤之至謹疏。  
康熙十年四月十三日荆溪蔣(曜 胤修)等疏

### 白雲寶巖開堂疏

伏以天柱祥麟趾遍江南而寶珠承足桐谿威鳳羽儀塞北而珥筆生花本來文苑奇英洵是法門梁棟恭惟寒松大和尚猊座下子陵遐胤珊珊丰骨清奇弁嶽正傳曄曄門庭高峻才優班馬曾別硯而還山學富陳劉乃披衣而得座絕六塵而超六相真能承二桂家風入三昧而達三明盡得闡五宗堂奧法開隆福一人轉億萬刹之規模席繼善權尺土衍千百年之基業惟此香爐勝境元非近代名藍雲際禪林盡是唐朝古刹久矣二山乏主確乎多載思公佇瞻道價為尊啟承後烈遙企德音作範光耀前庥玄鶴歸來識得當年風月青獅逸出重開舊日雲山秉慧鋒而破昏衢施智燭而輝長夜然等欲從竺國若非顛老酬機莫契忙中省要有志香山端賴晦公指示方知格外真常冀涉水而攀巖亦披雲而問渡伏願弘揚宗旨祖燈共佛日長明大展法輪象力與獅弦並演黃鸝枝上龍舒三月皆春白鷺田中皖水一天流碧甘雨時霖于紀極法雷頻響于寰區化洽人天功超賢聖臨穎神馳翹企之至謹疏。  
康熙十一年二月初吉龍眠(姚文然 程芳朝)等疏

### 安樂院開堂疏

隱不擇地豈買山之可安佛欲棲雲縱泛海而非遠托可中之鉢不必獅巖結午夜之跏何須牛首恭惟寒松大和尚人天法慧雲海弘慈入次第之定五色皆空遊解脫之門一塵不染處必爭之地而示以無爭舍罔覺之場而歸於有覺洵擊海之慈航乃迷津之寶筏啟禱等情深頂禮志切皈依掃竹枝之舍暫作旃林剪罽畫之薇權充優鉢雖非奈園之勝亦稱鹿苑之精所望惠然肯顧不我遐遺袈裟佈處頓令大地作黃金寶錫飛時俄使凡鳥瞻白鳳則花雨邐飛法門有慶祥雲普被善信知歸不勝翹企之至。  
康熙十二年臘月十一日荆溪(周啟嵩 儲振)等疏

## 禮菴上梁開堂疏

恭惟寒大和尚洞山獨秀歲寒知松柏之尊龍樹同榮剝復見優曇之貴被忍辱鎧作大道干城吹大法螺為降魔寶杵當雙林之回首號泣呼天矢端木之堅心精誠動地昆季實繁獨賢勞而建窳堵折衝丕振爰高舉以避波旬天道好還人心思舊辭百堵之重興願十年而守塔誅茅闢土不煩緇素銖銖築室開場盡變青氈基業今者虹梁建極凌虛綵結千重惟祈獅吼震林普施法音億麗合詞虔請眾望允歸。

康熙十四年四月二十七日義興(陳維崧史惟圓)等疏

## 弁山開堂疏

伏以事由律制似有定而無移道以時行每理長而輒就居恒遵度猶須方矩圓規濟亟衡權始克聯珠合璧恭惟寒松大和尚客宿華宗曹谿嫡乳由桐江而傳桐邑韞鷲嶺之一花自善慶以主善權振嵩山之雙桂瑞翁奕葉推弁巘之鳳毛百老蕃根頌仰峰之麟趾龍岡遙接青龍寺無非道顯龍華國師謀占吳國山其柰棋逢國手雖爾雷書偃柏名勝銷亡依然山鬼埜狐禱張奄息禮菴精舍以無爭而止爭安樂名藍憫大覺之罔覺允矣魔難勝佛信然正可挫邪既七坐乎道場宜一歸夫祖苑惟是龍華片席實為大廈難支無祿雙林遄返三年之案未圓猶欣巨植久歸一柱之擎有在斯等敬遵公議不敢私圖人惟求舊既山主之心同條聿維新亦諸方之志一雖復築場念切欲嗣端木之儒風其如請法意誠宜赴華林之大任伏願龍安飛錫庶幾祖業孫承鷗適渡杯咸使肯堂復構得蒙俞允實慰翹勤謹啟。

康熙十七年臘月初吉吳興(嚴我斯 丁珩)等疏

寒松操禪師語錄卷第一

嗣法門人德昊編錄

## 住松江青龍隆福禪寺語錄

師於順治庚子春即座元寮受請主院事。

佛殿黃閣簾垂正不居正紫羅帳啟偏不坐偏正當恁麼時還是正耶偏耶虛空開口笑子午不相沖。

伽藍正大光明絕覆藏護持法席作金湯昔年弘誓深如海今日聊為爇炷香。

祖堂者夥老古錐何異綠林客爭怪後代人捉盡伊敗缺未審以何為證喝一喝云獅兒一吼祖翁盡。

方丈寶鏡高懸活捉九苞之威鳳神鋒倒握生擒獨角之祥麟此是吾老人土苴緒餘祇如山僧到來又如何施設卓拄杖云看取令行時。

老和尚命送衲衣法帔至開堂拈疏一點一畫錦繡輝煌一字一行珠璣宛轉展開則魔魅潛消收藏則正法久住若作佛法商量埋沒自己不作佛法商量辜負現前畢竟如何度疏與維那試念念看。

法座須彌燈王從空放下新來長老特地陞高不是神通妙用亦非法爾如然顧左右云高著眼遂陞。

拈香此一瓣香在天同天在人同人爇向爐中供養釋迦文佛歷代祖師惟冀法燈無盡法雨恒飄此一瓣香秉天地之正氣惟德惟馨萃日月之精華乃聖乃神端為祝延皇帝萬歲萬歲萬萬歲欽願永建皇極於域中萬邦效順覃敷五福於海外兆姓謳歌此一瓣香運絲綸於掌上治國兼以治心斂法界於毫端選官因而選佛奉為滿朝文武府縣宰官遐邇紳衿本山檀護惟冀心廣恒來留玉帶名高長得覆金甌復懷中出香云此一瓣香數千里外撥草瞻風十餘年來霜侵雪凍拶得通身骨露猶遭暗地拳傷滿腹無明一朝拈出端為礪城古昭慶寺堂上洞宗正傳第二十九世百愚斯老和尚用酬法乳之恩斂衣就座紫谷大師白椎云法筵龍象眾當觀第一義師云正令全提十方坐斷大座當軒了無回互果是真龍象不妨蹴踏看問曹源一滴洞水分流向上宗乘如何舉唱師云九峰疊翠涌千江進云出格人來又作麼生師云痛與三十棒進云青龍現瑞金毛吼佛日高輝萬古傳師云莫塗污他好乃展衣帔云若論此事本自現成覲面拈來絲毫不隔輝增三卯之光湛湛一壺風月彩奪九峰之秀澗澗滿日雲霞打成一片時鍼筍不入羅紋結角處線路難尋古佛堂中曾無異說流通句內卻有多談百千年來紹續不易直得異獸珍禽同現遮那之妙相機絲文彩共轉根本之法輪樂助無為咸揚至化大眾會麼良久云一氣不言含有象萬靈何處謝無私起身敘謝云某愧薄福自揣無能忝居眾首實不知量叵耐師命及諸檀那時相憊屈陞此座伏念樗木庸材奚堪大任但因長者有命只得歡喜奉行今則開堂祝聖一期佛事幸已云周所冀堯風浩蕩舜日長明在筵諸公世世證無生之旨見前知識處處建最勝之幢有煩久立伏惟珍重復舉世尊初成正覺於鹿野苑中轉四諦法輪憍陳如比丘最初悟道山僧初會開法於青龍寺裏祇轉者箇○法輪還有最初悟道者麼設有也須痛棒趁出復白椎云諦觀法王法法王法如是下座。

當晚小參人人衣線下有片田地曠大劫來曾未欠少只因向聲色門頭逐物迷己年深月久不覺不知失卻祖券了也不見隆福舊基實乃唐宋古剎性空鐵笛韻響於雲間道者法華蓮生於兜率元明以來菽麥不分變瓊瑤而成頑石化寶所而作荆榛賴吾老人應時傑出脫珍披敝激濁揚清拈起鑊頭頓使鑊頭起舞拋開瓦礫直教瓦礫放光種種妙用處處提撕無非發明者片田地而已汝等諸人要識者片田地正好鏟其聲削其蹟折其塹去其籬了無爾我之情不留彼此之念忽然踢破指頭元來只在者裏雖然更須知守成不易始得何故雪後始知松柏操事難方見丈夫心。

立兩序上堂孤掌難鳴眾擎易舉矮師叔常聽法於香巖座下老三聖曾推僧於寶壽堂前典型在邇景行可觀若古若今事同一致苟非公謹廉能之士難以承當必也尊上愛下之心方堪委任到者裏說甚高菴出世七人為輔今古名聞者哉卓拄杖云正恁麼時畢竟如何話會大家齊出手扶起破砂盆。

聖節上堂大哉乾元萬物資始鈞陶有象垂拱無為是謂天中之天聖中之聖且道全身奉重如何舉揚豎拂子云長將日月為天眼指出須彌作壽山。

上堂祖意分明在目前何須向外覓言詮菜鋪一片黃金地麥涌千層碧玉天香飛幽谷蘭初放絲拂長堤柳乍眠六相迴然離向背三玄裂破沒中邊須領略莫浪傳月出連山露半邊。

上堂問荊棘叢生三二五是誰行履處師云手執金鞭問歸客夜深誰共御街行進云煙雲罩徑孰能尋尋即錯過不尋轉失如何免得師云將謂少林消息斷桃花依舊笑春風進云烏雞冒雨衝陽燄還是正耶偏耶師云梅落珠簾寂香銷石鼎寒進云赤竦穿樓和啞音明今時事那畔事師云木雞啼子夜鐵鳳叫天明進云廣澤蘆花藏雪密不是一色邊事作麼生會師云雪覆萬松徑遊人仔細看進云收綸釣艇弄灣深不犯清波如何拋擲師云谿邊楊柳影不礙釣舟行進云當軒黯黯無秦鏡正恁麼時如何辨的師云夜深方見把鍼人進云散髮齊眉下翠岑古人到此為何站腳不住師云坐卻白雲宗不妙進云謝師荅話師云投子道底乃云荊棘叢生三二五手執靈符司正令煙雲罩徑孰能尋夜深幾箇知名姓烏雞冒雨衝陽燄龍樓人醉鳳樓春赤竦穿樓和啞音漢時客佩秦時鏡廣澤蘆花藏雪密玉鉤倒掛水晶簾收綸釣艇弄灣深白額轉藏欹石磴當軒黯黯無秦鏡一片雄風仔細看散髮齊眉下翠岑異中來也誰深醒諸昆仲古人道底與青龍道底其間還有優劣也無少年一段風流事祇許佳人獨自知。

佛誕日眾沙彌剃度上堂今朝四月八咄哉小悉達腳根立不牢弄巧反成拙爭如大地人箇箇咸超越憤志入無為辭親將愛割飄然來青龍懇求落鬚髮說甚度雙親九族苦亦拔更聽吾一言慎勿看輕忽出家果如初畢竟成上哲喝一喝云放下著。

上堂豎拂子云摩尼珠人不識如來藏裏親收得大小永嘉分別不少只此一珠若凡若聖若俗若僧隱現青黃從心所欲阿誰無分豈特如來藏而已哉復豎拂云大眾還識摩尼珠麼罔象到時光燦爛離婁行處浪滔天。

誕日上堂潦倒行年三十五法門慚愧毫無補頻開太歲頭邊土氣寰宇慣把三更打日午大眾懇懃求法乳無端請作主中主好看放出玄沙虎吞佛祖謾道為人太莽鹵喝一喝下座。

開爐上堂安居樹下何殊管見之流面壁巖前大似斗筲之輩爭如我以天地為爐韜日月為炭豎拄杖化為文殊普賢拂子變作觀音勢至巡香底巡香值日底值日灑掃底灑掃搬運底搬運時刻在諸人眼裏耳裏出出入入你且看他圖箇甚麼若簡點得出許你參學事畢復舉法昌遇禪師云法昌

今日開爐行腳僧無一箇惟有十八高人緘口圍爐打坐後福源琪長老云福源今日開爐炭擊也無一箇五湖四海禪和衲被蒙頭打坐怪哉二凍儂半斤對八兩山僧則不然青龍今日開爐親切無如者箇任從睡臥經行何必拘拘打坐喝一喝云看腳下。

至法華菴請上堂湖山高臥枕清流日視雲霄十有秋天霽曉來風力便一帆練水泛輕舟雲冉冉水悠悠滿載雲霞任去留不似明州愍布袋祇觀風色下金鉤還有躍浪錦鱗麼揮拂云收。

上堂一心不生萬法無咎真空絕蹟大智非明至道無為靈源獨耀向上一路千聖不傳學者勞形如猿捉影若謂即心即佛何殊畫餅充饑更云非佛非心不啻望梅止渴畢竟如何即是若不打從山下過怎知鶴唳與猿啼。至日上堂昨夜冷灰裏一粒豆爆將昇僊臺打失了半邊驚得王可交手舞足蹈鼓腹而歌妙矣哉妙矣哉岸容待臘將舒柳天氣衝寒欲放梅忽被陳那尊者震威一喝云此是甚麼所在作者般語話殊不知我衲僧家頂門上時時一陽來復腳跟下日日萬彙發生似你者等呵寒向熱逐境生情者豈可同日而語哉如是可交僊人直得滿面慚惶而退是汝諸人還信得及麼此言如不信更請問庖羲。

朱護法得子請小參好箇仲冬十五消息現前誰睹冉冉谿雲半灘冪冪松煙一塢曉風散作七片八片細雨織成三縷五縷端是成家鏃基會得迴超今古何須東魯詩書怡然氣冠寰宇何必西來旨趣卓爾口吞佛祖誠為跨灶之裔諒必繩其祖武且道具甚威光便乃感應如許皇天無私惟德是輔。

監寺請陞座至道無難惟嫌揀擇但莫憎愛洞然明白堯舜帥天下以仁而民從之桀紂帥天下以暴而民從之養老歸呂夷流言誅管蔡齊女展兩家之袒紀妻變一國之俗里名勝母而不入邑號朝歌以回車備頭陀常取魚於浩渺則監寺獨求火於丙丁未審還是揀擇耶憎愛耶試聽一頌日長閒打坐夜靜卻經行一陣西風起滿林落葉聲揀不揀憎不憎風光滿目皆成現奚待當年問丙丁。

臘八上堂舉古德云臘八喫雞羹纔疑禍便生谿邊楊柳影不礙釣舟行後傑峰和尚云古人與麼道大悟不拘小節未免與賊過梯引邪入正與國則不然臘八喫紅糟叢林意氣豪酣酣沉醉倒更不惹風騷看來兩箇無孔鐵鎚何異普州人事青龍也不喫雞羹也不喫紅糟亦無禍可生亦無氣可豪惟有由拳善信年年此日設齋表嘍兼請舉揚也有少許臘八喫香齋禪和頗快哉一飽無餘事不用更安排。

上堂問祖意西來即不問洞上宗風事若何師云寧可截舌不犯國諱如何是正中偏師云畫堂寶鼎起青煙如何是偏中正師云玉案香銷金鴨冷如何是正中來師云赤腳波斯下釣臺如何是兼中至師云龍吟虎嘯看雄勢如何是兼中到師云佛與眾生一齊掃進云曾向龍門浪裏過今日方知滄海寬師云饒知浩渺無涯際也須入水見長人遂豎拂云只者箇本來無名天地以之而生萬物以之而育橫按拂云名可名非常名名既非實體亦寂

然擊香几云無中生有有中生無名言不滯纖塵不染搭肩上云殺活同時照用齊彰通宗通途挾帶挾路拂一拂云有無不立能所雙忘佛祖莫知其由凡情罔測其際放下拂云是正耶偏耶兼帶耶寧可截舌不犯國諱。

除夕小參問正恁麼時如何師云法鼓三通請除夕進云除夕後響師云畫蛇何必重添足乃云正當恁麼時如何法鼓三通請除夕猛然特地起春雷一眾堂堂赤骨立既爾大家知此時畫蛇何必重添足。

天成披剃請上堂柳窺白日堤邊翠影婆娑梅笑清風雲外暗香浮動一溪流水調鍾子之宮商數畝幽篁奏伶倫之律呂歷歷真機獨露堂堂祖意分明於此會得不剃髮而僧相周圓不登壇而尸羅具足說甚出家乃大丈夫事非將相之所能為無勞彈指直下超凡入聖去也且道因何所致博盡世間黃金難買主張白肯。

解冬上堂九旬把住咽喉今日解開袋頭放出神睛鬼面趁起為山牯牛瀟灑峰前溪後縱橫柳巷花樓踏翻百億香海踢倒四大部洲忽遇庖丁游刃如何免得其憂若還無計可脫不如直下且休休不休隨緣水草消閒日免被花燈換兩眸。

上堂萬頃波濤三泖月獨照無私千重翠鎖九峰雲流光靡間由是真風遍界大用繁興剝剝全彰頭頭顯露入塵垂手變大地作黃金返本還源攪長河為酥酪且道誰是其人喝一喝云無限風流慵賣弄閒乘一葦泛滄洲。晚參青龍家法道出尋常種田博飯引水灌蔬蘆蕨夾壁葦幹垂簾燈有月可待地有風可掃瓦有雲可蓋蓆有草可眠湯不嫌無醬菜不嫌無油上不慕於諸聖下不重於己靈勝他高梁大廈之家何殊篋瓢陋巷之樂貴客緇衣到此一般如是安排若還問若西來大意除卻鋤花種荳更無別物可酬未審還有為人處麼少頃到齋堂應供切忌將飯送在鼻孔裏珍重。

上堂問如何是金剛寶劍師云光含萬象侵人面如何是踞地獅子師云聲摧海嶽驚山鬼如何是探竿影草師云一點不來命難保如何是一喝不作一喝用師云白雲牽得青山動進云四喝未彰已前請師一接師打云切忌錯會乃云佛道閒曠不涉程途建立垂真俱非本色先聖事不獲已乃有四喝之設上根利士一舉便知中下之機幸毋錯會遂喝一喝召眾云聞麼即此一喝世尊拈花也在裏許達磨西來也在裏許正偏功勳也在裏許圓相玄要也在裏許三句六義也在裏許金剛寶劍也在裏許踞地獅子也在裏許探竿影草也在裏許一喝不作一喝用也在裏許以至五車三藏一切淆訛公案亦無不在裏許復喝一喝云還會麼即此一喝是拈花耶西來意耶偏正功勳耶圓相玄要耶三句六義耶金剛寶劍耶踞地獅子耶探竿影草耶一喝不作一喝用耶五車三藏耶一切淆訛公案耶又喝一喝云即此一喝拈花也不可得西來意也不可得偏正功勳也不可得圓相玄要也不可得三句六義也不可得金剛寶劍也不可得踞地獅子也不可得探竿影草也不可得一喝不作一喝用也不可得五車三藏也不可得一切淆訛公案也不可得祇者不可得亦不可得正恁麼時諸人作麼生委悉喝一喝云切忌錯會。

金陵王護法誕日請上堂豎拂云大眾見麼河上老人坐古槎合丹祇用青蓮花於此見得莫道山僧措大相在寶華王座上誦他好句於此不見而今八十猶四十口道滄溟是我家。

晚參我見瞞人漢如籃提水走急急走歸家籃裏何曾有以拂左擊云寒山子且立者邊著我見頑鈍人燈心柱須彌蟻子嚙大樹焉知氣力微以拂右擊云拾得子且立者邊著將謂你二人別有長處遇此頑瞞人境便打不過討甚好文殊普賢青龍即不然不受頑瞞不近情是非榮辱豈相侵夜深獨把香臺拍只有長天識此心。

大士聖誕請上堂普門大士在楊柳眼中現八萬四千爍迦羅首能以無畏施諸眾生從聞思修入三摩地復舒八萬四千母陀羅臂向空中大書今日誕生四字大眾點畫既成畢竟是何格局既非邯鄲楷法豈是懷素草書。洞庭顧護法請上堂拈拄杖云一卓如出水蛟龍一卓如踞地獅子一卓尊貴兩忘一卓理事兼備大眾何為尊貴兩忘試道看問道即不無如何是出水蛟龍師云滿天雲鬣鬣如何是踞地獅子師云到處獸潛藏如何是尊貴兩忘師云當堂慵正坐如何是理事兼備師云覲面卻相逢進云謝師荅話師便打。

上堂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云烏藤長七尺進云意旨如何師便打乃云青龍直指祖師禪不在文章錦繡邊棒下翻身能脫略長鯨吞月浪滔天。晚參天欲人人與道謀肯教佛面每搜求一瓢道在高於祿五斗名傳貴似侯生死總成花上露是非誰識水中漚尋常莫畜心田草只恐將來苦未休。

至集慶寺眾紳衿請上堂舉一明三日機銖兩十方坐斷大地全收猶是釘椿搖櫓抱橋柱洗腳況復言中取則句裏呈機何異鄭州出曹門南轅而北轍殊不知當人腳跟下一著子天地不能包其廣日月不能並其明一言迴脫獨拔今時塵中作主化外來賓雖在途中不離家舍是處是彌勒無門無善財拈拄杖云所以者漢時或撐天拄地時或帶水拖泥帶水拖泥處不妨撐天拄地撐天拄地時奚礙帶水拖泥一動一靜歷無邊刹一語一默現無邊身是汝諸人作麼生見伊行履處卓一卓云城市不堪留錫久恐驚鶯囀畫樓前。

王思受李仁甫二居士請上堂金佛不度爐霜飛炎日滿皇都木佛不度火陸地蓮開千萬朵泥佛不度水一聲鐵笛雙鳧起惟有真佛屋裏坐喝一喝云切忌逢人更說破。

結夏上堂欲了生死大事莫若參禪為最宜乎發大信心必也具大根器內外迴絕諸緣精進堅立其志晨昏莫顧危亡行坐須加猛利不分南北東西休管飽饑寤寐卻將妄想昏沉並作話頭參觀忽朝撲落虛空佛祖安敢近視從教婢使雲門一任奴呼臨濟擊竹[祝/土]指拈花都是眼中著刺若也不曾恁麼切忌未會稱會般若雖乃善因開口莫當容易八十翁翁入場真誠非是兒戲果然頂門豁開自到古人地位祇如到後又若何閒眺飛雲自往還一聲長嘯驚天地下座。

天都胡朝奉為母祝壽請上堂豎拂云無量壽佛在此放眉間白毫相光遍照恒沙國土演大般若顯大神通作大佛事能以方便智慧令諸有情所求皆遂若也端的不須動舌一句圓該不必求僊雙全福壽大眾無量壽佛既有如是威德青龍如何與他作證揮拂云恒演重重功德聚都來顯現一毫端。

上堂問不立功勳機用如何是曹洞宗師云金輪詔下紫泥封進云掃除玄要權衡喚甚作臨濟宗師云鐵鞭塞外打雷公進云打開一字關鍵那箇是雲門宗師云碧油幢動起清風進云拋卻多方施設將誰成為仰宗師云明星光耀掛蒼穹進云拈去聲之與色以何為法眼宗師云萬象收歸一鑑中僧禮拜師云還有一宗擗僧擬議師便打乃云山僧未出方丈早已派演新豐踏翻韶陽斗柄源窮濟水撲滅大瀉火星騎聲蓋色總為諸人漏泄了也況復陸座設問又且茫然只得再請幾位無情上座為汝諸人發明本有大眾淞濤滾滾環古寺而報春回寶殿巍巍鎮龍江而分夕照浮圖秋月或暗或明自是清輝不夜靜夜聞鐘似無似有從教夢破幽人鞭泥牛耕平田之煙雨驅木偶乘竹院之晚涼遠望松林雪霽而瀑瀉崖頭近看橋畔僧歸而錫飛水面所以法法闡明箇事頭頭揭示五宗明則事同一家不明萬別千差差別且置豎拂云祇如五宗還有者箇麼參。

上堂即心即佛九峰煙雨眉公畫非心非佛三泖人家玄宰詩不是心不是佛不是物人從占波來卻得新羅信青龍與麼告報也是金剛與泥人揩背。

小參三分光陰二早過甕裏何曾走卻驚靈臺一點不揩磨本自圓成磨甚底貪生逐日區區去不風流處也風流喚不回頭爭奈何靈利衲僧有幾箇雪竇與麼道青龍恁麼判者裏擔荷得去便可轉天關回地軸移南辰易北斗黑漆桶望空[跳-兆+孛]跳黃金圈匝地騰驤本自不迷今復何悟苦樂逆順得失是非皆為現行三昧山河大地明暗色空總是自己家珍頭頭上明物物上顯有甚禪道佛法之相而可分別者哉如其未然更有一偈聊資鞭影三七工夫一七過英靈莫與日消磨迷時祖意東西隔悟後佛難奈爾何問未打七時人人鼻孔撩天既打七後為何杳無消息師云道泰不傳天子令時清休唱太平歌進云恁麼則激潭無影像片月自孤圓師云夜半一輪千嶂外韓盧空對影徘徊僧擬議師打出。

端午上堂今日是何時報道端陽節文殊忍不禁善財忙不徹舉頭遍界觀弄巧都成拙爭似衲僧家迥然用各別鼻不染雄黃手不捏符訣筆借須彌盧墨研滄海渤一點落虛空赤口盡消滅大眾道他憑箇甚麼便有如是奇特卓拄杖云急急如律令敕。

李洛文文學得男福隆請上堂舉雲門因僧問如何是和尚家風門云有讀書人來報大慧曰讀書人既到者裏且如何與伊相見不是冤家不聚頭師云雲門施格外之機大慧有超宗之辨可謂二俱敏手祇如相見後又作麼生收拾詩書歸舊隱烏啼花笑一般春。

上堂拂拂秋風遍九垓晚香浮動遶僊臺空生無意巖中坐引得天花動地來若是玉老師便道修行無力卻被神鬼覷破須知青龍者裏無修無證無變無遷拄杖靠壁袈裟半肩饑則加餐倦則安眠開門七件賴彼人天不將閒事罨在心田阿呵呵但得時無憎愛也勝平地登僊。

自省薦慈德璠雪尤請上堂昨夜青龍塔身涌虛空白鶴江口吞滄溟從教魔宮瓦解惡道潛消業海化為清涼罪山變作淨域其間若凡若聖若冤若親若男若女覓福了不可得覓罪了不可得覓生了不可得覓死了不可得覓淨了不可得覓穢了不可得只此了不可得都盧是箇大圓鏡智未審陳氏安人又在甚處行藏良久云金輪不隱的遍界絕紅塵。

上堂世尊拈花淨地撒沙迦葉微笑轉眼失照香巖擊竹妄通消息靈雲見桃魚魯刁刀者夥龍鍾老兒總是倚草附木有甚交涉拈拄杖云爭似者箇孤迥迥峭巍巍有時恁麼賢愚並愛愈老愈親有時不恁麼扣人見血又道慈悲有時恁麼中不恁麼放出南山鱉鼻咬殺長沙大蟲有時不恁麼中卻恁麼青山綠水閒終日明月清風富一生大眾正恁麼時如何卓一卓云手指空時天地轉回頭石馬出紗籠。

晚參舉同安丕禪師因僧問如何是和尚家風安云金雞抱子歸霄漢玉兔懷胎入紫微曰客來將何祇待安云金果朝來猿摘去玉花晚後鳳銜歸師云同安家風太煞尊貴有問青龍如何是和尚家風但云漏筮籬撈無米飯破砂盆搗爛生薑客來將何祇待曰饑餐渴飲渾無事聽雨聞風倦打眠。解夏上堂荏苒韶光春復秋伶俜何事屢閒遊家財無託誰堪惜幸有清風為解愁大眾祇如愁作麼生解高樓曾聽歌聲好你若無心我便休。

誕日上堂自出娘生皮袋一杖翛然物外悟得未生已前觸著虛空粉碎不知詔笑逢迎不解看經禮拜鬚眉長帶煙霞袈裟深染沆瀣有為翻作無為貴買何妨賤賣攤向十字街頭問有誰來話會且喜寶塔僊臺共證此箇三昧且如何是此箇三昧參。

上堂父母所生眼悉見三千界且道非非想天幾人坐臥代曰本來無位次不用更安排。

彌勒佛開光上堂今佛放光明助發實相義以拂子畫○相云拂放光矣作麼生是實相義復畫◎相云發實相義矣如何是放的光明者裏見得人人頂門上有尊古佛三身四智五眼六通三十二相八十種好無量恒沙功德常在六門放光動地照古明今轉大法輪作大佛事示教利喜一切天龍八部人非人等異口同音而作言曰彌勒真彌勒分身千百億時時示時人還有道得末後句者麼。

(弟子德費備資敬刻)

方丈和尚語錄第一卷普願佛日增輝

法輪常轉般若智以現前菩提心

而不退)

寒松操禪師語錄卷第一

再住松江青龍隆福寺語錄

師於康熙壬寅春受請至上元後六日當道紳衿送入方丈舊主人登新丈室重來新整舊生涯不向言中分玉石肯從棒下驗龍蛇顧左右云你道畢竟有甚長處辨的不須懸白澤森羅何處避菱華。

開堂拈疏大地研為墨虛空打作箋纔寫上大人遂成丘乙己若是化三方便可知禮也。

法座毘耶借居干求分外多寶分座行履非然何似我為法王於法自在遂陞座。

拈香此一瓣香明同日月德合乾坤爇向爐中端為皇上祝延聖壽伏願虹瑞兆禎祥之慶箕翼長明洛書錫中外之休地天交泰此一瓣香為雲為蓋為翰為屏奉為蒞省公侯牧民宰執本山檀護闔郡紳衿惟冀教家成國學佛知儒黃河再清師聖人於百世法幢高豎標梵刹於諸方此一瓣香廓爾圓明收來曠大劫遠靈知靜妙放去周遍恒沙今對人天重為拈出供養中興隆福堂上傳洞上正宗第二十九世百愚斯老和尚不圖報德酬恩只貴知源識本就座白椎竟師云祇者第一義適被鹵同門一椎粉碎了也直得普天匝地滿眼滿耳還有識得者消息者麼出來道看問昔繼龍江登此座朝來復就事如何師云金鉤再擲江湖闊進云此是門庭施設如何是復就底事師云玉管仍吹日月長進云龍得水時添意氣虎逢山勢長威獰師云知音不必頻頻舉達者須知暗裏驚乃豎拂云一番提起一番新收放全憑箇裏人不是渠儂重出令祇為消息要分明所以黃面瞿曇於華嚴會上雙垂兩相布七處之慈雲二始同時施九會之法雨復於靈山一曲高唱陽春金色頭陀破顏微笑也祇為者箇消息竺乾四七震旦二三器器相投聲聲相和奏絕聽之希韻發太古之清音也祇為者箇消息由是青原派大南嶽風高二傳至於洞山五位權分語脈渾無滲漏一音大闡宮商不犯纖毫也祇為者箇消息更乃調入雲居引來鳳棲鳳嶺機契同安端的龍生龍兒三世至於鹿門覺祖萬壽流芳寶翁續燄十四傳於慈舟念公大啟雲門高撐石傘重賡新豐古調再扇靈鷲真風也祇為者箇消息自此瑞產桐谿繩其祖武橫拈鐵笛而師曠失聰倒握吹毛而野干碎膽九坐道場十會說法也祇為者箇消息幸出吾師善繼善述黃鐘大呂遠徹寰區衛響鄭音遏絕雲外屢開法於巨刹常垂釣於龍江也祇為者箇消息揮拂云昔繼龍江登此座朝來復就怎敷揚金鉤再擲江湖闊玉管仍吹日月長復舉青原思禪師因僧問如何是佛法大意原顧僧曰廬陵米作麼價師云青原只解享太平

家業不能復上古淳風有問山僧如何是佛法大意但云青龍載住圓前案且道與古人是同是別復白椎下座。

康熙改元上堂寶位纔登千山拱秀綸音時降萬派朝宗正恁麼時直得黃河清徹臣退位以朝君白日流輝子轉身而就父山林泉石共沐恩光草木禽魚咸沾膏澤然此猶是聖主御世邊事若夫就之如日望之如雲盡大地人無啟口處。

立監院上堂尊上敬下理無二致為人為己事同一心能如是也正好作而無作為而無為捏雙空手要與八大龍王鬥富令他虛而往實而歸山僧落得半衫半履或濯足於澗湖坐看雲流水逝或彈冠於崑岫閒吟月白風清並不問廬陵米作麼價亦不說三十年不少鹽醬畢竟如何自有天成監院在復舉龍牙云天下名山到因腳辛苦年深與襪著而今老大不能行手裏把柄破木杓慚愧青龍卻不與麼自下桐城走赤腳遍參皆為者一著而今雖任住持勞管甚笨籬與木杓大眾且道其中意作麼生端坐受供養施主常安樂。

韋馱聖誕吳氏望檀護祈嗣請上堂豎拂云韋馱菩薩來也拂子頭上誕生香煙堆裏垂手童真示現普眼遙觀轉大根本法輪說甚深修多羅使未信解者令得信解未承紹者令得承紹一音演唱隨心所解天人群生類皆承此恩力大眾見麼縱饒見得道他露柱懷胎是男是女擲拂云大好消息。上堂僧問現前佛法即不問如何是轉位就功師云無影枝頭花爛熳如何是轉功就位師云百花叢裏絕芬芳如何是功位齊彰師云鐘聲古殿排班早如何是功位俱隱師云月落蒼梧彩鳳翔進云青龍寶鏡明如日照徹威音那畔天師云莫塗污人好乃云無影枝頭花爛熳百花叢裏絕芬芳鐘聲古殿排班早月落蒼梧彩鳳翔箇中事好參詳威音那畔真消息覲面分明絕覆藏。

小參柴米油鹽醬酢茶般般俱在別人家不消活計希求得且看蓮開數朵花。

誕日汪護法保男福慧請上堂法筵龍象眾當觀第一義時閒已舉揚今特重指示拈拄杖云祇此頂天立地邁古超今不假功勳寧容修証巍巍乎岡陵無以同其高洋洋乎江漢無以喻其廣尊貴中之尊貴相承佛祖家風異常中之異常克紹人天種智延一剎那而為無量迴出機先不墮諸數卓一卓云大眾會麼不是渠儂多意氣他家曾踏上頭關問時已龍象蹴踏今又法雨天華其間消息是同是別師云靈根已結千年瑞玉樹今開八月花進云恁麼則兩彩一賽師云言前無的旨句後莫追尋。

開爐上堂問弘開爐鞴煨凡煉聖漫天布網打鳳羅龍倘遇羅籠不得底如何相接師云揭開萬里神光提出倚天長劍進云東西不住南北不停者怎生款待師云維摩掌中安世界普賢毛孔著程途進云總不恁麼來者又如何師云燄裏好看轟霹靂華飛片雪滿乾坤乃云弘開爐鞴是鐵亦鎔非鐵亦鎔揭開萬里神光煨煉聖凡佛來也掃魔來也掃提出倚天長劍維摩掌

中拓開世界普賢毛孔寬著程途東方來者東方坐分付顏子去墨埃飯供養伊西方來者西方坐分付易牙烹露葵羹供養伊南方來者南方坐分付純陀炊無米飯供養伊北方來者北方坐分付牧女調不溼羹供養伊總不恁麼來者又如何燄裏好看轟霹靂花飛片雪滿乾坤。

冬至上堂問六陰充塞時姑置萬彙昭蘇事若何師云凍雲開大野進云前村深雪裏昨夜一枝開是何消息師云春色露千峰進云不是一番寒徹骨爭得梅花撲鼻香師云逢人莫錯舉乃云雲凝大野明暗奚分雪霽千峰正偏互列把住則六陰充塞放行則萬彙昭蘇以致東廊前西廊後燈籠發問露柱酬機一箇道一九二九相逢不出手一箇道天寒地寒鴨兒凍得觜匾雙雙各稱己見彼彼互相熱瞞不期撞著無位真人驀頭一擲直得焰發冰河筍抽石寶露柱轉身朝禁殿燈籠沿壁上天台是汝諸人還識者時節麼不是一番寒徹骨爭得梅花撲鼻香。

薦亡請上堂慙慙發願往西方為薦夫君請舉揚霞籠碧嶂如纓綴日照青谿勝錦粧網列七重為寶蓋蓮開九品作慈航常聞天樂鳴天鼓靜聽法音繞法幢水鳥時時談妙義山林處處演真常本來勢至休他覓自性彌陀全體彰直下踏翻生死路不妨隨處任行藏。

小參過河須用筏學道須立志志不立難以悟心宗筏不用無由登彼岸看他釋迦彌勒初無他術只是能篤信立志願底凡夫耳然此志此願大不容易雖不容易亦未為難實在二六時中行住坐臥折旋俯仰之時一不宜驅昏遣散二不宜趨靜避喧三不宜窮玄索妙四不宜捨妄求真五不宜執有著無六不宜揀凡擇聖七不宜認奴作郎八不宜將心待悟九不宜鑽故食涕十不宜一暴十寒如是種種難以枚舉不過在一志之堅一願之深念念不忘孜孜不捨若人失如意之味相似憤其志發其願設其計運其籌銘之肺腑刻之神思形之夢寐貫之見聞一刻不獲尋之以時一時不獲尋之以日一日不獲尋之以月一月不獲尋之以年愈不見而愈加精進益不聞而益加猛利以至神疲力倦廢寢忘餐累年積月正於沒下手處無奈何時驀然撞著元來在者裏則從前馳求之心不待歇而自歇過河之筏不待棄而自棄方知大悟不由人到岸不須舟者豈欺我哉雖然青龍要問你諸人既已到岸因甚卻在平地上喫交拈拄杖一齊打散。

佛成道上堂琉璃殿上寶鏡含八表之輝煌瑪瑙階前珠簾捲一天之星斗時時翠影侵人日夜夜清光照客顏此時此際若道一齊悟去未免落他釋迦老子底圈績更云總不恁麼拄杖亦未肯放過在到者裏必須苦其心志勞其筋骨餓其體膚空乏其身直待一旦豁然方堪相應正與麼時要脫他釋迦老子圈績則易要拄杖放過則難且道拄杖有甚長處卓一卓云百姓日用而不知者此也。

壁蒼化士歸請上堂舉黃龍禪師云世間有五種不易一化者不易二施者不易三轉生為熟者不易四端坐受供者不易更有一種不易是甚麼人良久云響便下座青龍不似黃龍虛彰聲勢氣概全無世間亦有五種不難一

化者不難二施者不難三轉生為熟者不難四端坐受供者不難更有一種不難是甚麼人一犁翠旭藍田煖遠散朝煙韞壁蒼。

除夕小參諸仁者即今舊末新交前際屬舊後際屬新值此還是舊是新非舊非新若道是舊則前際已去若道是新則後際未來若道非舊則後不至新若道非新則前不及舊斯時鶻眼難窺龍睛罔睹果是機先明的格外知歸便可統率三才樞紐萬化付古今於流水寄生死於浮雲那管他城上角窗前燈舊也得新也得孟春來仲夏至寒也好熱也好且道憑甚節目問取東村王老。

立春上堂拈拂左擊云打著春牛尾右擊云敲動春牛頭驚起南山鱉鼻鑽入東海蜃樓寒山卻諳此事拾得大笑不休且道他笑箇甚麼有意氣時添意氣不風流處也風流。

元旦上堂第一義面相呈年新月新日又新看取村翁歌擊壤太平何必在麒麟。

解冬上堂九十日內雷轟電掣地折天崩任是釋迦彌勒也只得亡鋒結舌九十日外雲開月霽海晏河清狸奴白牯一箇箇放光動地正當九十日聖制圓滿又且如何龍江揭起漫天網放出金鱗躍浪飛喝一喝云看腳下。吳民望檀護得男福盈請上堂信為道元功德母長養一切諸善根故大禹得帝啟嗣帝位信帝道有人逢磨得神光嗣祖位信祖道有人鍾離得洞賓嗣僊位信僊道有人到此果能信得及見得明迪世超宗作當家之種草繩先啟後續列祖之風規且道誰是其人昔日有情來下種今朝因地果還生。

雷子開護法誕日祈嗣請上堂問桂子浮香松花結秀此是向上一著何為慶祝良辰師云寶掌算回塵點劫進云黃閣簾垂文華弗露紫羅帳合音信誰通師云金鍼繡出玉麒麟進云長庚曉孕青谿上絲髮黃添畫閣中師云莫看格外乾坤大須信寰中日月長僧一喝師便打乃云發明向上一著方稱慧命綿長洞徹根本幾微始得箕裘克紹拈拄杖云諸昆仲見麼寶掌算回塵點劫數量寧拘卓拄杖云聞麼金鍼繡出玉麒麟文華弗露既而見聞不昧視聽分明則格外乾坤寰中日月山河大地卉木叢林無不是自己元辰當人眷屬奚待髮澤而黃庚孕而瑞然後為岡為陵為苗為裔者哉祇此良辰美景可謂一舉兩得纔見松華朝結秀又逢桂子暗浮香。

上堂豎拂云凡夫為之有二乘為之無緣覺聲聞為之幻有菩薩當體即空青龍恁麼也得不恁麼也得恁麼不恁麼總得因甚如此揮拂云從來泰岱包群岫自古汪洋納細流。

穆堂大師周忌上堂  去年今日坐斷青山頻點首滿腔心事對孤明

 今日去年放出白雲橫谷口幾多野鳥盡迷巢○穆老來也霜刃火中

全大用神光腦後拂天開○還識渠麼兩架菱華相映處光重重又影重重  
●甚處去也別有風流彌宇宙靈樞不易與君尋。

圓藏經上堂實際理地不受一塵今世門中不捨一法卓拄杖云破微塵出  
經卷三千大千一時震動所謂動遍動等遍動起遍起等遍起踊遍踊等遍  
踊震遍震等遍震吼遍吼等遍吼擊遍擊等遍擊乘時於其中間出廣長舌  
轉大法輪普令情與無情所求如願雖然祇如功圓行滿又作麼生千峰秀  
色憑誰寫一帶澗江古鏡開。

誕日兩序請上堂髮再易齒再更毛三伐髓三洗此是維祺之祐不老之休  
禪和子問著無一人而不洞徹祇如夜半戒衣亭涌身起舞昇僊臺接足歡  
呼驚得靈山老衲蓬島僊人齊赴青龍或獻雲香芝草求佛法者或獻冰桃  
雪藕供僧眾者爾等王瓜茄子還曾夢見也未顧左右云切忌錯會。

開爐張水部諸豸史供法衣請上堂拈衣召眾云羅紋結角錦縫聯珠展則  
龍象欽從披則人天擁護遂搭衣陞座問權司黑帝令轉新條出格人來如  
何相接師云看取斬新氣象何須格外安排進云三教臨筵誰是得者師云  
在天而天在人而人進云箇箇豁開錦繡乾坤人人迸出斬新氣象師云學  
未到明德莫言止至善進云蓬壺浪潑三千丈泗水波騰遍界新師云慈儉  
未稱妙爭為天下先問諸方結制煨聖煉凡青龍今日如何施設師云呼來  
壁上高僧喚出瓶中鵝子進云與麼則同一大光明藏師打云者箇響僧喝  
師云沒交涉乃云權司黑帝令轉新條煖熱叢林光揚社火拈拄杖云大哉  
洋洋乎峻極於天者也是故孔聖得之在明明德在親民在止於至善文佛  
得之在天而天在人而人在鬼神而鬼神非天人鬼神之所能為老子得之  
見素抱樸少思寡欲曰慈曰儉曰不敢為天下先現前大檀得之智印潛符  
秀色奪山川之麗明珠晃耀文光射斗牛之墟合堂清眾得之克期取證了  
悟真常呼來壁上高僧喚出瓶中鵝子然即總而別別則天上人間即異而  
同同則一大光明藏如是儒也在裏許釋也在裏許道也在裏許行也在裏  
許坐也在裏許卓一卓云者箇因甚不在裏許一光直透威音外三教從來  
續燄中。

自省一真二禪德薦父母師長請上堂是法住法位世間相常住昨日山花  
紅今朝庭樹綠日隨春去鶯還在景逐時粧葵又開是常住相耶非常住相  
耶英靈衲子一看看破不昧本來百年盡付風吹柳不違時候一雨還隨山  
入樓無古無今無凡無聖朝遊妙喜暮觀彌陀明佛祖覷不破之機了生死  
於不干之地無恩不報無德不酬雖然更有不落階級如何舉似轉身不踏  
來時路撒手虛空外面行。

冬至上堂拈拄杖云德山老人信手拈來便能壁立萬仞函蓋乾坤喝一喝  
云臨濟小廝信口吐出亦能橫互十方截斷眾流青龍今日不妨倒行此令  
去也卓拄杖云穿卻德山鼻孔從教枯木華芳喝一喝云換卻臨濟眼睛直  
使冰河凍解大眾要識二老麼卓拄杖喝一喝下座。

臘八因雪上堂今是佛成道日紛紛好景盈日烏盆變作白盆鐵壁頃成銀壁夜來不見滿天星鼻孔眼睛都打失喝一喝云腳下痛棒好與三十。元旦上堂月生一玉曆已頒新歲日一生二春風還是舊天地二生三萬象森羅許同參三生萬物上下四維無等匹是知天道不言而品物亨歲功成也聖人不言而百姓親萬邦寧也若作新年佛法則違真不作新年佛法則逆俗一向兀然猶屬儻侗如何是即真即俗恭惟兩序頭首各各起居多福。

立春上堂大地陽回翠欲凝時催春事報工興寒消紫塞千尋雪凍解黃河九曲水出谷和風聲漸煖麗天晴旭影初昇土牛也有翻身日豈可為人自不矜罷爐上堂開爐時眉橫眼上罷爐日眼上橫眉謾云十地功圓贏得一肚妄想知有者達磨不來東土二祖不往西天不知有者頭頭覲面錯過迢迢十萬餘程縱向途中薦得倘遇前關把住要討公驗如何解結苟措手不及青龍有箇方便拈拄杖一齊打散。

德芳披剃請上堂年年此日佛誕生年年此日為陞座循環三百六十周箇事分明休錯過不錯過無影林中紅燄飛不萌枝上清香播指天指地太郎當七步周行成話墮爭似回頭達本鄉夢幻空華先看破未舉金刀解脫超未披法服功圓大不羨當年空道人絕勝古來劉鐵磨今古寥寥宇宙寬能有幾人知此箇且道如何是此箇僧尼元是女人做。

誕日行超披剃請上堂露滴金莖八月涼髮除玉枕半生香都來甲子渾忘管別是壺中天一方果到者般境界不稱觴而慶祝周隆不越戶而出家事畢喝一喝云切莫教壞人家男女。

結制上堂無為至寶本自圓成大藏法財從來具足良由心王失照以至識賊司權撼惑真如困勞覺性境風浩浩凋殘功德之林心火炎炎燒盡菩提之種法財遭劫智寶遭偷殆在剎那危在旦夕青龍不忍坐視只得相助鼓聲爾等早奉敕於慈悲主速傳令於精進軍向寂滅場內安營大乘門中訓練誠意除邪惑之亂正心立見性之功斧荷青原刀持藥嶠旌旗排五位戈弩布三玄馳雲門之長驅列為山之隊伍打禾山鼓於三明嶺上張石鞏弓於八正道中眼不聞聲耳不見色心不退念念向前伐嗔恚破三毒除傲慢碎慳貪魔軍擒到涅槃城人我推開生死路不求治而大地平沉不求寧而十方安泰自是惠風和暢法雨清涼堪報不報之恩共助無為之化然此猶是功勳邊事還有不涉功勳者麼無勞久立時寒珍重。

元旦上堂龍章纔布家家爆竹慶堯年鳳曆初頒處處桃符迎舜日夜明簾外臣退位以朝君古鏡臺前子轉身而就父庭柏司東風之令壟梅秉青帝之權皎潔清冰對乾坤而寫鑿飄飄餘雪入簫管以成音罷釣漁人妙舞清歌於柳陌市薪樵子吟風醉月於花街正恁麼時畢竟承誰恩力良久云一脈春陽回造化萬方民物賴生成。

入日上堂一二三四五六七春光爭玩靈辰日七六五四三二一人馬數回雞犬畢此是風俗氣習世諦流布唯青龍者裏又且不然一二三四五六七

當堂不正偏不立七六五四三二一時或驅耕時奪食爾等參玄人也須明得失得又得箇甚麼失又失於何物一年人事看陰晴萬里春風吹呂律。元宵解制上堂連年饑饉連日滂沱無美食以供養無好燈以玩賞豎拂子云青龍有一燈不似鰲山走馬亦非簇錦穿珠祇是一燈分為千燈千燈互作一燈燈燈續彩燄燄聯輝在天則為日月在地則為山川在國則為憲章在家則為禮樂在名山大剎照耀檀林光揚祖道莫不以此燈而為佛事一明一切明一顯一切顯一結一切結一解一切解明中暗暗中明明暗雙彰用不二光中境境中光光境俱忘體更圓從來未許安排祇貴現前受用任是天之所覆地之所載日月所照霜露所墜凡有血氣者瞞他一點不得未審者一點從甚處得來透出威音不假修釋迦那受然燈記。

薦護請上堂默時說說時默大施門開無壅塞卓拄杖云大施門開也左是金銀琉璃右是珊瑚瑪瑙前是七寶蓮池後是金繩界道其中諸佛菩薩以及諸上善人同聲唱曰一切法不生一切法不滅若能如是解諸佛常現前大眾還識現前消息麼雨過溪添浪風回竹有聲。

結夏兼為檀護壽誕請上堂釋迦老子道以大圓覺為我伽藍身心安居平等性智又道我實成佛以來甚大久遠壽命無量阿僧祇劫常住不滅大小瞿曇祇知有己青龍者裏卻不與麼無勞畫地作藩籬佛不希求祖不為但得胸中無罣礙拈來瓦礫當金揮瓦礫金揮仔細看就中不用深思算百年三萬六千朝反覆元來是者漢。

佛誕自省禪德請上堂佛是乾矢橛祖是老臊胡文殊普賢等妙緣覺是擔板漢菩提涅槃真如佛性是繫驢椿更說甚麼天上天下唯我獨尊須知青龍者裏道無岐徑禪無玄妙祇貴萬機寢息自然一念相應且如何得相應去喝一喝下座。

誕辰上堂問香煙靄靄熏猊座四眾遙臨祝壽筵未審須彌山王壽量多少師云問取拄杖子進云不落壽量又作麼生師云拄杖道甚麼進云壽量已蒙師指示正偏五位請敷揚師云多年曆日何用重翻如何是正中偏師云龍臥碧潭風凜凜鶴鳴霄漢月娟娟如何是偏中正師云紫金蓮捧千輪足白玉毫輝萬德身如何是正中來師云壁離楚岫寒光動劍出豐城紫氣橫如何是兼中至師云啐啄同時渾沒蹟箭鋒相拄了無痕如何是兼中到師云寒山忘卻來時路拾得相將攜手歸進云正偏一決群疑破向上宗乘事若何師云藍水遠從千澗落玉山高並兩峰寒進云不隔一塵通造化頓超壽量顯宗風師云軌持千里鈔林下道人孤問杲日當空光照大千世界曇華現瑞香分百億國中不問箇中壽量如何是奪人不奪境師云金勒馬嘶芳草地玉樓人醉杏花天如何是奪境不奪人師云華艷轉睛隨覺淡英雄回首即成僂如何是人境俱奪師云吳宮荒草埋幽徑晉代衣冠成古丘如何是人境俱不奪師云雲裏帝城雙鳳闕雨中春樹萬人家進云為祝華封明祖意果然法道出常情師云直饒言下明宗旨須向機前再轉身進云寶鏡當軒符懸肘後師云也須照顧乃云洪濛未判箇事全彰黑白纔分真常

獨露懸寶鏡雖佛祖莫逃其形握靈符縱人天罔測其蹟所以洞山立正偏王子以定綱宗臨濟設料揀主賓而明法印總之指出生前而目發明從上風光一明一切明剎那間轉凡成聖一證一切證須臾頃點鐵成金如道來與麼問青龍如是荅諸人還端的也未若也端的不但與洞山臨濟把手同行共鼻出氣亦可與天地合其德日月合其明四時合其序設或未然撫香几云且向當陽薦取。

張護法為母壽誕請上堂豎拂子云量同太虛明如杲日者裏會得千足萬足金剛無以喻其固劫石無以比其堅處也賢淑之邦出也孝義之宅有如是根基則有如是福德有如是福德則有如是壽量莊嚴有如是壽量莊嚴則有如是雍雍肅肅總不離著者裏且道者是甚麼所在擊香几云世間甲子管不得格外風光日正長。

解夏上堂花爛熳景鮮妍出門別是一般天百草頭邊如薦得西來值甚大光錢。

(弟子德賢備資敬刻

方丈和尚語錄第二卷所翼四恩總報

得生淨土蓮池三有均資速至人

天覺岸)

寒松操禪師語錄卷第二

再住松江青龍隆福寺語錄

大殿落成上堂拈拄杖左卓云者裏薦得十五年前老人在此建法幢立宗旨展土開疆高樹寶坊於是處拈拄杖右卓云者裏薦得十五年後山僧在此分玉石驗龍蛇搬磚弄瓦復恢金碧於當陽橫按拄杖云適來山門騎佛殿廚庫拽僧堂從諸人鼻孔裏過還知麼設或猶豫青龍有道補缺真言不妨為眾拈出財法二施等無差別檀波羅密具足圓滿喝一喝云逢人不得錯舉。

誕期常舒副寺請上堂震法雷鳴法鼓布慈雲兮灑甘露南瞻部洲上堂北俱盧洲起舞天台山頂拾得豐干高聲唱道汝等父母未生前各各本有靈明妙智與刹等世界等諸佛等菩薩羅漢賢聖僧等眾生等神通等妙用等說法壽量等莊嚴功德等喝一喝云適來許多葛藤甚處去也伸手原在縮手裏。

眾職事請上堂舉金峰志禪師云老僧二十年前有老婆心二十年後無老婆心僧問為何二十年前有老婆心曰問凡荅凡問聖荅聖為何二十年後無老婆心曰問凡不荅凡問聖不荅聖師云大小金峰雖然格外提持未出聖凡窠窟青龍則不然二十年前有也不是老婆心二十年後無也不是老婆心畢竟如何再遲四十年與諸公話會喝一喝下座。

子青維那請上堂生平無事得攀緣浪蹟今逢不惑年弗放慈悲多日債結成佛祖一時冤慵修道懶參禪從來清白是家傳風流獨跨玄沙虎散髮狂歌不是顛問濟濟稱揚無量壽乾乾惕若法中王未審昇僊臺還涉春秋否師云水流東澗朝西澗雲起南山下北山進云優曇花發祥雲靄鶴韻長生不老年師云尚無心緒聽啼鳥那有閒情掃落花進云一帶雲山添瑞色籬邊黃菊滿庭香師云切莫隨境轉。

誕辰李陳二護法祈嗣請上堂天地與我同根萬物與我一體香風滿徑木樨飄報道金飆生桂子白蘋江上蓼華紅隔水人家如畫裏不應住色生心不應住聲香味觸法生心於此立地搆去等虛空而不朽超劫石以長齡是則是祇如悉達太子在母腹中作諸佛事文殊師利在母腹中現大吉祥善財童子見諸寶藏悉皆充滿且道是何意旨二三子以我為隱乎吾無隱乎爾。

上堂松直棘曲鴿白烏玄日出天晴雨飛地溼春至花開秋來月白是人知有祇如夜半正明天曉不露又且如何判斷擲拄杖下座。

沙汰上堂舉古德云救命如雷下翠微風前垂淚解禪衣青龍云著忙作麼雲中有寺不容住塵裏無家何處歸青龍云著忙作麼大眾惟我祖師門下

道出尋常萬法圓融不離佛界奚礙重居魔界千差坐斷不捨僧形何妨更作俗形了無彼此之分安有自他之相然則三途如何趨向良久云但得胸中無罣礙不妨隨處度時光。

復僧上堂復傳一旨遍乾坤三月連更事兩番僧相重圓承覆載林泉何以報洪恩卓拄杖云全憑一句無私語仰祝吾皇億萬春。

結制王太史供衲衣請上堂霜谿霧鎖凍壑雲凝朝霞與暮靄揚輝青嶂共丹楓綴錦西來大意全彰本地風光獨露奚必剪天孫異彩刺玉女神鍼運須彌作鉗錘奇生千變結宇宙為爐鞴巧出百端以有相莊嚴鉤無形三昧帶累木上座要閒閒不得趁忙忙不過終日如然圖箇甚麼不是苦心人不知。

冬至維揚歸上堂八月廿五日省師往江北一程未渡江超然迴虎錫扶龕入國山歸來一陽復不覺彈指間寒暑亦何促報爾參玄人光陰莫虛擲慙快著鞭身須白汗出更得石抽筍方許參學畢參學既畢又如何君子道長小人消梅檀林裏無荊棘。

懸百老和尚相上堂峻節霜明啟靈山之妙旨芳標玉立闡少室之玄機橫按莫邪五宗俱演高懸寶鏡三教齊弘道聲獨著於乾坤德望並高於日月欲瞻化境須睹慈容覲面展開真風猶在大眾見麼潭潭禁殿尊嚴甚寂寞無人夜未央。

晚參知之一字眾妙之門知之一字眾禍之門未審二者誰是芍藥華開菩薩面棕櫚葉長夜叉頭。

臘八百老和尚百日上堂昔年黃面睹星時今是先師百日期箇裏若人玄會得三更紅日上梅枝畫○相云二老來也異口同音互相作梵為求佛道者說無上菩提為求菩薩道者說六度萬行為求聲聞道者說十三因緣為著我者說無有我為執空者說悉皆空如是所作悉皆究竟於一切智地左拂云要識雪山老子麼本無迷悟人祇要今日了右拂云要識國山老人麼淨法界身本無出沒正恁麼時雪山國山是一是二若謂是二事不應一若謂是一理不應二一二之義其意云何喝一喝云一劈華山成粉碎萬年流水不知春。

元旦上堂曉風乍暖旭日初昇壟梅發笑岸柳迎春叵耐枝頭老百舌聲聲啼徹祖師心。

解制洞庭潘護法慶誕請上堂春風來洞庭春色洞庭好和雲過萬山帶翠度三泖花發不萌枝雲藏無縫襖芒鞋去天台竹杖遊蓬島勿復問交梨何須覓火棗處處肯迴光塵塵無價寶山中別有天不其乾坤老卓拄杖下座。

誕辰兩序請上堂日月如梭物理變更徒知年往不覺形征始也庚子初繼此席咸謂履艾一犁一把拽至丙午面貌皺矣鬢髮星星拈拄杖云惟此上座大有逕庭春秋無改心實根深卓一卓云佛界魔界三千大千世界騰騰

無束任運縱橫放行則雷轟電爍收藏則雨霽風清阿呵呵氈拍版沒弦琴始作翕如也縱之純如也噉如也繹如也橫按拄杖云以成。

上堂寧參活句莫參死句活耶死耶是一是二識得一二方可無疑死若臨頭還疑也未既不疑死即不疑生向未生前道一句看直饒道得分明案山猶未點頭且道過在何處。

百老和尚小祥上堂去年今日相逢不拈出今日今年舉意便知有撥轉上頭關一一為君剖者老漢一生來驅佛使魔廿餘年入廬垂手法施財施等珠璣而不辭受恩受惠忘反報而不吐心如太虛任浮雲於去來量似滄海隨闡提之妍醜到今日一任伊獅蟲相食分門別牖無撮土思前之報無捐餐顧後之酬將僧眾受不危之危欲叢林驚不朽之朽雖賴護於上蒼又豈與之歸咎因甚如此了知生死不相關只因踏著曹谿路。

結制上堂歲登事事周圓正好利乘龍泉任他是佛是祖母容一物當前箇箇壁立萬仞人人如解倒懸刀劈不破鍼筍不穿正恁麼時堂裏禪與堂外禪一致牆外道與長安道相連顧盼之間虛空銷殞咳唾之際返本還源美則美矣祇如世尊睹星神光斷臂靈雲見桃香巖擊竹又作麼生不須裂燄看霜雪且待春雷聽曉天。

自肯薙髮請上堂大丈夫秉慧劍般若鋒兮金剛燄非但空催外道心早曾落卻天魔膽大眾還識此劍麼青萍莫比紫電難齊悉達秉此子夜逾城入青山而斷髮提婆秉此朝參龍樹向水碗以投鍼盧行者碎金剛之奧旨丹霞然鏟草蔓於堂前總為秉此慧劍今日眾中畢竟是誰惟人自肯乃方親。

佛成道日行蓮請上堂以拂子畫一畫云聖凡齊鏟迷悟盡捐出入荊棘林中遊戲芳花叢裏運阿修羅手拊摩日月廣舜若多身逼塞虛空就是山川卉水也解放光動地超佛越祖奚必雪山六載然後始悟是汝諸公知他箇甚麼金生麗水玉出崑岡。

元旦上堂問春王歲首物咸亨斬新條令事如何師云棒頭有眼明如日進云天道和平添吉慶歌謠萬里樂無為師云句下無私幾箇知問王登寶殿野老歡呼祝聖一句如何舉揚師云行坐春風堆裏盤桓流水橋邊進云惠風和藹舜日增輝新年佛法請師垂示師云楊柳欣逢知己梅花猶是故人進云曉開柳眼窺晴旭臘綻梅花占早春師云更道不堪乃云今有三般好事一遇春王歲首萬物咸亨二為天道和平八方安泰三是常舒齋靦大眾歡呼山僧自來棒頭有眼不妨行坐春風堆裏句下無私何礙盤桓流水橋邊一問一答亦足以暢敘幽情一歌一謠更不知有人間世你道憑何節目便爾如然揮拂云日出海門東畔山河燦爛一新煙銷谷口鳥啼春漏泄風光卻甚楊柳欣逢知己梅花猶是故人新年佛法太分明端的何須再問。解制值雪上堂大道只在目前要且目前難睹雪覆萬年松徑明暗奚分雲遮一帶峰巒正偏孰辯一色邊坐住固非本地風光淨白地安身豈是到家

消息何況擔囊頂笠航海梯山又成得箇甚麼邊事大眾要識大道麼喝一喝云切忌癡狂外邊走。

李護法華誕祈嗣請上堂山色蒙茸春光明媚惟有箇事迴超物外莊嚴壽量本乎天然福慧苗裔隨身自在無量壽佛那共論乎劫塵多子如來不與方乎境界等閒垂一機一境立一事一法皆可以添算今時流芳後代阿呵呵會不會好看清白傳家計。

結夏曇瑞禪德請上堂一句了然迴超百億一言解脫頓悟真常善財登樓閣而明心留得虛窗前夜月三更依舊照茆堂龍女獻寶珠以成佛等閒識得東風面萬紫千紅總是春所以道迷時迷卻悟底悟時悟卻迷底青龍者裏直饒迷悟雙忘聖凡俱泯猶是草菴止宿門外周遊未審如何是到家消息踏得故鄉田地穩不妨隨處現優曇。

雷護法得子請上堂豎拂云只此育聖生賢超宗越祖輪王得以御天下四臣得以牧萬民父得以慈子得以孝以此修身身無不正以此齊家家無不和以此祈福福無不臻求智慧得智慧求男女得男女求長壽得長壽你道拂子有甚奇特如此神通廣大擊香几云水向石邊流出冷風從花裏過來香。

韋馱殿落成上堂巍峨一殿聳雲霄風雨年深瓦半飄幸遇大家齊出手功圓行滿在今朝是故諸佛出興插標成剎坐微塵裏轉大法輪始從鹿野苑終至跋提河祇為圓此未圓之案列祖應世普運慈心展上開疆現瓊樓於當處建宗立旨悟性海於剎那祇為圓此未圓之案昔老人始建殿於辛丑畫閣遙飛鶴渚雲今青龍得落成於丁未珠簾高捲龍江雨雖則事有先後祇為圓此未圓之案大眾祇如圓後又作麼生四海衲僧明正化十方檀信助無為。

百老和尚大祥上堂金棺示雙趺狼籍太多嵩山遺隻履賣弄不少隱峰倒化素隱行怪紙衣立亡忒煞孤危正眼看來總成笑具爭似國山老人八坐名藍九會說法末後廣陵大書偈云生年五十復零六大事因緣今已足釣罷金鱗歸去休漁翁不向蘆灣宿何等真實何等穩密大眾既不向蘆灣宿畢竟在甚麼處苔封古殿無人侍月鎖蒼梧鳳不棲。

普同塔落成上堂九月初五日有箇好消息遍界絕遮攔藏身沒蹤蹟虛空爛彌新天地朽不失明得此根源一生參學畢以拂子畫[○@:]相云咄咄須委悉無影樹下合同船琉璃殿上無知識。

結制上堂達磨不來東土二祖不往西天箇箇常光現前人人壁立萬仞鼻本下垂眉在眼上左之右之取之不竭舉足下足無非道場正恁麼時誰不丈夫何須那邊過夏者裏經冬虛費草鞋堪作甚麼喝一喝云火爐動也照顧眉毛。

臘八湛菴供法衣請上堂問聞聲悟道見色明心去此二途請師別道師云夜夜明星當午現進云不作色見不作聲求畢竟如何師云朝朝杲日麗三更進云一句含千古聲光處處聞師云早知燈是火飯熟已多時乃云聞聲

悟道屈我宗風見色明心沉埋佛祖展袈裟角云者箇是色莫作色見擊香几云者箇是聲莫作聲求果是其人自然孤迥迥雙眼圓明峭巍巍寸絲不掛夜夜明星當午現朝朝日麗三更一任嶺頭風雨爛何須弟應與兄呼到此正好作無邊佛事度無量眾生一一眾生得無邊智慧得無邊神通微塵眾生眾由是成正覺喝一喝云早知燈是火飯熟已多時。

豎重興青龍隆福寺碑記上堂世尊成道日隆福豎碑時黑白分明現悟迷的是誰須向言前薦莫從句裏思兩彩同一賽萬古總如斯。

元旦上堂天何言哉四時行焉百物生焉拈拄杖云轉天關揭地軸易寒暑迭陰陽貫古今融理事於此醒徹古之天地即今之天地古之日月即今之日月古之山川即今之山川促百千萬億劫為一念依然只是舊時人設或遲疑天自高地自厚日自東月自西山自遙川自闊延一念作百千萬億劫何妨人人添一歲雖然其中還有知恩報恩者麼卓一卓云野老不知堯舜力皦皦打鼓祭江神。

吳護法得子福弘請上堂今朝二月十九一句分明為剖柳葉乍卷乍舒桃花半含半吐層層寶蓋天垂簇簇金蓮地涌三千善士謳歌百億獅王哮吼報道普門誕生卻向青龍垂手豎拂云大士來也應以童男身得度者即現童男身而為說法應以宰官身得度者即現宰官身而為說法大眾普門既現身矣畢竟說甚麼法近水樓臺先得月向陽花木易逢春。

解制九一文學同眾檀請上堂昨宵白鶴江底烈燄騰輝青龍塔尖洪波浩渺以致魚龍蝦蟹草木昆蟲東涌西沒南飛北息欲去不能欲住不得獅子橋忍俊不禁大吼一聲頓爾天清地寧煙消浪靜鰲奴白牯無限生涯有底商量道入姑蘇泛太湖遊洞庭七十二峰隨緣放曠有底商量道去華亭渡錢塘上天台三十六巖任意逍遙忽遇船子和尚攔胸把住云覲面相逢即不問腳下一句作麼生者裏道得花街柳巷正好調心如道不得身心莫把輕虛棄再整精神入試場喝一喝云也是妄通消息。

百老和尚三周上堂昨為拈香到善權而今特地又重宣十朝兩作三周忌底事何曾有後先所以深山嶮巖有深山嶮巖中佛法野墅平原有野墅平原上佛法山僧昨到善權祇見雲生疊嶂月印澗潭離墨峰頭晴霞晒日善卷洞口石竇囊雲鳥語花香風光滿目今返青龍祇見僊臺[山\*窰]岬寶塔玲瓏地壓神州閣襟三泖路通僊徑門對九峰四水縈環萬竿蒼翠先人面目處處全彰如此見得青溪水洽荊溪水如此不見國岫雲連侖岫雲見不見則且置豎拂云還識先老人麼分明覲面更無私休更迷頭錯認影。開爐上堂舉寶峰和尚道洞山門下無佛法與人只有一口劍凡見來者一一斬斷使伊性命不存見聞俱泯直向父母未生前與他相見見伊纔向前便為斬斷師云青龍門下亦無佛法與人只有一條柳栗凡見來者一一趁起使伊四大勤勞精神勇猛直向大冶紅爐上與他相見見伊若不向前便為趁起大眾青龍寶峰相去幾何喝一喝下座。

冬至上堂卓拄杖云地雷復也直得天左旋地右轉龜毛長一線兔角發新條長街短巷遞相慶賀曰密室灰飛大好消息甚消息卓一卓云君子可入。

元旦上堂問春風和靄時姑置大海無魚事若何師云獅子窟中無異獸如何是大地無草師云象王行處絕狐蹤如何是大富無糧師云喫飯不嚼一粒米如何是大悟無道師云穿衣不掛一縷絲進云恁麼則一句截流萬機息大千沙界悉增輝師云莫錯會乃云真宗廓徹妙道虛靈一句截流萬機寢息十字街頭醉翁子高聲唱道六龍已駕曦和轡四海八荒光皎皎昨日城邊賣杏花一年春事都來了說甚大海無魚大地無草大富無糧大悟無道直得獅子窟中無異獸象王行處絕狐蹤喫飯不嚼一粒米穿衣不掛一縷絲畢竟是何意思非公境界。

石鑑大師書至上堂烏啼微雨歇簾捲好山重時有雲邊鴈傳來信一封大眾你道其中說些甚麼喝一喝下座。

靜圓禪德誕日請上堂有國土以音聲為佛事有國土以莊嚴為佛事有國土以飲食衣具為佛事有國土以智慧眷屬為佛事且道青龍尋常以何為佛事擊如意云音聲無量莊嚴無量飲食衣具無量智慧眷屬無量無量為一一為無量盡未來際亦復無量然此猶是限量邊事祇如不涉限量又作麼生擲如意云看看。

解冬上堂圓覺伽藍豁開戶牖華嚴剎海大座當軒結則普天匝地一時結解則普天匝地一時解到者裏果於百廿日內克期取證得大總持一任八字打開鳳凰嶺舞翅翩躚天馬山輪蹄蹴踏北五臺南天台去者任去來者任來雖然欲求沿路不相妨先請各人轉一語若還擬議青龍有箇方便卓拄杖云好將扶過斷橋水不礙伴歸明月村。

佛誕自省禪德請上堂拈拄杖云悉達太子在拄杖頭上指天指地目顧四方普令一切返本還源橫按杖云大眾雲門大師來也卓一卓云一箭落雙鷗。

青苗會上堂喝一喝云破微塵出經卷大小根機各充其量喝一喝云開甘露施法雨三草二木盡遂其生直得鳶飛魚躍牧唱漁歌轉盼之間污邪滿車甌窶滿篝有日在不審諸人心地幾時發明若也未明青龍不惜眉毛覲面直指去也驀展兩手云今朝正是六月一。

因事辭院郡邑當道宰官護法等躬送入院請上堂祖道垂秋提婆再世同室操戈霜翎遠舉得逍遙於物外隨飲啄於晴空既闔國以迫攀理無堅而固拒自是回途復妙就路還家雨散強梁天地尚留泰日月雲銷嫉妒山河不改漢君臣人人可以入何有之鄉各各不妨處無爭之地正當剋殄魔氛紀綱重整又且如何論量良久云且放過一著。

誕辰上堂神光不昧萬古嶽猷入此門來莫存知解豎拂云若道渠是四十四則觸若道渠非四十四則背果能離卻是非不存觸背開得隻眼覷得渠透不離世間而常行出世間事不捨有為而常行無為乘時於其中間轉大

法輪作大佛事普令見者聞者無不咸知本有且如何是本有擲拂云今朝十八明朝十九。

重陽慧一靜善禪德請上堂金飆襲襲來報是九月九真機不覆藏覲面為君剖桂蕊散黃金菊花笑開口風前飄晚香陣陣出林藪大地與山河盡成獅子吼滄海起龍吟崑崙騎象走偏正莫能該玄要安可數擬欲問如何翻身藏北斗。

結制上堂少林面壁一線不通寰中天子敕塞外將軍令曹谿演派五葉流芳宇宙重開拓江淮永晏清說甚遣迷求悟愛聖憎凡須知迷是悟之鉗錘凡是聖之爐鞴直饒凡聖俱泯迷悟兩忘正是澗潭月影靜夜鐘聲隨扣擊以無虧觸波瀾而不散猶是生死岸頭事且如何出得生死待到來年正月半好聽平地一聲雷。

說沙彌戒靜圓禪德請上堂青龍今日不說有法不說無法不說亦有亦無法不說非有非無法畢竟說些什麼法一不殺二不盜三不破梵行四不妄語五不飲酒忽有箇漢出來道弘演毘尼即不無要且無衲僧巴鼻山僧以手約退云住住住登高必自卑涉遠先從邇。

佛成道說菩薩戒上堂機輪纔轉迷悟全彰寶鏡方懸胡漢俱現覲面無向背到處絕遮闌絕遮闌時掉背經行彰祖意無向背處搭衣持鉢顯單傳直得一華一佛國一葉一釋迦各坐菩提樹一時成佛道奚待睹星日悟持戒曰修兩耳原在肩上豎雙眉依傳眼邊橫有人緇素得出許伊具隻眼緇素不出亦許伊具隻眼為甚如此今說菩薩戒普施於一切。

臘月十五日百老和尚像成開光上堂豎拂云老人於今己酉年丁丑月甲戌日癸酉時在拂子頭上現大人相眼底深深含兩曜放白毫光雙眉炯炯覆須彌出廣長舌恒演四諦十二因緣普令情與無情回途復妙就路還家頓悟如來心地共入不二法門倘或見處不清少選同到影堂急須高著眼。

除夕小參三百六十日逗到今宵畢多少聰明人幾箇知休息空花鏡裏奔陽燄光中覓生死總不憂忠孝毫無實貪他一粒米拋卻半年粟紛紛為人忙自把天機失一載又虛過回首空銜血爭如貧道人曾不驚榮辱富貴等浮雲利名同逝濮野鶴天外寬新舊何拘束不必巧安排受用儘知足煙篆一爐香花開兩架燭滿斟趙老茶快唱雲門曲雖不倚他牆敢道我隨俗齣齣一覺到天明兩眼豁開春滿屋。

元旦上堂天得一以清地得一以寧君王得一天下太平未審衲僧家得一又作麼生拈如意云稜層無舊無新離背向沒疏親超凡越聖辯主分賓當陽纔直指當下即翻身不是羸疏梗直本來率性天真贏得一雙窮相手未曾輕揖等閒人擊如意下座。

解制上堂橫按杖云用處不換機者是拄杖不得喚作拄杖且道喚作什麼眾無對拈拄杖一齊打散。

誕辰上堂煙霞踏遍住谿山贏得幽棲鎮日開五九年來何所事倚松時看  
鶴飛還大眾未審其中還有為人處也無良久云到者方知。  
開爐上堂十數年來勞形苦骨布網垂鉤欲圖幾箇錦鱗赤尾以了未完之  
案不意水寒夜靜空載月明到今只得別展生涯去也以拂畫○天地為爐

[○@ ]造化為功  日月為炭 [○@卍] 萬象為銅你道鑄箇什麼明破  
即不堪。

〇〇〇  
二  
二  
二  
二  
三  
八 柳

冬至上堂舉慈明冬日榜僧堂作此字... 其下註云若人識得不  
離四威儀中首座見曰和尚今日放參明聞而笑師云一人懸符咒水擬賽  
書雲一人逐境隨流欲同應瑞然雖註腳分明怎奈不識文彩未彰已前消  
息且如何是文彩未彰已前消息玉鳳曉來鳴泥牛夜半走試問參禪人此  
中還會否良久云爭似青龍陳衲被蒙頭贏得煖烘烘。

示眾傳說高峰瓔絡粥青龍瓔絡亦無緣惟餘冰雪深三尺寄語諸方莫浪  
傳。

除夕晚參舉石門徹禪師因僧問年窮歲盡時如何門云東村王老夜燒錢  
師云石門雖則不孤來意未免指東話西有問青龍年窮歲盡時如何但云  
爆竹一聲催臘去梅花幾點送春來大眾還委悉麼更聽一頌東村王老夜  
燒錢千聖從來不共傳雲捲翠微深處寺一聲鐘落碧巖前。

元旦上堂適來香已拈罷聖已祝畢喜得民歡物阜天下太平然則諸公分  
上又作麼生庵摩訶迦波波吒嚙帝莎訶。

解冬上堂去冬十月半結大家未曾住定者裏今春正月半解大家未曾離  
卻者裏乃至盡未來際一結一解一動一靜一語一默又何曾大家不在者  
裏且道者是甚麼所在喝一喝云動著三十棒。

天成監院誕日請上堂大眾還知今日事麼適值監院年屆古稀頗得春日  
融和壘梅發笑以至昇僊臺稱揚莫及白鶴江喜不勝言青龍也只得慶賀  
有分終不能加一元字腳何故座中亦有江南客休向樽前唱鷓鴣(時同門  
遠至)。

十八羅漢開光上堂舉仰山夢入兜率內院居第二座眾請第二座說法山  
自白椎云摩訶演法離四句絕百非諦聽諦聽青龍昨夜亦作一夢夢入大

雄寶殿見有十八高人或斂眉持杖貝葉題詩者或降龍伏虎坦腹大笑者或禪定抱膝一佛出世者或了經補衲金獅戲環者現種種神通作種種變化咸至座前合掌而言曰我輩雖得阿羅漢體猶欠一點乞師慈悲相助山僧向他道若論者一點人人本具何用他求爾時十八高人作禮而退是汝諸公還見渠儂面目麼喝一喝下座。

退院上堂十年兩住青龍寺風雨奚辭一杷犁佛法從來無一向更乘流水泛荊谿大眾你道伴侶是誰卓拄杖云用之則行舍之則藏惟我與爾有是夫下座拄杖便行。

(弟子德 備資敬刻

方丈和尚語錄第三卷端為得戒本師

弄駕慈航於碧浪圓顛耆宿重開

慧眼於青霄)

寒松操禪師語錄卷第三

住常州國山善權禪寺語錄

師於康熙辛亥春在青龍隆福寺受請上堂拈疏云空生弗解巖中坐惹得天華動地來寶鏡不隨春色轉緣何又被使符催喝一喝云吾無隱乎爾。法座高不可測廣莫能量要上便上何借燈王遂陞坐斷千差不遺涓滴終成滯殼迷封放開一線暫應群機未免觸途狂解拈拄杖云惟有者箇獨脫無依獲大自在未有常行而不住未有常住而不行欲益無所益欲為無所為十方剎海目前觀本無心於彼此大千同一真如性豈有相於去來閒攜青龍鉢盂時往國山應供於中不作此見不作彼見不作去相不作住相頭頭揭示人天眼目處處闡揚佛祖真機大眾你道者箇有甚長處卓一卓云蝸牛角上三千界雲月谿山共一家。

四月十三進院三門門牆峻且高望崖人莫措今朝一踏開回互不回互顧左右云者裏入得時天下任獨步。

佛殿鷹觜魚腮黃金妙相覲面相逢如何酬唱喝一喝云向。

伽藍你也官身難少我我也官身難少你主持佛法有山僧幹辦金糧全在你。

祖師終日說黃道黑鼓簧多少人棄家底棄家斷臂底斷臂未審者件事兒怎生解交插香云唵蘇嚕蘇嚕唵唵唵。

方丈摩竭掩室何異洋瀾左蠡昆耶杜詞無殊筵籃盛蟹若到國山別請相見卓拄杖云是龍是象此中來俊哉一齊跳不出。

開堂拈疏在天成象在地成形在國曰憲章在臣曰符命祇如在善權手裏成箇甚麼人天聽衛護魔外見歸降。

法座看看須彌燈王倒騎山門入佛殿走過法堂穿卻諸人眼睛直下發明大事了也必也視聽分明則舉足下足無非道場左之右之隨緣得妙設或未然莫怪矢上加尖遂陞。

拈香此一瓣香至高無上至厚無垠爇向爐中祝延帝道與佛道齊昌金輪共法輪同轉此一瓣香文章妙今古風流不讓子瞻氣概倚雲霄逸韻還同摩詰奉為乃文乃武曰士曰紳世世流芳咸為斯文之慶生生振彩式占吾道之亨此一瓣香長自不萌枝上全彰無影峰頭既然沒處遮藏次第三回拈出供養前住弁山龍華寺即此堂上洞宗正傳第二十九世百愚斯老和尚雖明白性宗通亦顯師承有據斂衣就座呼巖大師白椎竟乃云弓挽由基群獸徒疑鉤垂任子困魚枉慮還有擎頭戴角攫霧拏雲者出來騰躑看問蒼松夾道古路重揚斬新條令如何施設師云山曾封禪傳孫氏進云此是格外風規畢竟如何是忻新條令師云殿有雷書記謝僊進云千年古徑

重開關龍象憧憧任往還師云覲面更無私問人天普集選佛場開祖令當機如何舉唱師云有眼皆見進云少室峰前神光得髓即今座下誰是知音師云有耳皆聞進云舉古舉今埋沒先聖去此二途如何即是師便打進云坐斷十方差別路踏破威音那畔邊師云看腳下乃云金幢燦燦摩霄漢於階前寶殿峨峨聳寰區於足下繽紛花雨拋鎮海之明珠磊落煙霞布天孫之文彩離婁未許窺其彷彿鶯子那堪辯其端倪異常中不覺其異常尊貴中何驚其尊貴功勳不涉修證寧容直教翠壓關山峰峰皈命浪平湖海派派朝宗大眾當此際也如何慶祝惟憑一滴曹谿水遍界為霖報我皇敘謝云但某才疏學淺涼德菲躬十年承乏青龍愧無寸補今日濫膺國岫得不慚惶多蒙郡邑大檀同門昆季力為推遜勉以流傳豈云為國開堂暫赴因緣時節伏願忠勤媚於天子付囑不忘靈山道德簡在帝心宗風常演少室復舉洞山价禪師因僧問和尚出世幾人肯山云並無一人肯為何並無一人肯山云箇箇氣宇如王師云价祖恁麼荅話只知克己不知復禮今有人問善權和尚出世幾人肯但曰並無一人不肯為何並無一人不肯但曰天下歸仁焉且道與洞山相去幾何復白椎下座。

當晚小參山僧久聞湖山之交陽羨之間左有善卷避舜洞右有吳主封禪碑其中有一善權古剎峴嶠天外錯落群山萬木排青一谿環碧乃列祖唱道之地亦先師說法之基雖曾省觀暫過未得窮玄索妙莫若今日袈裟裹艸鞋赤腳過由拳破浪衝煙披星戴月別崑岫入吳門竟不問姑蘇臺在城東城西渡滸墅經晉陵亦不管鉛錫山是有耶無耶泊河橋泛荊谿總不見南山白額長橋巨蛟單單只是勇猛向前於不思議時瞥然便到不待窮玄索妙祖父田地溢目昭然諸仁者當知此事不可以有心求不可以無心得不可以語言造不可以寂默通須是親到親證然後方知六朝香火千年寺十里亭橋一徑松任爾說門庭寬廣殿宇幽深也得說道路高低峰巒峻峭也得說理說事說玄說妙也得因甚如此雖然舊閣閒田地一度贏來方始休。

立兩序上堂諸昆仲你看先老人遺下一箇折腳鐺兒日炙風吹不覺六七年矣今朝須是大家出手扶將起來使未信者信未見者見未證者證時或搬磚弄瓦聽無情而塵塵說法時或開田種畝插鋤子而處處放光任他風雲有聚散大家逢緣不變虛空有成壞大家處危即安便與麼去不獨為先老人增色則諸宗列祖亦賴之以有榮也正恁麼時如何委悉路遙知馬力事久見人心。

結夏示眾舉揚岐會禪師云楊岐乍住屋壁疏滿床盡撒雪珍珠縮卻項暗嗟吁翻憶古人樹下居師云將謂會公見過作家準有通天伎倆遇此境況未免長吁短歎山僧今住國山惟有老屋敗椽雖則刀耕火種不費結夏安居效顰一偈聊塞視聽辭別青龍住善權滿堂風月影涓涓行無礙坐悠然別是人間一洞天。

至弁山掃祖塔且老和尚請上堂第一義諦超出諸宗至尊至貴獅子窟中獅子至純至粹栴檀林裏栴檀是以諸佛得之不有而有不空而空彈指圓成八萬門剎那滅卻三祇劫東西列祖得之毒以毒攻楔以楔出煩惱海中為雨露無明山上作雲雷青原大師得之斧子拈來高騰米價丹墀月滿千峰色袞袞衣冠萬國朝洞山老祖得之偏不坐偏正不居正橫抽寶劍翦諸見妙協弘通截異端至我弁山瑞師翁得之大人具大見大智得大用放身佛祖頂[寧\*頁]頭運足萬機不到處現今方丈和尚得之奪食驅耕鞭雷叱電高豎法幢幢遠豎洗清佛日日恆清諸昆仲然則善權分上又作麼生卓拄杖云佛祖未生空劫外正偏不落有無機。

晚參師垂三問眾答不契書記請代問世間無永不朝東因甚善權水向西流師云不向他人行處行進云日高三丈僧未起緣何天曉便打普梆師云有意氣時添意氣進云天人送供不為喜何故國山日日喫粥師云熨斗煎茶銚不同乃云不向他人行處行無中有路出常情藕穿平地為荷葉筍過他家作竹林有意氣時添意氣尋常切忌分難易薰風入戶自生涼湖水騰波非有意熨斗煎茶銚不同衲僧別是一家風從來不食空王俸怎肯棲身在泮宮。

解夏小參舉洞山价禪師云秋初夏末兄弟東去西去直須向萬里無寸草處去良久云祇如萬里無寸艸作麼生去石霜曰出門便是草太陽玄曰直饒不出門亦是草漫漫地師云者夥古錐各見一邊何似善權者裏萬峰拱翠遠水呈藍一任東去西去總教腳跟點地祇如前頭有人問今夏在甚麼處莫說親從善權來何故不見道向上一路千聖不傳。

誕日上堂虛度韶光四十六年來林下多勞碌業風吹住古善權滿塢白雲堪寓目卻憾時逢大地荒麩粥三餐猶不足帶累諸公同受鐵一切皆由我薄福人人抖擻只空囊始信衲僧無長物惟有肚皮大似天森羅萬象俱包束阿呵呵莫輕忽翻憶當年老釋迦曾餐馬麥居山谷。

開爐上堂涌金亭樹戰霜酣就路還家幾箇諳世界闊同火爐闊通身是眼更須參。

百老和尚入塔上堂辛亥年己亥月壬寅日丙午時泉石煙霞屬師久與交三十六峰知一爐香一甌茗一抔土一片石巍巍獨鎮柱乾坤八面風光有何極恁麼也成不恁麼也成恁麼不恁麼總成知恩誰是報恩者亭亭日午舊灘聲。

至節上堂冬至月頭賣被買牛冬至月尾賣牛買被惟有善權沒巴沒鼻破衲蒙頭渾無知識誰管你麻三斤乾矢橛萬法歸一咄。

聖節上堂日昇宇宙現禎祥統御金輪肅萬方林下緇衣何以報一函貝葉一爐香。

臘八說戒上堂聲前一句千聖莫傳格外一機萬靈罔措直得頓徹玄關別資一路不待滿天星現有耳目者同見同聞何須三聚戒圓有身心者同修同證擊香几云大眾會麼但辦肯心決不相賺。

元旦上堂諸佛覩不見祖師說不出善權特舉揚直下須委悉阿呵呵識不識驀然省得大年朝原是新正月初一日。

立春上堂離墨山前善權古剎荆自唐朝大中十年玄覺禪師為開山祖今復修整康熙元年百愚先師為中興祖時屆新春節令無影林中不萌枝上轉盼之間花紅葉綠文殊笑不自禁普賢忙無休歇山僧見之也只得合掌稱揚道箇不是心不是佛不是物且道畢竟是箇甚麼參。

解冬常舒湛菴二職事請上堂今朝正月十五諸方舊例罷爐善權不蹈故轍務宜復妙回途知有者必然自知奉重不知有者也須絕後重甦方可四五百條花柳巷不礙調心二三千處管絃樓何妨垂手掇香積於妙喜世界不涉功勳移滄溟於東西二沓了無變易與一切人為舟為楫為導為師總非分外雖然從來佛法無多子自是久長難得人。

佛涅槃上堂四十九年掘地覓天二月十五捶胸告苦今日則有自揚家醜明日則無一場懨懨你道釋迦老子即今何在喝一喝下座。

清明上堂春滿園林綠滿扉聲聲杜宇勸人歸好生記取春三月歲歲清明卻為誰。

浴佛上堂韶陽一棒善權一杓覲面相呈兩無差錯無明果自凋殘三毒花須零落不圖偃息干戈祇要諸人摸索未審摸索箇甚麼喝一喝云莫將無上醍醐究竟翻成毒藥。

天中節上堂德山入門便棒欺神瞞鬼臨濟入門便喝造妖捏怪俱抵只豎一指桃神賣桃符雪峰輓出三毬艾人騎艾虎到我善權總用不著朝來喚起無手人打動禾山鼓划開無底船載著瑞巖主拓來無底鉢滿釘黃金黍分付無舌人滋味憑吞吐報諸君莫莽鹵妙用縱橫得自由臨機不見佛與祖。

上堂若人欲識佛境界笑倒明州憨布袋當淨其意如虛空呢喃燕子語春風遠離妄想及諸取洞庭月在波心裏令心所向皆無礙行人更在青山外大眾於此薦得紅塵堆裏應現觀音百草頭邊分身彌勒可以一為無量無量為一大中現小小中現大世界無盡主伴重重圓融行布因果交微風柯月渚共演真常煙島雲林咸提妙旨塵說剎說熾然說無間歇當此畢竟功歸何所少選到齋堂謝護法供養。

為百老和尚豎塔幢碑銘上堂山僧自辛亥春應請善權進院後為先師塔事未妥尋山覓地得穴鳩工不覺神疲力倦偶然打箇瞌睡忽主塔神報云南陽國師洞賓僊子遠來奉看相見人事禮畢國師云煙漠漠草蕭蕭誰同建塔立清標多情只有白雲好夜夜飛來伴寂寥僊子云老師去幾經秋銘勒新碑豎隴頭滿洞桃花人不見一谿綠水為誰流正值朱文公講道學過此聞得亦高聲和云杜鵑啼杜鵑啼啼得山花血滿枝此境此時誰領略愈思愈想轉凄其三人唱和不已善權於中解嘲云昔年富盡來親今日無親祇為貪自是老人行處別非關弟子不知恩爾時頗得龜毛上座進前一揖大家而退是汝諸人終日在此開基掘土砌石栽松東邊上來西邊下去還

知者箇消息也未擊香几云無縫塔沒字碑萬松嶺畔共維持欲詢洞口深深意惟有清風明月知。

結夏上堂舉五祖演禪師示眾今夏無可管顧諸人近作一家讎遂抬手曰囉囉招囉囉搖囉囉送莫怪空疏伏惟珍重師云老東山忙忙碌碌慣將官物做人情善權亦不作家讎亦不致空疏但是饑則同餐渴則同飲倦則同眠一味平常汝等諸人只是不得動著動著三十棒。

晚參舉睦州示眾大事未明如喪考妣大事已明亦如喪考妣師云明與未明且置將甚麼喚作大事拈拄杖云道道看眾擬對以拄杖一齊趁散。

晚參舉玄沙因鏡清問學人乍入叢林乞師指箇入路沙云還聞偃谿水聲麼曰聞沙云從者裏入清有省師云此問一塔玲瓏萬竿蒼翠簷牙高啄鈴鐸和鳴且道與偃谿水聲還有差別也無喝一喝云饒從者裏入得更買草鞋行腳。

解夏上堂問如何是善權境師云前椽後瓦時時落如何是境中人師云東倒西歪日日撐進云人境已蒙師指示解夏一句作麼生師云纔奏南薰秋又至不知幾箇契無生乃拈拄杖云者裏見得親切始知善權人境迥異諸方前椽後瓦時時落東倒西歪日日撐苟或遲疑纔奏南薰秋又至不知幾箇契無生卓拄杖下座。

穆堂大師十周上堂秋風清秋月明山光水色遠相迎紛紛紅紫如花綴一笛金飆萬里情猛地愀然憶穆老十年忘卻來時道木樨今又綻庭除滿地香雲倩誰掃喝一喝下座。

晚參舉保福因僧問雪峰平生有何言句得似羚羊挂角福曰我不可作雪峰弟子不得師云保福祇知言中有響不解句裏藏鋒或問善權青龍平生有何言句得似羚羊挂角劈脊棒云不可道者拄杖不是先師的卓一卓云會麼雪竇昭覺一串穿卻。

因事示眾我本雲門四代孫單傳直指主宗門若容僧赴諸經懺祖道如何啟後昆。

誕日上堂連日出坡勞倦又值善權誕辰意欲說些佛法以結眾緣不覺思量半夜只得一句今早起來尚猶記得及至座上忽然忘卻了也拈拄杖云拄杖子你還記得麼卓一卓云切忌道著。

晚參舉巖頭因僧問浩浩塵中如何辨主巖曰銅砂鑼裏滿盛油師云諦當天童傑曰日輪正當午師云諦當弘覺恣曰白面郎敲金鐙過紅妝人揭繡簾看師云諦當看他三人與麼道諦當諦當又諦當若是塵中辯主善權敢保未徹在。

都寺監院募修大殿上堂巍巍剩有唐時殿風雨多年勢欲傾不昧前緣同出手三生功業又重新是故彌勒大師生平垂手頭頭揭示本來人懶融道者獨力行塵法法全彰玄妙意緣化威音那畔虎頭虎尾齊收道行鬧市叢中最後最初一貫所以人能弘道非道弘人古之今之原無二致事也理也

豈有兩般果然舒卷不落功勳去來了無變易紀綱從今不墜標格自此恒新然則原始要終一句又且如何兩人同一心黃土變成金。

晚參舉勇禪師云保寧乍住不曾停日日街頭巷尾行張三李四相逢著剔起眉毛作麼生師云山僧不似保寧勞而無功動人驚訝善權纔住萬機停一步何曾向外行縱是樵柴推石老相逢也慶是三生。

為蔣晦齋護法西邁上堂笏止石霜不無將錯就錯帶留山寺猶是以訛傳訛總不如蔣豸史胸藏聖賢武庫肘佩佛祖靈符護法幢渾無洞濟之分嬰患難不見自他之相是以風生八極名播諸方六十六載無生而生明月臨滄海九月十三非滅而滅白雲掩碧峰雖然祇如客歲來啟云愧乏黃金布地敢居護法之倫幸有赤膽包身願執降魔之杵試問居士如何得不虛前言去卓拄杖云倒騎箕尾出閻浮天下名藍無不照。

衍慶竹浪和尚至引座上堂金鞭手握寶劍眉懸獨步神州橫行赤縣此是衍慶和尚尋常作略到處為人今特來山不宜錯過要得懸崖撒手絕後重甦必須劍刃翻身當仁不讓善權禪眾雖在老成怕死貪生諒亦不少若非向上鉗鎚總是畏刀避箭諸禪德委悉麼驚群須是英靈漢敵勝還他獅子兒。

開爐上堂喝一喝云若向其中會得渾無一法當情說甚如來把臂直教列祖同行不必開爐設浴何須撥火添薪寂寂直言寂寂惺惺直言惺惺揭示人天榜樣坐斷報化頂[寧\*頁]柳煖回而自秀梅寒徹而遍馨盡是自家事務胡為更問他人苟或停思佇意善權再為指陳喝一喝下座。

為百老和尚上塔頂慧慈知藏請上堂問長空日上峰含秀老樹雲凝塔影閒正恁麼時先老和尚還來應供否師云煙霞生背面進云古佛全身隨處現棲真底事又如何師云星月遶簷楹進云塔前更有真消息華放山頭遍界香師云知音之後更誰知拈拄杖左卓云煙霞生背面右卓云星月遶簷楹復中卓云層落落影團團千古萬古與人看喝一喝卓拄杖下座。

至衍慶竹浪和尚請上堂少室峰前別無指示曹谿路上豈有多傳在善權於法自在到衍慶客聽主裁拈拄杖云就中須是頂門眼正掌上機圓格外明宗言前定旨方可蹈中興之禪席睹繼起之芳規自是主賓互換敲唱雙行韻出青霄風生滿座山河大地盡作琴聲草木叢林順方低向卓一卓云正恁麼時還是主賓互換耶敲唱雙行耶不須此外求玄妙請向堂中問主人。

解冬上堂去年公案今日判明草鞋放假箬笠翻身鷲豎拳云祇有者箇無來無去迴絕疏親入戶當堂慵正坐出門猶懶下階行。

### 住安慶白雲山香爐寺語錄

永澂永徹二禪士同眾護法請上堂師陞座拈香祝聖畢次拈香云此一瓣香產自桐谿長成弁嶽十數年來業已東拋西擲四回拈出從教腦裂鼻穿

供養前住浙江紹興府大能仁寺洞宗正傳第二十九世百愚斯老和尚雖然本自玲瓏也要大家委悉白椎竟乃云白雲本是無心物自是無心出上方侵曉橫趨金殿過滿前散作御爐香拈拄杖云蕩蕩乎民無能名焉是故臨上蒼則為日月靈光獨耀迴脫根塵處下界則為山河心性無染本自圓成居三教則為聖賢體露真常不拘文字成四眾則為自己但離妄緣即如如佛然在白雲又為甚麼卓一卓云時若雨暘明盛世禽魚草木樂昇平復白椎下座。

中秋示眾客歲中秋玩善權今宵又坐白雲巔重重光彩年年見兩地清輝一樣天各各須知真月現曾無明暗豈推遷諸人要識真月麼莫辭達曙慙慙望一墮西巖又隔年。

誕日示眾舉那吒太子析肉還母析骨還父然後復現本身運大神通為父母說法大眾骨肉既然都還父母畢竟是誰為伊說法擊香几云世間無限丹青手一段風光畫不成。

上堂庖丁子目無全牛解心猶在漆園叟蝶與俱棚夢境未忘衲僧門下獨脫無依又作麼生阿刺刺。

至西來菴珂月書記請上堂問有相能殺能活遇緣即宗浮山九帶請師舉揚師云逐一問將來進云少室峰前不容擬議威音那畔杳無消息作麼生是佛正法眼藏帶師云木雞啼子夜石虎嘯天明進云世尊三百餘會未曾談著一字那是佛法藏帶師云雲藏無縫襖花發不萌枝進云聲色不到語話難詮何為理貫帶師云春風來大地明月朗中天進云日月照臨不到天地覆載不及何為事貫帶師云潮來兩岸闊風正一帆懸進云截斷眾流不通凡聖如何是理事縱橫帶師云有水皆含月無山不帶雲進云未離兜率已降皇宮未出母胎度人已畢作麼生是妙協兼帶師云天共白雲曉水和明月流進云雞足入定嵩山面壁那是金鍼雙鎖帶師云一掌一握血一棒一條痕進云直須旨外明宗莫向言中取則作麼生是平懷常實帶師云雲散家家月春來樹樹華進云更有一帶請師拈出師便打進云簷前不斷連宵雨殿後還聞半夜雷師云知音不必頻頻舉達者應須暗裏驚乃云達磨西來以一乘法直指人心見性成佛若是箇漢如春回大地月朗中天一處明千處萬處一時明一處透千處萬處一齊透任是洞山五位臨濟三玄法眼六相浮山九帶信手拈來一捏粉碎雖然如是且作麼生是西來旨趣祖意分明總現前慙慙不惜為重宣日迴萬井煙如織檻列平疇翠欲聯乍有乍無催麥雨半明半晦眼花天時時雖把真機泄千聖依然妙不傳。

吳護法得子福全供法帔就大士誕日請上堂以拂子畫○相云大眾會麼萬派千流同歸性海百千三昧總在心源直須因地一聲點出普天春色重重寶印其間誰辯端倪朵朵珠瓔箇裏潛通消息其舒也現宇宙於毫端處處呈圓通之境界其卷也攝大千於方外頭頭揭本地之風光以此祈禱則福壽雙全以此傳家則兒孫滿目不假他術本自圓成祇如覲面全彰畢竟

功歸何處父子有親君臣有義夫婦有別長幼有序朋友有信喝一喝云三十年後莫道白雲今日念四書參。

上堂遠近谿山畫裏懸聲聲玉笛破寒煙慙慙寄語諸仁者須信壺中別有天以拂左擊云歸元性無二復右擊云方便有多門拈花微笑水碗投鍼亦是方便風動幡動船來陸來亦是方便舞笏擎叉張弓架箭亦是方便談玄談妙論主論賓亦是方便以至語默動靜三藏五車無往無非方便大眾既然都是方便如何是歸元的旨擊拂子下座。

上堂具足凡夫法凡夫不知具足聖人法聖人不會聖人若會即同凡夫凡夫若知即同聖人豎拂云還是凡夫法耶為復是聖人法耶者裏薦得一天真處處自在紫陌遊人提向上之機金色頭陀無容身之地雖然且道凡之與聖畢竟相去幾何復揮拂云秋老東籬菊更鮮幽禽啼破隔谿煙卻將底事分明泄不會從教問碧天。

啟建楞嚴會上堂見見之時見非是見見猶離見見不能及世祖功成三十六雲臺怎似釣臺高諸可還者自然非汝不汝還者非汝而誰本欲逃名山裏住住山名反出人間喝一喝云今日為人錯下名言。

(弟子德瓌備資敬刻)

方丈和尚語錄第四卷奉為生身父母

頭頭早證真常過去宗親處處速

成勝景)

寒松操禪師語錄卷第四

住安慶寶巖山雲際寺語錄

闔山請上堂拈香此一瓣香造化三才總持萬象祝一人之睿算兆億姓之謳歌此一瓣香道秉賢良德存忠孝奉為皇家柱石永成佛國金湯此一瓣香非正非偏一度焚來毒似鳩離名離相五番爇出烈如砒供養越州雲門顯聖堂上洞宗正傳第二十九世百愚斯老和尚不惟出處分明且貴本源有自斂衣就座白椎竟師云金雞宿水啼聲聲而石屋嵐橋石蚌含珠光燦燦而考峰峙錫人天承蔭覆遠遺宋世槐陰凡聖得交參近現吳中石像於此廣大門風威德自在時時為諸公發向上機轉第一義更欲山僧搖脣鼓舌堪作甚麼祇緣一向遠遊到處提攜今日歸來了無一字敢借拂子威光別顯神通去也揮拂云一別寶巖三十年孤筇萬里任翛然祇知去日眉橫眼依舊回時耳墜肩雲散東林猶吐月石環西澗尚鳴泉風光似昔誰相委祖意從來不變遷喝一喝復舉投子同禪師因僧問如何是一大事因緣子云尹司空請山僧開堂師云投子雖則答處孤危用處峻峭人情佛事兩得周全簡點將來不無滲漏有問新雲際如何是一大事因緣但云龍袖拂開千聖眼金毛獅子奮全威復白椎下座。

聖節上堂前佛後佛佛心無量不論頂天履地祇宜玉出崑岡人王法王王道同彰任他含齒戴髮盡是率賓歸王一人有慶萬壽無疆一佛出現千佛讚揚未審讚揚甚麼化被草木賴及萬方。

回里掃墓闔族請上堂無為至孝異常未審諸人會否欲酬罔極深恩須識本來父母灼然識得本來父母落處則知自己落處知得自己落處則明佛祖落處明得佛祖落處便可橫身宇宙獨步大方提出格之機行逸群之令不動微塵坐寶王剎不舒長舌轉大法輪俾人人達本生緣使箇箇知恩有地所以道流轉三界中恩愛不能捨棄恩人無為真是報恩者大眾祇如山僧別去三十餘載今日自遠回鄉作麼生與本來父母相見良久云白雲千里人回首紅葉一谿霜滿天。

父忌日上堂父有出塵心年深未得遂兒無出世心為覓父歸地遍尋不見蹤雜染代其志今經三十年晨夕未常易處處得逢渠頭頭得奉侍春去與秋來面目曾無二昔救方家數十人千金不受咸稱義年年九日菊花新剩有東籬常作忌(甲戌之變救方玉華等厚報不受)。

古璞侍者薦親請上堂父母非我親誰是最親者諸佛非我道誰是最道者古人與麼說話未免轉涉多岐拈拄杖云父母非我親者是最親者諸佛非我道者是最道者能從者裏洞徹玄微大海長河一任攪為酥酪刀山劍樹直教變作瓊林無淨上可求無娑婆可棄無涅槃可證無生死可了其來也

月映滄海其去也雲過太虛雖然若是不去不來又作麼生卓一卓云鸞鳳不棲無影樹峰巒一帶海雲遮。

母忌日上堂出家非是惜閒身矢志空門報二親不向天宮為說法豈從地府示前因花開九夏萱初放香綻三秋桂乍新我母音容恒不改何須問佛定蓮生便下座。

示眾鯤化而為鵬魚化而為龍然而鯤之與鵬魚之與龍未始有二也良由養性情變氣質故耳性情不養終成凡鳥氣質不變卒為困魚安得有搏風激水擎雲攫霧之用哉爾等既入空門大不容易必須削人我屏是非絕名利五色無以昏其眸五音無以亂其聽千機無以攪其神出處行藏使人莫測若是正眼看來猶未是向上事且作麼生是向上事喝一喝云青林有雀安知鵠碧海非鯤不化鵬。

祈晴上堂連朝風雨溼天關浸爛衲僧鼻不乾喝一喝云放教一輪紅日現乾坤無處不開顏大眾見麼卓拄杖下座。

上堂舉瑞巖海禪師造雲居居問甚麼物恁麼來巖於言下大悟有頌曰雲居甚麼物問若頭恍惚直下便承當猶是生理沒師云喫官酒臥官街當處死當處埋擊香几云他時後日莫受人瞞。

示眾欲壘九層之臺一簣為始欲行千里之路一步為初今晚是結制之初人人正宜磨礪志氣抖擻精神發大疑情起大勇猛無論一七二七一二期兩期辦取一片鐵石身心拌取一條赤窮性命將昔日在諸方所學所得尖新語句錦繡文章一放放下縛作一團拋去東洋大海置之莫顧單從無義味話頭上立定腳跟與之抵捱將去似鐵壁銀山一般過不得要過打不通要通直待人境寂心法空是非盡情識忘久久純熟自然解脫如洞山睹水雲門折足臨濟還拳為仰撥火法眼詞窮皆是偷心泯絕知解脫落能所俱盡得失兩忘似空合空如水投水既非勉強安用拍盲到此縱饒識得古人領悟之易亦當知古人未領悟時之難苟知其難則自至古人之易苟不知其難欲效古人之易何異螢光擬附太陽非其類也是則是矣大丈夫漢有衝天志氣肯被難易所束且作麼生得不涉難易到者方知。

因事示眾法門清淨戒為先卻病緣何定假煙若使膏肓煙可治盧醫不待古今傳急改過莫留連從此通身俱放下僧規還可繼前賢。

上堂問就語接人隨機利物機語且置如何是君師云化日山川麗仁風雨露新如何是臣師云舟楫當時望鹽梅命世才如何是臣向君師云咫尺親金殿從容下玉堂如何是君視臣師云鳳展臨花暖龍爐到處香如何是君臣道合師云山河天眼裏世界法身中進云五位已蒙師指示同歸化育又如何師打云知恩者少乃云虛玄大道無著真宗就語接人隨機利物夜明簾外父子功齊寶鏡堂前君臣道合一機一境宛轉旁參一唱一酬協通兼帶通方上士舉起便知中下之機更聽一頌駐蹕青霄泛鐵船絲綸滿載孰能傳夜深不泊東西岸棹轉珊瑚吐碧蓮卓拄杖下座。

除夕小參晨早起來大殿僧堂各各和南聖眾為他一年將盡夜梅似開而不開中過已後影堂祖塔處處行香作供為他萬里未歸人天欲雪而不雪後巷前街螻蛄眼中放夜市東村西舍大蟲舌上打鞦韆碌碌與忙忙看看日又夜大眾雲際與麼舉揚還有祖師意也無來年更有新條在惱亂春風卒未休。

值雪上堂大雪紛紛下柴米都長價葡萄架俱燒嚇得[竺-二+搶]籬怕休要怕有安排梁空正欲尋知己一片白雲谿上來。

元宵小參畫此○相云盡法界是一真燈遍塵區是一雲際諸佛在此轉大法輪列祖於中建立宗旨東是知事琉璃滿腹藏明月西為頭首菡萏通身放寶光後日方丈十分桂魄千門曉前謂水雲萬斛蓮花一夜開若是伶俐衲子於中一撥便回始信古今燈一碗照天照地幾人知。

佛涅槃上堂諸行無常是生滅法生滅滅已寂滅為樂大眾三文錢娶箇黑老婆頭不梳面不洗知他是凡是聖喝一喝下座。

清明上堂冬至寒食一百五桃紅李白花無數本來父母不曾藏何必墳前閒訴苦。

晚參舉首山念禪師示眾云若喚作竹篋則觸不喚作竹篋則背且道喚作甚麼速道速道師云觸不得背不得拿三道三以楔出楔洞在機先間不容髮咄莫輕忽冲霄須是遼天鷲。

辭眾昨宵枕上作得一偈非圓證古明今抑且應時及節諸公還願聞麼麻衣靱履皂通身自號羲皇古上人禮樂文風拘不得倒騎驢子下桐城。

至竹林菴自恒禪士請上堂即心即佛松直棘曲非心非佛填溝移嶽不是心不是佛不是物龜毛拂子繫清風兔角杖頭挑白日非風動非幡動北俱盧州設齋南瞻部洲應供是船行是陸行藕穿平地為荷葉筍過高原作竹林大眾於此明得船子扁舟渡洙水於此不明性空鐵笛響雲間有箇漢出來道明又爭得不明又爭得山僧向他云得與不得只待九峰點頭然後卻向汝道。

至廣福禪院珂月參頭請上堂問廣福院中宣正法青村谿畔水長流如何是源遠不竭師云一派千流演如何是截斷眾流師云千流一派收進云達磨西來○還有者箇麼師打云者是甚麼進云也要和尚證明師云不勞再驗乃云山僧向在山中祇見山中佛法雲生疊嶂霧鎖層巒虎嘯清風龍吟皓月石頭大底大小底小法身長者長短者短一一天真非從人得今來海畔祇見海畔佛法一派千流演千流一派收氣結蜃樓潮飛駿驥時或源遠不竭時或截斷眾流一一明妙不必外尋○且道者箇是山中佛法耶海畔佛法耶只恐分疏不下。

至玉山眾護法請上堂談玄談妙無殊指鹿為馬行棒行喝何異畫餅充饑打地擎叉瞞肝佛性張弓架箭籠個真如豎拂云爭如者箇獨脫無依獲大神變常在家舍不離途中雖在途中不離家舍一語一默無非直指單傳一

放一收自是全提大用未審是甚麼物得與麼奇特擊香几云海神知貴不知價留與人間光照夜。

遠歸上堂舉黃龍南禪師出城歸院示眾云去時一谿流水送回來滿谷白雲迎一身去住非去住二物無情似有情師云黃龍老漢雖然見有送迎未免情存背向山僧自別陽羨渡蕪陰泛潛川過桐谿因酬生身剃度得戒三大大事畢方回亦有一偈去日芒鞋寧似虎歸時拄杖活如龍年來三事都酬畢笑引風雲入畫中。

## 再住常州國山善權寺語錄

師因陳氏彊豎旗竿於法堂右首乃拄杖出山郡邑當道同眾紳衿護法革其斂整其規躬送入院請上堂拈香云此一瓣香至仁至聖至貴至尊端為祝延聖躬萬安此一瓣香奉為朝野公卿以為己之心為人人人自在現前檀護以出世之心經事事事圓融此一瓣香遇險則堅逢彊則銳曾已五回蕪出何妨六次拈來供養皋亭山佛日寺洞宗正傳二十九世百愚斯老和尚舒卷固然在己縱橫原不由人斂衣就座衍慶和尚白椎竟師云飄然一杖出雲端為占官基豎幟竿今日仍歸常住地山林不改舊時觀還有共相證明者麼問雪逞風威白占山林能幾日師云眾眼難瞞進云雲乘雨勢黑漫天地有多時師云殷鑒不遠進云與麼則劍為不平離寶匣藥因救病出金瓶師云點石化為金玉易勸人除卻是非難拈拄杖云者裏看得透識得破任他雪逞風威雲乘雨勢千年聖蹟頃作凡祠咸云頭上無天要顯真中有俗幸得晴空日出遍界光輝郡邑檀那復歸古剎非謂大洋詎細為明獅窟絕狸雖則情理難容何妨殺人可恕要知道本無言須識因言顯道所以世尊將佛法付囑國王大臣豈意二千年後善權堂上一會靈山儼然未散大眾正與麼時如何委悉復卓一卓云八千子弟今何在一統江山屬帝乾白椎下座。

結制上堂金剛圈栗棘蓬羅籠跛鰲盲龜木札羹鐵餕飩打發閒神野鬼若是煅煉五湖衲子鉗錘四海英靈善權又且不然喝一喝云多虛不如少實。

句容黃護法為母華誕請上堂法無定相遇緣即宗道在尋常由人施設豎拂云者位尊慈頊向瑤池王母一時遊遍四天下然後復還本處矢口而吟曰布雲霞之澹蕩兮煥乎其有文章鳴風月之肅清兮飄隴梅之馨香茲時也有人焉履冰雪而凌霜出類兮似川之媚拔萃兮如山之琅登從心之地兮出素筵以稱觴節松柏之操兮獨標傑而流芳奏法樂兮非笙而忽簧孰知其壽域以造乎無疆是汝諸人還知善權者段因緣麼今朝護法設齋直須各各飽餐。

佛成道上堂六載勞形贏得骨露皮穿一夕星燦便乃造妖捏怪誇大口多銜賣累他僧僧俗俗受利受害不肖雖忝為遠代兒孫要且無喜無憂無嗔

無愛端的緣何至如斯行人更在青山外。

元旦靈一禪德領眾請上堂簾捲東風拂曉天幽鳥語谿邊聲聲鼓角遠相連咸歌大有年說甚道論甚禪風光滿目前撫掌同來笑碧巔無事小神僊復舉甘贄行者入南泉設齋時黃檗為首座因緣師云首座釘椿搖櫓見處偏枯行者通身賣富情存背向爭似雲間蔡居士設齋行嚬母固母必飽食諸人年年相見歲歲相逢。

剖塵悅眾為師祖周忌請上堂白雲澹蕩梅花瘦碧澗深澗夜月明此乃是你生平受用從來本有性靈杖藜不住雲間寺轉步南辰北斗看此亦是汝去世三周放下全身消息澗月禪德你還會麼喝一喝云僊彩筆端描不就數聲黃鳥更幽然。

上元解制上堂揭天錦繡壓地樓臺風醉笙歌香飄羅綺進一步覷著時祇恐不是玉退一步踏著時是玉也大奇直饒七縱八橫東涌西沒草鞋似虎拄杖如龍離墨峰頭未肯放過且道利害在甚麼處芳草寸心須努力休教辜負好春光。

上堂固窮守寂衲子家風附熱趨喧常人活計卻笑適千里者三月裹糧適百里者宿春糧爭似此間日日絕糧也不見有箇慍色食前方丈亦不見有些動容正是隨流認得性無喜亦無憂大眾除卻喜憂那箇是性咄劍去久矣。

祈雪上堂一年時事今將畢為問蒼天何不雪好覆千山與萬山片片飛來應時節應時節向誰說金剛腦後三斤鐵。

普請老和尚塔上栽松示眾朝來二月旦不用深思算祖意甚分明吾道只一貫塔上請栽松鑿邊仔細看看破事如何木雞啼夜半。

佛涅槃上堂涅槃生死等是空花佛及眾生皆為剩語喝一喝云涅槃耶生死耶佛耶眾生耶大眾設有一法過於此者皆為剩法復喝一喝下座。

南岡獨立和尚至引座上堂為師壘塔累終朝幸有同門遠慰勞驀地相逢惟一笑人情爭似道情高大眾還識者一笑麼任是奔流度刃罕搆其機霹靂翻身難逃點額當知三世諸佛橫說豎說不曾道著一字歷代祖師全提半提不曾接得一人雖不接得一人各各眉橫鼻直雖不道著一字言言玉轉珠迴玉轉珠迴縱隔多程而舌同一音眉橫鼻直縱離多載而心同一志未審有何奇特便能威德如然慇懃請說其中意打鼓報君君自看。

浴佛上堂天宮不住降王宮平地無端鼓黑風祇為當初多捏怪年年惡水灌無窮。

結夏小參綠暗紅稀日漸炎無邊好景逐時遷慇懃莫與輕虛擲一去風光不再還須急薦謾遲延善權覲面為君宣山家四月閒人少纔了桑麻又插田。

天中節上堂一抽三二添四黃牛角向天八腳垂過鼻師云五祖固然逞盡神通仔細看來太竭力生善權不比諸方水綠山青道泰千殃百忌無拘放教人人瀟灑何故家無白澤之圖必無如是妖怪。

弁山且拙和尚訃至上堂道被湘江化行吳越門庭高峻機用超群幾微而振五家直指之宗自隱而彰三藏欲湮之旨貝成珠網不時彩鳳集山城玉作金圈無限錦鱗來澤國千差一照萬化皆如去住翛然縱橫無礙然則法雨既停於此土慈雲又布於他方現前諸公諒已不言而喻矣祇如末後道弁峰撒手歸赤棘穿牛斗又如何論量一把柳絲收不得和煙搭在玉闌干。

祈雨上堂天時久不雨憂動士民心拄杖化龍眾油然起作霖且道雨從何來卓一卓云切莫打溼老僧袈裟角。

上堂問水汎蓮華風飄蘋葉不問箇中消息何為誕生王子師云天然真智處皇宮如何是朝生王子師云出語驚群協古風如何是末生王子師云十載柴門深履踐如何是化生王子師云一鞭霜雪定寰中如何是內生王子師云九重深密孰知名進云江上一聲吹玉笛調高流水唱新豐師云不勞讚歎乃云天然真智處皇宮出語驚群協古風十載柴門深履踐一鞭霜雪定寰中更有內生人不識沉沉古殿莓苔封喝一喝云他時後日切忌錯舉。

謝雨上堂昨朝乾爆爆今日黑漫漫還是神通妙用為復法爾如然良久云蚯蚓抹過東海蝦蟆跳上梵天。

小參參禪無別訣只要生死切穿衣喫飯是生死迎賓待客是生死思善思惡是生死修慧修福是生死行住坐臥一動一靜無事而非生死喝一喝云是生死耶非生死耶於此親切一番自然旋嵐偃嶽而常靜江河競注而不流羸馬飄鼓而不動日月歷天而不周無修無證無悟無迷一切智智清淨無二無二分無別無斷故欲覓生死解脫之相了不可得畢竟如何喝一喝云井底蝦蟆吞卻月。

自省禪德薦親請上堂非法不說法法說無非法一法印森羅寧有法不法如是則煙渚雲林時吐廣長舌相霞峰霧泚常談少室心宗提挈四生直至菩提之岸津梁萬有為架六度之橋今古恆如孤明獨運來去既然絕跡死生何處安排良久云萬綠叢中藏不得清風影裏露全身。

解夏上堂知是者般事便休更嫌何處不風流文殊三處過長夏迦葉拈椎不自由苟不超然物外頓明本地風光任爾蒲團竹几通宵坐掃地焚香白晝眠亦是繫駒伏鼠直饒心將流水自清淨身與浮雲無是非未許通宗趣極祇因你被十二時辰使不能使得十二時且十二時如何使得乃屈指云子丑寅卯辰巳午未為何末後不道參。

吳護法誕日請上堂金風乍起玉露垂珠斗轉銀河星臨南極古今大意歷歷圓融佛祖真機明明顯現天以之高地以之厚山以之青水以之秀智以之樂仁以之壽於此明得莊嚴無量智慧無量壽命無量眷屬無量鷲豎拂云大眾你道者箇還有壽量也無萬年松在祝融峰。

誕日上堂未離兜率已降皇宮及其離也出身猶可易未出母胎度人已畢及其出也脫體道應難引得後人不曰是非海裏橫身入則云狼虎群中自

在行莫若善權四十八年前天上無雙月四十八年後人間只一僧恰值今日又且如何卓拄杖云閒攜一杖山前立終日嘻嘻等箇人。

徐太夫人請上堂問千里遠來呈舊面全提法要示新機向上宗乘即不問設齋請法事如何師云秋老月將華進云祇如財法二施阿誰分中消得師云風高日又出進云恁麼則端坐受供養施主常安樂師云也須吞得下吐得出始得問寂寂惺惺時且置如何是父母未生前一語師云不得鴈來賓焉知九月一進云不是心不是佛不是物是箇甚麼師云葉飄嶺上楓花綻籬邊菊進云恁麼則當陽突出真面目師云耳聽終難會乃云秋老月將華風高日又出葉飄嶺上楓花綻籬邊菊既知不是心盡道亦非佛識得此根源萬般事已畢諸人要識根源麼不是鴈來賓焉知九月一。

都寺誕日請上堂明明百草頭明明祖師意虎嘯乃風生龍吟便霧起於此有人焉股肱堅其志風霜十五秋素懷終不易於今知命年慶祝乏人事想諸供養中惟法供養最供養即不無如何是法味良久云相逢自有知音知何必清風動天地。

蔣太史誕日請上堂問慶誕偶遇深秋畢竟有甚佛法師云野楓映日而紅進云相呈覲體不隔毫端父母未生是何面目師云雙瀑噴空而下進云恁麼則正眼豁開全身獨露師云好與一分饅頭乃云誕遇深秋有甚佛法野楓映日而紅疏竹和煙而緣父母未生是何面目雙瀑噴空而下千峰拔地而高正眼豁開者移花兼蝶至好與一分饅頭機思遲鈍者買石得雲鏡亦好與他一分饅頭因甚如此佛法原來無兩樣。

重九上堂國山雲淨看晴期洞口聲寒橘綠時香醉赤萸浮北海英飛黃菊笑東籬深林犬吠人行早邃谷煙流鶴到遲摘得一枝霜下傑等閒莫使曉風吹大眾會麼會則兩兩不成雙不會則三三自成九會與不會且過一邊拍案云相逢若是淵明士把手高歌歸去來。

師因有僧倚勢枉求當道吞謀常住上堂惟道惟微帝推帝位於天下惟心惟危僧占僧居於世間上古未聞於今罕見不是貪嗔出世安能遍界縱橫所以從周錄云既得浙西之隴矣又望荆谿之蜀焉真如秦人之蠶食六國地不盡不休也今日看來果然其事任他誑求當道約束有司說是說非分門分戶身佩三玄甲冑口銜七事干戈明合暗合休言人不測逆行順行自是已難瞞直饒弄到帝王家總是一場乾打鬪須識衲僧行處如火銷冰獅子遊行不求伴侶何必假豪貴之威權壞法門之綱紀大眾善權若與之縱彼貪心逾熾不與之增他嗔念益多畢竟如何但將冷眼觀螃蟹看彼橫行到幾時(癸丑九月十九日)。

退院上堂善權繼席已三年輔弼叢林謝眾賢堪笑者僧丁倒甚好因緣是惡因緣所以世尊捨頭目腦髓化彼貪恚眾生菩薩捨國城妻子化彼愛欲眾生圓覺聲聞捨貢高我慢化彼人我眾生善權今捨名山大剎還是化貪恚愛欲耶為復化人我謀占耶者裏定當得出動若行雲止猶谷神去是住

時因住是去時果設或未然卓拄杖云且看去路一身輕似葉不為高名千古重如山拄杖便行(癸丑十一月十三日)。

(弟子德 備資敬刻

方丈和尚語錄第五卷伏願匡襄祖道

同明般若正因扶樹宗風共植金

剛種智)

寒松操禪師語錄卷第五

住常州荊谿安樂禪院語錄

師於康熙癸丑冬在衍慶寺受請上堂拈疏云行行字挾風霜句句篇連錦繡要知錦上添花須向人前剖露。

法座豁開戶牖大座當軒且道是誰行履喝一喝便陞問獅子吼時芳草綠象王行處百花紅獅吼象行即不問隨緣赴請事如何師云寒谷石抽雲外筍進云謝師指示師云層崖花發劫前春僧禮拜師云窳堵遵師建善權幽深頗洽隱山緣徵書無奈相催逼出世何妨入市廛還有同行共步者麼喝一喝云獅子吼時芳草綠象王行處百花鮮。

十二月十一進院三門二洑河瀾萬山拱翠霧涌霞烝龍驤虎驟門開八字迴無遮踏著便歸安樂地。

佛殿佛省覺義覺者是誰喝一喝便作禮。

韋馱童心秉赤日大願作金湯多年都借重今不再商量。

伽藍虛而靈寂而妙千載叢林時刻相照。

方丈棒領德嶠關透雲門到來者裏好與烏藤祖師門下令不虛行。

開堂拈疏衲僧家羅籠不住呼喚不回因甚被他鉤引到此順是菩提。

法座情知山曲峻卻愛履平夷不識今何事朝來涉嶮巘遂陞座。

拈香此一瓣香本非沉速價重娑婆熱向爐中丕贊皇圖光揚佛日此一瓣香奉為在野在朝處處咸歌有道同堂同社人人盡樂無為此一瓣香多年行腳遍參二十餘人七處拈香只為臨悄三拜供養前狂荊谿中興國山善權寺堂上洞宗正傳第二十九世百愚斯老和尚一任熏天炙地有耳朵者辯取白椎竟師云一即不觀觀即不一正法眼藏委在今日若有作者好來證明問天垂寶蓋時姑置地涌金蓮作麼生師云日裏看山非自己進云丹鳳舞時呈瑞氣象王吼處又如何師云庭前指柏豈西來進云謝師指示師云逢人不得錯舉問龍到水到即不論全提祖印事如何師云機先無的旨進云寒徹一園千幹老梅花從此更添馨師云句後莫追尋進云好向林間伴明月撥開冰泮得珠璣師打云非公境界乃云孤峰頂上盤結草菴未為究竟十字街頭解開布袋轉見周遮日裏看山謾認學人自己庭前指柏休云祖意西來當知百千法門中殊勝法門無量妙義中真實妙義禪外無淨惟宜直下承當淨外無禪只貴隨心具足拈拄杖云禪耶淨耶是一是二卓一卓云逢人不得錯舉白椎下座。

當晚小參從上古家風超然迥異同一片閒田地慇懃問主翁正偏兼料揀日臨光皎潔三句六相義月上影玲瓏撩起便行者白衣堪拜相三登九到

者滯殼又迷封要得現成就日用自磨礪經行及坐臥常在於其中雲冉冉水溶溶無背向沒西東幾度買來還自賣為憐松竹引清風。

元旦上堂新歲值三寅萬物各咸新歡聲聞宇宙瑞氣滿乾坤豎拂云惟此安樂主人不逐四時遷不從新舊易與奪不能移其心聖凡不能混其跡從來鼻孔自撩天到底無人識面目咄咄咄萬年童子鬢如絲千歲老兒顏似玉。

浴佛上堂麻三斤乾矢橛投木桃報瓊瑤若作奇特商量武陵春已老不作奇特商量臺榭綠陰多畢竟如何可惜一盆湯。

聖節上堂景星輝彩鳳舞雲從龍兮風從虎滄溟有口莫能宣柳栗無心猶善舉卓拄杖云大眾還會麼聖人作而萬物睹。

結夏上堂年來安樂勝諸方八面薰風共一堂底事無因費度量甚尋常木童笑指野雲忙。

端午上堂五月五日天中節機呈百草重重泄雄黃不用點硃砂赤口白舌盡消滅有箇符使卻來報道近有一等號假銀禪念念貪嗔新新倚勢占人寺業奪人家山病人膏肓魔深譫語鍼不能救藥不能投欲就和尚覓道真言安樂即差符使前往少林仰白達磨搗塗毒鼓桃人握桃符艾人騎艾虎蒲劍一揮蹤蹟無縱橫妙用絕方所翻身趁出鬼門關大地山河無寸上假銀禪悟也否咄此番須識主中主。

中夏小參半夏前無角鐵牛少室眠半夏後戴鈴石虎懸巖吼正中夏荷香一片真瀟灑滿懷傾出夜明珠獻寶波斯難著價。

建盂蘭盆會示眾目連尊者遊獄救母則易識未生前父母則難識未生前父母則易看徹父母未生前面目則難有一丈篷可以使八面風無三尺鞭莫能控千里馬若人看徹本來面目我當刎頸而謝之。

解夏上堂入夏始安禪經秋餞別筵山中九十日雲外幾千年怪石頑能語閒花老更鮮來朝歸舊隱不必向人傳。

開爐上堂拈拄杖云者火種分付來多少時也你若觸他則燒殺你若背他則凍殺直饒不觸不背又是臨崖看滸眼特地一場愁忽有箇漢出來道合作麼生吹一吹云急須照顧。

冬至上堂豎拂云魯公臺上書的不是者箇消息慈明堂前揭的不是者箇消息惟我安樂者裏別有一番風致左拂云水歸大海波濤靜右拂云雲到蒼梧氣象閒擊香几云依前日午打三更。

臘八說戒上堂雪山六載受盡饑寒虛消歲月卓拄杖云筍忽睹明星拾得鼻孔失卻眼睛卓拄杖云筍走出山來滿袖清風一場懨懨卓拄杖云筍適來木上座將釋迦老子一串穿卻汝等新戒菩薩還覺頂門重麼卓拄杖云筍。

除夕小參踏翻生死關頭一任風雲變易踢碎聖凡窠臼從他節令遷移二六時隨處作主一切處遇緣即宗或隱而彌彰戲鬱壘於是非場裏或顯而不露換桃符於聲色叢中撥轉機輪拈無絲之玉線迴超事理穿沒鼻之金

鍼一縱一橫徹見萬家春象一收一放畢彰大地風光大眾正當此際還有不涉新舊者麼滿頭白髮離巖谷半夜穿雲入市廛。

乙卯歲旦拈香上堂問龍樓排仗御街處處山呼祝聖還是端拱而治還是新年佛法師云曉雲和日起晴鶴帶霜飛進云與麼則知天知命聖與師同師云道他拄杖年多少進云不令遍行微妙旨直教大地布陽春師云不勞讚歎乃云龍樓排仗御街前處處山呼祝帝乾妙協群機齊入貢從教諸道自分權此是萬化不渝四臣不昧端拱而治不令而行祇如林下禪和又作麼生仰祝慶遇臣僧剛五十黃河清見萬斯年。

立春上堂春草醉春煙春雲靄春天春牛纔露地春事又承肩驀豎拂云看看牛在者裏且作麼生放牧擊香几云一回入草去莫惜痛加鞭。

元宵罷爐上堂晴光透幕淑氣經簷十二都城錦繡中三千世界笙歌裏明中有暗處處星橋開鐵鎖暗中有明家家火樹合銀花直饒明暗雙彰體用俱寂烈燄爐中撈得月大洋海底剔金燈便與麼去法堂前何止草深一丈更須知鬧市裏辯取天子百草頭薦取老僧當處可以圓成隨機可以解脫若還逐境生情只得別通消息喝一喝云慙慙為解丁香結放出枝頭自在春。

福嚴吳長老通嗣書至上堂秀劈嵩山妙在香飄果熟派分洞水貴圖源遠流長信息通兮清風江上乘時舞棹揚波梅子熟也明月村前正好垂綸擲釣作而無作卷舒不落功勳為而無為予奪了無背觸既是兒孫得力何妨室內不知拈拄杖召專使云歸時傳語諸人照顧南山白額。

佛涅槃上堂四十九年頓說漸說李有時紅桃有時白二月十五點胸點筋山如是峻水如是深者段風光輝天鑑地耀古騰今阿誰欠少說甚今日則有腳跟下好與三十棒明日則無腳跟下好與三十棒諸人向前棒下透徹堪與佛祖為師向後棒下透徹堪與人天為師若也未然自救不了。

清明上堂時節屆清明莫言無供養風和竹葉新日煖桃花放靈雲一見刺瞎雙眸香巖一擊頓空兩耳諸人到此眼裏也飽耳裏也飽因甚自家鼻孔依然摸索不著良久云只為分明極翻令所得遲。

佛誕日上堂四月深山花始芳佳人難禁理殘裝風流不是言傳得堪笑遊人枉自忙。

結夏上堂安居之意意在息妄歸真禁足之期期在護生進道誰知安樂者裏目前無法心外無機不動步而廓周沙界不起念而週遍十虛有何真之可歸有何生之可護盡無邊香水海越不可說世界都盧是自己安居處且道誰是其人三尺龍泉光照膽萬人叢裏奪高標。

閏端午上堂一年兩遇天中節競渡江頭歌不歇安樂誰知無法說端的別榴花日照紅如血。

解夏上堂一夏已來佛法二字束之高閣今遇自恣事無一向思之思之重復思之胸中要箇元字腳也無畢竟作何計較方得解圍擊香几云莫怪空疏伏惟珍重。

誕期孔文學等請上堂○玄黃未剖[○@佛]此箇先形[○@亡]黑白既分箇是甚麼任他十五而志於學三十而立四十而不惑五十而知天命自古至今自凡至聖自緇至素總不出乎◎此箇眾中還有鑑在機先者麼喝一喝云泊合重下註腳。

弁山寄菴和尚至引座上堂當前有句函蓋乾坤直下無私高明日月一言諦當大開雲霧見青霄一著相宜深捲洪濤歸碧海弁山和尚蓋其人也幸垂光賁一眾同瞻願震雷音啟茲蒙昧大眾要識未生前面目須知酬醋向當陽何故若不入水爭見長人。

福嚴子青長老請上堂事存函蓋合塵點劫以難窮理應箭鋒拄河沙數而莫盡正恁麼時如何辯的君不見大顛叟太勞生數珠提罷齒三聲又不見趙州師少分割常州蘇州盡道有箇般事若為傳壺中別有一禪天詢安樂弗如此不著羊裘已五旬桐江忘卻釣煙水。

闔山請上堂纔過知非又一秋只緣天放作禪流任他日月自沉浮斜倚闌干頻發笑閒趺曲几半舒眸那知白卻少年頭。

青龍北溟和尚至引座上堂秋山倒影滿江紅千里帆隨一水通朝來共笑乾坤小響徹荆谿十二峰只此事甚奇逢彼此而今俱五秩當門有齒不關風是則是又古云撞著道伴交肩過一生參學事已畢是汝諸公如何透脫下座勸請青龍和尚委曲指示。

誕辰眾護法請上堂多時不見木樨香誰識山中歲月長忽報今秋逢半百看來人事總相忘大眾既然人事相忘則心同木石既心同木石則華藏界內香雲花雲幡幢雲音樂雲寶蓋雲盡現八萬四千諸佛國土廣設八萬四千獅子寶座供養八萬四千諸佛演說八萬四千妙法以至情與無情同一塵刹同一誕生同一行願同一修持同證堅固身心共悟無生法忍當此之時又作麼生委悉良久云青山不鎖長飛勢滄海合知來處高。

開爐上堂秋盡復冬初寒光乍有無霜前同結制雪後共開爐破衲留雲補虛窗待月糊明明西祖意洞徹是良圖。

小參參禪無別訣只要生死切生死若切一信永信不疑自疑二六時中通身話頭行住坐臥如乘吹毛不見有第二人不見有第二念無下手處正好下手無捱身處正好捱身如臨萬仞懸崖之上如敵萬人白刃之中不可心生怕怖不可念起退回當知一步失腳處即是放身捨命處昔妙喜在洋嶼庵眾不滿五十餘人得省悟者一十三位固是師家爐鎚嚴密亦為學者生死心真法門風彩千古一時安樂者裏眾雖不廣建精進幢者猶勝古人多矣所以山僧不惜手腳晝夜逼拶沒轉身處要汝轉身沒著力處要汝著力箇箇眼如鐵彈人人面帶霜顏然猶未是就中移步汝輩要識就中移步麼高聲云放下著。

因雪上堂石疊銀盤與月交光爭潔白峰排玉筍為梅添色伴清臞直得寒山無處藏身橋邊驢子將詩載拾得遺卻筇帚帳下羔兒對酒烹正與麼時佛法何在喝一喝下座。

佛成道說戒上堂世尊於周穆王三年臘八夜睹明星共諸眾生成等正覺安樂於康熙十四年臘八日陞高座與諸比丘圓菩薩戒敢問諸公悟又悟箇甚麼受實受者是誰伶俐漢子一舉便知星不待睹面悟戒不待受而圓拈了義於微芒迴無朕兆廓大千於方寸不涉功能汝若如是吾亦如是我不敢輕於汝等汝等皆當作佛。

元旦上堂春初回凍欲去枝上惟聞鳥語報節候泄風光相逢話更長鐘聲遽谿聲媚好箇歸元旨趣本沒舊亦無新何須向外尋驀召眾云分明記取。

元宵罷爐上堂適來然燈古佛鬧闐闐地不覺撞開彌勒樓閣放出藥師琉璃光佛踏折達磨脊梁築碎誌公火爐引得蜆子和尚提金剛圈點飛龍馬走遍天下揚聲大叫土曠人稀相逢者少且道是何消息出門三里路別是一家風。

建華嚴會吳弓武居士同眾慶誕請上堂春和日暖重重華藏莊嚴花笑鳥啼一一阿僧祇品安樂院中一舉阿字法門其因普順十方國土其身充滿一切世間因該果海果徹因源涉入重重融通隱隱若佛若祖同見同生魚椎下敲出善財童子若聖若凡同修同住句讀邊分割無厭足王各各信解行證頭頭理事圓融者段風光誰為證據一語了然超億劫青山萬里展修眉。

建法華會上堂止止不須說我法妙難思諸憎上慢者聞必不敬信為是說法為是不說萬籟無心聞不得孤崖有耳謾知音若人散亂心入於塔廟中一稱南無佛皆已成佛道潦倒瞿曇分別不少時人只見朱門好誰識幽居價倍高咄向下文長付在來日。

永靜請上堂穿雲尋虎穴芒鞋拖幽蕙之香拾翠過龍門人面帶煙霞之色當陽薦得未是全提直下知歸不名向上驀豎拂云是伊不覺聳身虛空高七多羅樹東涌西沒南涌北沒中涌邊沒或時現大為復現小或時現諸佛為復現列祖所謂一毛現神變一切佛同說盡於未來劫不得其邊際及乎安樂倒轉拂來其大無外其小無內佛佛祖祖要且摸索頭腦不著現前一眾還曾洞徹也未但得本不愁末。

結制上堂今朝十月一歲晏朔風疾解脫法門開聖凡時畢集船來陸來遠來近來明窗下如法安排是經是論是律是禪拄杖頭等與勘驗雙放雙收全體全用不到大休大歇大安樂地總是半青半黃半信不及且道誰是見義勇為者喝一喝云八萬四千非鳳羽三十三人入虎穴。

月望上堂十五日已前林光漠漠煙中澹十五日已後山骨稜稜水外青正當十五日梅一兩花春尚小鴈三五字日初斜惟我方外衲子不知時分之延促不知日月之大小灰頭土面且與麼過若不肯底是我同參。

上堂法本無說隨事應機心本無形遇緣即現山僧頃在蛟橋宜春臺上見東沆西沆交口讚歎國山荆山鞠躬稽首自有禪道佛法以至於今未見如此之盛者也不覺驚動山門頭兩箇大漢手舞足蹈一曰一切法不生一切

法不滅若能如是解諸佛常現前一曰非法亦非心無心亦無法說是心法時是法非心法彼此較計互相不已被拄杖進前約開云連朝微雪消寒又是新正初八各須照顧本參庶免臨流叫渴。

解制上堂拈拄杖云當陽徹去一切現成擒虎頭收虎尾逍遙行鳥道擺手出玄途既然收放隨時今又何須特地卓一卓云不因樵子徑爭到曹洪家。

出隊歸上堂憶自春閒買棹順流而下有孺子歌曰艸芽隨意緣柳眼向人青及至秋後歸來行到中途亦有孺子歌曰暑退三更雨涼生一夜風不覺搔著安樂癢處得箇口號用作入門供養帆懸一棹飽風清回首千山落葉深纔詠至此只見風從地起雨自天來平地高如山谿流關似海未審諸公還曾打溼眉毛麼忽有箇漢出來道和尚者般說話卻將官物當人情未是西來大意山僧向他云好大哥花謝花開渾不管從教爛卻祖師心。

敘謝兩序上堂久思法誨鷄過新羅罰錢出院快便難逢踢倒淨瓶弄假成真扇索犀牛劍去久矣教是切脚喚金作鉅鈔觸宣明指鹿為馬盞子撲落地碟子成七片[巨\*寸]耐飯飽弄箸東勝神州打槌西瞿耶尼普請判斷尿急尿床爭如安樂院中一進一退互為主賓一舊一新交為肘臂箇箇雲龍風虎人人玉轉珠回扶豎叢林流通正法千了百當滴水冰生汝等還曾見麼舉頭天外看誰是我般人。

### 住常州洞山善卷禮菴語錄

立柱石拈來片石固猶堅不屬陰陽造化遷拄地擎天承此力清風高節古今傳。

禮菴上梁陞座拈香此一瓣香刀斧斫不開恩深父子耳目視不及道合君臣八次拈來一爐焚卻端為去世十周歸山五載前住善權堂上洞宗二十九世百愚斯老和尚縱有伯牙琴應難寫心曲白椎竟乃云當陽一著迴出尋常向上一機全超今古萬松嶺畔從教彩結虛空九斗壇前一任風生大地長者柱短者椽郢人不假功勳細者桁巨者棟巧手合乎至理塔內老師安享善卷洞古菴中衲子靜看離墨峰高同德同心同坐同行盡樂無疆之祚自西自東自南自北咸歸有截之區弗用安排頭頭得妙何須造作處處逢緣大眾見麼玉殿瓊樓莖草現梵音千載祝皇恩復白椎下座。

結灶示眾山僧久矣覓得叫不應谷一所無陰陽地一片五年前曾為先師造無縫塔五年後於中得構無塵禮菴支折腳鐺進無煙火炊無米飯供養無面目漢使一切人虛往實歸自然永絕饑虛不入諸方五味拈火吹一吹云照顧眉毛。

中夏病起小參夏初為造禮菴通身骨節並作一團勞不知饑不知總不見有身心世界縱佛祖到來亦無啟口處及至夏中通身骨節不覺違和寒一

陣熱一陣總不見有身心世界縱佛祖到來亦覓起處不得夏初所作與夏中不同夏中所受與夏初不別誰知露柱患傷風卻是燈籠曾受熱。

禮菴落成陞座塔建三年尚未終無端魔魅肆彊風天將魔滅風消盡還我山頭舊主翁遂屈指云辛壬癸甲至今乙卯孟夏之廿七善卷禮菴立石登梁會見六窗炯炯洞一色之虛明首尾功成不過兩月頓教萬瓦鱗鱗絕三種之滲漏則從前追慕之心不待圓而自足於中守護之願不待就而自成築室獨居休從人覓生事死葬莫向他求只此良辰誰同結局報德不須三寸舌為人只盡一生心。

中秋小參圓時不見缺缺夜弗干圓圓缺全無礙清光遍大千遂指月云看看饒向此間悟去更要問你諸人長沙與仰山一踏南泉拂袖便行又作麼生活會良久云且待更深再向汝道。

誕辰衍慶竹浪和尚請上堂南泉道王老師自小養一頭水牯牛擬向谿東牧不免犯他國王水草擬向谿西牧不免犯他國王水草不如隨分納些些總不見得師云願公可謂瞻前顧後只是不能易俗移風較量將來猶未盡善今逢明眼宗師特為諸人拈出善權自小養一隻虎東遊西蕩已五十年矣兩空莫比二青難並威時則狐兔潛藏嘯時則風雲際會定省晨昏全得渠力且道即今何在卓拄杖下座。

供百老和尚像陞座八坐名藍無相滿虛空九會說法有形沒蹤蹟以其相滿虛空現光輝於日月面以其形沒蹤蹟顯全機於塵說剎說然此猶是老人尋常作略須知世界未成生佛未具早已與諸公相見了也祇如相見後又作麼生雙眸展處千山曉一像遺時萬古傳。

普請栽松上堂此事如種樹相似其本欲舒其培欲平其土欲故其築欲密然後鼓之以雷霆潤之以風雨小根小莖小枝小葉大根大莖大枝大葉繇拱把以至合抱繇合抱以至蔭覆人天雖然有根樹子從汝種未審無根樹子又如何下手以鑿頭築地作噓噓聲云臨濟大師來也。

百老和尚十周上堂十年前去未必去家家門外長安路十年後歸未必歸處處窟中獅子兒今既不來昔不往白雲流水空瞻仰末後一句甚稀奇從他佛眼莫能窺拈來觀面誰深省古渡無人霜月冷端的而今孰可傳蘆華風靜鷺鷥眠休休住住住一年一度西風涼鳳棲不在梧桐樹。

供百老和尚牌位陞座心同虛空界示等虛空法證得虛空時無是無非法既無是法從教南辰轉步承茲願力而受生亦無非法何妨北斗藏身順此化儀而趨寂是以簾垂黃閣無由正照旁臨帳合紫羅不受森闡翠繞從上諸聖獨推此位最玄最妙非正非偏大眾會麼善權中興第一代佛祖堂中稱獨尊。

上堂問不扣玄關深的旨何為句到意不到師云夜半歸來不繫船何為意到句不到師云江村月落正堪眠何為意句俱到師云縱然一夜風吹去何為意句俱不到師云只在蘆花淺水邊進云四句已蒙師指示玄關的旨幾深知師云罕逢穿耳士多遇刻舟人乃拈拄杖云有時句到意不到居正而

不稱尊有時意到句不到垂偏而不混物有時意句俱到喝使虛空苔響有時意句俱不到棒教山嶽崩頽卓一卓云到此直得佛魔膽器意句全銷寶閣香殘瑤階月冷玄關的旨誰是深知罕逢穿耳士多遇刻舟人。

馬撫臺送扁額入山陞座向來野跳深藏不放茶煙出谷俗塵遠謝休教菜葉隨流何期有過量人具金剛眼翻身一擲抹過大千以須彌山為筆滄溟水為墨太虛空為紙上書大鑑重光四字遠遠持來高懸禮菴祥麟彩鳳得騰翥之方渴驥怒猊奮揚威之勢大包無外擔山之鬼無能動一微塵細入無閒吐電之魔不敢亂其疆界百靈拱護萬福攸同覲面真機放一線道盤屈蛟龍彰大意高蹤千古振名藍。

舉京口靈機大師住善權寺引座上堂三載離居兩鬢秋歸時不見舊重樓雄圖霸業人何在敝屣浮雲我獨留杖笠從今閒白日殿堂又得構丹丘天將祖位摧賢哲頑石朝來亦點頭大眾當知白滿重圓之月霜宇何高青還不翳之天丘陵自出改禾莖為栗柄翻瓦礫作黃金由來恁麼事須得恁麼人既是恁麼人何愁恁麼事諸公要識恁麼人麼看取新善權分明為舉似。

至福嚴子青吳長老請上堂為到福嚴寺移筇出上林山如仁者壽江似聖之清高山流水意相寄在瑤琴橫按拂子作撫琴勢云汝等會麼但識琴中趣何勞弦上音。

中秋上堂問法雷久隱祖印重提惟心淨土又作麼生師云昨夜日輪吐桂花進云恁麼則禪月與蓮燈並照師云今朝月窟生芝艸進云人人親證去也師云知恩者少乃云山僧久不陞座口生白醜檀越拈香躬請說法令見者聞者知恩報恩○於中洞徹玄微正好修行正好供養各各親證惟心淨土大歡喜解脫法門三十年後不得孤負靈山老衲如是憨布袋呵呵笑云禪月輝蓮燈皎箇機關誰得曉昨夜日輪吐桂花今朝月窟生芝艸大眾恁麼會是恰好。

受弁山龍華寺請辭眾上堂辛亥住善權為造先人塔於中多障魔死生終不怯今經將十年培植心方愜胡為弁山兄星夜飛書帖理數不能逃選邀承祖業摩挲繞塔幢灑掃誰相接就祖而去師表情猶不恰守師而卻祖官差符更捷進退兩俱難法門關係切暫假且三秋攜筇聊一涉清淨祖田園載充灑掃職珍重爾高流光陰莫虛擲去來的是誰彼此元無跡茗水風回夾岸青洞山雨過連天碧。

黎文宗徐學士徐彘史送寒松節操孝義可風禮菴三扁額入山陞座寂寞高岳客林深忘歲窮銀鉤來嶺外玉箸入雲中三額時同挂千秋振古風要知端的意夜半日輪紅。

誕期至弁山睿凡和尚送師前住龍華第十六位木主人祖堂請上堂寶鏡堂前澌澌光彩祖燈室內凜凜神威透脫玄機先後自然合序高明至理壘簾端不越倫直下無私良由返照當陽曉示只貴知歸賴有同門機活盤珠恢祖道謂余耳順位遵昭穆序堂規禮菴向日不必者漢參學十餘年依舊

罔知禪道開堂七八處未能普振真風豈期罪犯彌天何又預居祖席正好脫除珍御著起襴衫分付烏藤趁遊芳艸主人又謂自是善行無轍跡更須就位本天然大眾記取者一轉語莫待二十年後方纔道箇何必。

誕期獅子菴大奇禪士請上堂一即六六即一眉毛罅裏堆山岳鼻孔中藏獅子兒信得及切須疑珠圓有腳走晶盤月午無心當桂殿疑得大悟方深掀翻麟閣功勳泯擊碎菱華影象沉超疑悟越玄關只有清風來几上更無片語落人間然而疑悟兩忘又作麼生世間甲子管不得劫外風光合自由。

誕期德貞弟子請上堂若人生百歲不善諸佛機未若生一日而得決了之拈拄杖云識得者箇千足萬足後天地生而知天地之始先天地老而知天地之終知終知始隨處作主女子身中入正定男子身中從定出比丘身中入正定居士身中從定出諸佛身中入正定眾生身中從定出卓拄杖云為復是定耶非定耶禮菴六秩全得渠力。

誕期示應菴剖塵上座請上堂問紫金蓮捧千輪足白玉毫揮萬德身如何是示應境師云護龍分水環金井進云經翻畫閣香初纔定入花宮月正圓如何是境中人師云彩鳳乘仙下碧雲進云人境已蒙師指示朝來請法怎敷揚師云柳栗頭邊開正眼進云曹溪一滴收三泐法雨千秋潤九峰師云知音之後更誰知乃云一句當天萬機寢削護龍分水環城郭一塵透脫千界光輝彩鳳乘仙下翠微笑他碧眼遠涉流沙來東震旦國無法向人說將心與汝安西王母特降瑤池慶獻桃實指東方朔已三偷矣說甚黃梅逢小兒王喬引鳳簫薄彭祖而卑陳搏等虛空而並華岳賴有禮菴[○@●]明露秋光理應箭鋒事存函蓋紅塵紫陌何妨見性明心城市山林正好入塵垂手與一切人為師為導為罔為陵德潤群機道弘萬品正與麼時是誰端的頻添花甲子數到劫雲初。

誕期靜澂含輝二禪德請上堂雲門胡餅超佛越祖輟出雪峰毬打動禾山鼓方壺園嶠蓬萊洞府漢鍾離張果老領著一斑仙人聳身起舞有唱道一聲野鶴仙濤起白晝天風送寶花有唱道不因海頌潮生日爭見山歌耳順年有唱道佛儒自是元同轍釋道從來共一家喝一喝云被禮菴一喝各各騰雲駕霧去也諸公於此洞徹揣虛空出骨捏蒺藜成灰前際後際不相踰越任是謝三郎只在漁船王老師解打破鼓和泥合水要覓他本命元辰日子了不可得且道他具甚長處有名閒富貴無事小神仙。

誕辰眾請上堂智度菩薩母方便以為父一切大導師無不由是生遂屈指云天啟丙寅是此日康熙乙丑是此日數到盡未來際亦是此日天啟丙寅是此人康熙乙丑是此人數到盡未來際亦是此人諸公還識此人麼良久云生來慎厥初守正以自全貧賤不改樂富貴不違天逃禪不學佛好道不求仙六句披一衲渾忘涉世緣。

無相修道人請上堂聞聲悟道接響承虛見色明心倚艸附木談玄談妙轉見滄訛問主問賓自生分別者片田地分付來多少時也天是天地是地山

是山水是水一念不落諸緣證取自家境界諸公會麼不起纖毫修學心無相光中常自在。

百老和尚二十周上堂二十周前濟濟英賢他方此土一會儼然二十周後茫茫宇宙日往月來幾人知有二十周時墓木拱矣雙徑深矣棄其本者榮華稿矣適有僧問老師去世廿周從無來者孝思何在禮菴答云貴人多忘大眾會麼知我者其惟春秋乎。

編梓百老和尚全錄入楞嚴大藏上堂示寂廣陵廿二年人求法錄渴如然禮菴守塔因編次隆福剎犁結勝緣練水月高樛木月雲門煙接弁山煙明同佛日千秋麗藏入楞嚴萬古傳識聖諦悟真詮法檀九會利人天師真欲寫知何處一塔干霄鎮善權。

再受白雲香爐寺請辭眾上堂我年二九立志遍參後到弁山被老人痛棒前得七珍八寶一時瓦解冰消隨住一十三年自是龍宮虎穴任意逍遙赴善權建法塔築室獨居十有六載今來六十有一猶在禮菴塔上砌石栽培鑊頭鑊底不曾遇著一箇半個如獅子兒吒呀地哮吼一聲壁立千仞直得玄沙船子罷釣收綸寒山拾得呵呵大笑且道笑箇什麼兒孫各自成家業若個慇懃問歲寒。

寒松操禪師語錄卷第六

住湖州弁山龍華禪寺語錄

師於康熙戊午年在洞山禮菴受請上堂拈疏云此是浙江護法向毛錐子頭上轉大法輪了也然雖文彩已彰莫若當陽拈示。

法座一著高一著一步闊一步分明在目前今古無回互遂陞適來鐘未鳴鼓未響還是禮菴主人而今衣纜搭座纜登便謂龍華長老大道無背向何妨兩剎一人真機有卷舒從教一身兩號既然迴避不及只可信受奉行居方則方一處通千處萬處一時通遇圓則圓一機透千機萬機一時透他山不離此處攝大千於毫端此處不離他山容芥塵於剎海銜花鳥過抱子猿歸在彼在此理無間然於此因緣是誰端的華林枝上千花秀一度芬芳一度春。

三門天下名山寰中梵剎萬古乾坤同時風月顧左右云到此方知。

佛殿喝退麻三斤打開乾矢橛釋迦自釋迦彌勒自彌勒因我得禮你覲面休分別。

伽藍客來迎賊來送常住大小事般般要借重(侵損常住者當曰敗露而去)。

祖師四七相承石女腰邊截兔角二三密記鐵牛背上拔龜毛大小祖師當門無齒。

方丈者是從上尊宿據虎頭收虎尾之處所山僧自遠而來如何施設卓拄杖云既入虎穴必得虎子。

開堂拈護法疏不是秦書漢篆亦非鳥跡龍文直饒舉起便知千聞不如一見。

山主疏一賓一主全始全終瞿曇給孤地藏閔公。

同門疏本是家裏人須說家裏話千里卻同風聯輝不借借。

法座向上一路千聖不傳弁山見得只是尋常遂陞拈香此一瓣香如雲如蓋包羅群象長養萬靈恭為北閩之至尊上祝南山之聖壽此一瓣香光明合浦潤出崑岡奉為闔國公卿本山檀護展絲綸之才凌風雲而麗宇宙成剛大之器配道義以護林泉此一瓣香根連桐岫派續雲門端為開山瑞祖重懸慧日於中天前住伯叔昆季再駕慈航於巨浸懷中出香此一瓣香昔在龍華堂裏一棒銷鎔今從弁岳山中九回拈出供養維揚善慶即此堂上洞宗二十九世百愚斯老和尚杲日破重昏高明恒獨運斂衣就座白椎竟師云金鎚影動遍界全彰歷歷圓音聲光不昧還有知音善和者麼問祖父門庭即不問重整家風事若何師云尊貴自來有種進云大用現前不存軌則更借一問又如何師云規模原不同途進云千秋模範從今立萬疊青山展笑顏師云切忌隨他轉乃云從上來事迴絕名模列祖出興卒難啟口迫

不得已傍通一線前日禮菴塔上砌石栽培大地繞青霞尊貴自來有種今日龍華寺中開堂說法長空盈瑞雪規模原不同途直得獅巖哮吼艸長吳山象嶺回觀花飛苔水正中亭外虎咬大蟲華石澗邊蛇吞鰲鼻但得橫身萬類於事無心盤翠千峰於心無事便見天清地寧民康物阜全身擔荷續無盡之燈闊步大方放不欺之箴法隨法行法幢隨處建立正與麼時如何委悉浙東山浙西水四海五湖王化裏復白椎下座。

當晚小參佛法遍在一切處更向一切處覓一絲毫隔礙底道理了不可得山僧近離禮菴曉泛太湖衝風載雨激電敲空香象金鵬吞龍截浪如是境界可以明白本心見自本性當處安家立業恢張祖父田園其餘立墻立塹分界分疆有甚共語處不見開山師翁因僧問若人識得心大地無寸土現前山河大地是有是無翁曰鏡裏莫攀花開山可謂掃除朕跡迴絕功勳奈何土曠人稀相逢者少弁山固無長處務要知源識本使現前一眾與我老祖兩得相見秦明初拂曉玲瓏萬里山河一鑑中寄語遊人急回首春光不在畫橋東。

立兩序本照禪士請上堂夢入天宮說法演出龍函海藏展大機施大用東邊底東邊立成大智奮大義西邊底西邊立入泥入水尋常手眼通身辨主辨賓動靜機輪合轍說甚金剛圈栗棘蓬總是閒家貝驀喚侍者云分明記取三十年後此話大行。

聖節上堂以拂子左拂云雲從龍右拂云風從虎豎拂云聖人作而萬物睹無孔笛一音吹出萬籟消聲太平歌一人高唱多人應和輝聯玉葉克壯金枝萬國晏安群生穆穆九洲賓服黎庶熙熙仰看呆日恒垂照常見黃河徹底清。

郡邑眾護法請上堂問三玄的旨時姑置八棒真機作麼生師云靈龜無朕兆空殼不勞鑽進云但形文彩即屬染污何須觸令支玄棒師云劈破鴻濛全在我進云兩頭坐斷八面風生安用接機從正棒師云縱橫妙用要臨時進云舉一明三日機銖兩因甚辨機提正棒師云高揮大抹俱超絕進云是法平等無有高下為何靠玄傷正棒師云照用齊施盡按過進云運斤成風雕文喪德怎生印順宗旨棒師云電光影裏分緇素進云在聖不增在凡不減誰又盲枷瞎煉棒師云石火聲中辯佛魔進云既然考驗虛實那更苦責愚癡師云當下直教開醉眼進云至道無難惟嫌揀擇作麼掃除凡聖棒師云吹毛用了急須磨進云棒頭點出無私旨言下鏗然互古今師云棒下翻身能幾箇許多人向外邊尋乃拈拄杖云至道無難惟嫌揀擇但形文彩即屬染污須是俊傑鴻儒英靈衲子舉一明三日機銖兩兩頭坐斷八面風生有如是作略如是威光方可運斤成風端不雕文喪德倘以言鋒展演智識搏量劈破鴻濛未為究竟縱橫妙用亦是馳驅當下不開醉眼吹毛返成鈍置眾中還有獨脫無依者麼卓拄杖云高揮大抹俱超絕照用齊施盡按過。

開山瑞祖同繼席龍華諸位和尚木主人祖堂陞座蒼弁山前闢藜莽道重王臣百神仰水赴雲歸納萬方泉卓六和惟一杖祖孫父子始三傳掀翻處處開穹壤伯叔昆季十數人蹴踏千千億龍象寶鏡高懸五十年靈鐸光騰幾萬丈眼空佛祖不近情埽蕩魔氛窮伎倆十方世界現全身觀面維彰大人相。

櫻寧和尚木主人祖堂止姪請上堂萬聖靈源合仁義道德為一致列祖正派聚公孫父子為一堂展千燈互照之機啟諸佛不傳之秘精微履踐廣大包容應物如春倒跨山頭石虎轉功就位喚回雪裏金烏一生於此足矣萬事於我何哉且向甚處與伊相見夜明簾外家聲遠禁殿惟聞柏子香下座至祖堂云行不出戶坐不當堂東山不立北斗不藏團圓共坐忘尊貴遞代相傳無盡燈。

建大悲期請上堂問子啐母啄子覺母殼猶是隔靴搔痒何為啐啄同時句師云千手大悲摸不著進云相逢不啐啄啐啄同時失又如何師云八臂那吒擎不起進云正當父子投機不居偏正憑誰立岸師云虛空開口笑進云功勳不落人間調放去收來亦自如師云逢人莫錯舉乃畫○云若恁麼子



啐母啄千手大悲摸不著⊖不恁麼子覺母殼八臂那吒擎不起 恁麼不恁麼啐啄同時普令法界情與無情同人旋陀羅尼大三昧門

[○@:]適來善財童子道觀世音菩薩將錢買胡餅放下手云原來卻是饅首又作麼生自攜餅汲清涼水卻著衫來作主人。

月旦寒食上堂青山青綠水綠春風影裏歌一曲翻憶當年陸大夫只解笑兮不解哭你道笑箇什麼冬至寒食一百五晨朝又是三月一。

自迦葉至雲門湛祖六十四世木主人宗堂陞座盡大地是箇宗堂從上佛祖莫不由此法流東震續無盡之燈遍界高輝遠燄道合西乾弘別傳之旨滿前異目超宗昔日靈山佛佛授受今朝弁岳祖祖相承直得太湖渚湖交口讚歎峴山雉山鞠躬稽首問自威音那畔空劫已前未有佛祖之時誰安名號但云六十四燈齊別起嘉聲赫赫振閻浮。

淨智二輩木主人宗堂陞座宗堂一設綱紀分明自迦葉至湛祖六十四世居中以未住弁山淨智列為昭穆由是風生大野日麗中天龍岡起舞獅巖[跳-兆+孛]跳三十三天撲帝鐘森羅萬象咸歡悅威音王佛莫安排留與叢林作軌則。

密聞和尚同宜姪木主人宗堂岳章二法孫等請上堂宗鏡堂前風規凜冽祖燈室內家法森嚴照用則正眼洞明放行則真機卓邁須是師強資勝方能入室昇堂輝聯從上宏猷大小團圓一處雖然更有一人在千人萬人中不背一人不向一人且道此人具何面目下座與你相見至宗堂云玲瓏八面坦蕩十分金鋪階道玉砌乾坤歸家盡是兒孫事祖父從來不出門。

周護法薦母請對靈小參最初機龍吟玉樹天將曉末後句鳳舞丹霄夜轉深沈氏安人於此徹頭徹尾了生死去來之如幻視涅槃寂滅之現前轉步燕京青山未老笑歸蒼水白首言旋高簡素之風行坦平之路既來此處畢竟如何蓮邦極樂頭頭現仙島蓬萊處處安。

白于和尚木主人宗堂遠光圓三法姪請上堂弁岳峰高凌虛插漢太湖水闊源遠流長境上有無盡之心心上有無盡之境此處著得隻眼悉知白于和尚出生諸緣不借其力建立萬法不宰其功獨步大方克家有子高超物表轉位有人大眾見麼要合古輒請觀前古下座至宗堂云風和雲白眼花天踏翠歸來月正圓共坐一軒山欲曉香焚寶鼎話忘年。

月望上堂朔日纔方過月望又來著流水自滔滔白雲閒漠漠好鳥鳴芳枝好花開籬落靚面露真機如何人不覺返照莫他求回光向己索飛塵絕點埃大道甚寥廓屢喚不歸來枉費稱行腳莫莫莫莫知逆耳忠言孤負苦口良藥。

道林睿凡和尚請上堂問琴弦具韻必須指點分明今古罕聞全賴良師決斷十智同真敢祈垂示師云剩飯殘羹不須拈出進云一同一質師云烏藤橫兔角二同大事師云白拂豎龜毛三總同參師云我不輕汝等四同真智師云切忌又錯會五同遍普師云三更打日午六同具足師云從來不欠少七同得失師云不值半文錢八同生殺師云一棒一條痕九同音吼師云一喝分賓主十同得入師云照用一齊行與什麼人同得入師云龍驤鳳翥承誰力阿誰同音吼師云八角磨盤空裏走作麼同生殺師云啐啄相逢無縫罅何物同得失師云一言勘破維摩詰那箇同具足師云甕裏何曾走卻鱉什麼同遍普師云敕下傳聞六國清何人同真智師云見得分明又不是孰與總同參師云寒山拾得語喃喃那箇同大事師云披毛戴角恣遊戲何物同一質師云江北成枳江南橘進云十智己蒙師指示其中一智是根源如何是根源一智師云見之不取思之千里進云若不上來伸此問人人盡作等閒看師云勸君莫只空搔首細問知音便得知乃云適來一問一答總是自家屋裏事弁山尋常要你如鳥飛空如箭射的其奈諸人翼折故空不能飛弦斷故射不中的究到羅紋結角處正是同生不同殺同得不同失幸有知識自遠來山行敲唱於機先明主賓於量外同音同吼不資餘力同普同遍匪藉他能利益人天光騰祖苑然則只聞遠播家聲未見同真面目顧左右云勸君莫只空搔首細問知音便得知。

小參弁山連日為眾打七疲憊極矣忽憶誌公陞座寒山出問南閻浮提是病可療因甚禪和子瞌睡最難醫治誌公云非但仁者就使四天王八金剛盡其神力驅亦不去拾得云古有良方只將一歸何處是箇什麼為藥通身放下不緩不急為法製一口吸盡西江水翻轉身來腳頭腳底踢出石頭瓦礫也解放光動地說甚佛病祖病瞌睡毛病覓一星兒了不可得拄杖喝云菩薩子惺惺著你看選佛場中箇箇如龍如虎一念萬年萬年一念坐斷主

人不落第二見時彼三人各還本位豎拂子云主人公見不見鷺鷥飛入碧波心抖擻一團銀繡線拋拂云薦。

挂祖堂宗堂二扁額陞座纔三春又十一壯大觀勝舊日展碧漢染雲箋拈須彌不擇筆昭回玉篆金章競秀蜂腰鶴膝兩彩一賽法法圓融向上一機心心虛寂弁山尊貴本天然不用題名并立石高高挂向兩堂前四面清風生八極喝一喝下座。

結夏上堂諸方禁足弁山者裏夜短睡不足諸方羨餘弁山者裏日長饑有餘須點出五病何必商量兩錯九十日內如何消遣但將飯向無心碗自有人提折腳鐺。

天中節上堂文殊令善財採藥高山頭起浪善財拈一莖草度與文殊陸地上划船文殊接得示眾云此藥亦能殺人亦能活人正是隨邪逐惡弁山一眾靈鋒凜凜寶鏡沉沉直下見聞不埽自除那邊消息不照自徹移來北鬱單越與南閻浮提鬥額高標奪得靈山錦方信男兒當自強。

曬藏經上堂當空杲日啟琅函蝌蚪靈文不易諳未展卷時先領略黃金字字綻優曇大小頓漸半滿偏圓一時顯現了也只如以字不成八字不是未審是什麼字唐言梵語難翻譯題目分明正好看。

郡邑祈雨請就六和泉示眾苗爍驕陽半欲枯噓雲應早起清渠飛騰直捲滄溟水一雨人間萬物蘇。

郡邑謝雨請就六和泉示眾昨驅旱魃休為祟今降甘霖誠應瑞欲報秋收雨露恩萬年香爇神龍第。

解夏兼建盂蘭盆會上堂地官赦罪日手鑱黃河乾弁岳自恣時腳踢須彌倒露柱稱神通氣吞雲夢澤燈籠呈妙用光射斗牛墟一箇道盡底掀翻風高韻遠一箇道同時放出鼻直眼橫拄杖聞得一齊喚來與他據款結案大眾會麼卓拄杖下座。

中秋上堂十五月最明白十八潮更清切一月普現一切水一切水月一月攝十二樓開八面窗萬千人看中秋月好供養描不成好修行畫不徹五十四年來清光常皎潔蟾宮第一枝畢竟誰攀得。

上堂三年一閏九日重陽通方上士舉起便知且如何是應時及節一句代云重陽無雨一冬晴。

嚴太史請上堂今朝十月一有箇好消息嶺上浮雲乍捲乍舒谿邊落葉半黃半赤方便門解脫門毘盧寶閣門八字打開有照有用有權有實於斯一踏穿萬事已周畢更擬問如何扶桑日又出。

佛開光請上堂舉世尊在忉利天為母說法優填王思佛命匠雕栴檀像及至世尊下來像亦出迎師云優填王弄假成真黃面老相逢不識正眼看來並須喫棒弁山與麼批判又且如何雲在嶺頭閒不徹水流澗底太忙生。超凡剃度請上堂三界無安猶如火宅眾苦充滿甚可怖畏大小瞿曇二見不除那知弁峰峻異靈木迢然未出家時即心即佛數聲清磬是非外既出

家已非心非佛一箇閒人天地間未審憑何節目便能迴出尋常欲露孃生舊頂門須知毫髮不容存堂前鑿卻無明草便是超凡越聖人。

結制小參諸方今日盡道弘開爐鞴烹調倔強禪和密運鉗錘煅煉影響知識總是九虛不敵一實偶逢歲儉是處閉廚龍華雖則事事俱無不必諸公罣念務將平日所得所學尖新語句錦繡文章束作一團拋去東洋大海更莫回顧單從無意味話頭上逼拶將去忽然桶底脫落始知成佛其來舊矣到此正好喫山僧手中痛棒何故重賞之下必有勇夫。

開爐顏護法請上堂問我宗無語句亦無一法與人今日弘開爐鞴未知何法垂慈師云粉壁畫鍾馗進云無法可求無心可得又作麼生師云水中抱鶯子進云心法皆空人境俱泯如何趨向師云月裏弄嬋娟進云虛空挺立無涯際始是超宗越格流師云莫作者般去就乃舉趙州道老僧三十年前在南方火爐頭有箇無賓主話直至而今無人舉著山僧三十年前在茲山選佛場直得虛空粉碎大地平沉至今亦無一法與人你道無人舉著與亦無一法與人相去多少縱饒無法可求無心可得心法皆空人境俱泯要見趙州則易見弁山則難未審弁山有何長處爛研巴豆三千顆瀉卻諸方五味禪。

冬至沈太史請上堂問昔日獻珠成正覺今朝請法得何功師云花開鐵樹含朝露進云請法獻珠相去多少師云果結瓊林帶曉風進云向上一著又作麼生師云看取腳下進云千差踏斷聖凡路格外真機獨自知師云切忌隨他轉乃云智鑑洞明十虛無間靈機廓徹萬法無私格外真機羊頭車子推明月劫前消息沒底船兒載曉風正令纔行又見花開鐵樹化工密運俄驚果結瓊林天不言轉凶星為吉曜地不言變頃刻作長年直得一陽來復萬類沾恩晷運推移日南長至且道佛法長多少卓拄杖下座。

臘八上堂適來無舌童子與無目仙人玄論一曰九烏盡而一翳存誰甘受屈一曰七竅鑿而混沌死轉處能幽三回九轉返復不已卻被無手大士鷲面一揮打落了兩箇半邊鼻孔幸逢弁山拄杖從中約住各與一頓為結案曰本是逍遙物外人陶然一枕樂天真自從仗劍風塵後卻被儒冠誤此身。

除夕示眾歲云暮矣豎牧交欣盡夜歡然賢愚共慶衲僧家不隨境變不逐時遷因甚也要過年。

元旦雪大師木主人宗堂旭姪請上堂峰巒峻秀顯示特尊松竹陰森恢揚至貴曉來無位真人以太虛為紙蒼弁為筆太湖為墨要山僧於庚申元旦大書雪葦禪師數字配入宗堂纔運腕時清風兩袖紫氣騰霄迎新不負來機就位已成大事是汝諸公還知者段因緣麼喝一喝云他時遇人莫道龍華以官物作人情下座至宗堂云本無位次豈用安排一念回機全身奉重混然無內外和融上下平。

立春上堂三界無法可處求心日暖風和鴈回鶯囀泥牛[跳-兆+孛]跳撞倒崑崙驚起虛空入藕絲孔全機全用雙放雙收作麼作麼眉橫眼上不借

不借舌在口中透此兩關花開確背。

元宵上堂管弦坐月沸更深處處燈懸古佛心爛熳晴空猶不識無端卻向外邊尋。

解制小參問如何是第一玄師云狻猊上樹尾連顛如何是第二玄師云兩頭白牯手拿煙如何是第三玄師云月印長江水印天如何是第一要師云烏藤七尺通身竅如何是第二要師云雷電機先施奧妙如何是第三要師云格外真機無作造進云恁麼則明月蘆花收拾去師云切忌迷頭認影問掀翻大地方始徹只如大地作麼生徹師云臘月火燒山進云既是古佛因甚受人差排師云過在阿誰進云謝師指示師云看腳下乃云參學高人貴乎志氣猛烈志氣若烈則生死心切生死一切則擇法眼明擇法果明出一叢林入一保社必遇良師大導時刻提攜一經爐鞴自然透頂透底徹骨徹髓成就百千三昧建立無量法門露一機有轉凡成聖底芳聲示一境有立儒起頑底美蹟若是門外周游艸菴止宿認著昭昭靈靈以為行家奇貨到處問玄問要措合機鋒鉤聯語句與本分事有甚交涉此亦無他只為志氣不烈生死不切擇法不明最初行腳苦不遇人者裏經冬教你明大法識小法那邊過夏教你論古今呈巧妙總是鹽中著醬虛浮生死無有了期弁山今日直截分付撫香几云搏扶搖而上者九萬里大鵬也。

解制上堂問聖制圓滿龍象奔騰如何是無慧方便縛師云獅子巖前苔裹石如何是有慧方便解師云象王峰畔水鋪雲進云已識從前無實法桃花歲歲笑春風師打云又恁麼去也乃云無慧方便縛獅子巖前苔裹石有慧方便解象王峰畔水鋪雲無方便慧縛金鎖千尋鳳羽縈有方便慧解烏藤七尺龍睛轉弁山今日開方便門示真實相普令見者聞者一齊悟入去也拈拄杖旋風打散。

寓三大師木主人宗堂顧陸二士請上堂白蓮寺與青草塢門額顧景怡赤腳過罨畫溪陸修靜踏翻了祐聖宮引得蒼雲嶺玉磬山撫掌呵呵稱揚莫及弁山聞得問汝等激揚此事不無因齋慶讚畢竟將多寶寺如來安置何所此去宗堂不遠遂安位云倒捋虎鬚生裁龍角衲僧家尋常活計然而衣錦還鄉又作麼生起居萬福。

存焉和尚木主人宗堂偉持監院請上堂白社今猶在高風古未磨東君行正令春色滿煙蘿存兄和尚名標鷺子之前道占鹽官之右羅漢琛種田博飯僅可拜其下風法昌遇圍爐說法何能冀其萬一直得燈燈相續龍華寺裏散天華祖祖相承宗鏡堂前懸寶鏡正恁麼時如何委悉萬派終歸海千山必仰宗下座安位云虛空不作安樂場大地頻開解脫門香風遶座天光迴花雨飄簷榭奧深。

清明穆堂大師木主人宗堂常舒自省聖宗供法衣請上堂東風不住送流年春事忙忙泣杜鵑去客淚成紅杏雨故山夢斷碧桃天林下衲僧無個事都緣看徹未生前是以弁岳山中時節莫該衣珠自至頃接遠來知識再世新州百姓前身爛柯山樵不詢迦葉金襴衣獨得機先一著不趁盧公消瘦

服單傳向上一宗今就藏煙節屆安坐四七二三之左右瞬日與揚眉盡是無生話雖未說一字人天咸瞻仰大眾既未說一字又瞻仰個甚麼寶殿苔生尊貴重三更紅日黑漫漫遂安位云入宗門陞宗堂象王回顧彩鳳翱翔一龕燈火明千古風月依稀任主張。

端午因事示眾我從南方來路逢一池水水內一尊龍九頭十八尾不喫凡間食耑喫是非鬼汝等要見龍麼驀拈拄杖一齊打散。

誕日小參弁山是月十八生大潮是月十八生未審拄杖幾時生千歲老兒顏似玉弁山年來五十五大潮年來五十五未審拄杖年多少萬年童子鬢如絲卓拄杖下座。

晚參舉吉州寶禪師因僧問賊來須打客來須看客賊俱來時如何州曰屋裏有繡破艸鞋曰只如破草鞋還堪受用也無州曰汝若將去前凶後不吉師云雙雙豪客遠相過倒著芒鞋踏綠莎莫謂家貧無厚贈風流元不在衣多。

結制上堂本來面目賣刀買犢是個甚麼丙丁求火一歸何處點鬼帳簿畢竟是誰騎驢覓驢者些殘羹剩飯逗到開鑪時節總用不著卓拄杖云單單一握龍泉付與諸公親試時時抖擻精神刻刻磨礪志氣縱橫不露鋒鋌予奪了無變易任他六臂三頭一擊從教粉碎果能直下知歸管取心空及第。

上堂問七日巳前緊即是緩七日巳後緩即是緊正當七日又如何師云塞除佛祖窟進云威音那畔還有箇消息也無師云打破玄妙門進云向上一路請師指示師便打進云甚逢敵手難藏拙琴遇知音正好彈師云若不慙懃重努力依前孤負好時光乃云參禪無奇特所貴在當人七日巳前事直下命根斷當處脫疑情七日巳後事冰稜邊側立劍刃上橫行正當在七日塞除佛祖窟打破玄妙門莫依清淨界跳出斷常坑了不涉迷悟自鏡本常明無是無不是無非無不非得亦無所得失亦無所失徹底攪不渾通身浸不溼莫負好時光慙懃重努力。

上堂面皮放下莫回互一句話頭牢把住地覆天翻做一場此時不悟何時悟。

解制上堂少室門風自來廣大弁山路徑一向寬舒參學高人放下即穩英靈上土撮得便回假如憎愛不忘情封未啟觸途成滯舉意乖違縱得神機莫測靜似羚羊挂樹與他一頓烏藤變化無窮動如妙翅搏風也與一頓烏藤忽逢龜毛上座云和尚恁麼為人點頭者只得一半搖手者亦有一半山僧向他道莫嫌此處菜根淡未必他山客意濃。

退院兼謝兩序上堂左卓拄杖云進則雷轟電激右卓拄杖云退則月霽風清橫按拄杖云進也由我退也由我我為法王於法自在功成不處復妙回途大眾須知佛法禪林惟遵延選人天祖位豈許營求呂莽機謀徒施巧妙訥璉行止儘可追攀珍重諸公別酬一偈遴嗣蒼弁倚蒼穹多賴高人贊助功今得翛然無罣礙杖頭八面起清風下座拄杖便行。

寒松操禪師語錄卷第七

再住安慶白雲香爐寺語錄

出隊歸值中秋本山眾護法請上堂遂陞座拈香祝聖畢復懷中出香云此一瓣香臭同乾矢橛貴等死貓頭為他酬價無人累我十回拈出供養八處九會洞宗正傳二十九世百愚斯老和尚不圖熱鬧門庭要了現前公案白椎竟乃云師塔期成古善權一身培植十餘年爾來將得全卑願又被白雲召我還大眾流光迅速不與人期佛法無多久長難得山僧昔未久住茲山只因塔上松楸無主別去則苔生古殿露冷巖頭今來各各須是心如秋月皎潔無塵獨露乾坤光吞萬象朗清輝於大地高豎法幢揭普照於中天弘揚祖道如斯標格足可觀光正與麼時怎生委悉再理舊詞連韻唱村歌社舞又重新。

上堂白雲老漢無端變作一條萬歲藤微塵諸佛總在裏許卓一卓云放過即不可。

上堂過玉帶溪見出水蓮轉遶佛徑到白雲山一生參學事畢虛費草鞋堪作什麼不是知音徒側耳。

種竹示眾有志參禪惟動惟慎無心合道載節載貞個裏端倪如同種竹欲得陰繁色翠應須土厚根深冷淡扶疏莫使焦芽敗種精神勁直方堪傲雪凌霜戛玉篩金清風有待化龍棲鳳明月相尋歷盡歲寒了無變易何由高節人相重只在虛心自不欺。

栽松示眾為惜童山植翠妍鑿頭猶帶壟頭煙人生欲奮凌雲志遮莫從他歲月遷須早辦莫遲延但假深根常得地何憂直幹不扶天。

白巖位和尚訃聞上堂話別錢塘數載違祖庭各住謝同時朝來聞得江頭信竟作人天墮淚碑唯白巖老和尚素風遼廓景行彌高鑄古烹今翻轉近時鍊案調龍洗象蕩除空劫家私摘法海難摘之珠見未曾見彙宗門莫彙之集聞所未聞挽墜辯訛傳驚殺草中狐兔掬焚成大統立枯紙上蠹魚誠為末世光幢且忽厭乎世矣致使法城震恐魔壘揚威後進初登何棲何泊白雲特為燒香舉似大眾或來不來有伴無伴三冬枯木秀九夏雪花飛。啟窰示眾暫借龍山土一丘窰成六合白雲收不萌枝發深窰燄火浴泥龍笑點頭。

因事告神窰蓬曉構借鄰斧為學陶濱成梵宇斧竊何人杳不回伽藍弗察胡為主(竊者是夜投斧殿側)。

中秋上堂問不訊平分秋色如何是上大人師云頭不梳面不洗如何是丘乙己師云用則行舍則藏如何是化三千師云雲從龍風從虎如何是七十士師云出其類拔其萃如何是尔小生師云居處恭執事敬如何是八九子

師云唯不諾走不趨如何是佳作仁師云學之則聖之模如何是可知禮也師云入太廟每事問進云不因秋月朗爭見碧天高師云謾云侵早起更有夜行人乃云山僧上在大人膝下學得乙偈卷而懷之已有年矣任是三千客問七十子求未常吐一元字腳今遇平分秋色欲拈供尔小生天瑞侍者先露八九只貴發揮佳作不問可知禮也是汝諸公還委悉麼謾云侵早起更有夜行人。

挂木魚不向禹門躍浪深惟從香積吼清音金牛公案分明舉能有幾人識此心那是此心擊梆四下。

龍門浪平和尚訃至上堂茗水溪邊踏翻皓月道林山上別展家風不墮功勳雙彰明暗惟其古道猶存得以闡拈弁岳任彼隕型易調嗒然亦似浮雲於素於緇共聞共見何期大法海頃下慈帆羅漢峰俄顰翠黛龍吟曉霧成愁韻瀑瀉懸巖總淚痕莫謂相逢不相識清流一掬表同門。

上堂山川繞檻宛如水墨屏風塔石凌霄麗若神仙洞府霞生谷口樵子斫雲邊月滿谿頭牧童歌隴外謂是佛法眼中著屑謂是世諦滴水難消阿呵呵罷罷罷饒他吳道子顧虎頭有筆也難描畫。

上堂三世諸佛無中說有青山常運步六代祖師有裏尋無白日不移輪淨名杜口早涉繁詞摩竭掩關已揚家醜象骨禾山玩弄神變腳跟下好與三十棒如斯告報普請承當擬議之間白雲萬里。

應供示眾一段真機不覆藏通身有口謾宣揚擎來滿鉢雲千片香積何須羨上方。

大殿僧堂落成陞座一拽石山門騎佛殿二搬土露柱拽僧堂長短方圓本自然發機不用千鈞弩所以白雲殿堂迴別人間天上諸佛處此殿是故此殿最吉祥諸佛入此堂是故此堂最嚴淨當知此殿此堂不屬陰陽攝受不拘年月推移盡從諸公妙明性中流出直得十方諸佛異口同音宣說偈曰兩彩功成喜有期玲瓏八面鎮坤維白雲吞卻太虛了正是心空及第時。穿井示眾靈泉深隱白雲隈海眼沙封久不開卓錫弗辭甘醴出梵玃有待故人來。

原書闕

座元寮秉拂語錄

受法衣秉拂拈衣示眾云箇事由來徹底窮尋常懶得向人通今朝授受親承旨千聖從教立下風下風且置箇中事作麼生寶印當空妙重重錦縫開披衣就座拈拄杖云欲識佛性義當觀時節因緣時節若至其理自彰復按拄杖云時節至矣卓一卓云理已彰矣向此轉得身吐得氣如龍得水似虎靠山孤迥迥橫互十方峭巍巍摩蕩今古示一機而千峰落色發一境而萬派朝宗說甚高揖釋迦不拜彌勒便乃披師衣就師座懸寶鏡於夜明簾外秉師拂行師令撒珍珠於紫羅帳中當面拈出纖毫不涉覲體相呈妙協兼帶正恁麼時如何委悉良久云但能不觸當今諱也勝前朝斷舌才問熊耳峰前事千古無人見幸師登法筵禮請通一線師振威一喝進云慈雲普覆三千界情與無情俱沾恩師云月照樓頭人夢杳雲橫谷口鳥迷巢進云群狐膽喪從今日大闡宗風在此時師云逢人但恁麼舉進云謝師荅話師云須識鉤頭意莫認定盤星。

結夏秉拂問朱明已屆聖制當遵天目四關願垂指示師云一人傳虛萬人傳實如何是大海無魚師云春到禹門無宿客如何是大地無草師云年來邊塞少鶯花如何是大富無糧師云美食難中飽人餐如何是大悟無道師云位居九五不知尊進云等閒拋出金剛圈到底難吞栗棘蓬師云怪得阿誰乃云朱明已屆聖制當遵以大圓覺為我伽藍身心安居平等性智飽以金牛飯飲以趙老茶栗棘蓬朝朝與汝啜噉金剛圈時時與汝提撕直下薦得任他雲門關天目關趙州關黃龍關重重關鎖一踏全開始信大海無魚大悟無道若更猶豫必須朝參暮參行參坐參絕後重甦方識禹門無宿客九五不知尊然猶未是極則事且如何是極則事鉢囊高挂禪床角待到秋來再問津。

秉拂豎拂子云諸昆仲會麼只者箇耀古騰今了無朕兆崑崙未撼之初而不增劫火洞然之後而不燥日月不能奪其光聖賢無以窮其奧展開則萬谷傳芳收藏則纖毫俱掃二聽莫聞其聲五日安睹其貌阿呵呵離玄要毘婆尸佛早留心直至而今不得妙問現前消息即不問洞山五位請敷揚師云洞山無此語莫謗洞山好如何是正中偏師云三更月色到窗前如何是偏中正師云桃李芬芳笑古鏡如何是正中來師云六月梅花帶雪開如何是兼中至師云萍水相逢多意氣如何是兼中到師云泥牛入海無消耗進云新豐一曲千年普洞上宗風萬古輝師云轉功就位人皆見句裏藏鋒幾箇知。

秉拂有句無句荷葉團團團似鏡如藤倚樹菱角尖尖尖似錐樹倒藤枯風吹柳絮毛毬走句歸何處雨打梨花蛺蝶飛到此果是楊修見幼婦而知妙者任他棒如雨點喝似雷轟握劍鞦毬張弓架箭佛祖言教諸子百家不用如何若何信手拈來一捏粉碎有甚禪可參七可打便做箇灑灑落落無事閒道人也假若惜破甌於回頭驚蜂蠆於掉臂直饒舉手攀南斗轉身倚北辰鸚鵡洲和岸趨翻黃鶴樓驀頭拳倒正眼看來猶隔玄關在就中莫有透得的麼一僧纔出師云莫學假雞啼。

秉拂西來祖意莫參詳靚面分明絕覆藏霧影環山分夕照松濤隔岸墮幽香溪邊露冷浮雲淡嶺上風高逝水長幾樹桃花紅灼灼數竿修竹碧蒼蒼知有者庭前柏枯生果不知有者廬陵米爛成秧知與不知拈向一邊著何故響有事出眾相見無事各自歸堂問西來祖意即不問欲將賓主請師分師打云且道是賓是主如何是賓師云終日走白雲如何是主師云當堂不正坐如何是賓中賓師云眼底無筋一世貧如何是賓中主師云歷盡青山沒伴侶進云謝師指示師云且禮拜著僧作禮師便打。

解夏秉拂盡大地是箇青龍寺其間煙雲出沒鳥道紆迴同行共止了無遮障因甚問著境況遐邇樓閣高低十箇五雙茫然不知今朝不惜眉毛八字打開豎拂云看看九峰峯嶺疊翠成陰三泖滌迴交光激灩月臨古渡疏影微分煙鎖重樓寒光獨耀櫓聲款乃穿石樣之梭山色微茫布天孫之錦於此會得途中受用於此不會世諦流布途中世諦且置祇如不涉程途又作麼生揮拂云腳下無私塵不隔胸中有字路偏遙。

秉拂者著子最難測智莫能知識不可識道其明黑如漆道其暗昭如日卷則包含萬有了無滲漏放該括十虛迴絕纖塵大闡一音廣弘萬品若是箇眼底有筋皮下有血的漢子一聞此舉承當得去不妨渴飲饑餐倦眠閒步嘯傲林泉坐消歲月設或尚留觀聽更須清耳虛襟晨昏匪懈似雞抱卵晝夜不離如貓捕鼠首尾一貫直得天翻地覆海沸波騰東西莫辯南北不分忽然因地一聲方知成佛其來舊矣雖然若到祖師門下正好朝打三千暮打八百因甚如此拍案云不到最高處安知滄海深。

秉拂六七年來訪道參禪問法皆言無說問道皆云無傳且喜無說踏穿草履沒絲隔幸也無傳撲落虛空絕正偏自此不羨佛與祖披襟常嘯碧雲邊誰知遇著無情漢逼我垂鉤釣曉煙飄然舞起巖頭棹莞爾放開船子舟片帆直入驚人浪裂破波心兩道流悠悠頻把絲綸展試看華鯨逆浪遊將拂子作拋鉤勢云有麼有麼良久云罷罷罷休休休水澗不見魚兒現搖出蘆灣別下鉤以拂子搭肩上云收。

冬至秉拂書雲節至老梅壟上破香腮添線日長古柏庭前呈翠色酒瓶山上雲北起曉來仍際會龍菴昇僊臺畔水東流夜深卻繞戒衣亭頭頭法法直指徽猷佛性妙義宛爾全彰若乃更涉思惟自是落七落八諸兄到此如何合折卓拄杖下座。

除夕秉拂去年人度今年節今年人送去年年去年光景還依舊今年人事不同前既是光景依舊因甚人事不同乾坤老我一身拙日月催人兩鬢斑復舉僧問古德年窮歲盡事如何德云孟春猶寒師云古德雖則句裏藏鋒言中有響未免使人坐在冷冰冰地有問我年窮歲盡事如何但云石女夜深煨榾柮木童天曉舞春風者裏搆得去說甚曲唱新豐酒顛曹山牛烹露地獅弄雲巖一任輪天轉地換古移今細切清風薄剗明月食前方丈共度殘年非為分外苟或機迷始終且去巡察喫茶。

歲旦秉拂問滿目風光頻漏泄新年一句請師宣師云張公喫酒李公醉進云祇如僧問鏡清新年頭還有佛法也無清云有怎生是有師云橫拈白棒打顛狗明教云無如何是無師云踢翻東壁笑胡盧進云未審二老還有為人處麼師云有進云那是他為人處師云梅雪爭春展笑顏乃云新年頭佛法有橫拈白棒打顛狗新年頭佛法無踢翻東壁笑胡盧有無迴出兩重關梅雪爭春展笑顏好大哥仔細看旭日初昇光朗耀鴻鈞纔轉景多般。

秉拂大道虛靈曾無方隅本來成現不用安排言下知歸階前客作棒頭領荷抱樹寒蟬饒似天由杲日江上清風衝漢無形過流絕影正是生死交關不無大患須知英靈漢子慷慨丈夫撒手威音不留階級遇茶喫茶遇飯喫飯閒對風前幾片雲倦來高枕無拘束且道此人得何三昧乃有如是受用喝一喝云不是知音不與談。

結夏秉拂參玄人莫輕忽尋師訪道非容易涉水登山苦萬千餓其體膚勞筋骨既到寶山休浪回必須討得箇端的箇端的無他術不學西天驗蠟人話頭貴在時綿密放下面皮剔起眉鑄成一條生鐵脊牢把繩頭緊著鞭撻得通身白汗出咬定牙關捏緊拳是魔是佛一齊擲橫排豎遣著精神看他畢竟是何物看到水窮山盡時那時自有好消息咄。

祈雨秉拂拈拄杖云拄杖化作娑竭龍王一時遊遍大千世界曹谿路上波浪滔天少室山前煙雲匝地大野橫身風颯颯油然遍界冷颼颼去來不出一毫端含吐十虛無背向既有如是神通且看如是妙用卓一卓云東海鯉魚打一棒茫茫宇宙便為霖。

秉拂道念若同情念成佛有餘為眾一似為己彼此事辦諸昆仲邇來坐禪還同平日之情念尋常之為己也未情知你被麻三斤乾矢橛三不是一何歸父母未生前庭前柏樹子礙在胸中要生生不得要死死不得觸著磕著好賺殺人我有箇方便直下若能搆去豈不慶快平生以拂左拂云麻三斤乾矢橛父母未生前盡在者裏右拂云三不是一何歸庭前柏樹子盡在者裏畫○相云莫若打成一片鎔作一團方是到家消息復擊香案云一時百雜碎了也更說甚道念情念為眾為己欲覓箇生死之相了不可得是則是更有一言智有所不知神有所不明到今不得不說搖手云且謾說且謾說三七完來猶未遲甕裏那怕走卻鱉。

解夏秉拂鉏一片畚種一籠粟佛法猶海愈入愈深日中一食夜後一寢道業如山漸登漸高果是住同野鶴去則孤雲縱橫在我收放自由逢佛殺佛

逢祖殺祖便可建大功立大業挾宇宙乘雲氣御飛龍選佛場中可謂第一狀元也假若利名在念山水牽連遂扣齒作噴水書符勢云萬靈千聖千聖萬靈金錢寶馬火速登程急急如律令敕。

冬至秉拂敲唱雙行龜毛倒縛清風影照用齊施兔角橫穿佛祖腮樹靈鼉之鼓攻魔族於千山仗太阿之劍掃狐蹤於萬里或乘獅子現全身或騎象王現半形或拈一字關鍵作多種圓相或指三界惟心萬法惟識使瘖復語瞽重明病得瘥瞶者聽此是諸佛諸祖塵點劫來應時施設土苴緒餘耳祇如秉拂上座又如何話會卓拄杖云孤根自有天然秀不假陽和分外奇。眾檀送抱拙大師靈骨入山請秉拂遠客歸故鄉相逢話更長恐人聽不見特舉向當陽以拂子畫○相云諸昆仲見麼適來抱大師向大圓鏡中入無量無邊不可思議禪定一一定中發無量無邊不可思議智慧一一慧中放無量無邊不可思議光明一一光中現無量無邊不可思議國土一一國中興無量無邊不可思議蓮舟一一舟中載無量無邊不可思議諸佛一一諸佛演無量無邊不可思議妙法復領無量無邊不可思議微塵數世界若聖若凡若冤若親乃至一切山川草木瓦礫荊棘水陸空行情與無情異口同音演第一義乘此寶筏共到彼岸成等正覺拂一拂云是伊又向甚處去也樹高低山突兀柳半伸腰梅半發洗清天地一林霜印破虛空千嶂月此時識得者根源何俟當來問彌勒。

除夕秉拂雲歸壑水朝宗二十四氣昨日盡三十六旬此際窮窮則變變則通尋常一樣窗前月纔有梅花便不同試問湖山參學士箇中誰是主人公即如攜囊盛種遺鄉里羯鼓催花賽上工此是春意尚未是主人公若謂粉成角食彎弓射木造龍舟淡抹紅此是夏意猶未是主人公更道烏鵲填橋會織女涼風落帽笑嘉翁此是秋意又未是主人公乃至訪友乘槎來玉岸尋梅策蹇上瑤峰此是冬意亦未是主人公諸兄弟現今三十到來畢竟如何是主人公喝一喝云爆竹騰空飛臘雪江村野燒放新紅。

元旦秉拂今年年是去年年年去年來是好年昨日日是今日日日移日換是好日柏葉泛三春之醕梅花開兩歲之瓊酒瓶山前別露一壺春色醉眠亭畔依然無限風光牧童見以謳歌野老聞而舞袖說甚葛天氏之民歟無懷氏之民歟直得天和地和人和情與無情一樣和年新月新日新大地山河一色新豎拂云者箇還有新舊也無乍卷乍舒煙聚散無高無下日光輝風流一段難收拾迴別人間絕是非。

祈晴秉拂以拂子畫一畫云雲開碧落復豎拂云日麗中天煙消遙見山形瘦花枝上突出無位真人日煖頻收谷口寒石洞邊迸開本來面目隱向此間隱現向此間現隱現既無私急須高著眼畫○相云看看漆桶都來齊打破頂門迸出一輪紅。

老和尚誕日眾請秉拂迦陵偃音遍周沙界爍迦羅眼洞徹十虛揭示格外樞機夜半正明提持向上玄關天曉不露此是我老人塵點劫來乘大願力普運慈心降蹟中州北地照來南地月垂餌會稽吳山飛去越山雲當此際

也節屆蕤賓年方知命丹葩耀日幽禽調叔夜之琴天籟雜歌芳草入謝公之句叵耐現前昆仲卻向虛空結彩盡調師長之年不可不知既已知矣不可不祝眾中或以寶掌千二百歲而為祝者或以莊老八千椿而為祝者或以智勝塵點劫數而為祝者或以彌陀無量壽而為祝者上來祝壽即不無豎拂子云祇如者箇不落數量作麼生祝無見頂露雲攢急劫外靈枝不帶春。

結制秉拂牢關把住不通津驗辯龍蛇心膽驚未具超方雲漢眼碧油幢令那虛行捨生棄死誅巢穴步月巡風守禁城二六時中加力練刻刻還將魁首擒刀鎗須得龜毛就弓矢還從兔角成清平世界休留戀白刃峰頭好轉身轉得身來直下看看渠畢竟是何人忽然看破自家底風光溢日露天真不必梯山并航海西來祖意甚分明遂喝一喝下座。

除夕秉拂寒暑迭運烏兔遷流逗到今宵如何合折若是性燥漢子向新舊未交之際歲次未至之初洞開隻眼一覷覷破任他日征月邁歲改時遷寒辭臘雪煖入春風自然不被明暗晦朔之所轉變從教毆儻戲舞無非箇裏神通桃符換彩盡是當人妙用不然謾謂寸陰無可惜等閒拋卻實難追。秉拂畫○相云寶鏡當軒翠影珊瑚龜毛指出好生觀縱饒當處知端的復畫[○@卍]相云擬議依然隔此關。

元旦秉拂問打七起三即不問應時一句事如何師云翠飛嫩柳堤邊影進云恁麼則第二句了也師云且向第一句薦取乃云我有一句子從來未舉似了無古與今迴絕向和背捷徑又尋常現成更容易不用問人尋胡為向己會頭頂一樣天腳踏無二地梅開雪裏香柳拂堤邊翠野色曉來青嵐光晴更媚霜濃谷口寒風澹谿聲碎柏酒飲椒觴銀花燦火樹笛韻起孤城鐘聲沉野寺頭頭與法法空劫已前事直下解承當應時無不利一僧出禮云將謂新正有幾許佛法若然阿誰不會師喝云非公境界。

解制秉拂籟發千山天外濤聲淅淅金篩百畝雲中翠影珊珊一段真機觀面何須別覓心安笑他百城煙水千里布單四藤條稱天下佛三頓棒往大愚灘拋卻自家寶藏希圖大樹皮寬縱饒拾得半箇鼻孔不是儻侗便是瞞肝惟我青龍濟濟多士不狂不獯不懦不頑發憤要明此事直透鐵壁銀山拶得赤肉團上走出無位真人揚聲大叫云諸兄弟九旬制滿足峭芒鞋猛思去路倘遇洪波浩渺白浪滔天如何過得若也出身有路一任天南塞北去住自由其或未然他時後日鐵面閻君索取飯錢莫言不道。

秉拂時間隱几夢騎須彌盧泛香水海入螭螟眼中透迤而行不覺走到蝸牛角上見兩箇石幢子口裏喃喃談天論地舉古明今梅萼三冬發菊花九月開犬子解咬人驢兒便拽磨方作此夢忽然一驚元是眾請秉拂而今擲動法鼓上了法座說些甚麼即得莫是談玄談妙說心說性得麼莫是判古批今拈宗引教得麼莫是警策工夫標月垂示得麼殊不知談玄談妙說心說性也是作夢判古批今拈宗引教也是作夢警策工夫標月垂示也是作夢乃至世間貴賤榮辱是非人我無明妄想成佛做祖也只是作夢所以道

真如佛性等是空花涅槃生死猶如作夢諸兄弟既然都是作夢可中有識得夢破的麼喝一喝云癡人面前不得說夢。

中秋秉拂天上月圓人間月半一有多種二無兩般桂燦冰壺兔飛銀漢人月雙融水天一貫識得其中了無思算如何是無思算的道理○分付堂前人打鼓普請看。

篩金菴巨大師開關請秉拂晴湖一鑑浪花鮮為訪同人泛練川只道此來觀法戰那知金鎖啟關前拈拄杖云向此端的一回始知自己腳下一段光明輝天鑑地盪古摩今納大海於毫端而毫端非細置須彌於芥子而芥子有餘亦知我巨兄三年前捏聚虛空為斗室搓圓大地作蒲團到今日鐵船獨駕泛青霄橫身直入驚人浪所以時或在無縫室中鬚頭垢面而玄機隱密時或在芳花叢裏嘯月吟風而古韻鏗鏘正恁麼時還在無縫室中還在芳花叢裏卓拄杖云浩渺龍昇光吐碧離披月出影篩金。

除夕秉拂廿九日已前梅寒透而香飄道窮則變廿九日已後柳煖回而色勝理至自彰正當廿九日舊歲欲去未去新歲欲來未來舊不以舊為舊新不以新為新天不以天為天地不以地為地山不以山為山水不以水為水三百六十甲子一時打散了也沒計較處髮從今日白無奈何時花是去年紅拶到梢頭放一線道寒隨一夜盡春逐五更回舊依舊是舊新依舊是新天依舊是天地依舊是地山依舊是山水依舊是水是法住法位世間相常住雖然如老人適來道臘盡春回萬物發生因甚衲僧鼻孔依舊垂下喝一喝云大抵還他肌骨好不搽紅粉也風流。

薦巖請秉拂假借四大以為身春暖桃花雨後新心本無生因境有風吹柳絮毛毬走前境若無心亦無一片冰心在玉壺罪福如幻起亦滅子規枝上向人說大眾者裏薦得處人間世驪珠獨耀於滄海居涅槃岸桂輪孤朗於碧天如此則淨裸裸遍大地是真實人體清寥寥總刹海為大解脫場可以往復無間可以動靜一如以至一子出塵冤親超拔不是神通妙用本來法爾如然正恁麼時如何委悉西方國土毫端現極目全彰清淨身。

秉拂舉天童淨禪師屢遷名刹後奉敕陞天童捧敕黃示眾曰雲開九天呈起曰看彩鳳銜出且道如何委悉急急如律令敕師云身入天湖光挾驪龍珠太白峰前來逞俊一霎時日現雲敷聲價殊震皇都無奈雲端飛彩鳳通身畫出老君符。

## 機緣問答

老和尚命送竹篋至座元寮為眾考工師即拈竹篋落堂問眾云喚作竹篋則觸不喚作竹篋則背畢竟喚作甚麼道得也拗折道不得也拗折眾無對師便拗折歸寮。

師一日落堂考工畢上方丈問訊老和尚曰今日堂中有幾人悟道師云若不是智操幾錯祇對和尚尚曰座元大似不曾落堂師云將謂無人證明尚

曰既然落堂因甚容他聖僧瞌睡師云且喜今日放參。  
僧問如何是無為國師云千秋歌舜日萬里樂堯天如何是無星秤師云權衡渾不落輕重自分明如何是無根樹師云常開花五色不逐四時凋如何是無底鉢師云擎出吞天地展開制毒龍如何是無弦琴師云子期如不遇辜負伯牙心如何是無底船師云不犯東西岸篙人用意良如何是無生曲師云曲終人不會江上數峰青如何是無孔笛師云拈來高閣上吹出鳳凰遊如何是無鬚鎖師云放行風不露把住手難開如何是無底籃師云死蛇莫打殺好好盛將歸進云為唄玄關明祖意果然法道異尋常師打云識甚好惡。  
問既是蛇師因甚被蛇吞卻師云盡力推爺向裏頭又云疑殺天下人。  
問萬瓦鱗鱗勢衝霄漢為何喚作無梁殿師云別是一乾坤。  
問佛祖塔廟因甚卻被雷霹師云通上徹下。  
問時人有病醫王醫醫王有病何人醫師云山僧解忌口又有如前問師云人參附子下將來。  
問有一室女未曾嫁娉生得一子姓個什麼師云不得姓又云三玄收不得四句豈能該。  
問泉眼不通被沙礙道眼不通被甚麼礙師云切忌捏目生花復有如前問師云禍不入慎家之門。  
問如何是殺人刀師云長空不匣鋒銚色如何是活人劍師云四海唯清日月明如何是凡師云華頂峰頭客如何是聖師云平田莊裏人曰凡之與聖相去幾何師云古松連翠竹秋水對紅蓮。  
問佛不化本國和尚因甚旋里說法師云盡大地是山僧你向何處見他曰是處是彌勒無門無善財師云說甚麼法僧擬議師便打。  
師遊投子僧問父不投為何投子師云同時不識祖曰寺以伽藍護法正毀葬時胡不顯應師云見怪不怪其怪自壞曰法雨因時離寂住慈雲何日再還山師云劫火洞然毫末盡青山依舊白雲中。  
問知有底人因甚道不得師云子諱爺名不知有底人因甚道得師云汝卻靈利曰自後如何行履師云奈河橋畔嘶聲切劍樹林中去復還。  
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云石從空裏立水向火邊焚曰不會師云有工惟種竹無暇不栽松。  
問既為佛弟子何得又還俗師云易割千莖髮難空一片心曰反反復復有甚了期師云金剛倒地一堆泥。  
師據新室問眾云知識晏居名曰方丈白雲坐處因甚僅成八尺天瑞曰他人住處師不住師云更道僧理前問師云橫身三界外獨脫萬機前。  
問一切眾生皆盡孝道因甚土梟食母師云獅兒一吼祖父俱盡復有如前問師云換骨洗腸重整頓通身是眼更須參。  
問魚以水為命為何死在水中師云道曠無涯逢人不盡復有如前問師云專為流通。

問猛虎以肉為食為何不食其子師曰無下口處又云從門入者不是家珍。

僧參師問那裏來曰少林來師云還見達磨祖師麼曰見師云是何面目曰同和尚一般師云莫眼花僧擬對師喝出。

僧問無夢無想主人公在甚麼處師云踏斷草鞋四條筋僧禮拜師云會麼曰不會師打云莫妄想。

問大地焦枯作麼生救師云自有源頭活水來。

僧問盡大地是沙門一張口諸人向甚麼處屙師云把將鍬子來許多時雨水為何青龍江不滿師云渠無增減百花門艷萬卉爭奇且道明甚麼邊事師云千古意分明。

問既是獅子兒為何卻被犬咬師云許者畜生具眼。

僧問萬法歸一一歸何處師云此去青浦二十五里曰意旨如何師云看腳下。

居士問如何是弟子本來面目師指庭前牡丹云會麼曰不會師云一年一度開。

僧問如何是先照後用師云筠袁贛吉頭上插筆如何是先用後照師云石城乾化說話廝罵如何是照用同時師云漳泉福建頭匾如扇如何是照用不同時師云嘉眉果懷裏有狀。

問如何是佛師云烏雞雪裏啼僧作禮師便打。

僧問如何是一印印空師云三更紅日上高峰如何是一印印水師云天曉銀蟾浮浪裏如何是一印印泥師云釋迦布髮然燈記。

問如何是青龍境師云關徑通三泖開門對九峰如何是境中人師云相逢卻不識不識卻相逢。

僧參師云發足何方曰楚中師云船來陸來曰遇船則船遇陸則陸師云如何是二俱不涉僧一喝師云用喝作麼僧擬議師打出。

僧問祖意教意是同是別師云一條拄杖萬年藤洞山臨濟是一是二師云半臂袈裟千佛衣曰與麼則一月普現一切水師云莫向者裏躲跟僧喝師便打。

僧問如何是佛師云莫妄想如何是法師云莫眼花如何是僧師云莫寐語曰謝師指示師打云又恁麼去也。

僧問如何是道師云江山留勝蹟曰不問者箇道師云你問那箇道曰大道師云我輩得登臨。

問不求棒喝交馳請示鏡清六刮師云目前無異路何必泣多岐如何是就毛刮塵師云三頓不異蒿枝拂如何是就皮刮毛師云兩吹正是蟲禦木如何是就肉刮皮師云心頭片石且休安如何是就骨刮肉師云項上鐵枷須脫卻如何是就髓刮骨師云擯出侍者忠國師祇如髓又如何刮師云問殺首座价尊宿進云六刮已蒙師指示向上宗乘事若何師打云手執夜明符幾箇知天曉。

僧參師豎拂子僧擬議師便打。

僧問如何是有拄杖子與拄杖子師云富嫌千口少如何是無拄杖子奪卻拄杖子師云貧恨一身多。

僧參師拈拄杖僧一喝師便打。

官人參師云汝是官人怎解參禪進云莫以相貌取人師云山僧造次。

眾秀才參師云十目所視十手所指且道指視箇甚麼咸云不會師云賴遇措大不會。

僧問有拄杖子為何又與拄杖子師云甜瓜徹蒂甜無拄杖子因甚奪卻拄杖子師云苦瓠連根苦。

僧問未見青龍時如何師云夫子不識字曰見後如何師云達磨不會禪曰見與不見作麼生師云金雞生彩鳳玉兔產麒麟。

僧問鳥道不逢時如何師云泥牛吼水面曰逢後又如何師云木馬逐風嘶。

僧問如何是和尚家風師云每日三餐食常年一衲衣進云忽遇客來將何祇待師云鵲來頭上語雲向眼前飛。

僧問如何是塔院家風師云一塢白雲三間茆屋進云忽遇客來將何祇待師云寧可清貧快樂不求濁富多憂。

僧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師云弁嶽峰頭月龍江波底明。

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云木馬走如煙石人趁不及進云不與萬法為侶是甚麼人師云城中青史樓雲外高僧塔。

問如何是安樂境師云山外龍吟瀑布水澗邊雲起翠微峰如何是境中人師云送客不離三步內邀賓只在一庭中。

一僧字山夫師云山夫即不問如何是山妻一葦云綠楊芳草地何處不風流師云未在進云山夫即不問如何是山妻師云自古上賢猶不識造次凡流豈可明。

(弟子 德潤備資敬刻

方丈和尚語錄第十卷惟冀覺了自心

超步毘盧寶頂義成一切頓圓調

御十身)

寒松操禪師語錄卷第十

普說

立僧秉拂普說佛法非法貴在悟達禪道非道胡為體妙擊石火閃電光終成鹵莽驅耕牛奪饑食不名向上縱似趙常山向百萬軍中取勝淮陰侯背水陣上建功自是虛彰聲勢由來枉費神機更乃運籌於帷幄之中決勝於千里之外正眼看來堪作甚麼一切奇言妙句擲地作金聲掉頭勿顧自然知解坑阱一時擺脫迴超威音那畔頓越象帝之先返南為北易東作西細中移步鶴出銀籠位裏轉身月鋪金地是恁麼人隨分拈來可以塞斷咽喉不見釋迦老子道我於三七日思惟如是事結制已來三七日矣且道他思惟箇甚麼事其間果能透得他意看得他破則釋迦不前當人不後昔年之三七何異今日之三七耶假若眼裏無筋皮下無血則釋迦自釋迦當人自當人昔年自昔年今日自今日所以道選佛若無如是眼縱饒千載亦奚為聽取一頌三七思惟因底事於中切忌妄追尋須領略謾沉吟滿腹相思一曲琴一曲兩曲無人會兩過夜塘秋水深會得者箇便知洞山與神山路次見白兔走過神曰俊哉洞曰作麼生神曰大似白衣拜相洞曰老大大作者箇說話神曰你作麼生洞曰積代簪纓暫時落魄你看古人二六時中折旋俯仰切切以此事為念始知佛法在行住坐臥處穿衣喫飯處更向行住坐臥穿衣喫飯處動著些兒便不是了也正謂毫釐有差天地懸隔瞥爾情生萬劫羈鎖復聽一頌恁麼來時會也麼霜眉雪鬢出煙蘿二非兩一有多尊貴何妨混緣蓑換步轉身人不見疲深惟有月明過會得者箇便知。

僧問谷隱聰禪師如何是夜半正明天曉不露隱云牡丹花下睡貓兒看他從上先聖開口動舌初不著意發一機直使乾坤失色示一境從教江漢朝宗盡卻你平生咬嚼他不破知有底人一舉便知落處若乃宗眼不明菽麥不分豈可同日而語哉故曰恁麼相續也大難亦聽一頌禁殿沉沉夜色鮮金雞啼唱五更天離玄要沒正偏露柱懷胎面目全是男是女難分別月出連山露半邊會得者箇便知南泉因兩堂爭貓泉提起云道得即不斬道不得即斬卻去也眾無對泉便斬卻趙州從外歸泉舉示之州脫草鞋於頭上而出泉云子在卻救得貓兒祇如者段公案洵訛在甚麼處眾中商量者兩堂是蘇秦張儀只麼投秦入趙豈知天然王道趙州善辯來機向驪龍頷下取珠阿修羅手中奪印苦哉屈哉與麼稱禪客閻羅大王未放汝在正是韓盧逐塊者無異也再聽一頌凜凜霜顏手裏藏兩堂珍重好兒郎提起也絕商量一陣腥風滿大唐謾云戴履貓能救戴履何曾異兩堂會得者箇便知昔有婆子供養一僧常令二八女子給侍一日令女抱住云正當恁麼時如何僧云枯木倚寒巖三冬無煖氣女回舉似婆婆云我二十年只供養箇俗

漢便燒菴趁出若論此事無分僧俗貴賤惟有真參實悟底掉得些子滴水可以興波空手便能行拳你看者二人一搵一挨畢竟意在於何更聽一頌運籌早已不心良覲面何堪著意忙休賣弄少郎當爛麻怎作繫驢韁流鶯帶曉催春急一樹花開滿徑香諸昆仲適來所舉一二公案如湛盧似火聚不許差落顧佇那容踏步向前任是普慧雲興百問普賢餅瀉千酬將三藏十二部從頭註過總是門外打之邊果能卒地折爆地斷直下知歸而塵塵解脫當處明了而法法圓融入水求人善行天下無車蹟燒山覓虎高臥江天不露蹤然後可以指揮八極陵爍古今陶鑄聖凡融化愚智更與三世諸佛歷代古錐同一眼觀同一耳聽同一意觸同一舌嘗把臂同行共鼻出氣非為分外是事且置而今眾中還有共鼻出氣者麼打噴嚏云氣急殺人。退院普說今宵還是山中主明日翛然化外賓豎拂云百年三萬六千朝反復元來是此人所以釋迦老子識得此人便云天上天下惟我獨尊達磨大師識得此人亦曰吾本來茲土傳法度迷津竺乾諸祖建宗立旨莫不皆由識得此人然後發言吐氣自是行解相應至於山僧兩住青龍於中冒雨披星出作入息左提右挈正打傍敲莫不咸願諸公識得此人而後已又承諸公股肱之勞贊助之力始終條理內外肅然故我纔居丈室欲效古人體例不下山不赴齋不攀豪貴檀越名隨緣動用號知足只將本寺莊課諒人多寡以作粥飯雖舉此念雖行此事未敢輕於言出於口何也靡不有初鮮克有終不期數百里之外已被老人慧眼遙見慧耳遙聞與檀越書云竊惟邇來佛法澆薄之極每見拖筇曳裾苞苴投刺交結權勢靡所不至唯圖門庭熱鬧不顧取笑傍觀方今之時滔滔皆是欲匡時援溺易風移俗求其一二又烏可得哉興念及此未常不疾首蹙額者也有人從青龍來謂新方丈杜門不出一味高尚弗憂門庭冷落法堂草深較之諸方新出世者可謂劣矣山野謂果如是乎若果如是則古風稍挽涇渭可分何患叢林之不興祖道之不振古云作家自有通人愛是耳雖新方丈不諳時務抑且尚在老成比前拖筇曳裾者又不可概而目之也大眾一念纔興便有知識一事將行便有遠鑑汝等只愁不識此人莫慮外無知者祇恐行之不速莫求言之太遲言行乃君子之樞機治身之大本動天地感鬼神得不敬乎然先聖教人但盡今時更有何事能盡今時自然行到言到要識此人別無奇特務宜信得及看得破把得住下得手自是工夫成片妄想消除對世間一切愛欲境界心如木石形類死灰晝不足繼之以夜夜不足繼之以日日不足繼之以月月不足繼之以年翻來覆去提去提來不覺不知忽然搵透如貧得寶如暗得燈如雲開見日如水底火發盡十方世界是箇大圓鏡盡十方世界是箇自己謂之心空及第見徹父母未生前本來面目不妨安居於水邊林下保養聖胎名利不于大忘人世直待龍天推出四眾欽從吐一機則千機萬機齊剖道一句則千句萬句合轍步步行有言言談實自然不被業力所牽更不教人撥無因果今日不是不向現前吐露因住青龍今已十載未常一日與前念間隔一期諸公尋常行事須是言顧行行顧言發言必慮其所終立

行必務其所蔽二顯知幾知微將啟百世之蒙不傷先鑑之明三冀他時後日豎法幢建法社看從上藥山之牛欄風穴之白丁供辦投子家風禪坐石霜枯木為山食橡栗大梅衣荷葉凡為住持三請而赴一辭便行有緣則住無緣則往從上諸聖如是標格莫學今時裨販之徒將常住物私做人情資用俗家假貸而暗獻將新而先供永固祖席如虬戀窟現前戴角披毛償所負者多此等流先佛明言可不懼哉故曰應觀法界性一切惟心造又云今時人雖從緣得一念頓悟自理猶有無始習氣未能頓盡須教渠頓除現業流識即是修也不是別有行門令渠趣向故山僧或出或處未常不以此介意猶恐有所未至因退院述偈以互相警策學道容易行道難休將知解自瞞肝開言饒與諸賢契行履須將古聖觀一寸光陰忙若電十方信施重如山失多只為貪他少莫把人身當等閒。

指迷普說問衲僧行履斷絕攀緣因甚王林長老倚勢并吞師云水母原無眼求食須賴蝦進云尊莫尊乎道美莫美乎德占人叢席還具道德也未師云甜瓜徹蒂甜苦瓠連根苦進云與麼則長言大義何曾義自謂孤忠卻不忠師云盜名豈是為人盜欺世從來只自欺進云究竟一文偷不得至今空作不良人師云不到烏江畔知伊未肯休乃云適纔與麼酬醋諸公無不委知若是箇漢向山僧未出方丈已前道得一句作箇灑灑落落無事人去豈不快哉倘或玉石不分魔佛不辨未免向第二義門為諸人通一線去不見黃面瞿曇十九始悟修行三十足成佛祖演藏經五千餘卷住塵世七十九年其間坐無量寶剎度無量眾生難行能行難忍能忍三千大千世界無有芥子許而不是捨身命處故得三十二相八十種好萬德莊嚴十號具足神龍為之擁護四眾為之皈依天上天下稱為獨尊曾聞有假借威權屢屢以并吞為事而得成佛耶非惟我佛如然即西天二十八祖遞代相傳各化一方或主人以自剏園林堅請而不就者或檀越以世襲家業力施而不受者或不吝衣食而濟度世人者或不惜身命而廣化眾生者種種解脫種種慈悲種種方便種種因緣不勝枚舉曾聞有假借威權屢層以并吞為事而得作祖耶非惟西天諸祖如然即我東土貞觀嚮道欲瞻風彩上表遜謝往返三四引頸就刃神色自若使以狀聞帝逾欽慕吾是以敬道信大師也茅茨石室累煩聖主且請前行我從別道澡身淨髮結跏趺逝吾是以尊無業禪師也休心息念斷絕攀緣賜紫及號力陳昔誓收付有司恬然受刑及抵淄州道俗用湊吾是以重芙蓉楷祖也皇祐初年遣使持書稱疾不起表薦懷璉幸安林下飯蔬飲水佛祖不為況其他耶吾是以仰圓通訥翁也赴京未久屢乞還山鉢賜龍腦即付丙丁大小菴院敕隨意住得旨深密後出敝笥吾是以慕大覺璉公也乃至隱山至死不肯見人趙州至死不肯告人匾擔拾橡栗為食大梅以荷葉為衣紙衣道者只披紙玄泰上座只著布石霜置枯木堂與人坐臥祇要死了你心投子使人辦米同煮共餐要得省取你事古之今之或出或處立一事行一法無不與人抽釘拔楔解黏去縛時常以損己利人為念曾聞有假借威權屢層以并吞為事而得稱為人天師範耶

非惟出世諸祖如然即在世高人如許由聞堯將讓天下於己以為污耳之言從清流而洗之巢父飲牛其下以為此水足活牛口復踞上流而飲之子陵微時友於光武及帝登位屢請不屈釣煙波於桐江之上東坡將已置之宅夜聞老嫗出不忍棄之聲即取其券而焚之是皆塵勞中人尚能輕利重義曾聞有假借威權屢屢以并吞為事而得稱為高人逸士耶非惟高人逸士如然即善權一剎劫於南齊之建元毀於大唐之會昌咸通八年節度使李贛奏復之請玄覺禪師為開山祖已而徹公始得蹈其後蹟建炎初李忠定公綱重嚴像設請主嗣宗禪師上堂曰澗底泥牛金貼面山頭石女著真紅繫驢橛上生芝草不是雲靄香爐峰此四句中內有一句能殺能活能縱能奪若人簡點得出不惟一生參學事畢亦明得法智禪師繼席上堂云明月高懸未照前雪眉人倚玉闌干夜深雨過風雷息客散雲樓酒碗乾其中有一句是正偏兼帶一句是賓主互換一句是六義深藏一句是照用齊施且道那一句是賓主互換於此分析得出方見得慧泰禪師所曰微雲淡河漢疏雨滴梧桐之意旨也見得者箇意旨始識咸淳二年大學士李曾伯加宏拓焉遂延福巖禪師德珍首座悟空濟無學文善權通暨西印玉山宗愷等是皆唐宋元明以來洞濟法雲諸大知識赴堅請而惠然肯來者曾聞有假借威權屢屢以并吞為事而得稱為先輩大善知識耶非惟先輩知識如然即鼎革以來寺廢僧逃十有餘載眾延浮石和尚居不堪憂經旬辭去郡邑士紳不忘付囑於康熙壬寅春恭請先師百愚老人闢草開荒中興此寺乙巳秋老人逝後繼以存焉和尚又繼以貫慈和尚前後五載重重脩理漸漸圓成至辛亥春眾至青龍延山僧以繼其席得建老人塔於萬松嶺北今經三載尚未告竣海內緇素無不聞知曾未有假借威權以并吞為事而得主法此山也非惟諸佛諸祖如然即汝諸人辭別父母拜離師長餐霞宿露訪道尋師莫不欲改惡從善了明自心本性以報父母生身之德師長提攜之恩故大覺璉曰玉不琢不成器人不學不知道今之所以知古後之所以知先善者可以為法惡者可以為戒歷觀前輩立身揚名於當世者鮮不學問而成之矣曾聞有假借威權以并吞為事得模範於人天耶又曰見賢思齊焉見不賢而內自省也如此切磋琢磨久久用心動轉施為縱得一知半解須學古人樂聞己過喜於為善長於包荒厚於隱德謙以交友勤以濟眾不以得器二其心所以光明碩大照映今昔者也莫習狐假虎威之輩欺世盜名之流苞苴投刺廣結豪貴貪美食以適其口占大廈以快其居奪人之寺曰我祖寺也奪人之居曰我祖居也我宜繼之尸之凌之爍之殊不思自齊迄今朝凡幾易代凡幾更祖則祖於何人之祖繼則繼於何人之後況此并吞為事世之人亦未見之安忍同為圓頂方袍盡行驅占一時僧道告訴無門叩闥無計相與轉溝壑而死道路者不知幾何焉更可笑者假借脩樂菴塔以為入門之計豈非謬之大謬者乎然樂菴明季人也生居顯親去世顯親非善權之僧也明矣其友吉菴而讓塔得入善權之由也又明矣何得欺心欺世無所不至謀占天目而天目緇素有揭盜葬虞山而虞山遠近有

檄彊僭龍池而龍池護法出書以責之平陽和尚刻從周錄以罪之今又并吞善權山僧上堂鳴鼓而攻之普說以指其迷而救之道房出王林吞謀善權說以誅之是不約而同者也至於十載不拈香貳心待帝主不認剃度之敏然勒行九拜之朝儀此數事者更有公論不必細述看來此等正是戒律不必持定慧不必習道德不必修嗜慾不必去豈特起叢林之害真法門萬世之害也歟諸公將來若得把茅蓋頭當以此為終身之警戒看他只為無始劫來妄想濃厚只在諸塵境界中作活計元不曾踏著本地風光明見本來面目終朝業識忙忙向外馳求孳孳為利那知各各懷中有一箇無價大寶人人腳下有一片祖翁田地不須他覓本自現成陰陽未判之先不能增他一毫寒暑既分之後不能減他一絲不與八風移其志不隨榮辱二其心可以證古明今可以了生脫死可以隨處作主可以遇緣即宗何必假有窮之氣勢污無盡之心田更不知何者為行何者為解何者為相應看他異日狼藉噬臍莫及此則非魔即魔所使蓋假我衣裳陰以破壞我法者非但為名教之罪人亦法門之罪人矣一旦生死到來將何抵敵捨此報身難逃淪墜古人謂牢獄未是苦袈娑下失卻人身是為苦也藥石之言可不銘佩諸兄弟還委悉麼倘或遲疑更聽一偈王林卻繼綠林風慣占叢林伐已功天目虞山為別業善權地藏作行宮長言大義何曾義自謂孤忠卻不忠冒寵欺君人不識法門也有此奸雄(癸丑十一月十二日)。

中夏告香普說達磨西來直指人心見性成佛且道性作麼生見擊香几召眾云會麼果能直下知歸聖凡情盡能所障空觀體無依當機絕待則知四十五日前曲不藏直四十五日後真不掩偽三際平等一道虛閒過去未來覓一絲毫隔礙底道理了不可得若是乘虛接響聲前領旨猶迷顧鑑之端句後精通尚昧識情之表諸公最初行腳要為生死大事不是說了便休務須立定腳跟不顧危亡決定志氣不顧得失提個所參話頭拍盲舉起拍盲打捱盡卻今生不徹不休不明不歇寒不知熱不知饑不知飽不知任他說是說非論長論短只將從前人我無明昏沉散亂菩提涅槃真如解脫併作一團放教身心蕩蕩地閒閒地胸中不留一個元字腳久久不變忽朝洗面摸著鼻孔未可知也假若疑而不信信而不真人我山高是非鋒起為五慾八風之所動搖求到大安樂大休歇之地不亦難乎所以釋迦老子在靈山會上拈一枝花爾時百萬人天咸具大智大慧尚且目瞪口呆縱彼飲光破顏微笑也是眼中著屑自後碧眼胡僧得得西來九年面壁神光立雪斷臂安心亦是好肉剜瘡其餘德山洞山雲門臨濟為仰法眼古今宗匠千變萬化用盡自己心笑破他人人口都來好與一頓痛棒免得弄巧成拙不見雲居道得者不輕微明者不賤用識者不咨嗟解者無厭惡從天降下則貧窮從地涌出則富貴門裏出身易身裏出門難動則埋身千丈不動則當處生苗一言迴脫獨拔當時雲居可謂照用齊施敲唱雙舉奈他腦後見腮面前無齒叵耐畫地為牢無繩自縛既是門裏出身易為何身裏出門難昨夜南山來石虎天明生個玉麒麟向此看得徹方看得道吾問僧甚處來曰僧堂裏

來吾曰聖僧道甚麼僧近前不審吾曰東家作驢西家作馬曰過在何處吾曰萬里崖州道吾拈得個猢猻圈圓東扯西拽到底勞而無功者驢漢極欲擺脫韁繩幾曾出他羅網呵呵向此見得透方見得僧問巴陵如何是提婆宗陵曰銀碗裏盛雪巴陵一向水泄不通偶被者僧一拶將七珍八寶狼藉殆盡賺他倚草附木者不少有能別開一線雲門兒孫許他猶在向此轉得身方知僧問汾陽真正修道人不見世間過未審不見個甚麼過陽曰雪埋夜月深三尺陸地行舟萬里程曰和尚是何心行陽曰是你心行汾陽者漢超情離見則不無抽釘拔楔未夢見在待問真正修道人不見世間過未審不見個什麼過高祖殿前樊噲怒須知萬里絕煙塵和尚是何心行留得五湖明月在不愁無處下金鉤不見百丈云併卻咽喉脣吻速道將來為山曰卻請和尚道丈曰不辭向汝道恐已後喪我兒孫百丈為山一般弄巧成拙不覺家聲喪盡時有僧問併卻咽喉脣吻請道將來但云寧可截舌不向汝道又不見德山密云但參活句莫參死句活句下薦得永劫無滯一塵一佛國一葉一釋迦是死句揚眉瞬目舉指豎拂是死句山河大地更無淆訛是死句問如何是活句山曰波斯仰面看大小德山費盡娘生氣力說到三生六十劫正是鬼窟活計直饒道個波斯仰面看大似赤土塗牛奶且作麼生是活句燈籠[跳-兆+亭]跳上青天露柱魂驚頭腦裂只如諸公每日聞板聲則赴齋堂聞報鐘則赴功課聞普梆則搬柴運米蒔青刈綠你道是活句是死句是不死不活句者裏個儻分明方許道羅籠不肯住呼喚不回頭你看古來尊宿擔荷此事大不容易三登投子九上洞山長慶坐破七個蒲團趙州二十年不雜用心不知費盡多少艱難方得了明心地即如山僧二九脫白知有此事獨住孤峰力參四載出山圓具打七三日纔得省發遍叩知識二十餘員盡皆印可具大眼目不過一二後參百老人於此弁山被他痛棒連燈墮地釋然大徹隨呈偈云探遍諸方最上機何如直下絕離微若非一擊連燈落那得心空及第歸輔弼老人一十三載然後繼席青龍至今二十年來七坐名藍回思從前如同一日果是真正道流要明生死棄著十年甘載忘人忘我全身放下靠著本色宗師與之決擇如磨古鏡晝三夜三盡其神力去其塵垢光明發現自是照天照地如秉寶劍以寡敵眾心無退怯孰敢撻鋒佛來也掃魔來也掃掃得乾乾淨淨自然灑灑落落而此鏡此劍乃吾人本有之體非假外求外求而得終非得也大凡參學要得徹頭徹尾直須喪盡目前機去卻胸中物末後一著始到牢關絕後再蘇欺君不得到此境界則全心是佛全佛是心一人發真歸元十方虛空悉皆銷殞諸公既不遠千里相尋而來聚會龍華皆是諸方抱道之士二六時中切切窮究佛法如海愈入愈深只要實證實悟於實證實悟處靠定一著子自然百了千當透頂透底則成佛作祖如壯士展臂豈假他力否則且待七月十五卻來露個消息。

原書闕

拈頌古(七十九則)

世尊初生一手指天一手指地周行七步目顧四方云天上天下惟我獨尊雲門曰我當時若見一棒打殺餒狗子喫貴圖天下太平。疆中稱勝招焚六合之尤陣後興兵徒奮一椎之勇若據青龍看來彼此不無其咎何故天下有道則禮樂征伐自天子出。自言自語自徘徊自動芳心自作媒不是自家親骨肉誰將炭送雪中來。開天闢地戶毘嵐園內煙塵鼓雲從龍風從虎赤電光中霹靂舞韶陽吞吐幾人知風送清香播寰宇。

世尊於臘八夜睹明星忽然大悟歎曰奇哉一切眾生具如來智慧德相但以妄想執著而不證得。

大小世尊開眼寐語。

無端六載葛藤牽跳出通身是蓋纏眼病空華休賣弄誰人頂上沒青天。

世尊一日陞座大眾集定文殊白椎曰諦觀法王法法王法如是世尊便下座。

文殊一椎不妨驚眾簡點將來也是泥裏洗土塊若是青龍但只撫掌呵呵大笑看者世尊如何合煞。

幽谷瓊枝帶露開春含紅紫錦成堆誰知遇陣催花雨褪落飛英滿翠苔。

世尊坐次見二人舁豬過問者箇是甚麼曰世尊具一切智豬子也不識世尊曰也須問過。

珠穿九曲大覺可謂神功玉解連環青龍更資一路倘遇二人打箇噴嚏舁豬便行又作麼生。

一微塵內開門戶自引賊來反破家井底懸帆風勢惡夜乘明月出蘆花。

世尊因文殊至諸佛集處女子出定因緣。

今時盡謂文殊是大智所以無出無入罔明乃初地故得有出有入如斯話會孤他先聖青龍見處也要諸人共知出得也與三十棒出不得也與三十棒為什麼響自來一統乾坤那許分疆立界。

一棚傀儡紅線抽牽燈殘人醉月上闌干清音撥轉西廊去露滴花梢夜正寒。

華山一睡岳陽三醉眠者而得酣酪者而反寐堪笑堪悲誰同誰異名園一夜雨春風洗出青山如潑翠。

世尊在靈山會上拈花示眾云。

世尊拈花一盲引眾盲迦葉微笑相牽入火坑還有免得此過者麼喝一喝云眼裏無筋一世貧。

賣狗懸羊已不仁那堪眼裏又添塵斯時若掩蒼顏出免累兒孫誑後人。

世尊因七賢女遊屍陀林。

可笑七賢女連得些子即便旋烝熟賣幸逢帝釋不諳時宜懨懨放過若向青龍索此三般但云情知你在鬼窟裏作活計。

三物從來離向背明明借問轉周遮不周遮僑尸迦何不當初再獻花。

殃崛尊者因持鉢到一長者家。

長者已是錯問世尊已是錯答殃崛已是錯傳產婦已是錯聞善權今日將錯就錯諸人不得錯會。

一點春山一點愁一絲春雨一聲鳩聲聲暗寫春情甚誰識春情寄壘頭。

賓頭盧尊者因阿育王內宮齋三萬大阿羅漢。

二尊者若不是育王並須出國。

相逢便問家山路笑指家山路不遙回首暮雲歸未合抬眸新月上林梢。

善慧大士一日披衲頂冠鞞履朝見梁武帝帝國。

要識三教聖人體麼恁麼也不得不恁麼也不得恁麼不恁麼總不得要識三教聖人用麼恁麼也得不得恁麼也得恁麼不恁麼總得直饒會得體用拄杖猶未放過。

非禪非道亦非儒三不完全總是孤只道聚沙終作塔那知捏土不成珠。

寶誌公垂語曰終日拈香擇火不知身是道場。

善權者裏終日拈香擇火不得喚作拈香擇火。

野老家風迴異常太平勳業總相忘皇風一片知何處燕舞鶯啼日正長。

三祖信心銘曰至道無難惟嫌揀擇。

大小祖師祇會抱不哭孩兒打淨潔地上毬子既是至道無難亦不礙揀擇。

春暖山自青谿晴水自綠菜花一片金麥浪千層碧明不明擇不擇二水中分白鷺洲風光兩岸生涯別。

南陽忠國師一日喚侍者者應諾如是三喚三應師云將謂吾孤負汝誰知汝孤負吾。

三喚三應鉢盂安柄兩箇郎當一場氣悶是則是不圖打草只要驚蛇。

子規枝上語聲聲暗把愁腸訴與人啼得血流無用處不如滅口過殘春。

有婆子供養一菴主二十年常令二八女子給侍。

婆子者僧彼此不無長處若是佛法三生六十劫。

梅雪爭春未肯降騷人閣筆費評章梅須遜雪三分白雪卻輸梅一段香。

青原思禪師參六祖問當何所務不落階級。

洗耳谿邊飲牛流上未是老成高蹈掃除朕蹟撥轉機輪試看俊俏生涯當時纔見祖云落何階級便與掀倒禪床豈不俊哉。

背手掀翻寶座平任從金殿五雲生巍巍頂相難攀仰千嶂惟餘一月明。

馬祖一禪師因僧問為甚麼說即心即佛祖曰。

喚鐘作甕指鹿為馬大師固已不能逃其責若夫體會大道直饒千佛出來亦無啟口處。

人間四月芳菲盡山寺桃花始盛開莫謂春歸無覓處依然轉入此中來。

藥山儼禪師因僧問如何是道中至寶山云莫諂曲僧云不諂曲時如何山云傾國不換。

貧而無諂富而無驕藥山老人聊亦可矣若是道中至寶猶未得在何故未若貧而樂富而好禮者也。

門外百千竿綠竹庭前三兩樹梅花客來莫道貧無待清淡門牆有幾家。

藥山久不陞座院主白云大眾久思法誨。

藥山不惜一詞足可觀光及被院主拶著未免話作兩橛。

琉璃殿上金纜布瑪瑙階前玉又施明露秋光猶不委暗藏春色幾人知。

藥山因化主到甘贄行者家甘問甚處來。

未成老幹之才先典從容之職化主其然也可惜藥山不用疾燄過風負他來意不少待納金時好與連棒打出且教愧殺者俗漢。

病源不識假儒醫賣藥人遭買藥迷不是山中重點破幾從箇裏別端倪。

丹霞然禪師訪忠國師值睡次乃問侍者。

南陽正令全提未免傷鋒犯手侍者咬牙喫棒依然禍出私門若是撞著英靈衲子管取直下棒折。

龍生龍鳳生鳳暗箭傷人心膽痛殺活直饒一時行家聲難討千鈞重。

丹霞訪龐公門逢女子靈照洗菜次。

大小丹霞向女子手中失卻一隻眼龐老也是屋裏販揚州青龍看來總是一隊賣私鹽漢拄杖子不在且各與二十笞帚柄。

夜影透窗天上月蘆花飛起渡頭風漁歌一曲纔堪聽又被風吹別調中。

大顛通禪師因韓文公過訪問和尚春秋多少。

首座扶頭大顛把尾雖然頭尾相稱早被文公勘破時有僧問一般扣齒為何擯出有意氣時添意氣曰首座分上又作麼生不風流處也風流。

一般機用顯家風疑殺昌黎箇老農不是臨巖重返擲爭教天下絕狐蹤。

百丈海禪師每上堂時有一老人隨眾聽法。

不落不昧獅入狐隊不昧不落狐入獅窟五百年前終日長安道五百年後春風醉未歸前後俱坐斷一聲鐵笛冷兩兩玉鸞飛。

由來祖位莫能留獨自酣酣臥古丘若把花枝半掩面不令人見轉風流。

野老祭江神乞兒翻筋斗莫作兩般看等是揚家醜。

百丈因僧問如何是奇特事丈曰獨坐大雄峰僧禮拜丈便打。

明鏡蒸食未為得所干將補履尤可堪嗟。

萬仞峰頭作者機縱橫殺活在臨時區區若解翻身轉不負孃生兩道眉。

南泉願禪師因趙州問如何是道泉曰平常心。

南泉雖是嚼飯餵嬰孩諸人切忌作道理會。

崎嶇不涉妙無求春去秋來意更幽啼鳥一聲千籟寂清風明月兩悠悠。

歸宗常禪師因李刺使問如何是祖師西來意宗豎拳云會麼曰不會宗云措大拳頭也不會。

歸宗好箇拳頭無端傷筋露骨卻成鈍置待他道不會便好驀頭一拳果是真措大必然別有生涯。

宗師誰謂無玄旨慣是為人窮到底細把瑤琴反復彈奈何不入聾人耳。

章敬禪師因百丈遣僧來探候敬上堂次展坐具禮拜起將敬一隻靴鞋以袖拂卻塵了倒覆向下敬曰老僧罪過。

運籌帷幄費盡百丈機謀決勝千里不消章敬權巧較量將來總被者僧勘破。

千里施謀意更深重圍掉臂機偏巧囑使覆鞋兮狼心不少老僧罪過兮暗箭誰曉百丈師章敬老看來卻似大蟲戴紙帽。

杉山堅禪師與歸宗南泉行路次逢一虎各從傍過了泉問宗適來見虎似箇甚麼宗云似箇貓兒宗問山山云似箇狗子宗又問泉泉云似箇大蟲。

字經三寫烏焉成馬。

杉山普願與歸宗道眼元來總不通一箇山君分幾種至今描畫不成功。

雲巖晟禪師問僧汝爺在否曰在巖云年多少曰八十巖云汝有爺不年八十還知否曰莫是恁麼來者巖云猶是兒孫。

恁麼不恁麼總是兒孫邊事要識爺麼當堂不正坐那赴兩頭機。

岳陽樓子洞庭槎皓魄懸輝照影斜簾外轉身全不顧從來祖父不離家。

雲巖因僧問二十年在百丈為甚心燈不續巖云頭上寶花冠曰意旨如何巖云大唐天子及冥王。

者僧與麼問是知有不是知有雲巖與麼答是續心燈不是續心燈具眼者辯看。

從來香爇御爐煙不易綸音向外傳堪笑遊人誇意氣那知尊貴本天然。

龍潭信禪師未出家時居寺側天皇巷賣餅為業。

潦倒龍潭一釣便上。

煙飛石室去猶還謾道山中別有山回首即通僊子逕拈來一粒便成丹。

三平忠禪師因到石鞏鞏曰看箭平撥開胸。

石鞏雖有穿楊之作依然習氣難忘三平縱得隱身之術未免弄巧成拙。

高高一箭中紅心弦動春風笑展襟未識穿楊機用別到來誰不費沉吟。

瀉山祐禪師偕仰山摘茶次瀉曰終日摘茶。

盡道節拍相應不知互揚家醜。

一莖兩莖斜三莖四莖曲盡愛舞煙霞那知翠筠溼。

黃檗運禪師捧鉢至南泉位坐泉見問長老甚年行道曰威音已前泉云猶是王老師兒孫檗歸位。

焦磚打著連底凍赤眼撞著火柴頭。

本無位次可安排說甚何年行道來賓不賓兮主不主好將活捉一坑埋。

百丈正禪師示眾汝等為我開田我為汝等說大義開田了眾請丈說大義丈展兩手示之。

展開兩手聊以塞白若作大義以酬眾何異空拳誑小兒青龍亦開田了有人請說大義拈起鑊頭便打因甚如此重賞之下必有勇夫。  
大義明明甚坦夷何須展手涉多岐白雲深處家山好一曲清歌信步歸。

趙州諗禪師因臺山路上有一婆子。

趙州勘破婆子將謂將謂婆子勘破趙州元來元來雖然盡被者僧勘破。驀直去勘破了鰲鼻被蛇吞大蟲遭虎咬真懊惱腥風毒氣遠侵人平地喫交猶不少。

趙州因僧問承聞和尚親見南泉是否州云鎮州出大蘿蔔頭。

好箇大蘿蔔頭塞者僧口則得塞天下人口則難。

懵懂無知總不記得一鏟撩空萬機寢息別別衲僧幾箇知端的。

趙州因僧問學人乍入叢林乞師指示州云喫粥了也未曰喫粥了也州云洗鉢去僧有省。

者僧悟則不無爭奈未曾咬著一粒米為甚麼嚙從門入者不是家珍。  
夜深涼月篩寒水漁子紛紛來問津三汲浪高春夢破江天一色露沉沉。

趙州問婆子那裏去曰偷趙州筍去州云遇著趙州又作麼生婆便掌州休去。

偷天者情雖不善換日者心猶太狠只知彼彼無端不顧傍觀者哂。  
劍戟相逢詎偶然明來暗去各通權誰知就裏機猶別退步從來卻占先。

趙州因僧問狗子還有佛性也無州云無。

一點水墨兩處成龍。

佛性有狗走抖擻口佛性無猴愁搜搜頭無無無有有有堪憐錯亂滿寰區誰解移星並換斗。

趙州到一菴主處問有麼有麼主豎拳州云。

直饒收放隨宜縱奪可觀簡點將來猶未盡善因甚如此貪觀天上月失卻手中撈。

撈蝦攬蟹放蝦生單把虻螟較重輕換卻幾多人眼目到頭偏愛看橫行。  
一竿拋兩岸收放任悠悠誰識龍門客從來不上鉤。

趙州因僧問萬法歸一一歸何處州云我在青州做領布衫重七斤。  
者箇話頭累我數年而今思量只是冷笑且道笑箇甚麼茫茫宇宙人無數那箇男兒不丈夫。

等閒拈出上頭關無限行人著意攀祇道春從南苑發那知梅在雪中蟠。

趙州因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曰庭前柏樹子。

趙州雖則與麼為人不免被者僧勘破。

一語昂然不變常水中擇乳須鵝王堪憐野鳥無機見空逐黃鸝過短牆。  
唱盡黃金縷重吹紫玉簫曲終人不會風過綠波搖。

子湖蹤禪師一夜於僧堂前曰有賊有賊眾皆驚動一僧被湖把住云維那捉得也捉得也曰不是某甲湖云是即是只是汝不肯承當。理契則神貧子獲衣中之寶性封則物壯士失額上之珠子湖雖有機變其奈不逢蕭翼致成龍頭蛇尾八十婆婆心不歇更深欲解愁腸結其如底事少知音徒把心情託明月。

賠盡老精神筵前一令新那知村店酒難勸玉樓人。

普化見馬步使出喝道化亦喝道作相撲勢步使令人打五棒化云似即似是則未是。

賣寶遇著瞎波斯。

山頭波海底月就身題目天然別孔仲尼溫伯雪傾蓋相逢甚奇絕話到山空海月殘各將衣袖掩容還。

洞山价禪師與泰首座冬節喫果子次乃問。

洞山奪璧還趙首座玉本無瑕若作得失理會盡被果子塞卻且道節目落在何處夜半烏雞帶雪飛泥牛入海須彌倒。

一段真機見也不拈來掇去價難酬片雲歸嶺青山露水面風生送遠舟。日用頭頭收不得機酬筭下難合轍掇轉盤兒都漏泄向誰說幾度秋光與明月。

僧問洞山如何是衲僧孔竅曰十八女兒不繫裙。

大凡出言吐氣須識那畔今時如湛盧似火聚近之則然眉觸之則失命祇如洞山此語還是今時事那畔事莫將支遁鶴當作右軍鵝。

巧畫蛾眉出繡帷臺前古鏡吐雲飛無言童子呵呵笑贏得春光滿面歸。一枝梅放壘頭春無限風光可玉人不識花開深夜雪又隨春霧泛谿濱。

洞山上堂有一人在千人萬人中不背一人不向一人且道此人具何面目雲居出曰某甲參堂去。

洞山要換卻天下人眼睛若非雲居也大難承當雖然畢竟此人具何面目瞎。

朝來一撫沒弦琴不落宮商調更深除卻風前鍾子耳高山流水幾知音。

洞山夜參不點燈有僧問話了卻退山合侍者點燈乃召適來問話僧出來僧近前山云取三兩粉與者上座僧拂袖而退後有省。

暗然燈明與粉不無格外鉗鎚未免污他男女呼則進省則退固知身入帝鄉空惹一場懊惱。

碧岫峰頭借問人指山窮處未安身直饒過後知端的怎似靈苗不犯春。

洞山因僧問蛇咬蝦蟆救即是不救即是山云救即雙目不睹不救即形影不彰。

此則公案諸方批判者甚多錯會者不少或曰者僧問處有賓有主洞山答處有正有偏與麼商量總是蝦蟆浸死水畢竟如何蛟龍爭肯宿激潭。畫堂寶鼎起青煙皓月沉沉古鏡圓夜靜木童歌白雪聲聲唱出洞中天。

投子同禪師因僧問月未圓時如何子云吞卻三箇四箇圓後如何子云吐卻七箇八箇。

者般答話不無俊俏終是未得玲瓏有別善權月未圓時如何一點瞞他不得圓後如何瞞他一點不得沉沉禁殿漏聲遲煙鎖瑤臺影不移何處好風簾外起三更紅日上梅枝。

夾山會禪師初住京口因僧問如何是法眼因緣。

一人傍敲正打一人顧後瞻前可謂有始有終徹頭徹尾雖然一等是與麼問答因甚肯後不肯前雪後始知松柏操事難方見丈夫心。

對竹曉驚禪影瘦倚松暮覺老身閒風清雲白乾坤闊剩有梅花照雪寒。

德山鑑禪師因飯遲拓鉢至法堂前。

酌然者段滂訛有道一拶有道低頭有道密啟要且摸索不著直得其迅如電其聲如雷其暗如箭自古及今即便是透關底也須急著眼始得不然莫謂德山只得三年活盡大地人亦只得三年活。

共把瑤琴月下彈渾家心事露多端更闌曲罷人歸後靜夜江聲帶月寒。

仰山寂禪師問僧何處來曰幽州山云幽州米作麼價曰某甲無端從他市上過踏折橋梁。

者僧祇知踏折橋梁要且不識米價若是善權即便和聲打出終不使伊耽滯半途。

舉一明三拈頭知尾伶俐衲僧能有幾咦饒君踏得草鞋穿未免通身是泥水。

法華舉禪師到福昌昌問回互不回互師云總不與麼曰為甚已喫福昌棒師云一家有事百家忙曰脫空謾語漢師云調琴澄太古琢句體全真。

堪笑馬扁三遇著可知道彼此脫空謾語帶累無位真人撫掌大笑者裏還有回互也無鶴有九皋難翥翼馬無千里謾追風。

兩山高出白雲中各展春光占上風回首晚來江外望殘霞片片映波紅。

黃龍南禪師問隆慶子得座披衣向後如何施設曰遇方即方遇圓即圓師云與麼說話猶帶唇齒在曰隆慶即與麼和尚作麼生師云近前來為汝說隆拊掌曰三十年用底今日捉敗。

黃龍用盡婆心不顧眉毛拖地隆慶雖稱種艸奈何家醜外揚都來喫棒有分何故利刀割肉瘡猶合。

獅子教兒迷子訣翻身一擲虛空裂他家父子好機關臨濟未是白拈賊。

寶峰文禪師參黃龍不契往見香林順順曰甚處來師云黃龍曰黃龍近日有何言句師云近日州府委請黃檗長老龍垂語曰鐘樓上念讚床腳下種菜有人下得語契便往住持勝上座曰猛虎當路坐龍遂令去住黃檗順不覺曰勝首座只下得一語便得黃檗住佛法未夢見在師於言下大悟。

單刀疋馬直入重圍偷天換日別展機關一語喚回鸚鵡夢九天奪得彩旂歸。

將金來博短證龜而成鱉啞子喫黃連有口難分雪結結結轉身無地著羞慚露柱汪汪淚成血。

同安丕禪師問僧甚處來曰湖南師云還知同安者裏風雲體道花檻璇璣麼曰知師云非公境界僧便喝師云短販樵人徒誇書劍僧擬進語師云劍甲未施賊身已露。

同安終日大開門戶誇驕賣富撞個負販徒也與他交易一上只可待僧曰知便好和聲棒出不惟令彼當下勦絕亦令諸方知我風雲體道。

春山春暖鷓鴣啼啼遍春山客路迷回首落花風掃盡空隨流水過前溪。

疏山造塔因緣。

兩個老古錐同坑無異土被龜毛繩子縛作一團向無陰陽地上埋殺了也有相救者麼也是臘月蓮花二八嬌娥刺繡簾一條紅線兩人牽堪憐無限春心事分付空山泣杜鵑。

睦州陳尊宿問武陵長老了即毛端吞巨海始知大地一微塵長老作麼生陵云問阿誰州云問長老陵云何不領話州云你不領話我不領話。

一卷一舒一擒一縱可謂照用兩全較量將來也是普州人事。

閒駕扁舟浪裏遊江風江水共悠悠疏煙細柳斜陽外一曲滄浪天地秋。

臨濟玄禪師問黃檗如何是佛法的大意。

三人證龜成鱉賺他後人依模畫樣致使佛法大意掃土盡矣。

翻身纔得探龍珠轉步猶來捋虎鬚不是從前多意氣只因肘後佩靈符。

臨濟上堂我二十年在黃檗處三度問佛法。

與麼說話似乎未曾瞥地。

蕩盡家私貧徹骨熱腸百結剖無由一回觸著傷心處不是愁人也著愁。

臨濟兩堂首座相見同時下喝。

大小臨濟卻被兩堂一狀領過。

雲霧深深閃電藏東西一爍露寒光自來處處無蹤蹟何必人前較短長。

靈雲勤禪師因見桃花有省乃述偈。

謾道玄沙不肯靈雲更有一人不肯玄沙在。

花發山前春意深故人到此愈精神不因夜雨谿頭過怎得東山一帶新。

一番雨過一番晴夜遞東風柳眼青春色滿園關不住黃鶯連叫兩三聲。

香巖閒禪師上堂若論此事如人上樹。

香巖布縵天網不是遇箇無齒大蟲幾乎勞而無功霜風凜凜不容攀一見佳人便解顏不是酒腸寬似海怎知詩膽大如山。

光孝覺禪師到法眼舉柏樹子話承聞趙州有此話是否覺曰先師無此語莫謗先師好。

一箇善問一箇善答雖然問答分明要且總未會得柏樹子在。

好兒不食分家飯好女不穿嫁時衣返擲一身離舊穴清風滿目見還稀。

雲居膺禪師命僧送褲與住菴道者者曰自有孃生褲不受居命傳語孃未生時穿箇甚麼者無語。

無故人之致難以受綈袍之贈有徐孺之賢方堪下陳蕃之榻欲得慎始慎終只消道箇不勞罷念。

秋滿東籬菊正芳何須五斗日忙忙黃花白髮巾中滿誰識先生晚節香。

雲居一日擲癢和子問眾云會麼眾曰不會居云趁雀兒也不會。布網拋筌要且終日不獲一禽正眼看來卻較些子黃土搓成金彈子天邊直打鳳凰兒控弦幾弄驚寰宇野雀林間總不知。

曹山寂禪師辭洞山山云子向甚麼處去曰不變易處去山云不變易豈有去耶曰去亦不變易。

甚處去路遙知馬力不變易事久見人心是則是[巨\*寸]耐二大老猶欠一著在。

月明簾外影千竿鏡照臺前玉一團若謂清光無轉就何如北斗面南看。

曹山因僧問如何是獅子山云眾獸近不得。

齊眉共躅未許承當異日超宗堪為種艸非曹山不能發洞山之旨非此僧不能顯曹山之用直得亙古今窮天地而不移空芥城消劫石而不易未審如何辯的喝一喝師子咬人韓盧逐塊。

自是超群拔萃由來返擲非常玄關踏碎絕囊藏回首全身瞻仰莫守寒巖孤滯千山臘盡回陽處處春風遞遠香誰識花飛枝上。

曹山因僧問世間何物最貴山云死貓頭最貴曰因甚死貓頭卻貴山云無人著價。

曹山雖有撩天之價且無濟世之功有問世間何物最貴拄杖子最貴因甚拄杖子卻貴一棒一條痕。

鐵山當面勢崔嵬觸著從教滿面灰莫笑長年人不問家無滯貨富何來。

曹山因僧問清銳孤貧乞師拯濟山云銳闍黎銳應諾山云清原白家酒三盞猶道未沾唇。

者僧迷衣中之寶向外馳求曹山添醉後之杯反成虛設若是遇著淵明必然別有風致。

大施寶藏接嘉賓滿座風光一片春不是侯門尊貴客頻頻空興滿杯斟。

九峰虔禪師在石霜典侍司會霜遷化因緣。

首座祇見錐頭利侍者祇見鑿頭方二人喫棒有分至若石霜意俱未會在。

南帆破浪來瓜渚北棹衝濤渡甕城各逞風流歸去後從教鷗鳥自疑情。

雪峰存禪師因僧禮拜乃打五棒僧云過在甚麼處峰又打五棒喝出。

前是雪裏送炭後是錦上添花未審其中意作麼生為憐三歲子不惜兩莖眉。

象骨不諳事牽驢飲澗水驢死不回頭又去按驢背。

雪峰上堂要會此事猶如古鏡當臺胡來胡現漢來漢現玄沙曰忽遇明鏡來時如何峰云胡漢俱隱沙曰老漢腳根猶未點地在。

玄沙見甚麼便與麼道那是雪峰腳跟未點地處。

秋風清秋月曉兩兩相逢眼倍皎掉橫古渡調聲高唱出蘆花音韻藐音韻藐甚堪誇鑿山透海遵神禹鍊石補天羨女媧。

雪峰問德山從上宗乘學人還有分也無山棒曰道甚麼峰云不會明日復請益。

德山道無固是憐兒不覺醜丹霞道有也只具得一隻眼善權又不然我宗離背觸不立有無機直下超凡聖烏雞雪上啼。

翠擁青山夾畫新一般蓬戶兩般春相知不在梨花白縱是清茶也醉人。

雪峰示眾世界闊一丈古鏡闊一丈玄沙指火爐曰闊多少峰云如古鏡闊曰老漢腳跟未點地在。

玄沙者漢慣得其便大似家富兒矯正眼看來古佛家風又豈止掃地而已。

將謂猴白更有猴黑展演跨灶神出鬼沒鏡闊火爐大機圓應腳未點地大用直截好看新月上江皋莫認波濤翻夜雪。

雪峰問僧甚處來曰浙中來至焚香禮拜。

船來陸來事絕安排不涉不隔語繫驢橛兩度棒出知恩有日焚香悲鳴未必好心咄是何言歟。

關鎖重重客路岐徒將雙足別天涯爭如獨巫空山裏花落花開自有時。

雪峰問僧闍黎名甚麼曰玄機峰云日織多少曰寸絲不挂峰云參堂去僧去三五步峰云袈裟落地也僧回首峰便打。

文彩縱橫機梭不挂道無橫徑理當即行敢道雪峰鼻孔落在玄機手裏若甄別得出許你天下橫行。

水洗水金博金離罣礙別疏親寶鏡當軒驗正邪玉梭轉側看橫身斷機杼之錦兮誰能比列巨石之精兮知幾人。

(弟子寂定寂盧備資敬刻)

方丈和尚語錄第十二卷普願凡為皆

回向菩提有作則必獲如意等攜

物類共悟無生)

寒松操禪師語錄卷第十二

拈頌古(七十一則)

龍牙遁禪師參洞山問如何是祖師西來意山云待洞水逆流即向汝道牙始悟。

龍牙雖然撈得一箇鼻孔不知打溼兩莖眉毛。

機先一句截群流迴出機先句莫收移步踏翻波底月依前流水遶山頭。

龍牙參翠微臨濟至後僧問因緣。

穩密田地忌墮功勳照用宗乘會須轉位三通放過有令不行就窠打劫只得一半若是祖師西來意遠之又遠矣。

泰山高滄溟闊風動波生鳥飛毛落其奪也海竭天昏其縱也傾湫倒嶽老龍牙太孤卓坐斷春風不放行令人千古亂描摸。

巖頭巖禪師擺渡次因婆抱一兒來問。

入虎穴者不畏傷登危竿者不怕險彼也暗藏春色此兮明露秋光彼此互揚家醜以致公案不圓見他拋兒再與一橈豈不光前絕後。

星河夜靜會牽牛細剖幽情各有由話到月斜回首處一扶雲輦一登舟。

疏山仁禪師因知事僧為造壽塔因緣。

一人以空撮空一人看樓打樓雖善列二分三不覺墮坑落塹善權若見即便喝退匠作掀倒塔幢不使二公掘地覓天亦免後人鑽龜打瓦。

一文錢無目僂人入市廛二文錢水滿平湖月滿川三文錢折角泥牛雪裏眠離向背絕要玄堪笑幾多來往者奔南走北錯流傳。

疏山訪香巖值上堂僧問不慕諸聖不重己靈。

秉殺活劍獨步寰中透生死關高超物表二公雖則同生同死祇如三十年倒痾莫是從他授記為復別有道理路遠夜長休把火大家吹滅暗中行。弦筈相對珠網相連踢還一踢拳復一拳象龍遊戲非驢所堪好是回頭言外薦休從鏡裏覓媿妍。

北院通禪師參夾山問目前無法意在目前不是目前法非耳目之所到豈不是和尚語山云是院乃掀倒禪床叉手而立山起打一棒院便下去。

一人皮下有血一人棒頭有眼放過則彼此作家簡點則二俱失利具眼者辯看。

問機機對就機酬泉日轟雷倒嶽湫回首風清雲盡淨一聲漁笛下滄洲。

三聖然禪師上堂我逢人則出出則不為人便下座興化云我逢人則不出出則便為人。

二老與麼說話還有優劣也無善權今日因行掉臂不妨道破逢人端則出一身呈卞璧逢人端不出兩袖寶燕石出不出兮調別詞逆風吹又順風吹。

一湖春水兩鴛鴦各占風光別有長啼去啼來描不就到頭依舊宿雲鄉。

興化獎禪師謂克賓維那曰汝不久為唱導之師。

為人為徹殺人見血祇如既喫棒了為何又趁出院從前汗馬無人識只要重論蓋代功。

法令嚴行振祖風翻雲覆雨看飛龍若非閃爍雷相送那得乘雲遇海東。

雲居簡禪師因僧問孤峰獨宿時如何山云閒著七間僧堂不宿阿誰教你孤峰獨宿。

雲居何得將常住物私作人情若是善權和聲棒出一任者僧舉似諸方。

人自歌兮花自笑出門便是長安道慙慙寄語守株人坐卻白雲宗不妙。

含珠審哲禪師因檀越請首座開堂主事白珠云是則是欠悟在座得聞束裝他往珠隨後打出。

車不橫行首座之謂歟理無曲斷哲公其然也似則似不得春風花不開花開又被風吹落。

推舟上水因風便一撥誰思反逐流斷纜已知收不得更添風送下滄洲。

含珠因僧問如何是佛法大意珠云貧兒抱子渡恩愛競波流。

通方之士舉起便知逐浪之流撥亦不轉且如何體悉手執夜明符幾箇知天曉。

畫閣香銷月滿軒一聲寒鴈度江村曾經巴峽猿啼處不是愁人莫與論。

同安丕禪師因僧問佛未出世時如何安云藕絲繫大象曰出世後如何安云鐵鎖鎖石牛。

同安雖則不負來機未免釘椿搖櫓善權恁麼道也是山深日色冷水闊石頭寒。

雲飛洞口勢崔嵬何事仙郎去不回回首山前皆豎牧更無人見碧桃開。

雲門偃禪師因僧問如何是佛門云乾矢橛。

只此矢橛疑殺天下人不少果是噉龍金翅自有騰空之快遂彈蜚螂無由離地之思。

夜靜風清杜宇歌聲聲只在舊煙蘿可中無限傷心事不遇知音恨轉多。

雲門上堂聞聲悟道見色明心遂舉手云觀音菩薩將錢買胡餅放下手云元來卻是饅頭。

善權不似雲門畫餅充饑望梅止渴有時南瞻部洲打鼓北俱盧洲上堂有時東勝神洲持鉢西牛賀洲應供且道與雲門相去幾何。

雲簫品出已多情不落宮商幾解聽更把胡笳吹一拍莫將清韻作猿聲。

雲門示眾世界與麼廣闊為甚向鐘聲披七條眾無對門云七里灘頭多蛤子。

墮也墮也破也破也何故是真難掩是偽不昌。

春滿園林綠滿疇黃鸝聲弄百花洲十分春意濃如許幾箇知音得自由。  
玄沙備禪師問鏡清教中道不見一法是為大患且道不見甚麼法清  
指露柱曰莫是不見者箇法麼沙云浙中清水白米從汝喫佛法未夢  
見在。

夾路相逢彼此熟瞞若論佛法俱未夢見在。

物外人從物外遊西河獅子嶺南毬風流難盡衷腸曲攜手重將下玉樓。

長慶稜禪師上堂眾集慶拽出一僧云大眾禮拜者僧復云者僧有甚  
長處便教大眾禮拜眾無對。

慈舟不棹清波上劍峽徒勞放木鵝。

長慶老沒分曉自起由來還自倒當時即便與生擒免使後人人荒草。

鵝湖孚禪師一日不赴堂侍者請赴堂因緣。

鵝湖庄主共把龜毛搓條索子擬穿天下人鼻孔不知自己鼻孔早被天下  
人穿卻。

籬內竹抽籬外筍潤東花發潤西紅馨香遍界難收拾一任春光醉曉風。

南院顛禪師上堂赤肉團上壁立千仞僧問赤肉屬上壁立千仞豈不  
是和尚道院云是僧便掀倒禪床院云者瞎驢亂做僧擬議院便打。  
者僧敢捋虎鬚可謂敏手惜乎有前無後待道瞎驢亂做曰我識得你縱是  
壁立千仞也須下榻安排。

水何深山何突偶爾相逢東涌西沒差之毫忽失千程失了安南收塞北兩  
兩衝鋒暗稱奇爭如報捷歸金勒。

寶壽禪師上堂三聖推出一僧壽便打聖曰溜麼為人非但瞎卻者  
僧眼瞎卻鎮州一城人眼在齊擲拄杖歸方丈。

青天霹靂不名向上全提陸地興波難助威光一半若是據令而行三聖亦  
須喫棒。

絲綸降號令行寰中天子塞外將軍平地雷驚出蟄半空閃爍騰雲當軒一  
擊兮青山翠聳別轉鈞綸兮匝地風生。

資福寶禪師因僧問如何是古人歌福畫○對之。

覲面拈來還他資福若論古人歌正未夢見在且如何是古人歌不是知音  
徒側耳。

玄音解唱非干舌白雪能賡豈是聲萬頃秋光天水碧無生一曲韻偏新。

巴陵鑑禪師因僧問如何是道陵云明眼人落井。

向上一路千聖不傳無端巴陵惹人易生情識轉見穿鑿與麼會便不是了  
也如何是道明眼人落井與麼會方始得。

煙霞滿笠曉風寒遠踏清歌別翠巒一路梨花春欵馬夜乘明月到長安。

洞山初禪師因僧問如何是佛山云麻三斤。

此老生平孤卓偶經一撈不覺葛藤遍地有問青龍如何是佛劈脊便棒若  
作棒會入地獄如箭。

一聲秋雁滿長安嘹唳霜前帶月寒欲問聲從何處發翩翩已過萬重山。

奉先深禪師同明和尚到淮見人牽網有魚透過深云明兄俊哉似箇  
衲僧明白爭如當時不入網好深云明兄欠悟在明至中夜方省。  
明公省雖省要且未脫網在何故跳不出。

雲開水國移蘭棹浪擊龍津魚躍釣霹靂追隨和閃跳春風兩岸迎人笑清  
音纔得鼓靈竅又被風吹成別調回首千差都一照靈光奪得殊孤峭。

羅漢琛禪師因玄沙問三界唯心汝作麼生會。

羅漢師資費盡腕頭氣力一箇三界惟心依然提掇不出善權今日覲面拈  
來看看山門騎佛殿廚庫拽僧堂走入聖僧鼻孔裏去也咄切忌錯會。  
閒載東風漾小舟落花流水兩悠悠誰知十二橋頭月徹夜留人興更幽。

法眼益禪師因僧來參眼以手指簾尋有二僧齊去捲簾眼云一得一  
失。

智鑑當軒韓盧逐塊此事如何分明一貫。

孤峰頂上援弓繳一箭雙鷗隨手落得失是非謾較量好看涼月篩金閣。  
微風吹動綠波搖船子雙雙逐海潮只見江鷗翻白浪那知明月在青霄。

法眼行腳次值天雨忽作谿流瀑漲因緣。

法眼老人悟即悟只是不知行腳事。

碧水浮空江樹低輕帆一片出西谿借來風送關山遠腸斷惟愁猿夜啼。

僧問法眼如何是曹源一滴水曰是曹源一滴水。

騎賊馬趁賊奪賊刃殺賊法眼固稱老將若曹源一滴水畢竟不知下落。  
翻手雲兮覆手雨當機覲面為君舉相逢如不是鵝王水裏何由能擇乳。

智門祚禪師因僧問如何是佛門云踏破艸鞋赤腳走如何是佛向上  
事門云拄杖頭邊挑日月。

踏破草鞋挑殘日月須是智門老漢若以此明佛與向上事只是未在。  
歲暮風煙數客程東溝西去亂山迎忽逢千騎停江口馬上搖鞭說姓名。

首山念禪師因僧問如何是佛法大意山云楚王城畔汝水東流。

首山曾無一法與人被者僧拶著未免指東話西。

楚王城畔水東流秤在星兮不在鉤堪惜無人知此意黃昏月挂柳梢頭。

雪竇顯禪師因僧問如何是諸佛本源竇云千峰寒色未審向上更有  
事也無竇云兩滴巖花。

不是問津來渡口安能遊遍武陵春。

錦繡山川處處新韶光留得一箇身年年洞口桃千樹惟有漁郎是故人。

天平漪禪師到西院常自曰莫道會佛法人。

善行天下無轍蹟善言天下無口過要見天平麼錯要見西院麼錯善權錯  
何似二老錯錯錯。

呼蛇易遣蛇難覲面機鋒仔細看絲毫透不盡咫尺隔千山錯錯難難無限  
漁翁失釣竿。

法燈禪師因僧問如何是西來密密意燈云苦。

一字入公門九牛拔不出。

歷亂飛花鳥語時幽情啼在綠楊枝堪憐一片春心事無奈遊人自不知。

葉縣省禪師問僧日暮投林朝離何處曰新戒不曾學得禪縣云生身入地獄。

者僧只解慎初不能護末何不向他道和尚先行新戒隨後直教葉縣正好疑著。

為釣鯨鯢沉巨浸無端跛鰲輾泥沙相逢果是龍門客不涉途程自到家。任駕銀山覲面來到頭不用巧安排此時若用樊公腳一踏鴻門兩扇開。

天衣懷禪師因僧問如何是頂門上眼懷云衣穿瘦骨露屋破看星眠。

富嫌千口少貧恨一身多。

蕩盡衣衫徹骨貧年來無物可相親誰知光落床頭月別有家雞唱曉星。

雲居齊禪師因清涼曰有人問我西來意答他不東不西藏主作麼生會居云不東不西因緣。

清涼一縱一擒雖成養子之緣終是憐兒不覺醜雲居將錯就錯直饒慶快通身未免隨人起倒若到善權棒折也未放過何故老老大大東西也不識。

借婆衫子拜婆年無奈婆婆意更玄話到香銷人靜後箇中端的許誰傳。

慈明圓禪師室中常插劍一口旁置水一盆艸鞋一緇凡見僧參遽曰看劍稍涉擬議便喝出。

青龍若見與麼羅列祇消望空咄咄待他擬議拔劍一揮他縱有通身伎倆只得冰消瓦解。

尋常說法懶開口祇使家童左右走不是藍田射虎客相逢誰不遭毒手。

法華舉禪師到瑯琊問近離甚處。

無孟嘗君之量難容朱履登瀛天釋之戶須是其人看來大似兩箇駝子相逢笑世上原來無直人。

張三猴白李四猴黑硬似綿團軟如生鐵驀路相逢兩會家臨濟未是白拈賊。

芙蓉楷禪師因僧問如何是和尚家風蓉曰眾人皆見未審見箇甚麼蓉曰東壁打西壁。

孤峻深淵芙蓉獨占若論家風又豈止如是而已。

古殿苔生氣色鮮低垂斗柄未央前盧明遠嶂渾如畫月映清池上下天。

圓照本禪師因僧問千燈互照絲竹交音正恁麼時佛法在何處照云謝布施曰莫便是和尚為人處麼照云大似不齋來。

本公荅話恰似貪觀天上雁失御凌頭船有恁麼問善權者但云心不負人面無慚色待下語亦云收得安南何憂塞北。

絲竹交加絕世音燈前彈出最深可憐不入聾人耳空使西山月又沉。

楊岐會禪師因石霜上堂岐問幽鳥語喃喃。

拳來腳去用盡機謀刀去刀來逞盡伎倆千載之下未免遭人簡點者裏甄別得出許你擔荷此事不然總是隔雲千里望長安。

珠盤宛轉妙無休把手高歌上玉樓肝膽一時傾盡處清風明月兩悠悠。

長蘆信禪師因僧問佛未出世時如何蘆云晴天著靴行出世後如何蘆云雨落赤腳走。

大小長蘆未免話作兩橛時有僧問善權佛未出世時如何向云如是出世後如何亦云如是。

森森鐵榦立雲隈新蕊偏能冒凍開一夜西風寒徹骨清香端自雪中來。

翠巖元禪師因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巖云見錢買賣不曾賒向上更有事也無曰好不信人直。

盡道翠巖言中有響句裏藏鋒殊不知正是爭錢糴米留人喫飯須知遠煙浪別有好商量。

襲襲香風繞碧叢十分春色透簾櫳一聲玉笛青霄外回首雲煙隔萬重。

青州辯禪師示眾聲前薦得落在今時句後承當迷頭認影作麼生是空劫以前自己。

直饒不向聲前句後猶是奴兒婢子畢竟如何是空劫已前自己。

一段風光見也麼分明覲體絕滄訛擬向玄中尋解路求魚緣木枉蹉跎不蹉跎事如何幾縷斷霞橫雪岸一鉤新月挂煙蘿。

慧林懷禪師因僧問知有道不得時如何林云啞子喫蜜道得不知有時如何林云鸚鵡喚人僧禮拜林叱云者傳語漢。

一問一答理固然也因甚叱為傳語漢試辯看。

木童舞袖離金闕石女謳歌下玉樓欲吐襟懷言不盡人間那識此風流。

智者銓禪師上堂要扣玄關須是有節操極慷慨斬得釘截得鐵硬剝剝地漢始得若是畏刀避箭碌碌之徒看即有分以拂子擊禪床下座。

銓公自己口裏水漉漉地要人勦截恐難在。

年老心孤不奈閒教人韜略破玄關區區無限貪程客誰識藏鋒得勝還。

天童珙禪師僧問如何是道曰十字街頭休斫額。

當陽指出本分宗師直下知歸罕逢作者還委悉麼多少人來詢帝鄉不知身在含元殿。

風蒲獵獵弄輕柔欲立蜻蛉不自由五月臨平山下路藕花無限滿汀洲。

法闕上座在東林度席下見其得平實旨一日拈花繞度禪床一匝背手插香爐中曰且道意作麼生度屢下語不契踰兩月合闕說之闕曰某只將花插香爐中和尚自疑有甚麼事。

寒蟬雖脫殼未免抱枯枝。

橫拈春色大鋪舒莫怪農家不慎初指點瑕疵還奪璧秦王那識藺相如。

擔水河頭賣攜花叢裏行無端法上座漏泄十分春。

青龍性空妙普禪師因僧問和尚為何不禮佛龍便掌云會麼曰不會龍云家無二主。

接大機施大用性空老漢美則美矣然雖無佛處稱尊也是趙婆沽酒。爍爍青龍眼最皎臨時予奪機偏巧何不禮佛兮棄珠求寶攔腮一掌兮全身靠倒更憐末後太無端直至而今空懊惱。

王山體禪師示眾既有尊貴之位須明尊貴底人須知尊貴底人不處尊貴之位方明尊貴。

不離玉戶安知明月之光不泛仙槎安睹銀河之勢諸禪德還識王山老漢立地處麼清風高節難為比漢水泰山兩不羈。

珠冠擊碎夜光分寶座掀翻海貝沉自古太平無影象相逢切忌話玄音。

已菴深禪師上堂一九二九相逢不出手三九二十七籬頭吹感築翻憶小釋迦雙手抱屈膝知不知實不實摩訶般若波羅密。

冰稜上走馬劍刃邊翻身須讓已菴始得善權卻不與麼夜夢不祥題破在壁君子讀之化為大吉。

相思盡吐在西廊撥動琵琶恨轉長無限好情人不委倚闌徒自寫哀腸。

報恩秀禪師問僧洞山道龍吟枯木異響難聞如何是異響曰不會恩云善解龍吟。

前箭猶自可後箭射人深。

橫拈鐵笛泛流沙一曲雲邊散落霞不遇知音空費力夜乘明月出蘆華。

雪庭裕禪師因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庭云待乳峰點頭即向汝道。

道即太煞道著只是乳峰未肯點頭在。

為尋春到百花洲尋到花洲春更幽啼鳥一聲山水外風光不在柳梢頭。

高峰妙禪師因仰山問日閒浩浩時作得主麼。

高峰與麼悟去猶是杓卜聽虛聲何也縱能栽種得不是棟梁材。

祇道虛澗月霽時那知雲又掩柴扉五年心事誰相委一枕清風送夢回。

幻休潤禪師因僧問如何是洞上宗休云月下三花樹峰前雙桂枝曰還別有否休云唯此一事實無二亦無三其僧大悟。

荅也荅了疏也疏了只是與他洞上宗乘遠之遠矣者僧與麼悟去敢保未徹在。

規成圓矩就方發機無礙運斤不傷龍承雷而換骨珠拂塵而放光白雲澹碧岫蒼千年鶴立雲松老夜半金雞啼曉霜。

雲門澄禪師在雲棲值送茶毘歸棲問亡僧遷化後向甚麼處去門出曰多謝師太罪念。

雲門道多謝師太罪念還恰他意不恰他意思菴曰雲門須替者僧入涅槃堂是肯語是不肯語。

就裏拈來就裏酬有無迴出類難收一聲啼鳥千山外霜翦蘆花兩岸秋。

雲門因僧問古鏡未磨時如何門正色厲聲數其往事僧作瞋告辭門曰且磨者一點著僧禮拜。

雖則本分鉗鎚未免落二落三還有辯得出者麼。

翠微深處暗香飄紅吐山花朵朵嬌一片白雲橫谷口笑他歸鳥自迷巢。

雲門因僧問如何是學人自己門云你無自己曰為甚麼學人無自己門云你有自己則不從我覓。

解黏去縛就窠打劫是則是矣要且未得勦絕莫若和聲棒出使他終不向無自己處著腳。

行盡谿山路更長谿山深處是僊鄉堪憐回首谿雲杳只有山花笑客忙。

雲門因大覺問止風塗向青山近越王城畔滄海遙時如何門曰月穿潭底破波斯不展眉。

伯牙與子期不是閒相識。

作家相見豈尋常暗把珠璣撒錦囊一往一來潭不露更深涼月轉西廊。

博山來禪師因僧問如何是道山曰紅綃曰紅綃莫是道否山曰不是道曰既不是道因甚荅以紅綃山曰因你問道荅你紅綃。

與麼荅話固頭正尾正爭奈鼻孔落在者僧手裏。

江南春動雪初銷澹蕩風光夜色饒遊子貪觀天上月那知春色在梅梢。

博山因登廁睹上樹人大悟走見壽昌經經口近日如何山曰有箇活路只是不許人知經曰。

若論者條活路非但他師資拈弄不出直饒達磨到來也做手腳不及。

獨步空階曙色微風高卉木露全機轉身不踏來時路贏得清風滿袖歸。

鼓山賢禪師問壽昌如何是清淨光明身昌挺身而立曰只此更別有昌起行山當下豁然通所得昌棒曰向後不得草草因過劍津聞經聲大悟。

壽昌挺身而立鴛鴦繡出從君看鼓山當下釋然不把金鍼度與人既然一了百當為何又要棒下翻身若不共同橋上過爭信橋流水不流。

挺身早已破重圍棒下何勞顯大機警歎一聲天地窄延津江上看龍飛。

百丈雪禪師在雲門時門一日舉斬貓話丈於言下知有將蒲團拋出門曰一語下徐州。

雲門撥轉天關百丈掀翻地軸正是千鈞之弩不為鼯鼠而發機設有人道少賣弄又且如何。

鐵山推倒壓銀山盤走珠兮珠走盤密密鴛鴦頻繡出金鍼終不與人看。

寶壽方禪師因雲門問趙州道無意作麼生壽云師喜著棋某亦羸知他道有又作麼生遂成頌。

一著高一著一步闊一步雖謂應機無差兩彩一賽看來也是泗州見大聖。

煙波一棹釣春風笑徹枝頭半點紅數著殘棋江月曉青山依舊白雲中。

愚菴孟禪師因雲門問懷州牛喫禾為甚益州馬腹脹菴云問取露柱門曰樹倒藤枯句歸何處菴云長江翻白浪。

絲來線去不露鋒鋸自非見處精明何以能此雖然若作佛法商量帶累露柱不少。

風回石傘月沉沉就路還家春正深一曲調含千古韻高山流水幾知音。

東山復禪師因舟中聞鑼聲有省後值雲門上堂曰放下著山忽全身脫落。

曾被雪霜苦楊花落也驚。

聲聲鑼擊曉風殘暗襲衣珠徹骨寒放下三江江上闡溯洄一派繞東山。

笑巖寶禪師上堂拈拄杖曰有麼有麼時有僧出作禮巖打曰多口作麼曰某未一言何為多口巖復打曰再犯不容。

笑巖為眾竭力未免手忙腳亂。

萬仞峰頭險峻關絲毫不盡隔千山行人若解開門計滿目風光別世間。

無幻冲禪師因編無趣錄歸趣云子一向做甚麼曰買一段田收得原本契書呈和尚簽押趣云者是我底你底響曰莫攬行奪市趣擲下錄幻便出。

善權不似無幻父子弄巧成拙近來亦收得原本契書我也不請先師簽押先師亦不分你底我底但只壽梓入藏流通使未見者見未證者證且道本文說些甚麼但見皇風成一片不知何處是封疆。

光分月魄雲中影香綻寒梅雪裏枝各展精神爭意氣風光占盡有誰知。

弁山音禪師因僧問如何是般若體山云平地高如山如何是般若用山云谿水闊如海。

截鶴續覺移嶽盈壑不無弁山至若本源天地懸隔善權見處也要大家委悉般若體蟪蛄眼裏放夜市般若用大蟲舌上打鞦韆。

月白風清別樣天滿庭風冷月娟娟仙家不會論冬夏石爛松枯又一年。

弁山斯禪師示眾德山入門便棒臨濟入門便喝山僧總不與麼且道還有為人處也無。

泣露千般艸吟風一樣松既是體之則一因甚用處不同者裏得之於心伊蘭作栴檀之樹失之於旨甘露乃蒺藜之園。

棒下寒光射斗牛煙潑山頭浪潑山頭機先一喝暗垂鉤風又颼颼雨又颼颼總不與麼會也不功亦無求動亦無求無為端坐一齊收釣盡滄洲釣罷滄洲。

義山訥禪師參百丈值掃塔歸丈問見祖師麼山云見曰是何面目山云瘦骨一條石輕衣滿苑林曰有何指示山云和風撲面涼。

驚群敵勝須是英靈畢竟祖師是何面目咄。

踏斷千差一路竿頭猶自翻身懸巖撒手谷風清佛祖何須更問獅子窟中遊戲栴檀林裏經行楚山華放一枝新占斷春光更甚。

(弟子照禪照源照證王氏福海刻  
方丈和尚語錄第十三卷惟真梯航三  
有人人慧業昌隆津濟四生各各  
智光圓滿)  
寒松操禪師語錄卷第十三

源流宗旨頌

第一祖菩提達磨大師至金陵武帝問曰如何是聖諦第一義師曰廓然無聖曰對朕者誰師曰不識帝不契遂渡江至少林一口命諸門人曰汝等各言所得最後慧可禮三拜依位而立師曰汝得我髓。

廓然無聖逕庭機覲面拈來示禁幃穩密龍圖磐石固枉勞獅駕遇人稀風乘一葦傳猶錯雪坐五峰較更非若使梁王舒毒手那餘皮髓付兒歸。

第二祖慧可大祖大師問初祖諸佛法印可得聞乎曰諸佛法印非從人得師曰我心未寧乞師與安曰將心來與汝安師曰覓心了不可得曰與汝安心竟。

何事空階立雪寒至今白受老胡瞞休云心覓得猶難仔細看月上青山玉一團。

第三祖僧璨鑑智大師問二祖曰弟子身纏風恙請和尚懺罪曰將罪來與汝懺師良久曰覓罪了不可得曰與汝懺罪竟宜依佛法僧師曰今見和尚已知是僧何名佛法曰是心是佛是心是法法佛無二僧寶亦然師曰今日始知罪性不在內外中間如其心然佛法無二祖深器之。

金生麗水玉出崑岡琢之愈美煉之愈光春到寒巖而冰河發燄空沉罪性而病藥相忘解用不須霜刃劍活人何必返魂香。

第四祖道信大醫大師參三祖問願和尚慈悲乞與解脫法門曰誰縛汝師曰無人縛曰何更求解脫乎師大悟。

本無拘束有誰縛月中丹桂連根斫突出長天飛一鶚氣凌霄漢志寥廓絕雲霓翻閃爍何更重重求解脫。

第五祖弘忍大滿大師兒時造四祖祖曰汝何姓師曰姓即有非常姓曰是何姓師曰是佛性曰汝無姓耶師曰性空故無祖識是法器。

金毛出窟誠非偶三歲便能解哮吼虎穴龍宮呈妙手會也不虛空背上翻筋斗。

第六祖慧能大鑑大師參五祖問汝自何來師曰嶺南曰欲須何事師曰唯求作佛曰嶺南人無佛性若為得佛師曰人即有南北佛性豈然祖異之乃曰著槽廠去師遂服勞於杵臼閒因祖索偈欲付衣法師和偈曰菩提本無樹明鏡亦非臺本來無一物何處惹塵埃祖呼入室密示心宗衣鉢令渡江。

賣盡幾多風月樵殘一帶煙巒天曉花生碓觜夏深鏡照霜顏驀地謾云  
無物長江依舊波瀾直饒夜半潛身去衣鉢何曾負得還。

第七世青原行思禪師參六祖問當何所務不落階級曰汝曾作甚麼  
來師曰聖諦亦不為曰落何階級師曰聖諦尚不為何階級之有祖深  
器之即令首眾。

慵居九五下重圍廓落無依絕是非寶鏡不隨春色轉激潭豈逐月輪飛  
閒嗤巢許同臨水猶恥夷齊共採薇高舉步渾忘歸揚眉不墮悄然機。

第八世南嶽石頭希遷禪師參青原原問曰子何方來師曰曹谿曰將  
得甚麼來師曰未到曹谿亦不失曰若恁麼用去曹谿作甚麼師曰若  
不到曹谿爭知不失師又曰曹谿大師還識和尚否曰汝今識我否師  
曰識又爭能識得曰眾角雖多一麟足矣。

滴水興雲浪禹門獨轉身愁消三月雨夢破劫前春一聲霹靂青山外占  
斷風光作主人。

第九世藥山惟儼禪師參石頭問直指人心見性成佛實未明了曰恁  
麼也不得不恁麼也不得恁麼不恁麼總不得子作麼生師罔措復至  
馬祖仍伸前問於揚眉瞬目處契悟便禮拜曰你見箇甚麼道理便禮  
拜師曰某甲在石頭處如蚊子上鐵牛曰汝既如是善自護持後返石  
頭頭曰言語動用沒交涉師曰非言語動用亦沒交涉曰我者裏鍼筍  
不入師曰我者裏石上栽花頭然之。

石頭滑難停重復撞入馬廄簷前雨驟來眉毛根根溼透鞭起鐵牛耕曉  
煙清光盈兩袖看他萬卉敷榮十洲贏得那春風富。

第十世雲巖曇晟禪師參藥山山問甚處來師曰百丈曰百丈有何言  
句師舉百味具足話曰鹹則鹹味淡則淡味不鹹不淡是常味作麼生  
是百味具足師無對又問更說甚麼法師曰有時道三句外省去六句  
內會取曰三千里外且喜沒交涉又問更說甚麼法師云有時上堂大  
眾立定以拄杖一時趁散復召曰大眾眾回首丈曰是甚麼曰何不早  
恁麼道今日因子得見海兄師於言下頓省。

桓依琴三弄摧花鼓一通六律韻來巧五音調不同雲漠漠水溶溶暗藏  
春色碧虛中莫道簾前風景別一枝開遍萬芳叢。

第十一世洞山良价禪師參雲巖問無情說法有省乃曰也大奇也大  
奇無情說法不思議若將耳聽終難會眼裏聞聲始得知後因過水睹  
影大悟有切忌從他覓迢迢與我疏之偈。

風淡兮月白雨霏兮花殘青山歷盡程千里滄海踏翻月一團錯落清光  
雲片片高低珠幔玉珊珊苔生禁殿尊嚴甚寂寞無人夜未闌。

第十二世雲居道膺禪師參洞山山問甚處來師曰翠微曰翠微有何  
言句師曰微供羅漢某問供養羅漢還來否曰每日你嚏箇甚麼曰實  
有此語否師曰有曰不虛參見作家來山又曰吾聞思大和尚生倭國  
作王是否師曰若是思大和尚佛亦不作山然之。

獨把雲和對月操來音韻鏗鏘就中那復辯宮商古調逢人絕況說甚慵  
為諸佛早曾占斷群芳金風處處暗飄香露冷芙蓉江上。

第十三世鳳棲同安丕禪師僧問如何是和尚家風師云金雞抱子歸  
霄漢玉兔懷胎入紫微忽遇客來將何祇待師曰金果朝來猿摘去玉  
花晚後鳳銜歸。

黃閣簾垂氣象殊紫羅帳合家風足析梅檀片片皆香碎珪璋塵塵是玉  
暗穿玉線錦重重密度金鍼花簇簇繡出鴛鴦到處飛金雞啄破琉璃  
窟。

第十四世鳳棲同安志禪師參先同安將示寂上堂曰多子塔前宗子  
秀五老峰前事若何如是三舉眾無對師曰夜明簾外排班立萬里歌  
謠道太平安曰須是者驢漢始得。

把住要津不計功臨行彊欲與人通雲寂寞月簾櫳奪得靈光占上風獨  
步青霄外高歌碧漢中真奇特甚從容天香直透廣寒宮鳳棲峰頂光何  
別廓落圓明照太空。

第十五世梁山緣觀禪師上堂曰垂絲千尺意在深潭一句橫空白雲  
自異孤舟獨棹不犯清波海上橫行罕逢明鑑僧問師唱誰家曲宗風  
嗣阿誰師曰龍生龍子鳳生鳳兒。

楊花裁鶴髦梅蕊補羊裘為雪常登閣因鰲每放舟夢聯今夜月波冷昔  
年鉤一曲和雲杏悲風動客愁。

第十六世太陽警玄禪師參梁山問如何是無相道場山指觀音像曰  
者是吳處士畫底師擬進語山急索曰者是有相底如何是無相底師  
遂有省便禮拜曰何不道取一句師曰道即不辭恐上紙筆曰此語上  
碑去在師獻偈曰我昔初機學道迷萬水千山覓見知明今辯古終難  
會直說無心轉更疑蒙師點出泰時鏡照見父母未生時如今覺了何  
所得夜放烏雞帶雪飛山謂洞上之宗可倚一時聲價籍甚。

觀音指出意無窮有也銷鎔無也銷鎔一言早已上碑中義不朦朧字不  
朦朧點開泰鏡透簾櫳照出晴空照破晴空烏雞帶雪舞春風問是何宗  
道是何宗。

第十七世投子義青禪師僧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師曰威音前  
一箭射透兩重山曰如何是相傳底事師曰全因淮地月得照郢陽春  
曰恁麼則入水見長人也師曰祇知荆玉異那辯楚王心僧禮拜師以  
拂子擊香几一下。

萬仞重關一箭俱透鳥道齊超玄途獨步其丹鳳也羽襲襲而蹁躚其靈  
苗也葉聯聯而分布淮地月留郢地春曹谿花放桐谿樹。

第十八世芙蓉道楷禪師謁投子問佛祖言教如家常茶飯離此之外  
別有為人處麼曰汝道寰中天子敕還假堯舜禹湯也無師欲進語子  
以拂撼師口曰汝發意來早有三一棒也師大悟再拜便行曰且來闍  
黎師不顧曰汝到不疑之地耶師掩耳而出。

離此為人有也無卻來當面受塗糊寰中天子不假敕腦後無端劈箭疾發意早有三十棒滿地霜花加雪上到此何為掩耳酬轉得身來換卻眸謾云汝到不疑地父子相將艸裏睡。

第十九世鹿門自覺禪師參芙蓉問胡家曲子不墮五音韻出青霄請師吹唱曰木雞啼夜半鐵鳳叫天明師曰恁麼則一句曲含千古韻滿堂雲水盡知音曰無舌童兒能解和師曰作家宗師人天眼目曰禁取兩片皮師從此契悟遂承印記。

動弦別調落葉知秋山高月冷谿闊水流要知玄妙深深旨金殿風微夜色幽。

第二十世青州希辯禪師參鹿門得言外旨出住中都萬壽嘗設百問曰聲前薦得落在今時句後承當迷頭認影作麼生是空劫已前自己又曰有口讚不盡無言心自明是則裂破虛空不是則鬼家活計上人端的處道將一句來。

刀在握劍揮空薄批明月細切清風獰龍狂象誠難犯丕振寰中蓋代功。

第二十一世大明寶禪師參青州問離四句絕百非請師直指西來意曰昨日有人問打出去也師曰今日又如何曰你恁麼不識痛癢師禮拜曰可惜許棒折也師直得汗下後上堂輪王寶藏如赤窮底人酒店腰帶如大富底事掉轉身來撞著沒面目漢要拳便拳要踢便踢誰知我洞上家風別有擒虎頭收虎尾底宗旨會麼玉犬徹夜行不知天已曉。

空中鑿髓格外安排離四句絕百非一鎚粉碎擒虎頭收虎尾九曲珠回玄酒不吝下陳蕃之榻大羹齊設展孟嘗之才座中若有淵明士把手高歌歸去來。

第二十二世王山體禪師侍大明於生臺見雀拾食乃拍手雀飛去明撫篩背師驚顧曰若是雀子我孤負你不是雀子你孤負我師罔措曰幸是可憐生互相孤負去師豁然後上堂還有衝流度刃者麼僧從東過西從西過東師曰未得一場榮先別兩脛足曰也知和尚慣用此機師曰罪不重科僧擬議師便打。

臺中雀拾食背上人驚顧依舊可憐生動著便飛去一孤負二孤負過後向人成露布拈出鐵蛇古路橫黃頭碧眼須回互。

第二十三世雪巖滿禪師初參普照照曰兄弟年後正宜參叩我當年念念以佛法為事師避席進曰和尚而今如何曰如生冤家相似師曰若不得此語幾乎枉行千里照下禪床握師手曰作家那後造王山閱頌至折合終歸炭裏坐大悟曰今日方知病即藥也呈山山曰料揀沒交涉師曰和尚此回瞞我不得。

綠林客遇白拈流機變深藏滑似油十里青山行欲盡平原遭陷沒來由罷罷罷休休休六國平來霜兩鬢笑他擲筆博封侯。

第二十四世萬松行秀禪師參勝默有省復看玄沙未徹語請益雪巖巖曰待你頭生角腳手生爪牙然後討棒喫師偶見雞飛鳴大悟曰今日不惟捉敗沙老虎亦乃捉敗岑大蟲也曰不怕我笑你那。

拈卻腦後鍼錐難逃面前弓弩頭角未曾生大蟲咬殺玄沙虎更言大悟雞鳴堪笑亦何莽鹵縱有戴角威未免遭他塗毒鼓。

第二十五世雪庭福裕禪師參萬松松問何處得箇消息來師曰老老大大向學人納敗闕曰老僧過在何處師曰學人且禮拜暫為和尚蓋覆卻松大喜遂印可後問僧面壁石有人看見達磨影者麼曰今日幸遇和尚師曰拄杖子今日幸遇上座乞供養他一頓遂打三棒曰恩大難酬師擲下杖曰脹殺懷州牛。

萬松機關半條軟索風裏羅龍雲閒放鶴其翱翔兮縱橫而莫拘其宛轉兮瀟灑而無縛飛過等閒唳一聲花容柳眼都驚落噫懷州脹死一頭牛嘉州大象成三瘡。

第二十六世靈隱文泰禪師參雪庭庭曰當機一句試拈出看師擬開口曰家產被人籍沒了也還在者裏叫屈師撫掌曰誰奈我何曰者風顛漢後上堂塵劫來事只在於今河沙妙德總在心源試教伊覲面相呈便不解當風拈出且道過在何處卓拄杖曰只為分明極翻令所得遲。

雲靄靄月沉沉有客離家產孤懷託素琴一撥洞天欲得高山發韻相呈月窟那知流水無音風顛都賣盡塞下起閒吟莫閒吟尋常謾說三分話那肯全拋一片心。

第二十七世還源福遇禪師參靈隱聞舉切忌從他覓迢迢與我疏語即領悟曰今日捉敗老賊也隱喝出後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風送泉聲來枕畔月移花影到窗前。

酥酪好將河漢攪黃金自是出泥沙教得兒會罵爺一聲驚落暮天霞聽來風韻名泉韻捉敗楊花當月華片片飛來人不識無端贏得眼迷麻。

第二十八世香巖文才禪師讀證道歌至幻化空身契悟乃謁源求證源曰祇如道君不見是指阿誰師曰覲面親呈更無回互曰墮坑落塹漢作恁麼語師曰和尚作麼生曰汝口響師曰勘破了也源休去。

水穿石竇雲鎖山隈無病空花安翳眼有疑弓影便沉盃勘破了歸去來曾經三峽猿啼後不是愁人也自哀。

第二十九世萬安子巖禪師初參息菴有省復參香巖呈解巖曰子不聞蠱毒之家水莫嘗否師曰也須吞得下吐得出始是肚皮曰蒼天中更添冤苦師曰謝和尚印可曰未在復閱寶鏡三昧大豁疑礙後上堂我不學諸方說禪浩浩地魔魅人家男女僧問達磨面壁時如何師曰正是浩浩禍胎曰如何得勦絕去師曰倒搓芒繩縛鬼子須是其人。

封喉之箭蠱毒之湯觸亦何礙嘗亦何妨撲破秦時照妖鏡擎雲攫霧豈尋常玉鞭一舉金街靜水魅山魃沒處藏。

第三十世凝然了改禪師參萬安安曰路逢死蛇莫打殺無底笠子盛將歸此是洞上宗旨若是莽鹵禪和如何透得師曰莫是背觸不得底麼曰笑破山僧口師罔措曰你在鬼窟裏討甚麼碗師愈不安一日嚴上堂曰一言迴脫獨拔當時師當下釋然。

龜殼何曾支榻死蛇那用籃盛還丹只須一粒嘯月不在高聲但得雪消水國自然春到山城好生分付遊客路滑切忌橫行。

第三十一世俱空契斌禪師參凝然然曰達磨未來你作麼生參師疑之偶睹秦封槐有省回侍次身甚戰慄然曰契斌參得禪也何驚疑之有師豁然省曰某今日到此如在紅爐中拾得一片冰相似然頷之。

行盡深山谿復谿秦槐高出白雲低輕輕觸著眼猶迷移步不堪回首望襟懷欲吐轉清淒誤將鶴唳當鶯啼。

第三十二世定國可從禪師參俱空空曰曾參何人來師曰少室山前風悄然曰因甚一華開五葉師曰無孔鐵鎚百雜碎曰掠虛作麼師曰天下人只解掠實無一人掠虛曰不打自招師曰慣用底不妨勘破。

雷震山前起臥龍翻雲覆雨勢重重入廛不畏洪波險一擊從教正眼通牙利劍舌藏鋒吞天之氣貫蒼穹英靈烜赫乾坤振萬卉香敷一夜風。

第三十三世月舟文載禪師掩關閱萬松機緣有省嘆曰洞上宗風大播天下有織錦回文之功非鍼線細密盤旋回互不觸當頭者不能與伊作主也既而翻然出關參無方從公發明已見方撫而印之。

行盡案頭鳥道掀翻屋裏窠巢求劍刻舟固不是守株待兔枉徒勞圖書出而畫卦奇偶生而成爻布天孫之錦文彩巧度穿石樣之梭鍼線雙敲綿綿密密家風別無奈東君把舌饒。

第三十四世宗鏡宗書禪師聞月舟法席之盛入室請益密踐八載蒙付囑後少室請師師慨曰先師化後三十餘年洞上宗風迨乎埋沒遂主之臨終索筆書偈曰宗鏡宗鏡心法成行即日圓覺鏡破宗正。

鈍置已曾譏一宿胡為八載堪承續畫成有足即非蛇剖出無瑕方是玉宗風一線將傾覆獨拍闌干深訴曲蘭橈撥轉海天秋棹破菱花山影促。

第三十五世西京幻休嘗潤禪師參宗鏡問鏡中現像時如何曰何不打破師曰其奈鏡像何曰鏡像安在師有省一日鏡舉我今不是渠詰之曰既不是渠畢竟是何人師大悟呈偈若要識此人有箇真消息無相滿虛空有形沒蹤蹟曾為佛祖師永作乾坤則龜毛拂子清風生兔角杖頭明月出鏡復徵之師曰彩鳳翻飛身自在鐵牛奔吼意常閒鏡曰善哉。

雷門布鼓赤壁鏖兵打開寶藏擊碎晶瑩帝網交羅而重重相映珠光互照而灼灼圓明兔角杖挑彩鳳舞龜毛繩繫鐵牛鳴縱橫不辯往來事到此難留父子情只要功勳常顯世不知展轉喪家聲。

第三十六世大覺方念禪師參幻休休問甚處來師曰北方曰北方法道與此方何如師曰水分千派流出一源一日遊初祖面壁處契悟乃曰五乳峰前好箇消息大小石頭塊塊著地詣室呈休休囑曰無上涅槃心佛祖相傳付吾今授受時雲淨峰頭露。

透過鐵壁銀山踏翻佛祖關軸法道南北而乃翠乃森石頭大小而成笑成哭水出萬派流露滴千竿竹森羅遍界總空花更向何處開兩目咄六六元來三十六。

第三十七世雲門圓澄禪師掩關看乾峰舉一不得舉二話大悟後參大覺覺曰止風塗向青山近越王城畔滄海遙時如何師曰月穿潭底破波斯不展眉呈偈覺曰向後開兩片皮截斷天下人舌頭有分在。

塵中觸翻寶閣就空架起金梁夜盡重遊霄漢天明踏碎蟾光裂荆石兮得美玉以呈獻剖蚌腹兮獲明珠而囊藏煙漠漠水滄滄鐵笛橫吹千古調銀河斗轉碧天長。

第三十八世百丈明雪禪師參雲門門舉斬貓話師於言下知有將蒲團拋出門曰一語下徐州會從橋上過門曰谿水潺潺汝試道看師曰敲空有響擊木無聲門笑而頷之越六日聞鐘聲乃大徹。

斫開荊棘掃盡浮雲龍聞雷而換骨豹披霧以變文擊木無聲兮靈禽錯落敲空有響兮夜雪繽紛月上雄峰天未曉洞簾高捲絕功勳。

第三十九世青龍淨斯禪師百丈住崆峒時師往參問如何是父母未生前面目丈便棒師曰除卻棒又作麼生曰日落西山近師禮謝一日入室未開口丈便棒行數步丈喚米頭師回首丈曰是甚麼師有省後聞報鐘聲大悟。

夢破鐘聲展笑眉好看脫穎露囊錐毒龍角上頻搔癢猛虎腮邊慣捋鬚揭地軸開天池苔封古殿下丹墀常行不舉人間步摘得花梢月滿枝。

## 君臣五位

至尊殊號奠寰中掌握乾符御六龍不羨當年神禹力堂堂別露一家風  
(君)

功隆帝業寵恩頒烽火無聞入漢關時頌六鰲擎海國長歌三箭定天山  
(臣)

不居寶位竟忘尊常駕鸞輿幸葦門咫尺光分天地曉山河無處不沾恩  
(君視臣)

竭誠經緯力匡持赤膽冰心誓不欺月曉五更朝鳳闕風清萬里叩龍墀  
(臣向君)

喜起明良盛昔年明良相得共怡然雲籠玉殿珠簾翠露滴瑤池寶月圓  
(君臣道合)

## 正偏五位

碧漢龍吟紫霧新青山虎嘯曉風頻一聲驚醒千家夢鐵樹華開劫外春

(正中偏)

澹澹煙籠古畫圖波分赤水吐玄珠數重影裏開天德一簇光中壯帝居

(偏中正)

堂前露柱夜懷胎生下兒童頗俊哉未解語言先作賦天然端是狀元才

(正中來)

啐啄同時迴絕倫箭鋒相拄了無痕大鈞歷歷全機用一段英風扇八坤

(兼中至)

拾得相攜舜若多金剛拍手笑呵呵尚無心緒詢凡聖那有工夫辯佛魔

(兼中到)

## 王子五位

天然睿智類難齊高處東宮澤四夷雖是生成身至貴也須待漏叩丹墀

(誕生)

現成公案不須標滿腹珠璣貫六韜燮理陰陽酬聖德御門顯達志清高

(朝生)

十載飄零履踐深清奇骨格越常倫不因獻策金門早爭見當年投筆人

(末生)

狼煙掃盡顯英豪今古休誇筆似刀闔外密傳天子令卻教四海盡來朝

(化生)

久居鶴禁不開顏那有綸音落世間欲識行藏端的別更深簾挂水晶盤

(內生)

## 功勳五位

日暖園林景物肥鳥嚶深處百花飛佳人難禁春閨興猶向芳叢舞蝶衣

(向)

念念無欺志不忘時時奉重若冰霜夜明簾外天方曉寶鏡臺前雲正黃

(奉)

午夜梧桐金鳳啼聲聲終不類山雞花開鐵樹飛春色月隱千峰木馬嘶

(功)

東街柳色拖煙翠西巷桃花相對紅兩岸遙看收不得一齊分付與東風

(共功)

鳴金各自下雕鞍莫向重圍覓寶冠那畔今時齊掃卻採荷人醉滿長安

(功功)

### 三滲漏

雲月是同隨處戲谿山各異任遨遊篙人別有江湖志爭肯潛棲古渡頭  
(見)

昔年尚有卓錫地今日貧來錫也無每每頻思難啟齒見人猶自翬盧都  
(情)

玉驥追風忘去路神龍入海絕言詮回途復妙真常露那有功勳落那邊  
(語)

### 四轉位

片笠斜披霜露扁舟不犯波瀾金鱗得遇罷綸竿回首煙消月淡自是攜  
歸玉戶一聲坐嘯晴灘驚回星斗落江寒大地芳叢不艷(轉功就位)

覓得靈符在手誰甘晏坐華堂生涯端是妙難量休怪當仁不讓雙履不  
停丘壑子身獨露龍岡斯時贏得興偏長打月天邊掉棒(轉位就功)

倒瀉山頭白浪橫揚海底紅塵飛霞滿目絕疏親莫把風光錯認和月移  
星易斗連山鏟棘除藜拈來照用一時新蓋代功勳丕振(功位齊彰)

海靜龍潛影蹟山深虎遯煙蘿簾垂玉女嬾謳歌那擊玄關金鎖謾謂相  
逢不識夜深少客來過不圖作佛豈云魔說甚難追電火(功位俱隱)

### 四賓主

故園拋卻走關山碌碌風塵去復還極目不知燈在手徒勞薪火覓人間  
(賓中賓)

柳栗橫擔宇宙寬得盤桓處且盤桓若非射虎藍田客未免遭人冷箭攢  
(賓中主)

一葉風流此獨存慣將折箸攪龍門收來放去前無礙瞬目揚眉海嶽昏  
(主中賓)

高居金闕曉風清聲振寰中孰敢撻非但天魔聞膽落直饒佛祖也心驚  
(主中主)

### 三墮(類 隨 尊貴)

種月先成隊耕雲已入群更言頭角異頭角有何分  
離聲亦是迷擯色元非悟聲色若掀翻金仙奚足數  
只因生玉闕那見有金門不坐至尊位何須言至尊

### 四料揀

酒憨公子枕高樓夢冷青山睡正悠一片瓊花開滿逕誰為騎鶴上揚州  
(奪人)

芳叢四月落風殘客欽三更帶露寒好看碑文轟薦福瑤琴抱得月明還  
(奪境)

將軍塞外掃蠻荆一握吹毛萬國傾人境蕩然無覓處因知佛祖總虛名  
(俱奪)

鼓樂笙歌樂帝侯霞妝翠抹盡風流滿堂花笑三千客一徑香飛十六洲  
(俱不奪)

## 四照用

密布乾坤慘暮容相隨霹靂閃飛龍饒君解展姜維計未免通身早犯鋒  
(先照後用)

勤王萬里走長驅輪劍橫行背水圖壁占伊先標漢幟歸來端坐定皇都  
(先用後照)

威勢雄雄手眼親臨機誰敢犯關津長江不必連環巧人化清風馬化塵  
(照用同時)

雲飛塞北兩江東一霎風光迥不同春老梅花和月白秋酣楓葉帶霜紅  
(照用不同時)

## 四喝

匣開寶鏢吐秋霜機佇臨風喪北邙寒焰自來吞宇宙陣雲那得犯封疆  
(金剛寶劍)

牙爪纔張氣勢宏風威微展膽魂驚虎狼無計潛舒目狸[狂-王+也]何  
由暗吠聲(踞地獅子)

矢檄拋來定瞭矇當機覲面白玲瓏謾將魚目同珠賽須識明珠價不同  
(探竿影艸)

花開黃菊賞三春馬上人騎陸步行況是驩驩晨孕犢便從香象夜生麟  
(不作喝用)

第一玄法法絕言詮縱有通身口只堪壁上懸

第二玄雷電閃機先擬欲抬眸望崖州萬里天

第三玄高下總方圓一鑑涵空碧千流赴百川

第一要同聲不同調日月久無光乾坤都失照

第二要雙輪並一照須彌渾似燒赤骨人多叫

第三要雲眼通風竅音律本天然幾曾施巧妙

## 三關

我手何似佛手只要當人知有拈來七尺烏藤敲落南辰北斗  
我腳何似驢腳簪纓不礙落魄踢翻帝釋天冠撞碎龍王額角  
人人有箇生緣不勞向外鑽研妙普常吹鐵笛玄沙慣釣魚船

### 函蓋乾坤

月隱遠山煙雲藏細雨天風光都占盡不費半文錢

### 截斷眾流

及盡聖凡情誰通佛祖名三江齊下閘萬里絕流聲

### 隨波逐浪

少婦操孤舟歌聲逐水流夜來風力便隨月下揚州

### 三種生

隱隱未萌謾道誠未萌早已客塵生塵生不用揮鞭影勒馬歸來見太平  
(想生)  
於心無事已勞心於事無心未可任回首渾忘心與事一聲寒鴈出高林  
(相生)  
起滅相乘水上漚漚生漚滅卒無休和光踏斷漚中影鶴出銀籠天外遊  
(流注生)

### 華嚴六相

覲面露真機總中還有別能言不是聲妙唱非千舌一月攝千江千江分  
一月清光何處無休更論圓缺

### 三界唯心

一段風流事當陽會也無素弦彈碧嶂玉調寫晴湖天外鐘聲冷蟾中塔  
影孤分明只者是何必問長途

### 萬法惟識

不借陽和力山山卉木芳梅晴園眼雪柳綠岸飛霜店遠雞聲近日斜人  
影長盡知天氣爽那識晚風涼

### 曹洞

無為端拱鎮蒼穹名姓於今孰敢通鑑冷冰壺飛彩鳳風和月殿隱青龍  
百司分職慵居職諸子全功不宰功自適那知身至貴江山萬里擁宸宮

### 臨濟

掃蕩晴空勢獨昂吹毛三尺吐寒光長江影落鯨鰲懼邊塞聲飛狐兔藏  
變化魚龍施電火縱橫照用展鋒芒瞎驢滅卻瞎驢眼白日雷轟白日霜

### 為仰

閒攜鑿餅上長安底事分明在指端月朗性天光燦燦星懸義海影團團  
交拳物應方圓器作拜機酬隱顯盤明暗相投融境致乾坤撥轉幾人看

### 雲門

閃爍紅旗紫殿頒風前高豎許誰攀金梯馬上珊瑚轡碧海鱗飛琥珀斑  
子結香林藏北斗花開靈樹醉東山夜來好趁揚州月滿載笙歌處處閒

### 法眼

華藏重重聲色兼擬尋聲色病重添珍珠瀑瀉和雲聽瓊雪花飛帶露瞻  
春老葉疏三徑竹秋深光涌一輪蟾梅花笛落誰知意調出青霄律更嚴

(弟子成睿發心備資敬刻

方丈和尚語錄第十四卷奉為多生父

母神遊淨域悟真常歷代師承記

授一生圓十地)

寒松操禪師語錄卷第十四

佛事

彌勒佛開光不居兜率天特到隆福寺終日笑無休當陽施大意且如何是大意以筆點眼云紺目豁開千日光明明燦爛輝天地。

祖師開光梁王殿上失卻一隻青龍寺裏點出圓明既稱碧眼胡僧今又何須特地不因漁父引爭得見波濤。

達磨忌九年面壁成多事隻履西歸又脫空不是重重揚家醜只因齒缺不關風。

百丈忌再參馬大師美巧翻成拙一喝三日聾畫蛇又添足年年此日一爐香斷弦須是鸞膠續。

埽雲門湛然激祖塔高撐石傘啟雲門電閃雷轟宇宙昏佛眼難窺吾祖意起家遍界有兒孫天龍共喜四眾同尊塔影當空日卓午千秋景仰柱乾坤。

弁山瑞白雪祖忌儒兮同桑梓相識不相見釋也作公孫相見不相識利道拔生幾箇知年年此日露消息甚消息一片梅檀海底焚金雞啄破琉璃窟。

埽弁山瑞白雪祖塔離山已廿年禮塔今隨眾大地指為爐白雲拈作供不是道德難忘惟圖此話傳誦上香云即此用離此用琉璃殿上繞獰龍瑪瑙階前飛彩鳳。

百老和尚像成開光若謂是先師夜半虛明若謂非先師天曉陰晦是非俱拈卻一月普現一切水是非裏薦取一切水月一月攝畢竟如何舉目能令三界靜振鈴直使九天歸。

百老和尚忌法門摧法幢折魔宮復起波旬悅人天哀慕痛無依端的此心向誰說沉速一爐茶一甌願師定起返閻浮無邊法海砥中流不倦津梁運法舟三轉巴陵語且休好看異日再相酬。

百老和尚忌山色常明顯當時之妙用豁聲不斷演去後之玄音雖則道化他方此土為人愈切正當設供還來也無拈香云俺識識曩三婆嚙伐日囉斛。

百老和尚忌三年前燭剪刊關月三年後香焚鳳嶺煙未審今日又如何滿口道來無一字半杯清茗瀉三江。

埽國山百老和尚塔萬里雲霞新氣象千峰蒼翠舊容顏熾然說法常無閒莫謂歸真有七年大眾你道先師說些什麼拈香云諦聽諦聽。

百老和尚忌日埽塔示寂維揚日於今八載周箇中無限意堪笑不堪愁大眾師歸愁不勝我獨笑何由幾見塔前水日日向西流。

百老和尚忌大清國裏兒孫遍地盡謂今朝是十周忌單單守塔門人不作此般機會若拈巴陵三轉語不無彼此瞞肝更作楊岐女人拜未免互相鈍置事到於今如何即是○惟將柏子熱爐中焚卻幾多不平事。

埽冶父星和尚塔昔年秉戒沐餘光今日重瞻翠堵傍天外無人貧似我朝來撮土作心香雲黯黯水茫茫盡道歸真將一載誰知遍界不曾藏。

埽衍慶石鼓和尚塔多年林下仰高風翠堵今看繞碧叢自恨一身貧徹骨遠陳杯水獻雲中諸人還見衍慶和尚麼滿天風月清如鏡十里山花展笑容。

弁山且拙和尚訃至晤別兩周逢夏五一回笑語一悲音松山有約來看塔竹杖何期去別岑幾見彩雲翻白雨誰知遠淚落空林言言不盡傷心事只在梅檀篆靄深。

白雲大師訃至昔遙百里同參訪今隔千程得訃音廿有二年端的意一爐香散白雲深惟我白雲大師律持五部教博三乘每訓英賢不動推辭之念幾興名剎毫無眷戀之心視富貴若浮雲等生死如夢幻業日富而譽日彰德彌修而行彌著借海口不能少分宣揚採蘋繫聊作真前一供大眾你道大師還來納受也無揭諦揭諦波羅揭諦。

埽松遊二師塔薙染十天方纔得見戒同兩月即便分離然雖久遠睽違宛爾音容不隔大眾既是音容不隔且道二位是何面目煙霞錯落籠芳芷竹樹參差鎖翠巒。

埽雲際寺諸耆宿墓千里歸程日夜催滿腔心事付蒼梅髮雖不在當山落源遠還從此地來祭埽宜先知早返參尋恐後故遲回今朝依舊空雙手餽借山川茗一杯。

埽藕家衙始祖福一公五世壽三公六世大學公諸祖墓三百年前昔人已乘白雲去此地惟餘綠水流三百年後綠水一去不復返白雲千載自悠悠誰道山無主松杉成上古誰云祖不靈沉速對朝焚非圖探本尋源祇要大家委悉一年一度秋風涼天長地久有何極。

埽五里潭七世祖諱昇嚴家觜祖母倪氏墓七世遠分流家聲惟自起嗣後裔更繁源源渾不已孫為學逃禪見性在雲水一物不將來梅檀焚海底問諸人委不委花開五里潭果結嚴家觜。

埽林家冲曾祖榮軒公畫眉冲曾祖母嚴氏墓昔日曾瞻葬祖翁今朝重謁翠微中山山水水拈為供莫謂緇衣奠不豐箇中事許誰通一片金環石上月夜來長照畫眉冲。

埽畫眉冲祖父青城公祖母劉氏墓崇禎壬午清明節大父母焚祖塋側康熙王子中秋時燭剪畫眉山上月拜別雖經三十年日日何曾有閒隔沒閒隔端的別祖意明明不覆藏箇中消息向誰說。

埽五里潭先考百亨公先妣王氏墓齊家國睦里鄰偉矣諸儒傑出教子孫習禮義良哉百世芳流曰佛曰仙惟勤惟致事生事死誰重誰輕誠不忝嚴陵之後裔端無慚王母之遺轍雖子不談父義然兒豈譽母賢祇為兩袖清

風別去那期三十載半肩明月歸來奚止數千程因遵割愛之言敢動號風之慘惜其素手罔極難酬一瓣拈來四思總報大眾見麼五里潭前金鳳舞仙人石上玉鸞飛。

徐護法點主花開奕葉綠陰繁遠襲清香遍八坤自是流芳承大業兒孫代代起家門。

沙彌剃落人生未易得為僧將相由來所不能一斬青絲絕愛憎丈夫稱贏得師名繼祖燈 付衣著佛衣成佛子行佛行證佛果總在一念之間端的還曾見麼揭開箇裏明珠照破山河朵朵。

沙彌剃落為離生死叩青龍自古僧形髮不容豐艸堂前都鏟卻頂門迸出一輪紅 付衣堅固通身簇錦奇魔軍戰退樂無為驚群須是英靈漢敵勝還他獅子兒。

沙彌剃落出家初不為虛名名若虛華道未親直把虛名拋格外虛名不與自成人 付衣孝名為戒忍辱為衣佛佛授手祖祖行持直下薦得不隔一絲何也自從盧老收歸後須信人人總有之。

沙彌剃落白髮三千丈緣愁似箇長金刀時一舉熱惱化清涼者般事豈尋常皓魄一輪滿緇田九穗香付衣羅紋結角錦層層一縷龍披伏大鵬三事全身被股肱仗師承標榜人天有路登。

沙彌剃落除愛結著鞭先髮斷青山入善權昨夜春回空劫外覺花香綻玉壺天 付衣酬恩有著柔和因明果正發向上悟無生形端影直然則信受奉行合作麼生一塵不染萬法悉皆空。

抱拙大師封龕霽碧星河冷浸天垂楊兩岸鎖蒼煙梅梢月落珠簾寂畫閣香銷石鼎寒惟抱大師踞涅槃城長法王家足整三千天然有不肅之威儀仁育四來法爾具無緣之慈愛生鐵鑄成金獅子巧拙渾忘純剛打就玉麒麟功勳不涉到今日金磚落井稱錘到梢俊也彩鳳冲霄茫乎羚羊挂角直得妙協全開歷歷塵中混跡平懷常實明明炭裏藏身當此之時如何結局夜半金烏啼徹後桃花依舊笑春風。

闔然大師封龕畫樓鼓適轉三更忽爾東風海岸生浪涌千尋撼石嶼煙橫萬里障沙城凋零柳線愁多起冷落梅花夢不成堪惜上林慧月殞更憐巨浸法舟傾山川變色天垂淚鳥獸易顏水咽聲此際相逢何所事卻將簾幔挂斜曛秉炬舉臨終偈云今年三十五倒跨豐干虎縱橫不犯鋒遍界無能睹者漢生平倣投子之清節效大梅之密保日用間囂囂然而不與諸塵作伍逗到臨末梢頭略露些子風規使人與非人咸知本有且作麼生與他相見[○@火]鑑。

靈枝大師起龕陽春有腳不居一隅而芬芳萬象無言卻借長空而吐露惟靈大師智足超宗仁能纘緒青谿演派飛海底之紅塵荷玉分流翻山頭之白浪紀綱法社則玉應金春宴坐人寰則鳥閒花靜方囊錐之露穎遽寶鏑其潛鋒蕙帳冰生不勝怨哀猿鶴蘭帷冷落誰當依止水雲欲冀北斗藏身

何如南山轉步序鴈行昔忝居左論賓主今猶在先以手招云靈老靈老隨行踏斷流水聲好看寫出飛禽跡。

秉炬鶴騰霄漢出銀籠功盡超然體皓融帶月一聲和露冷靈枝任運剪春風。

穆堂大師封龕恭惟穆大師儒門俊傑釋苑英華繼孔氏之真宗傳家赫赫接曹源之遠派波浪滔滔半世深潛遠追鐵笛遺韻一生鯁潔實有紫芋餘香滿擬望隆迦葉那知岳失空生爛柯山忽添悽慘之色蒼梧水頻增哽咽之聲長夜鐘沉石女聞之垂淚晴天霧鎖木人見也攢眉雖欲舊話重圓爭奈全身拶入大眾要見伊全身為人麼封龕云夜半一輪當戶照珠簾倒挂影玲瓏 起龕日出連山黃金鎖脫出重關月圓當戶芳草幾曾迷古渡直饒是坐斷千差又何妨密移一步阿呵呵紫羅帳裏懶盤桓佛祖位中留不住 秉炬別桐山兮勢且壯過梅嶺兮眼何高葉歸根兮覆青艸雪飛片兮點紅爐出廣長舌兮一朵優曇火裏開轉大法輪兮三世諸佛立地聽穆老穆老從今唱罷無生曲還來助我主禪林。

石鑑大師訃至二十年前同志參禪奔南走北兩各一天二十年中同嗣青龍抱道守志一西一東二十年後忽聞報訃暗室燈殘狂瀾舟覆傷哉傷哉已矣已矣雖則同條生卻不同條死夜深明月上闌干梅花掩露淚如水。存焉和尚訃至十二有人來帶得國山信法門砥柱傾同行鴈折陣慧命若懸絲眾生薄福甚我傷天淚流我哭天心震願不倦津梁再出那伽定參玄人早精進百歲光陰只一瞬。

四可闍黎啟龕六十四年與麼來吳江波浪吼如雷六十四年恁麼去不斷雲連天外樹正溜麼時誰共委坐斷千差不是你月娟娟而萬派欲激風拂拂而六窗自啟半肩竹杖敲開幾處雲山一繡艸鞋歷盡百城煙水以六度萬行而為基階將淨智光明而為棟材鬧市場中忽轉回依然落在白雲隈者雲隈不是汝安排遂捩杖云闍黎闍黎隨我來 舉火緣暗紅稀獨露道人活計猿啼鶴淚全彰古佛生涯於此明得生而不生皮膚脫落性天真於此不明滅亦非滅滿目風光頻漏泄四可公微不徹擲炬云瞥。

和鼎知藏火夢冷西風楊柳煙歌殘曉月江天水生也死也沒兩般來兮去兮何彼此五千餘軸總閒言一藏由來是故紙○者裏若解再翻身玉鸞和燄衝霄起。

月松田頭火披起青蓑一任穿雲帶月撐開綠笠何妨覆地遮天正當布種耘苗便乃收因結果既到者裏合作麼生咄咄咄莫狐疑月落松梢鶴夢遲大地掀翻誰作伴菊花開口笑東籬。

善持寮主火值雨來時眉生眼上去時眼上生眉感得上蒼垂淚引得送者拖泥要知箇裏風光一把無情善持。

典座火如來禪祖師禪拈來盡在薄刀邊斜批明月和光煮細切清風帶影煎沙裏油兮須自肯醬中蟲也任人傳回頭忽唱還鄉調一片紅霞吐白蓮。

了心火頭秉炬了心禪德會麼你終日跛跛挈挈苦骨勞形或吹火因風直使柴頭發笑或將薪掩燄從教灰面生煙汝還知冷灰裏豆爆麼擲炬云轟。

聖源禪士火梯山涉水艸鞋穿行腳橫挑杖半肩不愛教中稱義虎卻來林下學逃禪掌記室追南公之墨蹟充客司步顯老之衡權要識轉身一著且看覲面親宣腦後圓光高萬丈煙霞染就杏花天。

悉慈禪人火箇事分明說向誰玄關叩遍貴無欺行殘白日居雲晚坐冷青燈臥月遲一片風光藏兩目萬重嵐色挂雙眉挂雙眉燄裏翻身看悉慈。牧童火曉牧綠楊深處暮歸芳艸谿頭四蹄踏斷一天秋閒看西風美柳對客慵為扣角月明高臥山丘露地僥君成白牛繩頭端在吾手擲炬云走。冰輪火凍雲千尺帶霜葉以飄空冰鑑一輪照樵樓面疊迴盡是轉身消息居然脫體風流冰輪汝還知脫體風流麼煙散長天拖白練花開陸地長青蓮。

僧守心火木落山寒正是歸根消息霜清露冷誠為得旨規模化城幻景休貪寶所真棲不遠但得虛襟無礙自然撒手翛然看取眉毛長丈二何須更覓守心人。

獨朗都寺封龕斜搭袈裟著半肩年高猶誦木叉篇光明寂照歸何處雲散長空片月圓惟伊禪淨兼持戒乘俱急輔法社務死生綽有楊岐之雅致護叢林明因果仍效寶壽之規模瑪瑙階前正好擔當重任琉璃殿上無端撥轉輕舫須識藏身原無蹤跡封龕云一聲掩上涅槃門獨露清名揚練水。牧童火踏遍芳叢到眼青斜披箬笠半肩雲一聲短笛和煙冷兩角清風帶夕曛霞飲谿光分瘦影月眠山色露微形今朝繩斷鼻頭脫撒手歸來莫問程。

均被米頭火雲山歷遍孰為儔遠步曹谿習上流帶曉閒閒將粟脫臨風細細把糠浮不圖米熟三更識喜得功成九月秋○更透者重關捩子蘆花和影浸滄洲。

僧蓮果火一段風光本成現蓮開陸地花如霰拈來覲面須親薦莫留戀大冶爐中看轉變。

也魯火爾方十六齡棄俗尋師友經律頗相應死生悟非久燄裏好翻身雲閒須撒手也魯也魯出世因緣尚未周此番歸去早回首。

三喻禪人火翛然一笠遍天涯行解相應妙法華霜老煙成堅固後逢人正好喻三車。

少谿火生從何來谿邊梅蕊帶霜開死從何去燄裏芙蓉和雪露生死兩途俱踏翻依舊眉毛眼上安。

舉火來是恒如來去是恒如去來去總恒如何必更回互不回互火光迸出珊瑚樹。

湛得侍者火家住瓊州大海邊卻來吳地覓生緣轉身不必余三喚自有清風舞翠煙。

舉火越嶺猿啼風色澹吳江葉落鴈聲寒蘆花兩岸澗秋水一帶蒼煙覆翠巒  
慈光汝向者裏會得生死涅槃任去來而靡變今時那畔隨運用而不遷  
於一切法而得自在若或猶豫擲炬云逍遙從此無拘束滿日慈光卻更新。

德喻優婆夷入塔坐斷聖凡路了無古與今四面絕壁落寒暑莫能侵入骨  
云從茲放下閒家具笑看新篁出上林。

僧時雨入塔因透死生關久已拋情識一片為眾心今日方收拾欲識其中  
人須登者一級者一級春秋嘯傲自閒閒花雨飄飄灑不溼。

陳氏優婆夷入塔捨不得兮成漏泄通身放下離生滅不須向外苦追尋箇  
裏乾坤閒歲月。

覺如監收火為眾多年不憚勞因明果正鑿秋毫昨宵結算雖收拾帳底依然  
猶未銷未審如何消得烈燄光中高著眼香風滿逕雪花飄入塔一生持戒  
慙萬事浮雲看破今朝顯露全機覲面休云錯過不錯過無限青山列畫圖  
春光影裏乾坤大。

僧圓淨火圓同太清無古無今淨如皎月非生非滅通身饒是絕無塵看去  
依然猶未徹徹不徹分付祝融為爾說入塔一點靈光本自圓何須向外  
覓言詮巍巍獨鎮乾坤小嘯傲春秋不變遷。

玉之行者火志大慕叢林肯羈菴與院薙髮已三年事師無二念一程未到家  
超然登彼岸饒是玉無瑕也須經煅煉此番歸去來莫把紅塵戀。

玄溟監收封龕多年為眾半世焚修晉謁名山化導不分僧俗相股肱叢席  
慙只究死生期鑿飲耕餐而頭頭得妙鋤雲種月而處處分身叵耐今時  
不古即從忙裏偷閒君既然寂靜龕中我寧惜封加戶上遂拈封云一片白  
雲橫谷口了無形影落人間舉火萬事翛然無一說好看燄裏飛霜雪西方  
此去早歸來再與叢林作軌則入塔玄閣黎頗真率翛然生死無拘束  
多年為眾不憚勞今日藏身在隆福悠悠嘯傲老林泉坐看山青與水綠。  
玃明禪人火春風漏泄百花香春鳥喧鳴白日長極目無非安養國何須向  
外覓西方急轉步莫悠揚但得通身絲不挂自然彈指到家鄉。

德基尼入塔一夢破浮生了無人與我萬緣既已空榮辱難羈鎖德基尼會  
也麼人間天上此為尊十丈蓮開華一朵。

僧德明入塔緇也素也惟德惟馨來兮去兮非明非暗千差坐斷萬緣空一  
念不生全體現。

普同塔落成眾亡者入骨千派環來圍翠堵萬山擎出繞煙霞湘南潭北何  
須問生佛從來共一家。

舉火爾虛爾虛良可規模出家十載志不移初今日轉身歸去也人間天上  
總無拘。

德茂火連日雨淋漓偶晴送德茂霞光陸地生蓮花燄裏笑未審笑箇什麼  
擲炬云道道入塔日月高兮莫能照山川易兮莫能移驟雨至兮莫能溼

嵐風撼兮莫能吹四無壁兮孤迴迴中無門兮峭巍巍既無門與壁此又安甚處雲藏無縫襖花發不萌枝。

僧法忍入塔八十五年光陰一瞬生死去來夢幻泡影若從者裏拶開方證無生法忍。

德壽優婆夷入塔昨朝脫卻嫁時衣今復披雲入翠微識破繁華都是夢坐看山色轉斜暉。

知幻禪人入塔知之一字眾妙之門踏翻關捩迴絕言論撒手歸來無一物青山何處不稱尊。

明宗入塔高而無上廣不可測浩浩波光重重山色坐斷千差互古今風光遍界有何極。

上善優婆夷入塔七十餘年上善生死光陰如箭今朝撒手歸來贏得春風滿院擲骨云薦。

僧慧日入塔迴絕遮闌不存向背放下通身得大自在一輪慧日麗中天皎皎晴光敷萬卉。

入塔生緣西蜀行腳東吳煙霞飽飫城市安居涵毓公會也無六十四年成夢幻轉身直入大毘盧。

眾善信入塔寬若太虛無欠無餘量周沙界非內非外任他若聖若凡若男若女俱到無陰陽地上同行同坐同明同暗任意逍遙渾忘人世雖然相逢相聚笑呵呵更有春風春又春。

入塔不必望梅止渴何勞畫餅充饑但肯身心放下自然得證無為望梅居士知不知轉身不踏來時路滿目青山第一機。

楊君仲入塔高林山色好百卉吐清香不須尋淨土覲面即西方會得則薰風影裏春初去不會則流水聲中月乍還畢竟如何大悲千眼莫能看。

僧聞覺入塔燄裏翻身清香拂拂體證金剛了無變易其把住也煙封霧鎖其放行也雲白山明正恁麼時還是放行好把住好薰風一陣自南來聞則清涼覺時現。

入院埽瑞祖塔五十年來清風匝地大千界內朗月當空欲盡大地人不許夜行投明須到獨有操孫冥頑不振忝繼祖席燒一瓣香奠一甌茗貴圖此話大行若說道無可比德無可名猶是太虛面上畫彩增妍且向何處見祖端的鐵蛇橫古路彩鳳舞丹霄。

退院埽瑞祖塔前年繼祖席不辭赤手挽隕綱今朝退祖席剩得孑身存古道惟其如在規矩森嚴緬想風神描畫不就未若茗烹三箬供列五峰恭陳塔前聊循家禮今古酬恩是此心莫言臨別不如舊。

赴弁山龍華寺請埽百老和尚塔臨終顧問誰為守塔三年應對全無我到傳聞矢志追陪十載風霜獨任餐霞宿露惟聞虎嘯猿啼砌石栽松只見雲來月往盡道廣長舌現那知頻喚人歸雖鄙願將周敢忍離左右奈祖庭催赴故暫假權伸我昔本懷時略露師今心事幾能知。

龍華退院歸埽百老和尚塔去時一肩明月歸來兩袖清飆不欲撩雲作供  
只憑拾翠成肴非是情疏禮簡卻還舊日遺標。

埽百老和尚塔一年一度焚香日焚到今朝二十年汛埽栽培無別意惟期  
大願力重圓操已老師未還法門敗壞不堪憐撫膺隱隱誰同語九拜臨風  
訴塔前(老人曾有二十年再來善權之語)。

櫻寧和尚起龕大道寥廓如珠走盤宛轉偏圓無往不適而況千巖拱翠萬  
壑流輝者邊那邊隨緣得妙盡謂朝來留不住相知豈在久盤桓 舉火西  
風一夜洗穹蒼誰道江南失鴈行露冷烏啼千嶂月更深猿叫一天霜惟我  
櫻兄隱顯全該故生平用不盡一著子今日當陽顯露一切人攀陪莫及鑽  
仰徒然直得向火燄裏大奮全提別施機用要與兒孫留榜樣光前耀後一  
莖茅 入塔護國寺中踏翻雪色山陰道上占盡風光時或電閃晴空應機  
而發花飛六出隨類而施時或藏舟於壑藏山於澤藏天下於天下提骨云  
者個藏在何處丹樓凝曉日碧殿鎖春雲。

雪大師入塔三十年影不回鄉二六時情不附物雙足跣趺處隨他黃葉墮  
空庭一肩放下時不管青苔封古殿生前克己道韻悠長末後為人聲光藹  
著。

寓大師入塔五十二年無可說溪聲山色常饒舌今朝北斗面南看楊柳清  
風與明月此是者漢末後行藏等生死若浮雲視去來如夢幻逗到而今密  
移一步銜花鳥自難尋跡孰謂將身北斗藏。

空明火來自何來香飄雪裏綻寒梅去從何去潮落江邊橫古渡來去分明  
俱擺脫摩空萬里飛銀鶴於中若解再翻身燄裏芙蓉朵朵新。

素聞火懸巖頂上抽身不留朕跡荊棘林中轉步迴絕程途縱然與麼行持  
未得通身慶快素禪德要識通身慶快麼雨洗長空流翠色煙籠寒碧淡山  
光。

聞初柴頭火不貪仙著爽幽尋頻縛蒼煙下翠岑夕照半肩山色老清風一  
徑暮雲深急轉步謾沉吟今朝尖擔兩頭脫撒手歸來月滿林。

內照火生死全憑內照功五更夢破一聲鐘轉身獨唱還鄉調踏斷千峰與  
萬峰看腳下且從容春到花開翠色濃。

入塔一笠翛然別戴山悠遊教海瀉潺湲縱饒談得天花墜又隔機先第一  
闕文振法師要透關麼入骨云白石無寒暑清風任往還。

舉火庫司多載盡忠勤聲價清高是處聞收拾瓢囊歸嶺去行藏猶勝賣薑  
人。

入塔六十三年前一肩推倒世塵緣六十三年後兩手拓開生死路正值在  
今朝虛空築岸架銅橋生白公會也未霜曉庭前花滿地。

僧逾玄火八十六年一夢回春風是處鳥聲催真機歷歷分明露○箇裏縱  
橫歸去來 入塔佛不是心道不在說彼此同途行藏各別既然彼此同途  
因甚行藏各別入骨云歇。

雪谷書記火非是無言說談玄口不開倒跨鐵牛走乾坤任往來喝一喝云  
切莫錯會大眾此是雪書記把斷要津不通凡聖最後為人一著子今日當  
陽揭露了也儻或遲疑更須諦聽哀哀哀誰委悉子夜金烏輝雪谷折腳鐺  
兒要汝提此番歸去須來速。

入塔紅爐燄裏翻身轉一道清光燦太虛坐斷千山峰不露渾忘寒暑到階  
除。

離塵優婆夷入塔昔日離塵脫垢今朝息妄歸真但得全身放下自然不落  
死生入骨云金雞唱破瓊樓夢鐵樹花開浩劫春。

宛然禪德火落葉紛飛十月天霜花一帶洗寒煙不須更去尋安養極目西  
方尚宛然急轉步莫留連擲炬云薦取天龍一指禪。

(弟子德 備資敬刻

方丈和尚語錄第十五卷所願滄溟浪

裏同乘般若之舟功德林中共結

菩提之果)

寒松操禪師語錄卷第十五

筆語

上百老和尚

稽首拜上國山老人昨夏南樞星降北極虹飛本應隨眾歡呼接足瞻禮緣遵昔命故不敢復徇世諦知在慈育之餘必不罪某慢法耳今雖學眾四來宰官垂護奈人繁用嗇事事維艱勉竭黔駑之才徒效上驥之步以致牽縈坐是舉動靡能久失玄音羹牆更切敢馳微楮代訊興居花稻收成略勝去歲國稅納已過半雖感彼蒼之呵護實賴和尚之蔭庇也聊脩輶敬用表蟻誠刻錄呈刪悚惶不既。

來書附(青龍石刻)

初七接來書云收成略勝去歲國稅納已過半復閱新刻語錄山僧不禁蹈舞居然一佛出世矣兼之青龍一片荒地曩承遠近檀護及前執事人一腔血汗所成幸爾大眾有依叢林有託山僧縱老死丘壑復何憾焉吾子既踞座披衣為一方知識必也匡時挽敝體從上佛祖之淳風以眾心為心以眾耳為耳以眾目為目夫以眾心為心者其量普而無物不容眾耳為耳者其聽聰而好惡之聲無不辨眾目為目者其明遠而秋毫之末可察是以大海不擇細流泰山不讓土壤世出世間其理一也凡接待衲子唯以本分鉗鎚使彼透脫生死機無大小施之以平等法門叢林之興可卜 佛祖慧命可繼為知識者能事畢矣。

二上

教言兩接慈誨彌深捧讀之餘感媿交集況承諭云復閱新刻語錄和尚不禁蹈舞居然一佛出世矣又曰佛祖出世蓋謂得人為急欲覓一箇半箇使正法眼藏勿令斷絕某觀今知識說法雲興不啻萬卉爭奇群英鬥麗某以疏才涼德忝錄師門雖有上堂等語非敢顰效今時不過應酬請者而已奈侍僧不諳竊錄成帙不謂用心未密更被好事者妄災梨棗正是不善游刃反蒙庖丁之稱益增汗顏耳又觀今之學者乍入叢林棄本逐末競習雅騷欲冀行解相應何異龜毛兔角懸絲慧命不幾岌岌哉青龍禪眾邇已屏盡浮華日惟種田博飯雖不能追上古之風規皆沐和尚之餘光而然也時間滿擬月貯龍江雲擔鶴渚趨呈座右以暢積懷齋儀預申伏希原有。

三上

春來福履與日俱新歲首倥傯未遑趨謁曩因台命兩遵尸素數載遭饑遭饑飲水飲湯幾於安眾無策道左之人未免交口而椰榆之今也歲有豐色眾有和聲國稅叢林亦有內託外護之者愧且喜也然主持之道進退以節

代謝以時當此之時委任之限已周休沐之假可請或在座遶賢或遐邇延選伯仲輪肩逸勞宜共同為入室之侶須分法社之憂安忍我獨賢勞而眾咸袖手讀北山之詩不能不掩卷太息且師有言施之以平等法門某亦願師施平等心毋令我一人獨瘁也敬呈偈曰兩度無違領憲言不辭赤手空門人情有進當須退與世還他古道有。

來書附(青龍石刻)

自維揚返荆谿半年以來身如破車腳似飛蓬曾無片晷之暇奈何奈何昨見來書云歲有豐色眾有和聲國稅叢林亦有內託外護山僧不勝慶慰乃子福德所致亦叢林厚幸復何他慮至於進退之節分憂之勞此太早計生然青龍一坐具地已曾兩度鳴鼓上堂人天眾前分付與子並無年月期限之說亦非衙署傳舍之所何乃妄生許多葛藤山僧獨慮普同塔及重興隆福碑賴子協力為我圖成待山僧死後不用作供亦不必下語以此二事酬恩足矣外和偈曰聞說昔人曾有言養兒多為起家門須知不奉原非輔古道無如慧命存。

四上

前六月廿八日拜誦回札若親提命不勝汗惶內云半年以來無片晷之暇不幾為蒼生太勞乎老年神思不宜過繁所望寒暑自愛是則不肖惓惓之心也某自受託以來夙夜兢兢恪守常恐隕越以貽前人羞幸芘餘光勉支三載拮据竭蹶安敢辭勞第苦稟質素孱加之籌慮太過百疾洊侵心欲肩而力不逮為之廩廩師資之情寧不閔念昨同公議某某代主法席修楮報聞候嚴命下頒即齎儀延請一見祖庭重任授受匪輕二俾伊人信行樂從莫諉三使某得少息肩再圖報稱一舉而三善備焉此皆發露肝膈瀝膽陳情仰望北風以慰饑渴臨毫懇禱無任懸懸。

來書附(青龍石刻)

前六月與子書中甚是明白毫無隱匿何故徒勞跋涉枉廢人力子既擔當佛祖重任陞座說法開示後來可謂人天師範矣夫為人天師範者人莫行而行之人莫忍而忍之人難能而能之唯慧命為念弘道是懷以至功流百世名垂不朽雪後始知松柏操此之謂歟今青龍雖不大備僅避風雨遠近檀護皆知向佛亦可化度地僻景幽儘可行道欲舍此而他往我不知子是何意也不及盡言惟子勉之。

五上

某以譎劣辱諭諄諄夫佛祖重任豈易擔當人天師範寧容濫竊易曰非所據而據之身必辱又曰德薄而位尊力小而任大鮮不僨乃事者與其隕越於後孰若規避於今再四籌維心神俱耗而夙莫靡寧者此也來諭云行人所莫行忍人所莫忍勗勵不肖至矣厚矣然返而內訟福慧兩無如觸藩之羝進退維谷欲逡巡謝事難追方命之愆勉力重承又獲辱命之戾兩者之間無所逃罪時權其重輕則方命罪小辱命罪大寧處小而避大所恃慧照矜其兩難開其一面庶幾天高地厚之中稍可容足儻仍不允所請惟賦歸

去之辭縱臨嚴命不違顧恤極知狂瀆必犯雷霆願霽威曲原憐而可之則某幸甚法門幸甚。

來書附(青龍石刻)

青龍一剎悉屬檀護脂膏所為與山僧何預焉況山僧於人天眾前兩次委付與你無不知者故爾放浪煙霞息影巖壑以待殘喘而已且維揚荆谿二處葛藤尚未剖斷何暇復顧慮於青龍者哉今而後更以瑣末事煩亂山僧者作不孝論至囑(至囑)。

### 與坦菴方學士

鼎台嚴重望風度者物色無由幸方外人數獲抵掌迭蒙供賜良繇桑梓情深故爾垂青破格山野無他于請惟先師塔銘是用表章雖名卿鉅公與師交游者往往不乏咸欲吐班香發宋艷為先師潤色然山野之意但祈徵實母取增華計唯檀護交師最密知師最深華袞之筆當代史遷法社董狐一經品題便成實錄俾千百世而下信大檀即信先德信先德始信參叩即參叩而悟本來令先師一片婆心人人透徹其為表章非止筆華墨燄供人豔賞已也昔張公為湛堂作銘流譽至今檀護又等而上之矣區區之私向己面陳隨蒙俯允今登玟在即遣僧走領以光不朽謹愧腆儀統希莞存。

來書附

交游方外三十餘年前蒙開導捧誦法檀悔悟遲矣復諭為令師作塔上之銘況百老人中外知識朝野欽崇疏拙之才奚堪取重勉承慈命權為撰訖書訖外命選佳集已竟復僭弁數言敬付來者幸並察入隆惠遠頒卻恐不恭拜登容謝。

### 答檀越借牛

踰月不聞音信正此馳思伏領華翰就覓一牛大為疑矣不知公之所覓者露地白牛耶放生耕牛耶若是露地白牛人人本有只因無始以來貪嗔癡妄反為昧卻君但已覓安用他求若是放生耕牛誠私用常住一涉私則為盜豈盜用常住而稱善知識者未之有也山僧自出方外與世漠如雖主法席室無長物不履豪門叢林巨細盡付執事出納支藉無復相聞惟普柳粥飯隨眾而已任緣住持不作常日想然此露地牛放生牛名別體同非一非二總在爾我一心之變化耳嗚呼今之不見先佛模範專事諛媚取招提之物或已用或人情識者憫笑恬然不知斯語若不向公吐露則殆無開口處願公採聽原有不宣。

### 復善權西堂時一大師(附丁未冬來書)

存兄稟質素羸弱且又年來多病不意竟歸寂於善權此皆定分似不可強者弟觀善權奇峰秀水古柏喬松實為江南名剎且佛殿自唐迄今朝凡幾易而巍然無恙豈非鬼神呵護所致耶況又列剎相望龍象奔趨之所非如青龍僻奧禪衲難於往來也故老人遺命建塔善權以為可行道安眾耳然有其地須待其人弟揣非兄主持不足以振起先人之道何也兄知見精確足以服衲子股肱得人可以禦外侮才識淵瞻足以慕士紳所慮者惟錢穀耳但使座下常有抱道衲子錢穀何足慮哉惟冀俯從眾願不虛來請法門幸甚老人幸甚。

老人去後未經三載不幸彼蒼繼喪哲人痛也如何某本道德荒蕪學識疏淺無論仰愧先賢即當世導師機語峻峭博辯縱橫敬嚴法道禮樂文章皆遠遜諸昆仲而愧弗若者也負愧之多於此而來教獨承謬愛者豈信有異乎人之心聽有異乎人之耳哉然雖過譽良多實亦難逃方命之罪況青龍屢辭先人不克是願今尚未得解脫將見銅駝蕪荒艸有日矣祇候方丈有主當容荊請臨風拜謝不盡欲言。

### 與諸山同門

天下有可定不可定之事亦有可定不可定之數今以先師塔基徵之果然不肖未出青龍造塔之念萌之久矣既赴善權造塔之心無刻有間第所難者一坐具地耳四處訪求只潤東茶園稍可小就塔基遂請弁山且和尚起龕茶毘獲大小舍利不可勝數鎖子靈骨五色爛斑齒牙目睛全如故不意上蒼顯靈先人默佑忽於冬初有徽商尋得萬松嶺後一穴願酬重直即被舊住契賣不肖於中竭力挽回將茶園嶺後二地卜之於著龜鬪之於韋駝咸歸嶺後此非定數也耶然是處乃一片童山人多忽略豈天留以副先師遺命乎地近從銅棺山起伏來寺結太陽金星復左抽辛龍一脈聯絡五六水泡翻身逆勢有回龍顧祖之意入首太陰金星開窩吐脣龍虎四五重峰巒三十六逆案重重密羅以拱抱寅艮水源轉巽巳午曲屈到堂歸戌庫入洞口而杳不知去處灼龜者云局勢弘偉氣脈壯麗信不誤矣今觀此地不現於前不現於後而獨現於造塔之期微天之定數曷以至此且今山向甚利又得十月廿四良辰故預為入壙之舉而建塔之需非三百餘金不可時下十未及一不知將來何所措手特遣楮生代為報聞儻貴冗稍間或能移玉塔前一觀始信山靈有待耳。

### 致諸山同門(癸丑九月十九日)

逕啟善權為先老人拮据之地自西歸以來九載於茲奉安靈塔工程未竟操不揆庸劣自竭愚誠黽勉卒事庶以存先人之遺意於無窮也詎意王林竟仗凶威恣行貪噬將圖鳩踞鵲巢何異指鹿為馬借官府之氣勢一日而

封門者踵來倚吏胥為爪牙持籤而驅逐者雲集山門霹占嗟堂構之俱傾香火潛移悵神靈之何託自有蘭若栴檀以來未有弱肉強食入室操戈至於如此之甚者也操以不才謬膺郡邑檀護之請繼席善權三年於茲矣靜守清規勉敦苦行幸無愆失眾所灼知今日避此凶鋒畏其虐燄跳身而去徒手而行將老人苦心基業一旦都拋智不及謀勇不及奮嗟乎已矣又何言哉惟是山場可棄塔院難捐欲去則松楸無主忍聽啼駛山頭欲留則榱棟不存難伴孤鴻月下誠進退之維谷並啼笑而俱難所望於我同門諸友道存傳拂誼切同衣應念在原之急難無忘將伯之助予恩先人墾闢之勤憤彊徒侵凌之慘一瓢一笠冀隨野鶴飛來千水千山豈被閒雲留住諒有同心無煩贅說行將陳情瀝血鳴徹九閭亦且罄竹揚波播傳六宇何忍懸燈之遽滅豈甘花雨之終湮鯨吞既盡即法座亦屬於他人蠶食何窮恐局泉莫保其抔土興言及此殊足寒心凡曰有懷能無奮袂所望惠然來臨萬勿漠爾愒置。

### 復雲間眾護法(癸丑十月十五日)

一別三載坐臥神馳帶水盈盈遙峰歷歷輒隔知己之話言徒勤野人之寤想時詢福履用慰鄙衷茲承芳訊遠頒敢不舉山中異事敬陳左右誠所謂禍出非常魔高千丈者也王林憑恃凶威鑽營捷徑必欲盡踞天下之名山不遺人間之片土嚮年垂涎龍池而不得孰意其處心積慮耿耿於善權而不已也誑求當道賄結吏胥逼奪山門驅逐僧眾慘同破巢而取卵惡等禦人於國門痛念先師一生艱苦經營善權心力殫盡墾荒田者百有餘畝賠空糧者一十五年向之傾頽破碎者為之塗且旣矣向之蕪沒荆榛者為之耕且普矣向之逃亡逋負纍纍官牒如山者為之剜肉醫瘡東支西補追呼無警官民兩安矣誰為為之皆先師一生艱苦殫盡心力為之也而今且鵲巢鳩踞張耕李餐矣然此皆為世俗言之也出家衲子本無所有山河可捨頭踵可捐一切皆空何貪何戀浮塵渺渺何非駐錫之場大地茫茫豈無容鉢之處身與閒雲而共住心隨野鶴而俱飛視彼血戰千場何啻空花一笑所可恨者先師自維揚西歸九載於茲奉命建塔善權蓋生平未盡之願力欲待補滿於將來也故操雖退院讓山明勢力之不敵而修瑩守塔則生死以之假令狼心復逞鳩毒彌深侵及幽宮讎加枯骨操雖至弱至孱無才無力亦必張空拳而冒白刃奮螳臂以當巨輪堂堂官宰赫赫上臺豈容白日青天之下有此窮凶極惡之人或遇廉明執法獲申冤慘覆盆未可知也聊抒積悞以答來鴻容俟飄搖稍定彊暴稍寧更圖良晤再罄餘言。

### 致諸山同門(甲寅九月十九日)

逕啟善權之事灰飛瓦裂一至於此恐法座在遠往來傳聞之語未得其實故敢披陳左右以為一笑善權之有陳祠由宋朝撫幹公捐貲入寺買田常住歿後立檀越木主於寺側每年忌日一祭雖覺於叢林之體有礙而相沿至今多歷年所其勢固難以猝革故老人在日只禁其葷酒雜沓酣醜流連自是僧俗俱安十有餘年矣不意玉林攘奪之計已行貪婪之心無厭鵲巢疆踞既操同室之戈矛臥榻安眠豈容他人之鼾睡遂以吞占僧堂道院之故智復施之於陳祠百計多方令其折毀以詐誘之而不得以勢壓之而不從乃於九月十八日者乘其忌日公祭通族之耆長咸萃於祠揖拜未終拳棍猝發陳氏之眾披靡而遁遂乃焚其主撤其宇棟牖垣牆頃刻而盡於是陳氏之眾人懷義憤之心家有報仇之志不呼而集不約而同霜戈齊奮烈燄熾飛既僧俗而兩傷復殿宇之俱燬吁可哀矣尚何言哉善權之大殿重建於唐之大中陳氏之木主始立於宋之嘉定歷寒暑而無遷閱滄桑而不改至此而俱付一炬同為瓦礫悠悠蒼天此何人哉迴思去年攫奪之時勢燄熏天英雄蓋世大地河山盡歸其掌握百千萬億莫遺於錙銖法堂鐘鼓變成戰鬥之聲獅象山門視為篋囊之物今安在哉亦可媿矣雖然疆徒之自作自受既惹孽火以燒身吾輩之旁觀猛省亦如冷水之澆背試看昔日之峨宮大剎今日之敗壁頹牆也昔日之瞋目張拳今日之焦頭爛額也昔日之鯨吞虎噬滔天燎原今日之斷煙荒艸幻影空花也言念及此惟有戢足深山藏形窮谷豈可復與彊梁之輩角逐於血肉之場貪癡之人較計於沙塵之末此不肖之所以棄道場而不顧委塔院而弗爭未必非止亂禦暴之良術也時因便郵率此陳佈仰祈高座勿吝惠音。

### 辭荊谿眾護法(乙卯正月初十日)

貧衲自前年九月受彊暴之侵凌遭兇魔之迫脅漫云操戈於同室實類禦人於國門彼以爭鬥而來我以退讓而去山門法座竟屬他人方丈蒲團忽焉易主此乃塵劫之稀聞抑亦叢林之劫見者也所幸者先師數年之拈据尚留有待於將來貧衲三載之修持可告無罪於大眾攜瓢獨往心隨秋水同清振錫重來跡共白雲俱遠江湖空闊容鷗鷺之飛翔林壑幽深任鷓鴣之棲息跳出是非之海移來安樂之窩聊寄北郭一枝即全西方淨土谿聲山色觸目如新鳥語花香依然似舊笑彼癡愚攫奪自云萬祀千秋誰知轉盼之間已有灰燼之事金戈鐵馬不聞法堂鐘鼓之聲冷火寒煙豈睹蘭若樓臺之影黑燄熏天昔日之貪嗔何在枯骸蔽地今朝之寂滅誰憐始於爭奪者終於焚殺始於攘臂者終於挺刃始於一念之燄者終於燎原之火非獨人事之必然抑亦天道之無爽何意斯人乃昧茲理彼雖身致其殃吾實代為之媿痛念幡幢片席戈矛遽至於斯靜思衣鉢同源狐兔悲何能已所以遙瞻遺剎每惆悵而不前回望故山輒踟躕而卻步者也茲承各位大檀越地方諸善信憫千年之香火無依喜一日之煙塵乍息還推貧衲復住

善權此皆護法之虔誠亦是空王之默佑但在某千遍圖維萬難如命者孤飛野鶴安能再入攫食之場出岫閒雲豈可重游湯鑊之內況乃頽垣碎瓦殊難佈地而成金敗壘荒畦豈易鋤雲而種木龕燈夜火何堪遍照宵燐山舍空廚豈足散施饑雀在昔日補殘葺敝尚未臻厥成至今日舍舊圖新應更難為力伏冀大檀越克成善果廣求善知識弘啟道場將見山頭柏影依舊凌霄洞口泉流仍前戛玉香臺嚴麗琳宇輝煌庶幾法輪不墜人天交慶於無疆蓮座常明道俗群歸於有象在貧衲私心克慰彌切瞻依即先師願力終成何勝忻荷云云。

### 請靈機大師(乙卯三月十五日)

善權一席自老人駐錫以來十有餘年矣拮据維艱補葺稍就其未完之願力實有待於繼續者也乃存公嗣登法座遽爾西歸貫兄再繼禪林翩然遐棄由是眾檀共推不肖黽勉從事庶無隕越以遺羞競業自持敢謂恢弘於前烈奈何道未高也魔已隨之鵠有巢乎鳩將踞之彼王林者騁狼心於一往營兔窟於多方謬云清淨實行攫奪之謀罔曰尊卑竟恣彊僭之術獅王象祖幻成鐵馬金戈貝葉蓮華翻作刀峰劍嶺不肖自愧疏庸殊慙蹇劣固應避此兇鋒豈可撻其毒箠拙筇而去鷓鴣自寄於一枝掉臂而行鴻鵠已翔於千仞曾幾何時天暴其跡正云孽自己作妖由人興嗟何及矣謂之何哉所可惜者千年之棟宇倏爾無存百代之祖庭渺焉何託茲者風波稍息灰燼方除郡邑紳耆望幡幢而遐跂往來知識瞻檜柏而長嗟謂頽垣碎瓦之餘猶可重興蘭若思冷火寒煙之後何難復睹香臺瑤函累牘寶札連篇挽出岫之孤雲返故山而再住雖眾信之虔誠實萬難如命者然念先人之餘願未終禮菴之工程甫訖聽山頭之啼駛豈甘華雨久湮顧洞口之流泉何忍法輪常墜必有高賢克成弘願自非碩德曷濟艱屯恭惟某老大師修持有本法力無涯誼均同鉢能無水源木本之思望重諸山可堪起弊扶衰之任仰冀大慈俯從群請惠然肯來快睹人天之有主不我遐棄忻逢道俗之攸歸三華四樹常瞻高座於人寰萬嶂千巒豈阻孤筇於天末將見翠樓紺殿法鼓重新白石流泉松風似舊此誠無量之善緣莫負群情之切望不獨慰遺構之有成亦且慶傳燈之弗墜。

### 與明因眾大師

顯聖為曹洞滴宗祖庭為規矩所自出非如草菴木主易僧更派換主遷宗者比也若乃祖堂牌位為左右昭穆住持先後所自定百世不祧千傳無改孝子順孫莫敢擅便爰是住持有住持位外刹有外刹位何乃顯聖竟將一不住持之牌位混入於住持位中此古所未有而今初見者也據云明因牌位係西遯居士為令師謀住顯聖有礙不得已而以牌位插入於中為一時

之掩飾其說妄也且明因牌位愚菴老人主法時送入上無住持二字愚菴亦不送入住持位中何待愚菴示寂後煩西遯送入住持位中非惟不能與明因增光適足以取辱明因耳萬萬無是理也厥後住持四易未聞有異議至佺和尚鼎新祖堂勒有貞玟不住持者只許供傍楹碑文俱在其可忽諸是明因牌位斷無混入住持之理也明矣承諸位力移於旁楹以息眾議明因一枝殊堪慶幸俾死者得妥於九泉生者得沾恩於一面窮於法者俾通於法法門護法公其人也恐我回弁山後或輕信誘言復搖牌位混亂紀綱諸山共舉問罪之籌齊集祖庭之內有累令師難嶠眾位幸熟思之慎毋輕動。

### 與善權主人

昨有禪者忽來告假某詢其故則云有要移老師靈骨過嶺建塔又要拆庵赴彼故預為之計某以茲事非可懸論建塔之舉固將計日而成功出菴之圖何事望風而退避用敢披陳本末仰瀆左右者某自辛亥應請善權即為老師擇地買山開基建塔此雖弟子之恆職抑亦老師之遺命也老師臨終諄諭每在善權一片石但使窀穸無虞松楸在望則繼嗣者之心可以無憾而老師之志亦可以少慰矣然風水之吉凶著龜之從違眾論之僉同與否固未暇深計也其時屢呼將伯未聞慷慨而助予念同門疇能黽勉以從事同衣之來者不過九人捐貲相助者四十餘兩餘皆親知告貸那東補西尺籍具存片言無誑況乃凶魔突起致使善權一席委於荆榛瓦礫之中而靈塔巋然無恙非獨老師陰持默佑抑亦善神有以保護於無窮也至於禮菴之建一椽半甍粒米銖金從未有樂助之眾在家之祖業變賣湊用者有之數載之拮据木頭竹屑者有之今欲別營塔石遷移靈骨者不可謂非純孝心腸菩薩願力嗟乎人之欲善誰不如我我以福薄才疏營建未能竣事奉祀未能盡誠方在夙夜疚心之際他人有能代終厥事者在某亦可以少追其辜也但前此之勞吾實勞之前此之費吾實費之今既廢而不用舍而他圖某當措處來金奉還原助則塔菴之一石一木皆我之所自為之他人無預也俾得二三知己悠游率歲於其間而禪者何必去我亦何必留哉統祈上裁佇聽垂示。

### 請北溟大師

伏以靈鏢藏鋒待贈於善器之傑慧燈吐燄必耀於熙世之時緇素咸欽天人共仰恭惟某大師座下智廣道高聲尊德邁胸羅星斗而宗律雙融舌捲風濤而韜略兼備芳標明於大鑑清範重乎連城誠末運之良規實狂瀾之巨筏也某蓬蒿短翮譎質庸材承乏當山深慚影於墳箴之列復膺國岫願安師於塔石之間謹當遜位推賢用是齎書迎駕恢宏道力勿吝仁慈白鶴

翔南盼錦帆而速屆青龍佇北企金錫以遙臨震法雷而寒巖競秀施甘雨而枯荻爭榮不勝翹勤顒望之至。

### 復同門

伏以節屆中秋丹桂香來雲外律當南呂黃花信報人間物類含輝天時協吉恭惟某座下崑岡良玉合浦明珠金鍾匿彩囊括九峰之秀寶鏡弢光胸藏三泖之清新豐賴以流芳靈隱借之垂蔭實古今弘範緇素良規也某白社散人皖城末學忝居祖席代庖已越多年虛度韶華幻夢叨生五秩赤珪競守自知荷負門牆紺宇少加敢謂肯承堂構金飆曉發玉趾遙臨冒雨衝江誠若掉舟訪戴披風越境心希懸榻下陳奈信宿不留繾綣之餘情猶耿筐筐遠疊慙之厚誼何申臨楮神馳肅謝不盡。

### 賀同門

伏以菊綻三秋百卉毓芝蘭之秀星臨九月千峰騰珠玉之輝天和既萃於長羸人類咸蒙乎康阜恭惟某座下胸羅寰宇氣冠諸方明暗隨機露秋光而藏春色主賓全用看北斗而面南辰德揚國岫之聲今猶載道法兩天華之頌早已曾聞振回末世紀綱復古見時禮樂某株守海涯徒懷山仰欲瞻風度莫罄雲從九頓荆谿遙致華封之祝三熏寶鼎載賡魯頌之章謹獻蕪言少申微悃專祈慈納不盡神馳。

(弟子德 備資敬刻)

方丈和尚語錄第十六卷惟冀現前緇

素生生悟自性圓明法界含靈各

各獲常光瑩徹)

寒松操禪師語錄卷第十六

像贊

經寫彌陀

有聲其默有儼其容瞻之仰之以翼以通無煩海口雷音而梵唄嘹唳不  
借龍劑兔穎而字意玲瓏東西接引兮指諸掌風月貫穿兮意莫窮珍重  
仁人高著眼一池香散白蓮中

圓通大士

目貯千山翠旭容開萬井晴嵐善財南去少人談獨對風清月澹謾謂相  
逢無語梵音滿耳誰諳金鱗日日躍花籃六月何曾怕爛  
江風吹動海雲飛默默無言接上機踏遍煙波閒似我翛然獨立對斜暉

初祖

逕庭之機人不曉一葦翩翩過別島踏碎波心月半鉤清光滿目漾寒藻

十八羅漢

落落千峰之客悠悠四海為家鬚眉姿致飽煙霞各適風流瀟灑或笑或  
吟任我人嗔人喜由他宥詢近日甚生涯向道知音者寡

雲門湛老和尚

卓耳受南宗之喝甘心屈慈舟之膝未明舉一舉二便要驅耕奪食提向  
上以當生平除放下別無消息不知鬻好傷人盡道腸如弦直斷人性命  
不假刀見人家財盡沒匿不可規模如何取式自有禪道以至於今幾曾  
見有箇樣不近人情的知識

弁山瑞老和尚

忘其尊德重不言而化忘其貴道高不怒而威不重翁九坐道場十會說  
法先分衣鉢預定歸期重只重走天下之雲水未許揚州彷彿策天下之

龍象那容越國依稀啼不是舉頭天外客爭瞻明月上花枝

### 青龍百老和尚(青龍石刻)

抽雲門之顧鼓荷玉之浪奴兒臨濟婢子為仰夫如是乃人天之災慧本  
佛祖之禍殃胡為乎名喧異域聲震遐方故知魚之能躍鳥之能翔如師  
之道神龍不足以諭之一芒畢竟如何春風來大地萬卉盡傳芳  
春霜面貌秋月丰神徵今有道鑄古無情參臨濟禪而口吞臨濟悟雲門  
旨而氣傲雲門肘後佩靈符妖魔咸遜跡眉間懸寶劍狐兔早潛聲為法  
為人一片襟懷深暢徹樂山樂水滿腔肺腑已頻傾真風難禁流芳遠挂  
向雲堂啟後英  
霜顏凜冽雪鬢交加燈傳百丈席繼龍華陷虎之機毒超黃檗劈佛之手  
辣逾丹霞弘開祖道風迴遠截斷江流日又斜一曲新豐酬滿座鳳麟濟  
濟遍天涯

### 自題

從無伎倆振家風白棒頻拈掃太空更若懷中疑不了何妨問取賣油翁  
髮染嚴霜形同椎魯七處開叢席至勞無功數年住弁山於事無補捻雙  
空手只期後哲為型惟一赤身欲與前賢繼武德有所慚言無可矩動靜  
既不能以周身春秋怎配享於祖父(龍華常住請)

鼻孔昂藏齒牙疏缺少喜多嗔將南作北棒驗龍蛇枉費神言分玉石徒  
饒舌值茲末世澆漓半是倚彊行劫自罪引他毀堯譽桀莫若釣皖水之  
白雲躍赤尾兮化風雷而嘯月(白雲常住請)

頭鬚鬢眼卓朔遍剎塵無定著兩浙三吳鳳翥龍驤七處十會雷轟電爍  
呵臨濟未是白拈罵德山漫稱老賊有時掘地覓天瑞現優曇有時指迷  
鋤逆聲鳴寶鐸嗔譏直與爾無干好惡從教人貶剝莫莫莫祥麟只有一  
隻角(天瑞麟請)

磊磊落落瀟瀟灑灑有耳似聾有口似啞適其性日霽風清逆其情雷轟  
雨打乍嗔乍喜秀抹深山之容忽後忽前輝聯明月之雅得人一牛還人  
一馬不比尋常之乎者也(秀也實請)

氣少神情骨非聖彥怡聞其名怕見其面吹布毛為法施琢璞玉為瓊弁  
忘恩背義者穆以春風抱道守貞者激以雷電若還格外英靈決不隨他  
轉變欲詢者漢真偽古道從來一貫(古璞玉請)

貌不驚人語亦無味聽教弗明參禪不會念子曰而古板苔生演摩訶而  
胸襟茅塞呵佛罵祖時絕無德嶠英豪千人萬指處偏合寒山火隊空中  
花摘殘水底月撈碎弁峰麟鳳滿乾坤不信愚蒙惟此最(子了英請)

尊之弗為榮毀之非謂辱只探如來藏不入如來室須彌剖微塵明珠作魚目有問西來大意向道何必不必丹桂風搖萬樹金青山月皎一團玉  
(剖塵靜主請)

秋雲一衲春水一鋤爭之不足讓之有餘一片野情無處著高山來釣放生魚

臞瘦骨稜稜通身無見解探遍諸方禪未常輕納敗只悔入弁山屈膝禮三拜一笑滅卻正法眼再笑貶卻毘尼戒青龍兩住笑徒然衲子相逢笑索債佛祖頻來共結冬仍言陷虎機猶在萬事付之一笑中一任諸方爭笑怪  
(青龍常住請)

坦坦蕩蕩癡癡兀兀笑倚一筇今經半百若謂是青龍奚啻太虛添彩色若謂是善權還如遠水探明月是非拈卻兩重關佛祖到來難辯別等閒問取子西堂端的分明對一說  
(子青吳西堂請)

碧落曉藏身滄溟時沐面髮侵雪幾莖衲挂雲千片奪食饑猶虛驅耕苗自遍知伊不知伊咸云臘月扇莫若分付與珂公當陽直指人親薦薦不薦道他洞上第三十世孫仔細看來我亦不曾見  
(珂月璨參頭請)

火裏敲冰石中取玉彈沒弦琴唱無腔曲一千七百則味不黏脣三藏十二部字不經目鞭泥牛耕空劫之田遣木偶淨滄溟之浴家私狼藉十分柴炭不存一束現子繪之何所圖笑看山青與水綠  
(慧慈現知載請)

遠聽感慈近親嫌暴滿容斯瘦非因田地遇時荒兩鬢將皤豈謂師塔無人埽挽頽風反貽笑於頽風行古道復深慚於古道譽之而不逐念紛飛毀之而不隨緣顛倒欲知爾有甚長請把鑑光一照

一杖敲殘明月半瓢貯盡蒼煙相逢道是地行仙雨打桃花拂面常有客來問道惟舒石子談禪巖高樹老不知年風送清香滿院

渠正是我風吹淺碧柳絲輕我不是渠雨洗澹紅桃萼瘦非渠非我孤明月湛水中天即我即渠長嘯人聽庵畔路此段真機惟自知豈是丹青描得就

生緣桐岫弗知皖國鄉談主法善權不諳荊谿風土閒少而忙多才疏而智魯懶求於仙慵作乎祖放蕩不屠出水蛟風流惟跨巡山虎者樣人如何做青龍之嫡嗣繩蒼弁之祖武玉侍者好收取他時若展開一任驚寰宇爾我不孤負五五二十五  
(古璞玉侍者請 騎虎)

性澹情疏心直口快最無分曉逼石女生兒惟有化機斷瞎驢逐隊力成師塔人美而不知延住祖庭魔侵而不怪讓善權化貪者之痴說指迷啟盲人之瞶雖無致怨如砒恐不免譏猶蠱阿呵呵憎者憎愛者愛順兮逆兮兩俱忘燕語鶯啼青嶂外  
(善權常住請)

胸襟雖冷志氣益堅慕師之道感師之賢仰而戴天座中輔弼十三載俛而履地塔上栽培二八年難於時語隨於前緣憔悴不因茶飯少奔波多為法門憐白駒無力揮戈挽且坐茅堂聽杜鵑  
(存善卷禮菴)

## 雜著

### 寶劍連環頌

懷藏造化不知年出礦難將金鐵傳爪髮胡為投大冶超然迴出湛盧先  
(鑄)

超然迴出湛盧先更復磨礪始得全試看良工呈妙手陽紋暗與白虹聯  
(煉)

陽紋暗與白虹聯巧上何妨再著研露出等閒鋒似雪從教神鬼也驚顛  
(淬)

從教神鬼也驚顛好拭塵埃弗涉纖三尺霜含天地老縱橫原不犯中邊  
(拭)

縱橫原不犯中邊佩帶翩翩氣浩然匣出鋒鋌渾不露全提塞外息狼煙  
(佩)

全提塞外息狼煙光射清虛透碧天照徹無私全大用些些觸著觸體穿  
(光)

些些觸著觸體穿紫氣更深吼月圓驚得須彌顛倒走無端嚇殺老金仙  
(鳴)

無端嚇殺老金仙雪夜騰輝出市廛忽躍延津成變化張華何計握龍泉  
(躍)

張華何計握龍泉信手拈來絕要玄空擲不傷鋒不損方堪許話祖師禪  
(擲)

方堪許話祖師禪出匣何如入匣先放去收來常在握懷藏造化不知年  
(藏)

### 蜜蜂頌(和宋天封佛慈禪師韻)

蕊綻芳叢刺有時帶晴歸是帶香歸門開漆桶通玄路活潑機從林外飛  
異類分身天一涯春光收拾晚排衙堂中閭奧無人識體態風流出當家  
翠潑山花日煖時在途曾未把家離驀然桶底全翻卻玉蕊空成蜜滿脾  
穿雲吸露美晴光底事紛紛為孰忙刺著不能知痛癢等閒切忌錯承當  
平生家業寄枯桐一竅通時百竅通撲面相逢輕一筍幾人皮下血流紅

### 牧牛頌

[牛\*骨]角詢窮雲外濤聲踏碎谿邊撩風口笑艸鞋穿不憚關山路遠  
月曉每同月問霜寒常帶霜旋何時得遇老南泉共把家私判斷(尋牛)

未睹峰前來影卻憐道左原貧破錢苔上露痕新反覆於中細認乍有乍  
 無欲現半明半暗猶湮想伊只在此嶙峋端的無勞更訊(見跡)  
 殘跡多遺石面吼聲忽聽山腰春深毛色雜柔條箇樣靈機誰肖明月四  
 蹄莫畫清風兩角難描謾言知有是今朝著意收歸始妙(見牛)  
 雨霽谿眉散步煙消谷口逢渠依他狂性就他除入手何須遠慮全不顧  
 時卻在些兒動著還無林泉謾縱意生疏緊著金鞭莫怨(得牛)  
 帶露閒行北澗和雲散放東坡細披白雨一青蓑踏遍山河朵朵不用風  
 搓繩繫肯將地畫欄羅如今趁亦不之他豈似從前累我(牧牛)  
 浪拍蘆招返含風搖竹指回家半鞭倒影走飛霞者段風流瀟灑短笛橫  
 吹韻杳夕陽一曲雲斜紛紛天際落梅花溢目韶光俊雅(騎牛歸家)  
 棕履常留石闕玉蹄不到松關一生活計付潺湲且了現成公案放足橫  
 眠白晝連拳高枕青山休云萬事轉頭間未轉頭皆夢幻(忘牛存人)  
 蕩蕩人牛盡蕩空空明暗俱空空無空處未為通依舊冰河燄凍況是深  
 居巖壑不教移步巉巖爭來寶殿話吾宗莫向人前打哄(人牛雙忘)  
 彩散雙眸復睹笙吹兩耳遙聞天然呂律諱言勳太古音回雅韻素羽重  
 歌白雪絳桃更潑紅雲水天一色卻平分倒浸長空月暈(返本還源)  
 夜靜無停月窟天明獨步雲堆荷衣拂去帶青來柳巷花樓不礙兔角橫  
 穿佛祖龜毛倒繫風雷乾坤撥轉笑顏開功大慵加蓋代(人塵垂手)

## 十二時歌

平旦寅灶冷虛齋滿隙塵不見松花炊破釜徒將煙火望西鄰啼猿寂落  
 葉額樹轉流光到眼新黃鳥弗嫌人面瘦白雲知我舊來貧  
 日出卯一室多年懶為埽舉步常拖碧蘚香開門放入紅輪曉圓陀陀光  
 皎皎此箇明珠誰欠少端的還從衣內尋叮嚀莫向外邊討  
 食時辰菜煮黃齏不厭貧瓦鉢揭開吞日影香糜分出曉堂春忘五觀棄  
 三輪腹飽休云味轉真自是洗盂人去後何曾粒未得黏唇  
 禺中巳生涯此際成何事花開壟上澹鋤雲葉落谿邊頻拾翠散昏沉消  
 瞌睡循環復把琅玕計歸來展手尚無心那有閒情說大義  
 日南午脫粟休將時刻數香遞遠風澹葦蘿聲消幽磬沉茅戶木雞啼金  
 牛舞滿腹陽春一時吐更把瑤琴反復彈未聞幾箇知心腑  
 日昃未活火鑪中蟹眼沸煙篆紛紛漲水聲香消陣陣傳風味足清神多  
 爽氣到口方知無忌諱運用尋常每自為翛然那復有尊貴  
 晡時申閒策孤筇到海濱錯落清機同水鳥婆娑短髮學山民無高下絕  
 疏親萍水相逢便問津等閒不解空回首莫怪煙花冷笑人  
 日入西牛履牛衫半禿首幾欲談玄沒箇人間消逸興憑吾有趙州茶曹  
 山酒擬飲還須同出手不是大瓢七碗流到來未許輕開口

黃昏戌獨坐寥寥安一室壁架青燈隱復明瓦翻蒼鼠藏還出細叨叨啾啾唧唧讀盡華嚴知幾帙舉似煙霞莫外求此中猶勝波羅密  
人定亥風送泉聲來嶺外夜靜寒燈照六窗更深無夢真三昧佛不求祖奚愛一枕青山慙布袋帳破休嫌明月窺屋穿自有白雲蓋  
夜半子庭虛萬里清如洗一片金篩竹葉青幾家漏斷蓮花蕊紙帳前艸龕裏肱曲蘧蘧忘脫履隨地遊仙忽作聲虛空驚得笑歪髻  
雞鳴丑夢醒慵呼祖逖友屋破床頭好笑天被穿身外惟搔首衣斜披腳赤走尿餅踢得翻筋斗箇事應須說向人奈何不是同流叟

### 贈天成監院

慙慙問道已多年鶴髮婆娑志益堅謾謂古稀今便幸春秋猶過趙州前

### 訓童行

既為生死出家立志務須向上舉目看他上流律身戒為榜樣參禪要盡法源閱教須知比量見人切切溫和處已時時謙讓行不隨境飄流住當為人仰望細思我是我非任從人得人喪聖賢解脫稱高緇素慳貪成障識破人面獸心由他前稱後謗果然心不負人自是面無慚狀戒將孝作根基道以德成厚養生難際遇法緣不易得為僧相若能依此行持佛階定可趨向。

### 示禪人

筆底滔滔本自由何勞紙上更追求如能墨海都翻卻尤勝當年南匾頭話頭牢把莫遲疑著意追尋看是誰看到水窮山盡處一輪明月上梅枝

### 示張淨菴醫士

學道親如診脈親分明指下莫因循等閒看破誰遲速把手風前笑越人

### 示李道人

齋僧不必擇叢林何處叢林不是僧株守一方無變易還如風鼓欲盈罍

### 壽檀越

謾說人間甲子周閒來正好跨青牛高歌一曲煙霞外不羨當年老趙州

### 示化士

修行本在道心堅心若堅時石也穿果正因明成大願何須向外覓單傳

### 絕糧

饑餐綠葉採新楸渴飲清泉接上流數遍琅玕無一事和衣高枕臥山丘

### 化大殿

賢于插處艸叢叢為號空王殿已空好向青龍舒臂力大家扶起梵王宮  
巍峨一殿聳雲霄像半淋漓瓦半飄一念隨心成願力何須山埜舌重饒

### 化磚

古祇園今重架闢艸鋤雲開大廈給孤意旨甚分明就中幾箇能酬價忽  
酬價功高不在金磚下

### 化米

選佛從來第一功弘開爐鞴顯宗風廬陵米價逢人問到者方知價不同

### 化知浴

曾聞開土觸宣明體罄塵空總現成看得現成公案徹心花獨綻少林春

### 化油燭

投子當年錯指名一餅滿貯下桐城於今不了重拈出剔起光明處處新

### 化齋僧田

欲成佛祖在心田要植心田仗福田百福田中勤布種勝前幾倍植心田

### 化柴

煙無香積乏薪然欲縛青山著半肩塵冷灶中添把火好來共話獗獠禪

## 化梓法寶

正法流通自古今承當正法在仁人不因繡棗來相報那得人人轉法輪

## 化知浴疏

選佛開爐際聖凡於格外安禪結制會龍象於場中雖云道在人弘必曰功由檀助於是某上座矢志堅心為眾行化拈起古靈公案而遍叩知音展開無垢家風而盡詢識者洞山果趙州茶要須信手拈來寶壽薑雲門餅務在當陽拓出味不黏味汗流則慶快通身塵不染塵水洗則宣明徹體大行此話速道一言。

## 王孝子序

古者國王大臣鄉舉里選其意云何蓋天經地義之大以孝作忠無異理也而簡冊所傳曾閔而下事多緣飾其為篤行隱君子百不得一焉予方外人於忠孝缺有閒矣顧常樂聞忠孝逸事客秋歲禊彷彿文乞食例不惜芒鞋走青谿道邑之文學九一王君揖余而言曰師知由拳有天性純孝二三君子乎將臚而為之傳予聞之喜可知也既而詢其姓字採其幽芳若泰卿王公其首著云以九一所稱其生事死葬與祭語焉極詳亦不數數見者與跡其壯而棄舉子業隱漆園獲升斗以色養至兩尊人疾劇瀝血格神願以身代迨夫墓木拱矣春霜秋露之思如見厥考焉以迄不匱之誠錫類之孝皆出諸性成非今人所可勉焉者我思古人又曷忝焉越一日王公迎而授之祭予益喜可知也乃請其實錄整襟讀之何其與九一所稱如璧合也噫求忠臣必於孝子之門若王公者雖戢影市門不求聞達而不發於身必發於後其長君玉脩亦復至行有學將不終為諸生其年又英英負奇與孫枝並秀行見子若孫經明行脩以孝作忠翊聖明廣風厲者舍公家其誰與歸今賢邑長既有薦矣賢郡公已有報矣各臺憲俱有獎異矣他日史氏羅而致之勒為國書上掩曾閔不啻天宮龍藏同垂不朽哉山林楚衲亦將引手加額為聖代得人慶歲在辛亥春上元日方外人某謹序。

## 祭祖文

時康熙玄默困敦歲南呂月上浣日住荆谿善權禪寺比丘不孝孫男某遠遊歸來追慕不已百拜具奠嚴氏堂中遐邇神主失祭多年為文告曰嗚呼祖先餘慶積善忠孝兩存儒釋是羨我生不辰庭幃屢變大父母昇尚猶及見嗟我家君陣雲遭搃更傷母兮汪瀾預溺痛割肝腸淚揮成赤意欲殉難誰嗣誰惜托跡空門冒險遍尋枉勞跋涉怙恃無音首丘有念江山報傾傷

哉君父兩冤莫申矢志殊形利名敝屣訪出塵師悟西來意愛別離苦等於大寐生住異滅視同一致不惟自勉且為人勉三十年來水逝風捲鳥寂山悲春秋誰薦瀝血矢詞莫寫哀泫有大圓鏡塞乎蒼穹同吾君父偕吾祖宗息乎其內游乎其中一生一死間不髮容少申子道少盡後事大家團圞庶幾在是俎豆江漣簠簋峰翠配享森羅稽首來儀。

### 建青龍隆福寺普同塔記(青龍石刻)

世之記普同塔者類言本之月令先王掩骼埋胔而不失乎仁人君子之用心止矣若然乃郡國之漏澤園非禪林普同塔也塔之為義至高至堅至潔亦至嚴不以窳堵坡與多寶塔作大小觀也塔所利者四眾人等經云天人空中過往遇塔則瞻禮如佛世之人不茹素不奉戒者不得而入焉或祭掃或入塔必虔必敬且收錄有主守護有神其珍重如此先老人鋤艸芟荊歷有歲月而倦倦于塔之一事囑託再三書復每及操也承師遺命運費鳩工卜地諏日甃以崇臺別以三穴環以高壟局以邃門寺基之內乾兌之方青龍浮屠適當其陽巽流來旺生水到堂己亥分金壘塔深藏松竹環而梅邊別是山中天一方遂喚穎君記之願後之人塔者幸毋昧于斯言。

### 送牌位入祖庭定約

朝廷有太廟大夫有家廟釋氏有祖堂親親昭穆序次秩然不敢以私不假以勢惟德惟賢乃可服人今龍華祖席左設宗堂從西乾東震本山傳法宗派供立牌位右設祖堂奉祀開山老人及繼席諸師凡住持寂後有嗣成禮請送入無嗣常住供立或開法外剝名垂當世非繼席者不得混入祖堂此一定論無有異議惜乎近代師承授受訛亂非惟道眼不明亦且人品大壞朝為弟子暮竊同儔覓利貪謀法門叛逆生既不齒死亦何存嗣後欲送木主人宗堂者必先徵其悟由訪其操守取其拈頌語錄等稿並不犯前失必須齋嘍禮儀成款請當代主人送入不可苟就猥褻因循私意強入宗位者也或遁跡林泉三二十載若龍山等又當別論凡我住持同盟斯志務須敬慎毋輕允諾不致貽笑諸方山門幸甚法道幸甚。

### 自序

余名智操字寒松別號隱翁桐城嚴姓父百亨母王氏夢僧借寓產時聞香當天啟丙寅八月十八日也六歲授書至道也者不可須臾離也余云元來道在平常眾異之舞象時遭寇亂家君被執母溺殉節予潛桑免誓願為僧因占別硯地藏閣脫白是年二九癸未四月十八日也號天遍覓怙恃無音入山焚修將酬罔極廿里打供虎隊往來偶閱壇經至不思善不思惡前緣

盡釋有禪者來山指授一歸何處初攝心時如按浮瓜起滅相乘忙無所措舉話似易開口覺難晨汲暮樵通身話頭如乘吹毛遇虎狼而不怖無一法可當情如是者四年功成純一廿二圓具實際戒經云心佛眾生三本無異始契物我一如打七三日如大圓鏡不見有身心世界因僧答話有省遍參知識二十餘員咸皆印可毅然不顧廿四參青龍百和尚於弁山尚拈棒一晝予即喝尚便打予又喝尚復打觸燈墮地釋然大徹呈偈曰探遍諸方最上機何如直下絕離微若非一擊連燈落那得心空及第歸順治己丑臘月十八日也尚問南泉斬貓時如何余云明月照人冷清霜透骨寒曰趙州頂草鞋又作麼生予云雲歸山人畫風動水生紋曰如何救得貓兒予以手作鵝鳩勢云谷呱呱尚深器之自此徵詰古今勢如破竹俾掌堂司整肅清規廿七壬辰。

佛誕日付以衣拂拄杖並偈曰鷲嶺一枝弁峰現瑞四七相承二三密記蒂固根深花聯葉綴我今付爾芬芳大地予三卻之何敢當此尚曰賴子與我一臂力隨赴越州大能仁每見呵問話者不諳時節語脈適逢上堂舉黃龍曰老僧今夏向黃龍潭裏下三百六十個鉤能仁今夏向八百里鑑湖上拋個漫天網子予問黃龍擲釣於澄潭水底能仁張網於鑑湖波上忽遇透網金鱗如何相待曰三更紅日朗予云多載垂鉤知老手因齋慶讚事如何曰照破漆燈籠予云日篩竹影山添翠風過岳花香滿林曰蟬聲不在綠楊裏分付行人仔細聽予云一句迴超千聖外松蘿不與月輪齊曰也是葛藤裏翻筋斗予一喝便出尚語眾曰問話須看此樣廿八返青龍上堂立僧分座接納因舉雪竇顯請宗禪師陞座因緣予聞即得隨機說法三昧一日落堂考工畢上方丈問訊尚曰今日堂中幾人悟道予云若不是某幾錯祇對和尚曰座元大似不曾落堂予云將謂無人證明曰既然落堂因甚容他聖僧瞌睡予云且喜今日放參三十一尚補雲門屢交青龍余堅不任代攝結制與眾同單務則先之勞之三十五尚赴佛曰書通護法兼兩序曰寒座元為人真率梗直見識超卓可作二代主人代山僧說法也云云予辭至浙確請尚回尚曰青龍一日無主我一日不回遂親擇日送以法帔衲衣勉進方丈雖居正位仍稱舊職將過數月因事迎歸予仍輔弼三十六尚遷善權命再繼席辭不獲己書偈而去追隨杖笠十三年業已焚香對眾宣贏得一身輕似鶴那堪霜雪更留連異日緇素尋至刻意挽歸將三載數上書堅辭不允回扎內曰並無年月期限之說亦非衙署傳舍之所山僧獨慮普同塔及重興隆福碑賴子為我圖成待山僧死後不用作供亦不必下語以此二事酬恩足矣四十進山告假特為上堂命回忽中秋陞座末曰當著僧接青龍堂頭來老僧不過廿七八勿遲復謂眾曰他日建藏塔梓全錄須就青龍商確塔成誰守三年屢問無對者廿九予至尚已廿八黎明書偈坐脫眾理前話予云何不道不須聖念十載未難眾曰始終原不易予云事久見人心眾勉予修行狀請塔銘於坦庵方學士因遵遺命龕歸善權予轉青龍已力完所托舉同門繼其席四十六赴請善權卜地建先人塔於萬松嶺畔明年回

里掃塔墓應香爐雲際二寺請以酬生身脫白得戒三大事畢再住善權培植塔石工程未竟霹占重興操戈而至心隨勢燄同燎捩杖而行跡共白雲俱遠四十八遷安樂院五十建禮菴力行躬役兩月告成宜有者悉新備之守護始無風雨之虞荆溪眾檀請予復住善權力辭不容舉同門攝其院自辛亥建塔以來峻拒外請雖遭攫奪而修葺守塔則生死以之無何弁山龍華屢招五十三方王祖席風規稍弛情詭日撓夙興夜寐似為整肅而問鼎潛謀人境變幻得賢為難所荷猶有憾也每慚德薄塔事難終經營十有六載自信不食前言從昔己丑始親近先人至今丙寅計三十八年造次弗離生死一致受苦口日常佩服經逆耳時為銘心六十一編梓先老人全錄入楞嚴大藏流通命僧守塔退隱白雲成壽塔於寺左流金偈曰自題自塔自生涯自看青山只自賒非是自身拔宅何山風月不為家。

吁昔托胎處世時不能生事死葬殊切痛心既披編南詢以生死為念是非人我故不顧及至老大又不能潛棲岳壑養拙過時仍復吳山浙水種月鋤雲亦宿緣之所致也承先人付囑之重叨法社蔭庇之深德行學業時愧前賢唯依依祖道佩從上之遺訓直心待物與世無爭雖鶴質龍鍾實不敢以須臾恣怠惜其世異時移真風掃地不以節義為懷怡然勢利是趨情知掄弊無能而恒以謙卑退讓豈復辯其是與不是耶故余處世一味平常不登謁總隨緣寧使艸長法堂為時人所棄唯撫正挽古風事無矯強形可使辱志不可陵追想前境知音少遇末後一機自道去也。

方外英華(原版存吳江今收入全錄卷第十八)

吳江 顧有孝茂倫 王載咸平 選定

新城王士祿西樵 平湖陸世楷孝山 候官許 秘天玉 武進薛信辰  
國符 參

桐城智 操寒松(號隱翁百愚老人法嗣住青龍善權白雲寶巖安樂禮菴弁山)

### 別硯

客有四方志去去尚沉吟客離還可晤硯離莫可尋硯問余何適遠在蒼  
蘆林知足空天地乘閒閱古今我元不逃質停雲飄素襟半瓢乘野色一  
杖荷松陰念子生平志潤得古人心留助知己者銷磨歲月深

### 招隱

人生有所事隱顯莫全超達則善天下致君繼唐堯不然見機早縱意樂  
陶陶第一休為上第二隱為高巖陵非無友友莫易爾操陶潛非無祿祿  
莫折爾腰閒來七松下枕石臥雲濤閒來五柳前抱月歌青宵此情誰可  
訴所以為君招

### 細林同友人雪夜讀莊子

一鼓二鼓天三峰四峰雪窗破不關風紙報寒聲冽遣夢讀南華似與鬚  
眉結凍宿垂天雲快睹禽中傑江海一逍遙逍遙惟自竊偶感逍遙情是  
情有幾徹將此情與寒只對梅花說

### 訪陳其年史雲臣賦得白雲深處

地僻絕無塵風光高且曠濤聲萬壑連漁樵尋莫向中有飲翠人翛然忘  
得喪素懷羅百川白眼空千嶂門掩青霄雲夢翻滄溟浪我來訪舊棲無  
心到月上回首問家童笑指煙霞宿

### 春宵遣懷次百老人韻

夢破一聲鐘遠峰月漸起搔首不成眠門開深竹裏長嘯發清風紅墮山茶蕊回看松際雲澹罩清江水夜寂幽籟沉萬里清如洗此意誠難言未識誰相委閒步問蒼梅梅默笑而已

### 中秋次韻贈東澗公

霽碧光可依煙柔晚色靜遠水化雲英樓開玲瓏景玉兔散天香疏鐘響空嶺幽興入清澗雲流石夢冷袒裼坐臨風倚月聽歌郢白雪老秋容談笑娛清影濤聲侵竹枝桐陰落金井涼從今夜來誰能發深省

### 和東坡戒殺詩

水有蓮可肉山有筍可汁但將筍與蓮日可飽脣溼物我同性靈稚耄戒在得護生悟尚遲恣意何太急惜珠因惜鵝惜語因惜鴨相殺在虛鄰相訴在幽幕血畫刃邊痕濺來天亦赤骨亂澗邊堆橫來地亦白今雖異影形昔也曾冠幘人能為物憐物亦代人泣人物兩相憐惻隱心不缺蔬可供高人茗可飲嘉客苟不昧素心心可與神集

### 寒晚同徐竹逸儲雪持限韻

霜花泣亂叢水煙縈石髮桐滴露無聲雲將推出月螢掠點疏簷獨樹落寒樾鴈塔蕩冰壺餘光流莫闕閒愛楓葉丹一棹清歌發好景不多停聚散成倏忽

### 南安太守艸書歌

東海先生豪且放翰墨淋漓世不讓管城斫盡老湘筠客卿磨盡幾滄浪或在琅玕或薜蘿半無衫履半頭科灑灑直疑神鬼助瀟瀟但見雲煙過一掃龍遊千幅絹似越攻吳遺鏃箭恍兮又是驥奔泉得法不因人舞劍縱橫醉裏更無憑點點行行山石崩澹似飛雲流曉月禿如老樹挂枯藤說甚艸章與急就說甚鳥跡與蝌蚪是蔡是李不堪論曰顛曰素何足數天將奇伎與先生不同他悔學衛夫人徒費手

### 寄懷王玠右名世兩兄弟

美人兩兩江之芷江煙一帶隔秋水停雲正在大江頭目斷東皋劍氣紫陡有瑤章天外來高歌雅坐春風堆波浪溯洄三泖竭繁華一洗六朝灰

仙臺多見暮雲起十載神交惟一紙山川老我興扁舟風月知君心萬里  
青谿谿上沙艸深黃浦浦邊魚鴈沉野客秋晚誰相對再期山水共談心

### 秋日寄懷獨立和尚

憶得梅花一笑別蒹葭又是驚飛雪老我青山藏我拙孤懷耿耿亦癡絕  
何時江上將蘆折漾藻飄煙渡兩浙浙水相邀探禹穴談詩說劍光生冽

### 金山寺

金碧江心柱寒光照影閒鉤簾吳月上捲浪楚雲還鐘落巖前水僧歸鏡  
裏山一拳古佛地曾不借人間

### 隆福寺(即青龍十二景)

樹老前朝寺臨春起臥龍門連湖水闊地接海山重殿古風鳴磬樓高月  
扣鐘一塵飛不到時有白雲封

### 青龍塔

誰插空中柱高標碧漢齊湖山來遠近日月遶東西下視疑無地通霄信  
有梯憑欄時一嘯天小白雲低

### 昇仙臺(昔王可交成仙處)

羽化仙何在流泉咽洞簫棋殘雲局冷臺老雨花飄跨鶴尋丁令吹笙憶  
子喬多情壇上月夜夜照丹遙

### 酒餅山(昔韓世忠勞軍處)

疊疊山如簇餘酣澹夕陽餅遺空貯月劍古暗飛霜青艸留人恨秋動客  
傷至今誰得醒曩烏下沙場

### 白鶴江

激瀾迴白羽煙澹冷危巢丹頂浮朝月霜魂掠夜濤潮隨清淚落鐘帶片  
雲敲憶昔乘仙去還疑化蟄蛟

### 通波塘

雲根穿白水柳線曳清灣出海分諸國回瀾遶萬山櫓聲煙外冷鷗夢鏡  
中間何日乘槎便星河滿載還

### 杏花村

醉鄉迷曲徑映日埽霞空香滴凝朝露帘斜颺晚風尋來攀翠客半是典  
裘翁江釀宜春滿波流一片紅

### 會龍菴

徑僻幽居勝浮橋水面橫經殘雲夢曉鐘落夜潮平試看蛟龍聚謾言風  
雨驚應知開白社恐起蹙眉聲

### 獅子橋

怪石連波架猙獰跨渡頭毛添春艸綠吼逐雨谿流枕水驚狐泣橫空動  
鬼愁誰為題柱客千載壯滄洲

### 醉眠亭

一亭春色古面面醉風狂石枕青山迴泉流白墮香杯中傾兔魄夢裏到  
仙鄉笑問簷前鳥聲聲為底忙

### 綠野橋

長虹吞野色垂蔭襯霜蹄樹老蒼欄合藤深翠磴齊水隨潮聚散煙共柳  
高低不見賞心客春留滿一谿

### 戒衣亭

亭古誰為額留衣老歲華條清分活水色絳染流霞影落孤雲靜鉤垂片  
月斜更憐新雨後零落綴簷牙

### 古寺春回(即隆福人詠)

上方春乍暖鐘韻落江湄陋室留雲補疏簷引月窺堤黃金入柳砌白玉  
浮枝天惜名藍古花開不忍遲

### 浮圖秋月

仰聞天上語平看夜光浮素彩摩金頂雕欄挂玉鉤香清澱桂露影倒亂  
江流一柱燈千古幾人到上頭

### 竹院晚涼

滿圃鳴寒玉千竿晚漏光韻邀人飲翠雲抱節分香和露滴雲溼招風納  
戶涼北窗留一枕良可晤羲皇

### 平田煙雨

谿眠雲不起百畝宿溟濛鷺立煙籠雪濤回竹吼風嵐沉山色冷暝壓水  
聲空艸色平欺眼人疑澹墨中

### 橋畔僧歸

潮涸分沙觜小橋僧晚旋錫飛吳嶺月衣染楚江煙帶影尋金剎和聲問  
玉川忽聞清磬引轉入碧雲邊

### 松林雪霽

玉糝山山老人家畫裏新寒消松影瘦凍解竹腰伸岳瀉千條練林餘一  
片春袁安何處是笑指路西鄰

### 靜夜聞鐘

湛湛天橫水疏鐘映遠洲聲來和鴈落響去共雲浮帶月侵孤枕依風度  
小樓寂寥時送斷萬里醒人愁

### 龍江夕照

風急催歸棹濤驚走白沙留光銜岫影隨浪泛藤花遠岸波中仄孤城畫  
裏斜鏡空無可洗唯浴暮天霞

### 聽琴

非關聲出遠多是覓高賢  
澗水疑流指松風想入弦  
似遺清淺外宛在月明前  
此撥休容易春山曉洞天

### 東岡文讌

漠漠蒼煙外平岡倚畫樓  
同來人興致不減晉風流  
松落琴聲細杯斟竹葉浮  
德星相聚處雲擁大江頭

### 晚涼

日夕煙光紫山濤出翠微  
好風將月上野色逐禽飛  
石竹涼生遠谿雲薄暮歸吟  
深誰作伴歌唱起漁磯

### 送介丘錢大游九華

出郭因風便蘭橈過急湍  
謫仙為致意采石好盤桓  
山擬前程遠江如去路寬  
高巖尋翠晚與我寄來看

### 秋燕

畫棟時頻入涼風復見侵  
語疑辭舊主飛似戀知音  
香謝銜泥潤衣輕掠水深  
明年春社到還向玉堂尋

### 江天聞鴈

隱約雲排陣依微散水鄉  
一聲秋滿塞幾處艸含霜  
睡客驚猶遠歸人聽最傷  
情關無限意況復月光芒

### 遊大山菴次老人韻

苔封蒼徑滑極頂小江山  
樹老眠松閣煙寒依石關  
千峰從地涌孤鶴白天還  
欲訪逃禪處問雲借半間

### 祝友

齋出龍文傑英華啟後賢臘高峰頂樹心湛水中天閒詠欺工部狂書壓  
老顛風流人莫測盡道是頑仙

### 自適

日間何所事鼓腹嘯長空湖海三生客乾坤一隱翁興來詩自勝悟後語  
誰同獨羨青霄月論心皎潔中

### 詠竹

一林鳴碎玉滿榻照寒光處世能忘熱親人不在香風生彈律呂月上寫  
文章愛伴禪心靜和雲埽夕陽

寓吳江包朗威張九臨陳長發吳小脩聞瑋趙砥之山子叔子顧  
樵水喻非指過訪

秋老蒼煙外林幽雨露新雪灘逢釣叟蕭寺作詩人靜極聊堪隱閒多剩  
得貧他時攜一策乘月問遺民

### 雲門漫興

步輕憐艸嫩不必更支筇吟詠一谿水盤桓數朵峰雪殘林翠溼春曉曙  
光濃笑指蒼茫外聲來何處鐘

### 懷北溟大師

兩兩關山闊誰憐丘壑情看梅雙眼瘦放鶴一身輕歸夢聯江冷餘懷託  
月明何時重把袂共眺白雲生

### 訪何山幽禪寺有感

為訪幽禪寺千山策一筇藤花迷斷碣谿水咽殘鐘砌老雲根活萊深屐  
齒封如何天上月不照此杉松

### 遊僊

擬入神僊境臨風且挂冠壺中間日月雲外數峰巒不作長年客難成一  
粒丹殘碁猶未已碧海幾經乾

### 送陳確菴孝廉歸婁東

庭花何爛熳多為餞行開送客詩千卷留人茗一杯帆從江上去書寄海邊來莫惜遊山屐乘雲返翠苔

### 早行

是誰同曉發只約一枝筇出谷驚棲鳳登舟起臥龍鐘聲煙外遠樹影月邊重十里亭何處蒼茫有數峰

### 贈王思受

卜宅臨淞水先調物外心半軒明月澹一徑白雲深欲惜身如玉須憐刻似金君參投子意便向此中尋

### 訪千華和尚

不識千華路迢迢信杖藜環山尋竹隱問石見雲棲瀑響傳深谷荷香拂大堤他時風月下再話劍樓西

### 同聖集九一令詒坐于田秋雯之和鶴堂

暑退晴光澹涼風報早秋因乘黃鶴去時為白雲留談笑多高士生涯一釣舟欲知明日興傳語問清流

### 遊浮山

深林尋古寺曲徑繞危樓鐘磬家聲舊松篁野色幽因瞻雙塔秀得聽一谿流雨過收春去惟餘月半鉤

### 重遊浮山

金剎知何處鐘聲杳靄間常因尋碧澗幾度問青山屐齒留新跡苔痕識舊斑白雲猶曉事時伴老僧還

### 贈柘園侯記原次宋荔裳觀察韻十二首

負郭山如簇清風滿竹軒乾坤容我懶禽鳥識人言把茗消殘夢焚香弔  
遠魂蒼茫煙樹外沙淺露苔痕  
自是紅塵遠窗開翠靄間朝看鴻影度暮聽鶴聲還沼曲煙流徑簷深月  
扣關同人無限意知我只谿山  
方池拳石穩野鳥立無妨竹響侵書幔花飛點筆床好風閒不奈送雨納  
微涼坐久忘塵思誰云日更長  
樹古名園好幽居分外清詩成新水漲琴對遠山橫石抱雲來宿梅將雪  
共爭閒閒春日上倚杖聽催耕  
煙荒三徑窄豐艸日重鑱舊業追王謝高風比籍咸橋危人競渡花落鳥  
爭銜五世丹書在相看啟玉函  
上谷今如故高林報曉鳥笛聲風裏細亭影月中孤采隱人非遠問奇字  
更殊不辭時下榻俛仰歎綦蕪  
十畝幽棲處歸休得四宜鮮烹籬曲筍香摘路傍葵交重方來遠談深臥  
去遲他年風雨夕猶憶論交時  
君有詩千首逍遙共客吟鳴山聽野鹿掠水看飛禽不有先投轄如何得  
解簪因憐丘壑趣一棹足幽尋  
雅集傳經宅風流隱士家閒情隨柳葉早信託梅花棋局驚人靜歌聲雜  
客譁一堂明月冷清影為誰賒  
文章懷雅道復見謫仙人尹綠憑南斗樵青仰北辰煙霞期共未鷗鷺可  
同寅剩有光芒在千秋桂一輪  
一鏡涵天地晴波語鸕鷀彈絲琴劍古逸韻嘯歌良燭剪流金蕊盤餐剖  
玉漿慙慙遊子意春色滿仙航  
名公留勝境字字壓江淹飄逸風前得清新雨後添惜花非是俗愛月詎  
傷廉太史遙觀處賢星兆隱占

### 柵園雜詠次侯記原韻十二首

為復前人業閒情故里偏山顏非舊日鳥語似初年曲徑關心細深巖進  
步邐悠悠几席外品節是家傳  
偶從林下過蒼翠繞藍輿適興千株柳消閒一帙書清暉移竹密晴影入  
簾疏尤喜白雲好時來問起居  
人中誰俊傑江左識君賢弦絕傳經帳花留夢筆年醉心惟古道樂志亦  
逃禪幽意撩人甚清同一鏡圓  
一丘堪伴侶獨棹載雲煙綠水成全幅青山作半聯風情真邈矣忠孝尚  
如然滿壁舒懷抱驚人句可傳  
招隱芳流古幽懷獨遠超鳥聲春滿閣月色水平橋補竹留先澤磨碑話  
勝朝寄言花外徑未許玉驄驕

荷浦回流淨層軒對此濱波行千片月花漏幾多春瘦以梅為友閒將石  
 作鄰長年門不出令我想伊人  
 重岡閒散步嵐氣半晴陰竹戛篩金影泉流漱玉音魚荒閒水獺飯罷落  
 山禽時有好風至科頭柳外吟  
 故物還新宇人留翰墨香春秋遵上古陵谷信穹蒼澗芷行堪采書田豈  
 自荒微聞牆壁裏絲竹奏先王  
 小圃餘香雪長林把釣竿迎春芸閣暖送雨艸亭寒橘樹三千指荷香十  
 二闌交情期舊好何必結雞壇  
 野客棲遲處苔痕溼桂陰煙霞知我意林樾見君心高臥匡床穩閒行古  
 洞深松風時有約一撫不弦琴  
 芝蘭纔結秀空谷早傳芳洛下才名重吳中姓字香東巖雙壁燦南浦五  
 雲祥遙看讀書處花陰覆堵牆  
 流水清谿轉孤山土白為卉翹資秀發樹老閱傾欹客去仍明月人間盡  
 好時合歡堤上露常帶柳絲垂

### 時一大師過訪聯句

握別青谿後(寒)重逢將十年(時)秋高峰頂月香老桂花天(寒)把茗時  
 懷古論心夜入禪(時)此情誰共曉(寒)霜鴈下平川(時)

### 十僧詠(有引)

予自別硯脫塵觀摩擇侶假深山而寄跡拓法社以棲禪歌入袖之清  
 風談點頭之白石隻身磨歲月真閒似得病中滿鉢貯煙霞異趣渾忘  
 老至自是乾坤歷遍誰當問慵於人以此質之同心同心不無一哂。

### 山僧

翠微棲老一枝安樹欲成龍鶴化丹香結深林花晚發光搖峭壁日先看  
 閒中活計雲千片靜裏生涯竹數竿洗菜不流黃葉去遊人那得到危巒

### 禪僧

透徹玄關第一機長空霧淨見星稀一聲竹擊青山曉數朵桃開碧澗肥  
 法海深澗波瀲灩禪心獨照月流輝蒲團裏面真消息片片晴雲澹不飛

### 講僧

繩床高坐獨披襟一塵清風論素心學冠斗山靈脈遠胸羅江海妙源深  
香生簾外花初雨龍起虛中墨作霖講罷爐煙誰得旨點頭巖石是知音

### 詩僧

瀟灑狂歌別一天無中有味澹中妍空林雨過詩成畫古塔雲收畫入禪  
閒借推敲消歲月清憑嘯傲老山川從來懷抱多題石不到驚人不浪傳

### 老僧

經殘月下影蒼蒼百結鶉衣染戒香矐若松梢棲楚鶴皓如鏡裏墮秋霜  
攜筇笑問乾坤老擁毳閒看歲月長寄語人間休更算由來甲子總相忘

### 病僧

淨埽維摩丈室幽閒觀榻外物無留棲身幻示三分病對客常將一默酬  
藥煮清泉香乍爇柴添活火燄初收安心自得安閒法何必耆婆向世求

### 孤僧

雲瓢獨抱枕江濱流水年年寄此身壁立雲根鷗作友梅開雪砌石為鄰  
數聲幽磬消閒日一衲清風憶古人幾欲逃形天地外回頭尚有影相親

### 遊僧

放浪乾坤楚鶴同乾坤滿貯一囊中穿林面帶松煙色買渡衣黏杏雨紅  
盂洗清流來楚澤錫飛明月過秦宮閒雲也道山居好遊罷歸來問曉風

### 貧僧

湖山夢破立無錐鉢底塵生虛鳥窺食摘松花餐綠樹衣聯荷葉翦清池  
半窗月色千年畫四壁濤聲一卷詩清澹門風幾家有翛然唯許白雲知

### 懶僧

世事悠悠謾遠圖心同流水是非無涕垂不管寒侵面詔逼寧知使有符  
佛頂漏殘憑翠積僧房雨仄待風扶彼蒼容我疏慵甚枕石蘧蘧蝶夢孤

## 逃禪

長揖雞窗別硯耕半瓢煙水謝虛名青山髮斷千莖緒白社心空一片情  
衲洗松風鳴曉籟杖挑江月照郵程佛書剩得閒身讀肯被儒冠誤此生

## 過崑山訪乾一諸彘史

昔年幾度夢登臨今獨尋流入上林鶴立松梢翻素羽鴻來天外墮清音  
筍抽石竇和煙煮茶熟蘭泉帶月斟話盡殘燈蓮漏永寒光獨照故人心

## 詠影

相親相近已忘年盡日慙慙不變遷秉燭看花隨客後臨流把釣占人前  
詩尋雪夜同扶杖月載煙波共泛船幾度欲離離未得倦來仍與抱雲眠

## 寄東岡諸子

光飛劍色燦星辰隱隱扶桑擬問津詩法遙傳天寶句丰標猶勝永和人  
無虛鶴渚風前約來看龍江雨後新野墅梅花開欲遍扁舟早放莫逡巡

## 祝張揆原工部

春入華林玉滿枝相逢盡道豔陽時茸城山水由拳月才子文章工部詩  
美釀花間留客飲閒消石上共仙棋年年喜看霞觴進一曲清歌天地知

## 善權寺

華林簇簇翠微巔捧出荊谿古善權繞殿雷書唐日月垂庭柏偃晉風煙  
山環玉帶千岳擁霜扣金鐘萬里傳大演洞源流正脈派分諸剎續龍淵

## 遊善權洞

梯旋石窟覓丹砂幻景幽深巧莫加窈窕暗通仙子徑空明別就楚人家  
竇懸紅日千光燦乳溼清風一滴斜問是誰來為鎖鑰谿眠曲水起煙霞

## 春江

一聲旅鴈度江村客舍香銷睡正溫舟放夜潮來古渡霧連寒月亂黃昏  
落花浪逐魚驚夢垂柳煙迷鳥斷魂何處醉人泥路滑隔林引犬吠柴門

### 初夏偶成

古木森森一徑通看雲盡日倚青桐虛堂夢破湘簾雨小榻涼生水殿風  
霧鎖鶯聲迷葉底煙飛竹翠積庭中桃花謾逐春歸去正有孤筇趁落紅

### 喜青龍前殿落成

長年砌老點苔花喜邁雲聯壯海涯掩映門牆仙子第交輝金碧梵王家  
丹臺無復埋荒艸紺宇能令散彩霞更得泃峰來正面簷牙遠挹翠痕斜

### 喜青龍大殿落成

鶴渚東回抱隱淪殿臺直壓大江濱成來棟將千尺老去飛霜逾十春天  
地重教山色秀煙霞共道畫圖新層層梅竹環蒼翠時引清風入戶頻

### 喜梅源普同塔落成

十畝林泉鑑影清交加翠堵頌新成雪餘三面銷間夢月到雙扉慰老情  
白石繞來香皎潔青山捧出勢崢嶸悠悠靜覺乾坤小何必風前覓化城

### 九峰環翠(鳳庫神薛機橫天馬崑是謂九峰)

峰峰秀出勢玲瓏涌地排嵐插遠空翠潑千重吳樹接煙分九點越山通  
東西城郭圍雲表遠近人家入畫中尚記靈巖新雨過江天掩映沐春風

### 三泖回瀾(三泖者大泖園泖長泖也一名谷水)

風拂流雲動沆漻空激倒影浴青霄危湍頻瀉銀濤涌峭石驚翻玉壘搖  
回練遠收江口浪怒聲直接海門潮陰晴不礙漁家樂一釣中天野色饒

### 湖山日出(澱山在澱湖之上)

煙樹參差繞澱湖濛籠霽色隱金烏清波未出同高下碧嶂纒離似有無  
天上風雲隨影現人間樓閣偕光敷閒來隔水聞漁唱一片飛帆狎野覺

海門晴眺(海門橋名諸海門公獨建因名)

海翁曾惜往來繁獨駕長虹跨海門風景賞心隨再覽晴光得意可重論  
數來五嶽盤閒栗看去三江石上痕因憶授書人不見行藏自許付乾坤

學潭泛月(潭在泮宮中有小洲今為放生池)

清流一派曲池來遠漾冰輪印碧苔天散光華隨夜朗人將宮闕向晴開  
遙生水面鋪金地照出城頭涌玉臺泮底虬鱗興有待乘閒也解共徘徊

孔宅尋春(聖裔孔禎隋時宦于吳葬玉環衣冠地饒梅竹)

扶杖幽村晝覺寒墓門深處鎖迴瀾千年埋玉前朝事半匣藏冠後代看  
樹色侵衣堪嘯傲禽聲到耳好盤桓彌空雪浪層層接會有人歌聖澤寬

江浦潮生(邑有三江五浦)

錯落沙汀寄鳥蹤忽驚斷岸雪溶溶漲成澤國浮天地梳動珠宮起蟄龍  
萬折滌紆齊合脈百川匯注盡朝宗乘槎如辯淵源處不向星河泛九重

昇仙舊臺(王可交飛昇處)

偶自飛昇偶戰場遊人幾欲問滄桑鶴隨方外煙霞冷栗授舟中日月長  
鄉國轉晴羅夢杳英雄回首謫仙狂滔滔不盡龍江水只別丹臺泛渺茫

夾橋雙刹(橋在北關內傍有寶月願豐兩寺)

金鰲翠柳並婆娑夾構浮幢蘸玉波梁勢高低連石駕鐘聲南北共雲和  
侵霄細雨迷宮殿拂水輕舟壓芰荷靜聽兩堂歌貝葉往來人帶梵音過

隆福聞鐘(隆福寺在青龍鎮整麗甲於一邑)

寶網羅珠散遠芬華鐘隱隱燦靈文空林敲動山風起野曠鳴驚海雉分  
夢破紅塵天乍曉聽殘紫塞日初曛堪憐道走名場客誰解棲心叩白雲

清明值雨

春深雨裏落英紅半染飛煙半趁風柳葉聲寒春事老梨花夢斷客愁空  
片帆人立清江外隔岸鳩呼綠樹中溢目韶華誰共惜年年惟見水流東

### 訪吳司成梅村

款乃聲中夏日長薰風影裏挂危檣孤雲出岫三年別一水環村六月涼  
路入疏籬分古徑香流遠浦識芳塘談深相共忘天暮夕照絲絲柳數行

### 和貫齋及山人過訪

一客天涯久未還誰移畫舫渡潺湲談深壟上三花樹知隱雲間九點山  
韻戛清風蟾煥彩文投紫霧豹成斑應思梅竹期常晤莫惜芒鞋到石關

### 為百老人求坦菴方學士塔銘次韻留別

銘求千里步遲遲纔遇知音又別離一櫂寒光牽野興半江晴影賦歸期  
送行人去風盈袖留別詩成月滿枝攜得文章歸故國白雲也愛共相隨

### 寄懷顧茂倫

江天空闊曉風清遙望松陵紫氣橫廿載英華招逸士半窗滴露引書聲  
青山有約音遲寄綠水無期夢欲生浪跡煙霞惟我輩何時相對數閒情  
(英華茂倫巢名)

### 過九峰艸堂同陸兵憲張水部諸彘史徐蘇野張漢度分得風字

片帆無恙挂薰風廿里輕煙一櫂通山引客來流水外翠邀人坐畫圖中  
知音喜有乾坤在話舊惟餘我輩同影對夜深忘溽暑艸堂月上細林東

### 細林晚眺分得青字

薰風攜我出閒庭宿雨初收艸木醒湖面蒼茫千頃白山眉濃澹數痕青  
纔同野色分殘照又伴晴光遠遠馨眺罷不知天早晚一聲漁笛隔谿聽

### 鏡湖艸堂分得啼字

青山面面接沙堤咫尺仙居路不迷雲起湖邊光聚散帆開簾外影高低  
吹萍細浪看魚戲拂樹清風聽鳥啼(乾一同人放生於此)多少人傳新粟里

時來問字一留題

### 同乾一登二十三峰閣分得龍字

乘暇登高訪舊蹤喜同知己話從容星懸古瓦光堪摘雲繞虛窗影欲重  
紅藕香中千尺壁綠楊蔭裏廿三峰憑欄時喚沙鷗問道是何人起臥龍

### 喜徐松之過訪

竹徑參差久不刪偶逢蠟屐破苔斑煙霞老我多年思湖海留君半日閒  
興到松閒歌白雪倦來枕上對青山牽人更有情深處鐘送黃昏月一灣

### 遊投子寺有感

凌風一嘯白雲隈轉入空林艸木哀斷碣不堪頻拂拭野猿何事獨徘徊  
月臨谿畔詢幽徑花落巖前覆劫灰回首山靈相借問幾時得聽曉鐘來

顧茂倫王咸平選先師百老人同予詩入方外英華集梓竣承送  
閱拈謝

徑僻幽深歲月忘誰分桂權載文章清標客已傳摩詰逸韻人猶頌野王  
林接好山來翠遠池開曲水引流長展看欣有知音在欲報還期問艸堂

### 看忙

人多笑我拙我笑人多巧所以我常閒看人忙不了

### 固窮

離家三十載去國一閒身不是慵為計從來懶訴人

### 渡嶺

山水知人性山雲見客心愛看山與水一日一登臨

### 汎舟

潮生江面闊擊水皺天容一日遊三泖片帆挂九峰

鋤荳

一鋤復一鋤鋤盡鋤邊艸只見白雲深不知春色老

答友

偶然更一字莫以我為師我到霜侵鬢纔能讀古詩

送客

客路經秋老江聲帶月寒但成天下士莫只到長安

看月

月破千山寂清輝眼界寬不知何所似立立又看看

乞菊

秋老連山醉秋英覓近鄰若教無此興誰可伴閒人

禱雨

荒畬積老火大地為之焚有咎咸歸我無殃天下人

試耕

曉起驅黃犢披風試白田一犁春色老耕破隴頭煙

巡夜

鐸聲敲落月犬吠傍籬聽不覺舒長嘯驚飛葉一庭

春雨

寺冷三春雨鶯啼盡日風吹殘花十里濃染曉煙紅

回里吟十首

齋出巖陵第一枝逍遙雲外古如斯那知去後書臺老客至難尋別硯詩  
故山風景近如何古蹟蕭條少客過聞說前朝英傑盛人家指點在煙蘿  
去日童顏皓首回半肩風露獨徘徊蒹葭秋水年年在不信伊人去不來  
欣逢父老歎離居好月窺人影更舒品坐簷牙相對久風和夜色入簾疏  
一別園林三十年滿庭芳艸共誰憐不辭遠路多風雨忍聽啼鳥泣墓田  
華表當年翠靄閒誰為收拾只空山多情猶是中天月時惜荒原去復還  
幽棲欲埽幾追尋流水活埋一徑深明月清風聊作供定知鑑我遠來心  
年深故舊半凋殘遠策孤筇對影寒鳥語林泉應識我且同石上暫盤桓  
蕭蕭艸木盡荒墳陌上誰同細論文山水不須頻發笑朝來應接有煙雲  
錐無立地忽西東爾汝還應惜我窮莫笑一歌焚塚上不將杯酒奠幽宮

### 善權百老人萬松嶺塔上種樹詩十首

一嶺傳來列萬松年深無復翠雲封童山片片誰堪惜惟有春光著意濃  
白雲西去幾經春人老空階翠堵新遠自他山分得種和煙遍植石嶙峋  
凌虛一塔洞門隈滿岫雲濤手自栽休笑艸荒人不見總期天外鶴飛來  
價高不惜買山翁撫就森森氣已雄肯比人間桃李質素枝徒染一時紅  
星散同人天一方誰扶煙霧上高岡移時不見清陰淺他日陰深塔又藏  
野色交加喜作鄰扶疏檻外倍精神青山莫放樵夫入應惜朝來種樹人  
夾道平添露遠山青青點破石頭頑好看秀色飛猶聚不禁幽禽去復還  
籬圍壟上抱清臞繞塔松杉幾萬株漫遣濤聲侵客夢累他水墨寫榮枯  
亭亭四顧欲垂陰徑曲幽閒護塔深攜杖時來枝畔立是誰共話歲寒心  
培成歲月欲婆娑石老文章煥碧蘿分付樹神常愛護莫教人採棟梁過

### 山居

閒攜片笠到山家瀑響松風自煮茶啜罷歸來天欲暮半肩明月半肩花  
道人只合住谿山山愛幽深谿愛閒箇箇谿山如舊識谿山指點結禪關  
松風賣盡價無酬且把松風枕石頭一葉落時知暑退那從甲子問春秋  
深入白雲知幾重數間茅屋結雙松花飛林外將成雨樹老巖前欲化龍  
翠竹一竿千箇字青山萬朵半聯詩閒來倚杖谿邊立鷗鷺無端笑我癡

### 姑蘇夜泊

舟留勝地說當年歌管聲連不夜天今夕只餘城上月夜來還照玉人眠

### 澱山遠眺

竹樹森森翠欲流半凝曙色半凝秋移筇絕頂諸山小萬頃煙波一聖收

### 元放故居和王介遠韻

潛水雲屯略約孤江山仍在昔人無夜深唯剩簾前月曾照先生一釣鱸

### 送曹道士之茅山

君去茅山八月天木樨撩亂曉風前征帆明日吳江水回首雲間一帶煙

### 過佛日寺

雨霽江天艸木森權隨流水訪知音疏疏磬引雲歸壑落落鐘催月上林

### 漁父

閒消歲月汎扁舟客裏生涯問碧流細柳疏風天欲暮一聲漁笛下滄洲

### 歸樵

閱遍江天事已非一回歲月一更衣年來贏得霜侵鬢十里空山負翠歸

### 送山夫道人住點易臺(并序)

辰山點易臺在九峰中景最幽勝予常登眺占句云昔人點易坐高臺  
點罷臺空人不來今對易臺留夜月莫隨朱露點蒼苔吟罷而返昨山  
夫來我謂乾一請居其上予喜臺之得主人矣復贈送一絕。  
昨來剡權君看我今主僊臺我看君坐到夜深山月上研朱聲在碧霄聞

### 漁火

空江一抹轉斜暉燈散漁舟傍晚歸點點燒殘明月夜沙鷗驚起故飛飛

### 九日

霜酣楓葉半蕭騷菊老秋英起素濤不信故園離日遠十年九處獨登高  
寒松大師余同里隱翁也別硯超然得大總持印心於百老人作獅子吼  
法語以為海內所尊仰至拈題得句清深圓秀讀之如遊珠網瓊林金沙

玉沼之間豈漢魏以下人所易得耶松陵顧王二子輯其詩繼百老人以  
行誠欲使海內重其禪者並重其詩也雖然詩之禪禪之詩有異余敢以  
詩測禪師蓋禪而詩赴焉我願海內重其詩者當益重其禪爾。

龍眠山居士方拱乾敬跋

方外英華(終)

寒松操禪師九峰艸(原版藏吳江今收入全錄卷第十九)

吳江 顧有孝茂倫 王載咸平 評定

同學諸子參閱

鳳凰十詠(已下俱和韻)

三星閣

臨流傑閣自天題半展丹青與日齊不向家園供嘯傲惟同雲月老山谿  
(顧茂倫曰三星閣出自御學不向家園供嘯傲深得徐文貞晚年心事)。

鐵漢亭

客去留亭想鐵公竹窗似立畫圖中年來筆下無窮思盡付山前一笛風  
(徐介白曰東海風流如見)。

且止園

簇簇雲留洞口春殘碁半局且陶真山花野鳥情無盡何必桃源去問津  
(趙之曰興致悠然)。

錦谿橋

虹枕蒼波勢欲飛水聲西下浣苔衣花開兩岸搖紅影鎖住春光不放歸  
(王咸平曰自是道人本色語莫錯會)。

山月軒

軒前山色滿闌干軒裏清光照影寒相識只餘山與來同客細盤桓  
(顧茂倫曰山月俞先生為方正學門人保方氏孤初冒險姓後更為余萬曆時橋延筠督學南幾疏請復方姓山月其讀書齋也弔古之什妙在不實寫其事)。

芙蓉莊

露染紅英出短牆迎秋又欲占秋光窗開十二煙霞徑別是人間天一方  
(王雙白曰大為拒霜花生色)。

## 南村宅

半山半水半村居野色空濛霧捲舒閉戶不聞塵世事消閒且閱古人書  
(爰山夫曰即埋甕樹下摘樹葉書之滿甕更見他甕所謂輟耕錄處詩有遠神使人尋味不到)。

## 來儀堂

窗懸一榻早安排茅屋交遊柱石才道是鳳凰棲隱處好教明月入山來  
(包明成曰詠鳳凰而獨舉明月匪夷所思)。

## 梅花樓

方伯欣栽冷澹神繞樓花放淨無塵不勞寒策孤山蹇自有香飄滿室春  
(王咸平曰方伯謂莫公中江也人品書法俱能一筆寫出)。

## 摩霄壁

青山江干第一峰劈開半壁勢重重雲來拜石橫難度倒臥長松欲化龍  
(姚文初曰壁下有拜石堂堂去面壁存讀起一句想見振衣千仞之)。

## 庫公八詠

### 採藥徑

林幽複道亂雲飛石子高低繞翠微採藥庫公隨月轉清歌一曲踏香歸  
(倪天章曰單公如在呼之欲出)。

### 藏書函

書藏年遠待誰還雨老蒼苔點石斑分付山靈深寶惜莫將一字落人間  
(葛瑞五曰只恐寶惜不住奈何)。

### 覽德坡

山前客到想高流剩得清輝月一鉤為問當年誰覽德知心只有鳳來遊  
(顧樵水曰只舉明月鳳自來遊此意甚深旨)。

## 鼓琴石

一爐沉水一張琴留跡空山歲月深滿塢松風鳴舊曲卻無鍾子孰知音  
(王咸平曰感慨)。

## 釣漁磯

一片巉巖臥碧谿水痕濃澹浪高低苔深不見林鴻跡時有沙鷗月下棲  
(金孝章曰苦拈漁釣未免失卻磯字此為得之)。

## 洗鶴灘

谿老幽情古渡邊誰將素練浴胎仙潮來兩岸雲千片猶報風流勝昔年  
(爰山夫曰鶴為仙人之騏驎方發得洗鶴意透士衡河橋之歎正未夢見在)。

## 鄭公莊

曲徑深存五柳風小橋斜架石玲瓏不應輕放閒名出盡把棲心覓鄭公  
(顧茂倫曰道著多少名人病處悔恨處真是度世慈雲)。

## 陸寶村

高風陸子露華清藏寶誰留去後名過客欲詢棲隱事枝頭啼鳥一聲聲  
(周安節曰吳時陸氏藏寶處曰陸寶山後人爭發其寶山遂夷為平壤藏寶誰留去後名一語冷極)。

## 佘峰十詠

### 徵君故廬

山水多年皆舊識文章六代起東南徵車不與辭庭外門掩春風共笑談  
(程石門曰老杜哀壑無光留戶庭不及此起句之深遠)。

### 道人舊址

多年玉塵寂雲屏尚有人來訪二青踏遍殘霞何處問關關啼鳥悟空靈  
(顧茂倫曰大青小青聰道人所留二虎名客來不訪道人面訪二青卻似當頭一棒)。

## 講寺竹林

上方瀟灑報平安一徑扶疏列萬竿山靜竹風涼似水老僧六月尚餘寒  
(安大己曰此之者道人六月賣松風句更勝一籌)。

## 香谿石徑

藤花壓水滯輕舠剩有谿眠一徑高人在畫圖行欲盡不知身已醉谿桃  
(徐嚮芝曰別有悟入處)。

## 沐堂曉日

日出先蒸谷口霞光搖殿角半窗斜客來獨把琅玕拍一簇金流滿地沙  
(丘嶼雪曰昔有人上抱犢山見日出散髮大叫宿疑頓盡亦是此意)。

## 塔院午鐘

庵居谿畔似山農愛打樓頭日午鐘不問人間天早晚聲聲帶翠落危峰  
(王咸平曰晚鐘晚鐘詩多午鐘詩少此作居然獨步)。

## 層霞高閣

一閣高懸碧漢閒霞光滿貯醉人顏重重門掩重重水面面窗開面面山  
(陳長發曰如身立赤城之巔與五百應真相往來無一字經人道過)。

## 白雲曲沼

雲水鄉沾彭澤居臨流洗墨繞遊魚橋邊活計三株柳石上生涯一卷書  
(張九臨曰唐子百山靜似太古日長如小年不知誰為第)。

## 梅花書屋

深入長廊曲徑幽交加冷豔壓羅浮書邊一枕春風老疑是和身臥雪舟  
(領樵水曰曾同山夫兩七醉臥其處讀此詩情境俱真何必向羅浮遊也)。

## 東山艸堂

一室深幽抱石蹊道人多半借雲棲有時直向東山去那許尋芳信杖藜

(徐禎起曰有空山無人水流花留之致)。

## 細林十詠

### 崇真曉鐘

巖高金闕白雲封別是蓬萊訪舊蹤為惜下方清夜永一聲夢破五更鐘  
(周其凝曰他處曉鐘移易不得)。

### 金沙夕照

霞迴斷靄影初沉風響仙巖雜梵吟不必滿山鋪碎錦直教遍地是黃金  
(湯兩七曰與前作風格相同)。

### 丹井靈源

玲瓏三尺老山根傳是雷開冷石垣不信丹成仙去後誰遺海眼貯乾坤  
(濮澹軒曰眼界大放淡令香巖海性不止為仙家點綴)。

### 西潭夜月

激潭另是一江河每對激潭發浩歌人月雙融寒不溼水天一色淨無波  
(錢礎日曰千偈漏觸不如一句道破)。

### 素翁仙塚

鶴去峰前曲徑幽仙蹤多為白雲留白雲也道仙蹤好一枕青山萬壑秋  
(爰山夫曰彭素雲元時人洪武初遣中使召之忽化去其仙跡甚多于嘗有山中人導觀仙塚長句頗為同人嗟賞讀此自覺形穢矣)。

### 義士古碑

誰識深山表義碑芳流千古賑時饑斯文寄與煙霞道日日飛來護莫遺  
(爰山夫曰此元夏義士椿也碑臥荒艸中山中陸侯菴欲策亭覆之當鐫此詩子亭中亦一勝事)。

### 洞口春雲

空明一寶巧成紋綠樹參差散遠芬徑外似聞雞犬吠仙人知有臥深雲  
(俞無殊曰宵然仙境)。

### 晚香遺址

山川夢老錦千堆風月猶餘土一抔艸色似知憐故舊年年帶雨上高臺  
(趙砥之日滴紙寒香)。

### 甘白澗泉

石罅流來色愈鮮甘澗不讓漢宮泉誰將靈液移於此放出東山一線天  
(華漁石曰色聲香味俱足)。

### 五爻奇石

攜杖搜奇入翠巒雲根早得附金蘭乘閒共坐谿邊月彷彿論交話歲寒  
(包朗威日米顛呼石為丈後人繪圖傳之此詩亦可畫也)。

### 玉屏八詠

#### 紫芝巖

天開瑞靄繞層阿三秀光含紫氣多春到巖前花滿地猶驚人唱採芝歌  
(王咸平曰偏寫得不寂寞)。

#### 玉蓮池

水鏡深沉照玉顏花光一色繞池閒含情似欲人同語擬是瓊仙月下還  
(黃敘九曰水光花色是一是二會心處正不在遠)。

#### 仙人床

閨苑仙人笑語溫白雲一榻臥黃昏年來想是飛昇去枕簟猶餘石上痕  
(徐介白曰字字欲飛)。

#### 學士亭

窗開曲岸抱清谿雲作珠簾捲戶西視艸不須人秉燭一亭明月代青藜

(顧茂倫曰亭為諸乾一所染二沈學士翰墨風流千載如新詩中有圖分明一幅學士亭圖)。

### 興雲嶺

高疊空濛映遠岑天將時雨便成陰悠悠不欲從龍去道是無心似有心  
(安大己曰便有最陵高臥之思)。

### 苦節碑

風摩斷碣倚雲隈自分冰心老不灰素節若非堅白玉清名誰肯勒蒼苔  
(戴耘野曰苦節先生二沈學士之父也碑為風雨剝蝕得此詩如珠光劍氣不復可)。

### 宜晚堂

興老林泉白髮新滿堂秋色一閒人賓朋揖別香山後尚有黃花作四鄰  
(陳長發曰林下何曾見一人曹時中自堪不朽詩足配之)。

### 景華橋

玉屏山隔水西疇勢展蒼龍枕碧流無那題橋人去後至今華月鎖谿頭  
(徐禎起曰唐人風調)。

### 大陸八詠

#### 丹霞嶺

丹巖一帶淨如春目斷雲霞憶古人誰解登高生隱思不隨青夢走紅塵  
(周安節曰喚醒多少)。

#### 赤鹿坡

艸眠赤鹿幾榮枯鳴入斜陽半有無想是尋芝回嶺去石邊遺跡月同孤  
(王咸平曰只落落寫大意自好實發赤鹿便俗)。

#### 平原村

一灣流水小橋過煙柳人家枕綠坡啼鳥聲聲渾似昨聽來疑有客吟哦

(歸元功曰士衡十年閉戶讀書即此地也俯仰之間便成今古詩能引人著勝也)。

### 寶樹菴

煙堆怪石翠森森蘭若初開玉樹深青磬敲殘幽夢冷梵音原是舊書音  
(陸孝山曰以音聲作佛事)。

### 真珠浦

潮回浦口浪初移白鷺隨風展釣絲每欲尋珠來水面輕帆一片逐雲馳  
(金孝章曰從白鷺入想幽極異極通首輕雋回風舞雪不足喻其萬一)。

### 大陸亭

玄圃光華冠世雄亭留石上正思公知心端是雲間鶴又自巡簷唳曉風  
(程石門曰弔古興哀覽宋沈遼詩尚淺)。

### 醉眠石

不羨功名不羨仙杯斟竹葉飲青天笑看醉裏山河小一枕清風抱月眠

### 白雪灘

寒深玉骨暗飄香疏影平鋪傲眾芳寄語青山嘗作主莫教空老白雲鄉

### 橫雲十詠

#### 連雲峰

縹緲層巒嬾不飛散成波浪奪天機風來陣陣吹難斷似待蛟龍雨未歸  
(戴耘野曰山石固奇詩亦筆飛墨舞)。

#### 麗秋壁

秋入山城影欲然驚人滿眼醉風煙不知霜老樹中樹惟見雲酣天外天  
(周安節曰橫雲山多奇石見于山夫贈山石序又復見之寒和尚詩諸篇奇妙獨此更稱奇絕)。

### 碧崇巖

空臨一嶂碧雲涵似有苔錢障瘦巖我欲乘閒來拾翠侵人寒色手慵芟  
(王咸平曰正復不慵)。

### 雙冷澗

山分素練小亭西燕尾雙承石浪低玉漱雲根寒枕枕誰遺琴瑟一清谿  
(倪天章曰溫潤中饒有異光熊熊)。

### 太原碑

為憐斷碣半山斜石蘚年年點落花有客頻來敲不去只留名字老煙霞

### 來谷潭

練入深雲洗嶽嵐擬將新月釣寒潭源流欲問來何處自有漁人為指南  
(吳海序曰一往破的)。

### 清風院

樹樹花開不自刪瓊林幻出老禪關一聲鐘落山光曉贏得清風滿袖還  
(徐介白曰列子御風行後重見此詩)。

### 忠孝祠

深開畫棟列英豪名節雙懸日月高血灑不妨山亦醉猶存松柏見貞操  
(沈偶僧曰謾謾如松下風)。

### 謫仙菴

竹裏仙居翠欲分風敲石戶掩山雲當年獨唱清平調漫散天香處處聞  
(李膺公曰似謫仙人句)。

### 白龍洞

傳說飛騰風雨遊雙谿深鎖石門幽山靈昨報重歸壑滿洞閒雲澹不收  
(顧茂倫曰每于無可著想處得最異之想大奇大奇)。

## 天馬十詠

### 二俊堂

英譽曾魁翰墨場滿軒詞賦頌聯芳名高山斗千秋重茅屋還存俎豆香  
(孫無言曰弔二陸者多貶刺之辭此作不失忠厚和平之遺平原兄弟有靈當復空山夜哭)。

### 三高塚

壟上花開連理枝四圍春色護穹碑高人去後憑誰弔日落空山鳥語悲  
(顧茂倫曰楊廉夫錢思復為寓公陸宅之乃郡人太守林公慶同葬之于山人奇事奇三百年後又得此詩嘻何多奇也)。

### 雙松臺

森森臺畔立雙松待鶴心堅不受封幾度春秋無異色影搖千尺看飛龍  
(畢西臨曰詩思堅挺如勁艸之受疾風)。

### 一柱石

臨虛峭似筍抽條風雨揩磨渾不凋只道近天剛尺五那知身已在雲霄  
(金亦陶曰氣格高渾)。

### 濯月泉

石出靈源照眼明悠悠浮玉映山城落花不與春流去深浸寒光轉二更  
(顧樵水曰指月拈花無處無妙悟)。

### 看劍亭

干將亭下隱孤巒付與春風帶露看冷焰不隨天地老清光直射斗牛寒  
(王雙白曰是說劍不是說劍憑人築著築不著莫負此老婆心)。

### 八仙坡

石坐群仙列紫苔想從渡海入山來松醪共飲三更月一曲清歌跨鶴回  
(李虜公曰峰頭笙鶴儼然未散)。

## 半珠菴

誰剖珠函挂碧層煙光欲露翠猶凝曉來池上分清影半屬驪龍半屬僧  
(葛瑞五曰千錘萬煉絕不露半分斧鑿痕)。

## 留雲壁

高崖花落蘚紛紛峻峭何妨宿斷雲顧影不嫌山寂寞疏鐘猶帶扣斜曛

## 揖秀軒

春入朱欄夢眼醒笑談面面海山青簾前一樹山梧好時有清聲到耳聽  
(王咸平日詩以秀出以秀入)。

## 崑崗十詠

### 婉孌堂

貞風如昨想青袍處士文章價並高月照華堂憐影瘦偏宜擊鉢助詩豪  
(爰山夫曰婉孌堂為陳徵君初隱之地後移居東侖白石起二句正指其實事更得虛步)。

### 神虎穴

曾聞聚石講山頭伏虎還應似狎鷗何日好風生穴外一聲長嘯滿林秋  
(徐電發曰後二句用事化用意沉)。

### 紅菱渡

菱葉菱花傍水開倒牽山色浸樓臺一聲欸乃微風起滿櫂清歌兩岸來  
(陳長發曰竹枝詞無此清麗采蓮歌無此靜遠)。

### 楊柳橋

楊柳橋邊楊柳風楊花點破碧玲瓏不辭帆落谿風裏只看人梯水鏡中  
(顧庶其曰絕句推青蓮龍標第一此作彷彿似之)。

### 乞花場

閒情老作百花場山水隨緣乞卉忙信手攜來培一徑春風猶在四鄰香  
(丘興雪曰徵君自詠乃有此神境)。

### 白駒泉

生芻空谷惜幽閒時對清流見素顏皎皎情懷君莫問遐心一片付潺湲

### 涌月臺

夜光如水涌無聲最喜登臺照影清乍見只疑山雪曉細看又道海潮生  
(顧茂倫曰陶煉洗剝如仙人之三反毛五伐髓疑有龍伯泛濤吹鐵笛至也)。

### 紫藤徑

紫藤百尺走龍蛇影動還驚艸字斜兩岸人家如畫裏蒙茸一徑倒懸花  
(俞無殊曰清老中娟姿躍出)。

### 玉光亭

湖繞欄干野色侵幽虛滿貯水雲深偶來獨坐消閒日只有沙鷗識此心  
(趙砥之曰妙在無意中說出)。

### 攬翠閣

山家樓閣繞煙蘿遠接嵐光挹翠多昨日東風吹雨後窗前又見碧雲過

### 九峰九詠

#### 一峰梧館

曲曲清流繞萬松山重重又水重重鳳凰何處棲梧館只在雲間第一峰  
(俞非指曰鳳凰山為九峰之冠此詩亦可以冠九詠)。

#### 二峰嘯亭

攬德坡邊積翠濃庫公採藥破苔封一聲遠嘯閒亭外滿徑晴雲鎖二峰  
(顧賓臣曰幽興)。

### 三峰靜軒

蹊分雙嶺水淙淙月隱東西破曉鐘好向靜軒軒裏問侬山誰為號三峰  
(周長康曰為子瞻只緣身在此山中句作一喝宛然如遊廬岳矣)。

### 四峰隱廬

羽化丹丘樹化龍雲生洞口艸生茸遊人是處尋廬隱那識茅廬隱四峰  
(徐行之曰絕去拖泥帶水)。

### 五峰吟閣

薛子情留谷口逢千林歸隱一枝筇夜來吟罷離高閣猶自梯雲上五峰  
(吳聞璋曰玉屏在九峰中為最高峰近來種梅萬株吟與詩尤清遠)。

### 六峰琴齋

山老平原舊日容鶴聲不返去何從朱弦彈冷琴齋月尚有餘音響六峰  
(顧英白曰如聞琴韻在古松流水之間)。

### 七峰雪堂

二俊風流錦繡胸春光一片澹溶溶誰將白雪堂前和留得高人在七峰  
(陳集生曰高人題詠勝于麗秋時應有此嘆)。

### 八峰竹樓

石壁雲開挹翠慵當窗晴景抱遺蹤金篩竹影樓頭日返照澗湖浸八峰  
(顧始菴曰瀟灑家風)。

### 九峰奕圃

一著先爭巧合縱青山列局自天鎔閒敲奕圃燈花落餘響悠悠散九峰  
(趙山子曰九峰倡和詩盈星充棟推凌山英先生九絕為壓卷今得寒大師九詠數百年後重為山靈增色)。

鳳凰山(陶九成隱地有陳仲醇來儀堂)

九山山以鳳為先覽德雲間不計年山得鳳鳴君子董鳳因山顯昔人賢  
非關靈彩殊群族端是文華壓眾巔燕雀不須頻侍候等閒相伴有林泉  
(沈二聞曰作是題者多矣高言落落所謂支通一義四座莫不厭心者)。

### 庫公山(庫公秦時人有亢桑子三卷埋于山下)

深谷人傳姓字芳煙霞採遍信行藏不聞荒艸埋丹灶惟見寒雲鎖亢桑  
洞口樵歸風凜冽巖頭仙去月微芒近來黃石無消息剩有蒼松對夕陽  
(俞犀月曰拔新領異胸懷所及正自佳)。

### 佘山(陳徵君眉公隱處丐為東漢佘將軍封地)

樹色空濛入漢侵樵歌聲裏雜漁音兩山煙雨徵君畫一徑松楸戰士心  
芳艸巖生啼鳥過秋風門掩落花深東西多有貞觀寺莫向祇園覓上林  
(馬橋菴曰兩山煙雨一聯足為隱君壯士千古生色)。

### 神山(彭仙翁素雲棲此有丹井蒲龕一名細林)

苔封畫棟半陰晴對檻風篁巧奏笙青鳥來時千嶂曉紫泥去後五雲生  
屏開繡壁飛花柳鏡展明湖語燕鶯盡道桃源多勝賞爭如僊壑爽幽情  
(趙又呂曰近讀玉峰歸子遊細林諸詩羨其才筆高奇三復吾師之作寫情使事工麗而  
閒適留連不能已)。

### 薛山(一名玉屏山薛道約煉丹處)

不見真君禮斗壇惟餘梅竹冷香攢蓮池月出疑垂釣芝嶺星懸似煉丹  
春老玉屏青不斷秋深金剎夜猶寒空山火棗年常有問是何人得解餐  
(許竹隱曰春老玉屏二語鍊而淨直是唐人警句)。

### 機山(一名大陸山陸士衡生此有平原村)

杉徑依稀舊日村煙消轉覺鳥聲喧攜來鐵甲衣邊血寫出丹霞嶺上魂  
夜雨已憐猿鶴唳青山未老姓名存平原不是無知識那得清風守故園

### 橫雲山(舊名雲山陸士龍居些有黃子久宅)

高賢一去思依依滿塢濤聲展化機路僻從教頑石變巖深不道故人稀  
謾憐客夢餘京洛別有鄉心見翠微簇簇雲林知幾換風流今已屬元暉

(陳白筆曰英氣逸情筆端鼓舞而出二陸風流庶幾不墜)。

### 天馬山(千將鑄劍處一名千山)

房星曾說產洼湄降作無情骨更奇剩得一身和露宿胡為千里帶雲馳  
蹄邊艸色消閒日勒下山光浴半池更有干將金氣在夜深猶共吼坤維  
(沈聲遠曰一結闊合有情致)。

### 崑山(二陸讀書處世稱崑岡雙璧)

松門石室靄煙中徑入松門窈窕通不有才華推二俊安留劍氣倚長空  
文章老去連朝雨俎豆新來拓晚風欲問玉光亭畔月讀書今得幾人同  
(王吉士曰清言瀟灑所謂瀉水著地正復縱橫流漫使讀者自有名通之目)。

### 石鼓山(附 著名赤壁錢公鶴題為第十峰)

誰將巨石結巖阿閒叩聲聲靜裏過磊落無心驚翡翠虛明有勢抱煙蘿  
身環流水知音少路接空山答響多不必桐魚頻搏拊天然仙鼓協笙歌  
(沈五玉曰山光木色靜氣逸情披雜詠之互有映發)。

### 再登二十四峰關(前見赤壁題廿三峰開今增山改曰廿四峰)

嵯峨徑入茂林繁石上猶餘屐齒痕曾帶朝霞來傑閣得看赤壁繞清源  
山如識我情還切鳥似留人語更溫既曰廿三何廿四雲閒又道辨峰存  
(周芝士曰清詞麗句競秀爭奇使人飄飄有登勝之想)。

### 九峰主人歌

山藤踏遍巒江沚第一奇觀稱松水峰峰屏列泖如環造物峻深雅無比  
予每遨遊蒼翠中呼仙呼釋問主翁盡道不知何者是歸來滿袖貯清風  
今晤九峰欣有主瀟灑懶與塵作伍慕道多年輕利名機耶雲耶非其數  
時或同歌何有鄉左余右庫相和長時或同歌廣莫野高踏鳳凰跨天馬  
詞場墨陣排無讓唯善鐵崖呼欲上九峰煙接眾峰煙泖湖浪接澱湖浪  
天生奇境何磷磷一日十登不厭頻我愛青山藏我拙青山愛主得其人  
寄語探幽俠劍客風光莫並韶光擲好生擊碎利名關來到九峰賸白雪  
(程坦如曰通章奇絕異絕人境俱奪妙在一結)。

江南山水閒遠神秀使人易就而難去者無如吳郡之城西雲間之城北  
群峰離立于平田水中無登涉之勞而有棲憩之適覺山陰道上猶為遼

絕余家青芝塢中有鄧尉山居十二詠蓋志其近者杖笠所及多缺焉寒松大師貽余九峰艸雲間諸山吟眺俱遍師刹席在古青龍非若余之朝夕處乎山中而詩乃數倍于余昔帛道猷陵峰採藥觸興為詩廬山諸道人遊石門退而尋之崖谷之間會物無主應不以情而開興引人致深若此今于師之詩中往往遇之余益爽然自失因寄語于師九峰主人春秋有佳會以待客歲為故事點易臺上道人作盧敖遊可復返乎余將與師扁舟赴之鹿床。

俞南史無殊拜手敬題

寒松操禪師九峰艸(終)

寒松操禪師拈來艸(原版藏禮菴今收入全錄卷第二十)

龍眠方拱乾坦菴 婁東吳偉業梅村 選

荊谿 史惟圓雲臣 陳維崧其年 參

### 秋夜懷諸乾一董德仲倪思曼

秋聲來何處老我湖上山湖山堪寄跡故人久未還  
沉吟扶杖起問月出松關明月殊不妄照我鬢毛斑  
一步一俛首徘徊興欲攀仰天舒長嘯餘響苔人寰  
寒泉流碎玉落落瀉蘆灣懷人千里夢猿叫數峰間

### 祝齊司馬

俯松山之東蒼翠碧雲同梅花綻庾嶺竹韻和崆峒  
御屏日杲杲靈樹月朧朧支公年八十渥赭顏如童  
不採商山芝清閒樂春風不馭蓬島鶴瀟灑鳴秋空  
山深雲自在倘伴於其中可以永今古吞吐氣成虹

### 祝張太史

長生無異訣恬澹貴天然我聞廣成子玄知大道先  
爾形不常役素養碧岳前爾神常清淨默契白雲邊  
瑤葩香雪几坐看芝草鮮況師人天者裔出大金僊  
青山凝紫氣綠竹護蒼煙玉顏映春色春色日生妍  
應與乾坤老不隨景物遷

### 秋日送北溟和尚遊雲門

吳江之水出青龍微茫宛轉醉秋楓秋楓一葉隨雲駛  
滿載新詩泛海東海東雲門有六寺此去先遊最上峰  
落霞過眼成殘夢夕照連山點畫中慚愧青溪守株客  
寂寥獨抱老焦桐吳嶺風霜今更別見人須為剖虛衷

### 祝戴文學

日麗南山山之陽桐葉叢叢靈鳳翔至人雲外空  
今古造物何心來禎祥竹戛玉兮柏舒翠薰風拂拂吐  
清香千齡應瑞結芝宇古稀為晉碧霞觴壽量期與寶  
掌齊長生何必羨雲房心知和樂悅未央山川稽首祝  
無疆永且逸兮順而康御屏擁翠松風長

### 行(居徑山特作)

翠踏浮雲碎尋幽遶碧叢千林雙徑出萬壑一筇通步散長天外身間夕  
照中嘯聲來絕頂引起四山風

### 住

徑關人來少山深我得先清池留好月茅屋老蒼煙居竹連身瘦棲霞帶  
影然谿聲常在戶春去不知年

### 坐

日霽松梢淨閒趺滿地金禪餘青嶂迴定徹白雲深艸健芽穿膝苔幽翠  
溼襟無人堪共語萬籟坐成陰

### 臥

不必胡床問煙霞到處家半簾垂紙帳滿榻浸梅花門掩青山靜雲眠白  
日斜深岳人事少無復記年華

### 賦得緣雲擬住最高峰

為愛青霄好餘情總莫聞卻招松頂鶴同住嶺頭雲春色高低共秋光爾  
汝分是誰知此意一徑下斜曛

### 收春亭為徐平谷賦

愛此閒亭靜開簾捲萼蘿林幽逢夏少地暖得春多踏翠攜筇入尋芳載  
酒過止因徐孺在倚檻發長歌

### 阻雨柳上

飛閣驚風雨淒淒動客吟朝雲迷棟牖空翠溼衣襟鴈陣投寒渚濤聲隔  
遠林旅懷空佇望流水話知音

### 石萬蒲

何來一寸碧得占四時芳老節非無萼盤根別有香盆穿龍骨瘦石露虎鬚長莫與仙人採春留入畫堂

### 和胡旋九過訪弁山原韻

山靜人來少文星照遠峰臨流時踏翠帶露幾扶筇嘯冷重岳竹吟深曲澗松因思風度久月夜喜相逢

又

未識旋公面冰霜我素欽千山留客屐一語見君心石老蒼苔瘦岳高古木森不辭三徑杳風裏再披襟

### 過天童訪友

因探名藍勝迢迢踏翠來三唐留一寺兩宋結層臺水自蓮橋出雲從楓徑回談深青嶂迴身世等蓬萊

### 冬日偶成

衲破無人補簾疏待日遲千峰清玉案兩鬢老霜枝何處非佳致相逢發雋思滿庭楓葉落清艷欲催詩

又

曉起霜花瘦風寒啟戶遲篆煙凝素壁梅蕊逗新枝游子留深意歸人寄遠思聽鴻來跡杳清唳一行詩

### 秋夜

星河斜未轉漸漸火西流月色憐清夜砧聲報素秋人從霜下老家在夢中遊卻憶當年事江湖一釣舟

### 舟泊垂虹亭贈客過訪

洞庭秋色好一櫂泛東南偶泊垂虹處多逢逸士談晴湖開遠鏡曉嶂潑孤嵐共坐江雲冷霜楓落葉酣

### 熊司馬蔣太史同遊張公洞

久熟張公洞乘閒適勝遊古藤欹怪石飛乳結重樓雲竇通幽靜霞光帶溼流如何荒壤處亦自有丹丘

### 寄介大師

雲深環曲徑萬竹隱玲瓏光摘耶谿月家傳弁岳風龍蛇遊筆底花雨散  
庭中他日予相訪江天一櫂通

### 訪徑山主人

兩載人三晤唯窺豹一斑禪心澄碧水法眼老青山香散曇花靜經翻貝  
葉閒好同雲外客日日笑松關

### 和徐太史秋日見寄

風來吹我袖桂溼夜光浮石冷依雲坐山深帶月遊情酣楓一徑夢老菊  
三秋幾得耶谿櫂波乘客思悠

### 懷湘翁和尚

夜靜蓮花漏幽懷淡不勝翻書惟自適看竹共誰憑夢冷三江月愁消一  
夕燈迢迢山水杳縮地愧無能

### 曉泛太湖

虛白天初曉山城動早炊片帆收宿雨滿櫂載寒漪濃淡雲中髻東西水  
上眉蒼茫渺無際何處問鷗夷

### 不流泉

源關知何代澗澗異眾泉名清慵逐浪色皎可藏天曉掬爐峰翠秋涵耶  
水煙至今人不識萬古伴逃禪

### 程純士楊昂霄聚五程敬三謙益同移竹種

暮雨蓬門溼根移宿土深攝生唯有節虛己欲無心己自林收暑况逢山  
更陰他時燈影下宛若聽鳴琴

### 楊箕六羽公南一代工飲弁山芥片次戴月樓韻

品實龍團俊吳興浪得名引泉烹月白和蕊瀉天清香帶三春秀風隨兩  
腋生坐深醒客醉寧復釀群英

### 十七夜雨後看月和韻

離畢纔霑潤餘輝更覺圓橫山流皎潔跨海涌嬋娟眉挂千尋緣心空萬  
里天睺睺忘夜永不復枕書眠

### 次韻留別戴月樓

百雲無定跡數載托門墻未到稱觴日先期祝畫堂一帆懸極浦千里隔  
清光惟有山前月依依客路長

### 蘆菴八詠

己亥春涵公來余谿上詢其居曰蘆菴以其環菴皆蘆也詢其境曰雪浦  
以其秋容橫徑春色遶籬籬之右有谿谿名返照谿之東有閣閣名迴瀾  
前汀宿鷺後沼敷蓮蓮沼之上築室如斗有霞可貯有月可乘乃瓢月窩  
也如是心竊嚮之得假秋孟縱扁舟凌積雪悉如公所言成詠以記即日  
俾後賞者知予境志。

### 蘆室

數椽雲裏縛危墻風捲層層接浪長秋岸柳殘猶積絮曉簷月落尚餘光  
夢清似臥深岳雪坐冷疑談滿室霜何復空無塵一點好將湖海盡含藏

### 菊徑

稜稜石夢抱苔生砌冷西風節操清曲列繁葩開曙色斜分幽艷傲霜晴  
送人欲語含香立揖客無言帶笑迎步滑秋光侵履溼偏迷歸路錦中行

### 遶屋梅

冰肌照水萼初鮮鐵骨橫聰影乍眠暗有清香環竹戶瘦無寒葉泛流泉  
四簷日煖開三徑八面春消浸一天久羨主人多舊識夜深風動月娟娟

### 返照谿

薄暮西山蘸水涯半竿返景釣平沙龍鱗疊疊篩金碎燕尾離離剪玉斜  
影倒堤邊分素練光迴鏡裏織流霞乘閒小立桑榆外上下隨波一望賒

### 迴瀾閣

縈紆一片溯危樓面面遊人倚碧流簾入浮光清可掬檻凝浩色冷難收  
遶簷淡浸雲天曉倒影深驚海國秋半笛涼風閒縱目山川消盡古今愁

### 宿鷺汀

鳥落腥風染巨河飄飄絲頂玉揩摩煙棲恍似潮侵岸沙宿猶驚月映波  
夜色踏殘寒不少湖光點破碧無多週迴十里迷漁艇曉散空餘綠漾莎

### 菡萏池

盈盈數畝浸漁磯露滴新荷色更肥對月無人常欲語惜香有夢淡慵飛  
光搖綠幹流斜影彩織晴波浴素輝岸葦環舟人不見清歌知有採蓮歸

### 瓢月窩

斗大乾坤奪化工虛心淡與玉蟾同簷分眉黛浮清影輪抱詩瓢貯晚風  
一室光留霄漢外半間雲借廣寒中人家猶隔山前路那有雞聲到澗東

### 五旬初度

晴虛萬里鴈傳聲天入冰壺影更清丹灶與人既無分青山自是老閒情  
不須露冷三更夢空有秋高八月明岳峻住來忘晝永知非誰又學長生

### 春日偶成

茶蘼香褪筍抽芽門對蕭蕭竹幾家鶯語垂楊聲漸滑人行芳艸興偏奢  
煙霞錯落東西岸桃李參差上下花回首渡頭風色淡支筇閒數燕飛斜

### 嚴太史丁亥史同遊怪石塢分韻得斑字

東風攜我一朝閒礙徑蒼枝取次刪樹老薜蘿生就古苔封石磴養成斑  
乍看盡道雲歸壑小立猶驚霧宿山笑指巉岳猿莫度倚松時見鶴飛還

### 考盤謾興

谿風滿徑暗飛聲竹裏人家帶翠耕寧與乾坤藏古拙肯將歲月博虛名  
煙深春色梅初放香老秋容菊又生一片野情閒不徹枝頭好鳥語分明

### 過雲際寺

探幽獨得入重巔一杖斜擔萬壑煙水滿石潭龍乍起雲飛松徑鶴初眠  
巡簾清磬敲明月抱嶺疏鐘扣碧天何處僧歸谿上影好來燈下共談禪

### 細林懷古

高登仙徑欲尋蹤丹灶煙消冷似冬鹿去峰頭蒼蘚積鶴飛洞口白雲封  
曉看柏葉疑清影暮對梅花想素容只有細林山上月還來夜夜照孤峰

### 蘆灣釣艇

兩岸秋深色半殘生涯分付一漁竿花飛亂雪谿顏老日落清灣水面寒  
碧藻戲魚翻錦浪綠楊曳櫂下晴灘絲綸收拾渾無事笑狎波鷗鏡裏看

### 潮迴古岸

蓼汀秋老悵無涯浙浙寒濤嚙淺沙澗激千尋光涌月溯迴萬里氣蒸霞  
疏楊帶雨隨風亂小艇依鷗出浦斜遙望煙村迷埜渡蘆灣隱隱幾漁家

### 舟中值雪

遠近平鋪一色天新詩滿載子猷船紛投湖面尋無跡點綴梅腮看更鮮  
歸鶴淡迷雲外樹披蓑慵釣水中煙而今好劇剡谿興謾枕寒流抱月眠

### 鴈字二首

絕海排空筆勢寬遠塗霞練飽風翰篆成鳥跡煤還溼隸出龍文字欲乾  
曉起仍將雲拂斷夜深常把月批殘似知爻未分河洛先展飛章壯大觀  
高揮瓔珞起霜風點綴才情奪化工雨過形鑄青玉案日斜影勒紫霞宮  
乍看疑帶煙微抹細認還連霧薄籠堪惜時文都掃地故將古篆寄蒼穹

### 江夏張千戶全家殉節和韻

煙捲黃沙鼓角時一聲吹動滿城危魂銷馬革荊山冷血濺蛾眉漢水知  
細雨催花添客淚空林啼鳥代人悲全家雖載千秋史金碧還留佛火垂  
(剩一子出家)

### 和拙菴大師崆峒山寄懷

頻年蹤跡傍雲寒雲水空濛鼓櫂難不有風回邃谷何來好月下晴灘懷  
君襟度三江闊笑我鬚眉半雪漫峰泖只今情更好片帆莫惜剡谿歡

### 和霞胤大師春日過訪韻

多年瓢笠懶為裝喜遇交知舊話長暖入谿頭春雪霽晴回谷口早梅香  
愛君瀟灑常牽思愧我疏慵老更狂把手山前時一笑童心未改任風霜

### 和汪周士季青過訪韻

常年竹屋老山家慵向侯門轉法華分野忽來雙德宿煙雲影動半窗斜  
時遊碧嶂同尋藥閒品清泉共煮茶天亦有情留客意故將風雨阻嚙譁  
影息空林懶渡杯足音高蹈遠纖埃談深石上連雲坐嘯徹松間跨鶴回  
茶熟清泉翻蟹眼香銷活火宿螺灰淵明莫訝山齋冷他日乘閒須再來

### 春日閒居和韻二首

霜翎無復憶蘇耽翠旭猶思訪劍南風綻好花偏訝妒雲依怪石乍疑貪  
輕煙小浦梳晴鷺細雨空階浴曉蠶自是山家多逸趣棋分仙子共攜籃  
欲卜幽棲老益耽幽棲原不在終南影垂柳葉因絲細香結桃花為子貪  
三箬風清啼越鳥五峰日暖簇吳蠶春深是處園林好摘得青青蕨滿籃

### 輓默符大師

寂歷青山鳥不鳴池塘芳草夢初驚影分隻鴈雲千里魂散孤鶩月五更  
春樹依依添黯色秋江浩浩瀉愁聲忍看白社今寥落風雨黃昏滿室生

### 南洲和尚白雲夜話

鐘沉古寺漏聲殘喜對幽人興未闌蕉葉驚心來暮雨蘭香有意薦春盤  
敲窗竹影隨風弄墮席燈花帶笑看自是話深眠不得一聲旅鴈破雲寒

### 偕諸禪者雙石庵移貓竹

分得淇園襲暗香飄飄林外碎琳琅半生活計餘三徑千個閒情可一方  
鸞鳳棲殘因節勁魚龍釣盡為竿長此君不作趨炎態常伴山家六月涼

### 社日新晴同諸子集戴文學草堂次韻二首

陰雲散盡起和風誰露晴光野色融雨霽子林山欲翠天開萬境日初紅  
奇花約我招陳子芳草催人訪戴公曉出橋邊聞鳥語青霄不與昨時同  
暗度陽和擘柳風晴攜藜杖帶泥融山含宿潤微拖碧花擁晴嵐淡抹紅  
明月滿懷歸劍叟白雲幾樹挂壺公侍中也道田家樂笑指春光處處同

### 宗學博過訪和韻

深入煙霞何有鄉誰來車馬曉飛揚傳經幾度開文苑曳履頻遊選佛場  
皖水風高聲遞遠君山月朗影流長白雲意欲連宵話他日還期到上方

### 圓通大殿上梁兼贈笑翁和尚

弘濤峻秀壓群山大啟圓通紫翠間彩結珠林瞻佛地震流金碧擁禪關  
千尋殿聳天花墜百丈岳開海鶴還遙望庭前香篆細滿爐雲靄鷓鴣斑

### 和戴恂九春日過訪韻

香老梅花識素心無干寵辱古猶今文章不易連城璧聲價先馳翰墨林  
明月一壺青嶂曉高風滿徑碧雲深朝來展讀臨軒外錯落珠璣助客吟

### 讀衍慶堂詩

門環翠靄萃英賢滿座清風別一天引鶴徐行流水外攜梅同醉畫堂前  
裁成雲錦人爭羨瀉出珠胎世並傳不獨洛陽增紙價會須忙殺市書船

### 宗堂種桂

朝移雙桂植庭中老翠連雲抱曉風香散黃金來佛國影分碧玉自仙宮  
參差皓月陰猶霽點綴輕煙淡欲籠笑倚闌干清夜永時聞蟾窟覓芳叢

### 竹筆筒銘

三笑圖三松筆我銘之成三絕

### 端硯銘二首

端谿產英水玉函聲曷表爾德曰恒堅貞  
金全其聲玉全其質德潤煙霞眼明鷓鴣不雨長陰無霜自肅堅而不頑  
靜而克淑吾是以知端方之品皆可以入聖賢之室

### 竹秘閣銘

日新月新乃規乃式清在爾躬玉咨爾德處己虛心同人  
有節雪後君子為天下則

### 題畫

岳峻虛含碧霞明谿欲曉秋來柳不疏山色青無了

### 春日遊鐵壁居(三絕)

露深花不語風淡竹生濤遊遍日將暖呼童解緼袍  
梅老籬邊雨石廚香且甜住僧留我宿款待不須鹽  
岳畔煙如滴有人高負暄問君何所取山鳥識人言

### 竹杖

不必輕投棄時陪出遠山摩娑青骨瘦常帶白雲還

### 蒲團

片雲鋪地穩山靜不知年坐冷初晴夜從他欲雪天

### 瘦瓢

閒貯雲千頃高懸月半鉤翛然天地外樂飲孰同流

先師翠堵自辛亥至甲子告成匠人索塔石之直昕夕促迫鬻衣  
鉢償之不足則變青羶基業猶未給也感成八首

偈書八月別維揚一櫂仙龕載墅航歸砌善權經七載是誰卜地問真藏  
簾穿紫燕舞雙雙殿老無人撫石幢偃柏不聞山雀噪巉岳惟剩籜龍降  
鴈序推予穴可尋眠牛早購誼捐金山來話到全無主空有冰霜一片心  
聯芳六七水雲親履未西歸各隱淪已道豐碑摩歲月不聞遠權訪嶙峋  
同出師門志各堅清標嵩岳起家傳非關道阻雙魚杏只為多參解脫禪  
二七功成九月中青羶變盡鉢囊空欲賒玉露酬鑄客先鬻金飆償石工  
門開一室貯煙霞老去空山兩鬢華世事渾成原上露人情總付水中花  
鐺煮乾坤帶晚炊光生翠堵月臨池那知無限山川意總在源流不盡時

### 龍華十詠

#### 彌勒峰

坦腹何年降翠微青山不老笑忘歸非關雲月頻來去自是襟懷朗素輝

#### 青龍岡

幾曲稜層幾曲斜蜿蜒蒼翠轉天涯不須潭上僧擎鉢遠自東來作護沙

#### 獅子岳

白澤峨峨語碧蒼嶙峋山色遠昂藏天教生在千岳上不待聲傳百卉芳

#### 象王峰

六牙高獻鬱崔嵬隱隱無驚石上雷謾道春深花不入長流噴鼻繞溪回

#### 花石澗

誰來石上種芳叢不逐清流繞澗東料得春歸無著處群英轉闕水晶宮

#### 寶珠池

松杉倒水綠雲垂半畝環塘合浦移只為夜光常在沼卻教龍鳳到山池

#### 六和泉

誰引曹源滴滴清天光和月繞山城不因六寶供千指爭得長空作雨聲

### 天井嶺

甃碧崑崙貯石坡玲瓏孤聳響山阿人來谷口探奇勝不是雲過即鳥過

### 嘯月臺

層臺四出倚雲林似與清光好更深夜靜時來留客坐一聲長嘯碧千尋

### 怪石塢

層層石浪涌谿山曲徑高低翠靄間雲捲渾如秋水骨雨晴錯認落星灣

### 皖桐八詠

#### 桐梓晴嵐

丹嶂橫開水墨屏樵歌谷口畫中聽遠分山市千尋碧淡抹仙岳一帶青

#### 練潭秋月

雲根淨洗貯深淵蕩漾晴空一鏡懸別是冰壺清有露波光占斷十分圓

#### 投子曉鐘

夢破城頭韻更清猶疑絕頂扣新晴非關古寺聲沉遠盡入松風徹五更

#### 孔城暮雪

寒光壓屋寂無聲歲晚林巒玉疊成欲訪前人偃臥處梅花冷笑自知情

#### 浮山夕照

霞流淡影泛峒嶠樹轉餘輝翠欲漂直繫長繩牽返照莫教倒影入波搖

#### 樅川夜雨

林深黛色掩寒扉帆捲漁燈帶濕歸滴碎山川侵客夢洗清天地悟禪機

### 竹湖落鴈

翠繞雲山水遶空字排沙磧印歸鴻不知紫塞春風裏何似清波閨苑中

### 荻埠歸帆

野岸蕭蕭浸碧流扶疏黃葉捲歸舟晚來一幅霜天景和影和帆帶月收

### 禮菴八詠(菴為師所築退居守百老人塔)

#### 離墨峰

天開仙嶂出雲端丹灶懸岳挹露寒翠壓芙蓉平地起嵐分陽羨半山看

#### 善卷洞

林深空谷倚山隈漁樵無從載月來澗底水墨龍起處年年常見碧桃開

#### 九斗壇(梁武帝祈雨處)

錯落瑤臺石徑分空山老樹帶斜曛六龍去後秋風冷鶴化壇前一片雲

#### 萬松嶺

林立森森展翠屏影搖十里老龍形不消圖畫鵝谿絹秀拔江南萬仞青

#### 洞山泉

一泓卓出碧雲涼清瀉時翻玉線長曉起坡前和露汲深林靜泛落花香

#### 明月池

風生細浪鏡中圓一片寒濤浸遠天誰把冰壺移在此清光放出影娟娟

#### 藏真塔(即百老人窳堵坡)

老去雲霞一塔新風摩金碧淨無塵夜來石上聞天語何處青山不待人

### 待仙橋

飛虹百尺鎖柔條素練難將翠影飄竹杖曉來因俟客閒行不覺過仙橋

### 寶巖八詠(寶巖出名即雲際寺)

#### 吳中石像

吳中浮出露金容一片晶光燦影重不為乾坤開寶筏那知山水毓靈蹤

#### 宋世槐陰

翠積千條雨露新前朝金碧蔭無塵黃花溪畔年年發惟有山僧是故人

#### 石屋嵐橋

嵯峨石室鎖莓苔簾外嵐生戶半開宛轉蒼龍晴臥影路通宵漢待仙來

#### 考峰峙錫

為解山前兩虎爭一峰高峙碧雲擎林間雨過天風起多少人傳振錫聲

#### 東林吐月

亭亭翠聳樹邊多夜涌冰壺漾碧蘿山白盡驚天乍曉溪明又道水生波

#### 西澗鳴泉

源出石谿響翠微涓涓右繞瀉珠璣等閒不放漁舟入雨化空聲夾岸飛

#### 石蚌含珠

石涵瑞彩露猶藏百嶂仙岳吐夜光瑩徹胎間搖藻麗影分潭底照流長

#### 金雞宿水

芥羽星睛鑑碧漣慵裝錦翼鬥花前朝陽不唱山邊日踏水惟眠鏡裏天

## 白雲八詠

### 香爐寺

霧靄樓臺日上遲沉檀煙煖噴金獅欲尋芳馥來山谷只在氤氳未篆時

### 白雲山

玉屏高倚列奇峰曉接嵐光簇影重有意伴僧閒抱石無心不復遠從龍

### 遶佛徑

霽碧星河永夜清盤空燈火遶山城風隨徑轉更三漏月引人歸磬一聲

### 出水蓮(山形如蓮前臨溪水)

香清雲錦綻煙波石瓣層層挹翠多開有年深常欲語更無人向虎谿過

### 流金(即蓮心師塔建此)

疊嶂遙開一鑑圓白雲捧出碧岳前煙流仙沼堪成畫風靜蓮臺足隱禪

### 步月臺

雲銷石磴月華侵碎踏寒輝涌碧岑皎潔不嫌山寂莫留連似與客情深

### 帶玉谿

堤分燕尾漾清灣十里銀濤束半山有問晴飛何處雪谿聲遙指白雲間

### 迴龍岡

遠出天門躍翠虬飛騰千仞浪中浮隨蜒隨蜿橫雲外知是崢嶸幾度秋

## 龍門八詠

### 龍門

高登禹浪轉星河隱隱重關翠靄多曉起噓雲天外去惟餘石戶掩松蘿

### 瀑布

一派空飛萬斛珠風吹不斷接雲衢金波莫與山收拾留取鉤簾挂石臞

### 羅漢峰

西來不愛白雲乘擁翠跣趺最上層明月也知青嶂好晴空先照坐禪僧

### 天方池

半畝天開石上流波光湛湛冷煙浮凌晨花落千峰影薄暮風生一片秋

### 白龍潭

光分素練半晴陰滿沼腥風襲遠岑想是曉登三汲浪岳邊猶剩一池深

### 雨珠崖

石老空林雨蚌胎人疑合浦夜光回寒輝點點山藏媚莫使驪龍盡日猜

### 古藤洞

門開萬壑鎖煙霞草長仙蹤一徑斜滿壁龍蛇搖翡翠和風送出碧桃花

### 獅子峰

峭拔孤峰搏象形玲瓏萬仞眼懸星風生大壑渾疑吼會有人從月下聽

### 山居

九峰翠色連三泖四海晴光共一天盡是我曹囊裏句尋詩何必到梅邊  
靜裏清飈自掩門山中別是一乾坤七松五柳高風在雙桂三花古道存

經脫白處(崇禎癸未薙髮桐城地藏關七日即遍參康熙癸亥過此感賦)

撥草桐陽翠滿樓繞城山水轉長流翻思髮落軒前日一杖翛然四十秋

煙霞盟久未登樓權轉煙霞接上流忽聽山城相耳語聲聲道我鬢垂秋

## 六十自敘

夢託高僧兩鬢霜聲啼戶外報更長當年愧與潮同日此夕空傳滿室香  
(母氏夢僧借寓產時聞香)

時逢犬吠起塵沙教秉方規義更嘉祇為酬金全不顧始知清白可傳家  
(甲戌民變家君救方氏數十人報千金不受咸以義士稱之)

深入鋒波覓二親號天弗應淚痕新不因別硯投空谷爭得椿萱脫苦辛  
(明季寇亂父傷母溺遍覓無音代酬夙志)

遍詢煙水浩無邊暗度韶光廿七年坐破蒲團知幾幾得來妙處不須傳  
(晉謁廿餘知識末後脫穎弁山記薊時年已廿七矣)

青龍十載善權三轉入爐峰(即香爐寺)草木酣石丈詢窮雲際(寺名)路  
浮圖仍遶國山嵐(尋師塔址數卜名山吉壤難求仍遵遺命)

巋巋翠堵未成功問鼎人來劫火空築室暫期安樂院弁山權肅舊家風  
(寺占塔荒不遑居處暫赴兩山為權守之計)

一塔培成十六春禮菴(廬名)猶待再來人緣茲重謝靈山召日埽蒼苔  
補石垠(時憶再來之識築室獨居頻辭外請)

晴光攜我繞仙岑摩撫碑幢護上林六十一翁何處問瘦筇只在白雲深  
(塔事告竣命僧代守歸憩白雲)

## 讀木崖集

風雅爭傳紀有年忽遺珠玉滿庭前情知陶謝應無敵寫入香山第一篇  
乾坤老我不知年姓字時聞客在前一帶雲霞裁古句兩京風月展長篇

## 訪投子青祖塔(傳燈載祖塔三峰巷後明人依葬片石僅存瞻禮感賦)

前朝金碧叩西鄰斷碣相傳欲隱淪不是龍眠山上月常年誰照塔中人  
再上層巒翠密遮林荒塔老夕陽斜殘雲滿徑誰收拾閒殺三峰幾樹花

## 寓靈泉陳越樓姚羹湖丹楓潘木崖戴叔冶方世五東來過訪

別後鴻奇半有無高軒遠過草亭孤徑荒無假凌晨掃天遣簷華洗石衢  
深林寂寂鎖蒼苔惟有白雲去復來靈鷲不曾傳信至燈花昨為故人開  
柳外旌旂拂曉塵英耆驚喜白頭新那知一會靈山客來訪三生石上人

## 編百老和尚全錄有感

遵選遺編刻不停渾忘寒暑逼微形裁成一字分今古寫就千章冠丙丁  
深懷剗剗遇人稀誰是同知慧命微欲向鋒前陳錦繡先從紙上燦珠璣  
法檀滿載訪知音古道無人冷淡深款乃一聲山月上娟娟照我廿年心

### 懷淨土(得南無十二字)

稽首西方孰指南一程十萬鏡中函蓮壺聲滴花間漏點點催歸客未諳  
荷生王沼露香無遠散雲光列畫圖因憶天台華兩勝樂邦端不越長途  
果結禪林隱淨阿花開淨社繞禪河永明禪學猶崇淨禪淨誰分水上波  
瑤階寶樹色堅彌樓閣參差蘸碧池歇祖相逢時一笑故鄉謂我到何遲  
朝朝斫額望彌陀一別慈顏幾夏過叩到中峰天欲曉雙雙白鶴舞雲和  
一朵蓮開生一佛池激七寶風微拂優曇現不在西東掩映交光香馥鬱  
迦陵疇昔曾同願大事多逢知識勸一日護生十二時半函課唄聲千萬  
花綻蓮池託化生香風遠引繞金城輪珠百八誰為念念到無聲莫問程  
風送梵音過嶺西梵音不輟轉前谿但蒙大士舒光照早得彌陀引手攜  
晴湖萬頃[泳-永+助]無方載出新荷滿櫂香佛繞長隄聲遠近月高古  
塔影微茫

霽碧關河千嶂淨鳥鳴時雜人歌詠休從象外覓西方端在目前嘗揜映  
金臺何日臨東土接引人歸千佛數非颺非幡任捲舒花開花謝無今古

### 舟發楊子江訪青龍北和尚議刻先師遺稿

櫓聲搖拽水聲清千里尋幽一櫂輕獨抱琴書梯白浪不知身在畫圖行  
凍解陽和霽水濱江頭浪暖早逢春不辭一葉浮千頃猶把珠璣覓故人

### 再發楊子江會青龍方丈丐梓百老人法檀

斜披細雨涉江干又是春光一度看但得遺篇開夢眼何妨白髮走波瀾  
刊梨曾約叩朱扉蹋遍空江帶雪歸驚起風前雙白鷺似知識我故飛飛

### 三發楊子江抵青龍圓成先老和尚全錄

空濛煙水暗晴窗挾艇飛來白鳥雙為竟瑤章消歲月望中三復過龍江  
曉泛晴川訊隱淪到門喜見舊來人書成笑對前年樹遙映由拳雨後新

### 同青龍北和尚送老師全集入楞嚴大藏

兩兩冰心水一灣知心猶在海邊山遺風載上鴛湖月深貯樓臺翠靄間

繡棗期圓託上方慧光滿載問行藏滄江與我情何好來往波中已四霜

### 囑託楞嚴經主事

鐫書不問歲時遙一字功成一淚消雨後風前收拾好莫教零落委塵囂

### 留別青龍北和尚

數載深談喜有期此情惟許白雲知霜顏客別霜顏客後會遙知是幾時  
雲開沙渚送歸鴻早發吳歌浩渺中回首龍江波浪闊片帆千里飽春風

### 秋夜吟

漏寂山城獨掩門幾家砧杵亂黃昏風前落葉吟訴句隔岸鐘聲欲斷魂

### 送耿玉齊歸楚

白雲江上櫓聲柔劃破波心兩道流今日送君離古渡他時應夢洞庭秋

### 遊虎丘

天外披雲入寺中點頭石老憶生公澗邊鶴去人何在萬古霜摩一劍風

### 夕照

斜穿石竇山光紫倒射籬根草色黃任是魯戈揮不住餘暉一徑下牛羊

### 題點易臺

昔人點易坐高臺點罷臺空人不來今對易臺留夜月莫隨朱露點蒼苔

### 蘆花

皎似梅花淡不香平鋪數里欲飛揚看來月下寒無影細剪秋風兩岸霜

### 贈送袁重其

吳水悠悠不計年吳山渺渺隱高賢鬚眉尚未知袁子耳畔惟聞霜哺篇

## 再遊西湖

春風再到武林遊花半含悲柳半愁剩有湖光山色在六橋不見舊蘭舟  
西湖老我每偷閒廿載重遊鏡裏山花柳盡銷峰骨露空餘橋畔水潺潺

## 登太平寺萬壽閣

大江西下九龍蟠高閣凌霄入畫看拍遍闌干天欲暮濤聲猶帶雨聲寒

## 即景回文次韻

雲堆巧石山塗墨畫入詩情風捲煙群艸鬥香花細細老松篩影月娟娟  
詩從無字處生還從有字處覓執一失一不墮枯葉邊即逐亂流中去矣  
寒松和尚禪宗峻峭音節高超有字無字兩際俱斷信手拈來溯洄波浪  
吞吐風雲知師之詣於此道者深也有客持師集過梅村問詩從何處生  
曰千林雙徑出萬壑一筇通又問詩從何處覓曰卻招松頂鶴同住嶺頭  
雲是為序。

婁東吳偉業盥手謹題

寒松操禪師拈來艸(終)

---

## [CBETA 贊助資訊](https://www.cbeta.org/donation/index.php)

[.\(https://www.cbeta.org/donation/index.php\)](https://www.cbeta.org/donation/index.php)

CBETA 成立於 1998 年，於 2023 年 8 月 7 日轉型成為基金會。成立多年來，一部部佛典在嚴謹控管中轉換為數位典藏，不只數量龐大，而且文字校訂精確可信，又加新式標點方便閱讀。「CBETA 電子佛典集成」不僅獲得國際學界的重視及肯定，也成為大眾廣為運用的公共資源，如此成果都是在廣大信眾及有識之士的支持下才得以實現。

對一個從事佛法志業的非營利團隊，能夠長期埋首理想、踏實耕耘是非常不容易的。如今，CBETA 運作經費日漸拮据，但「佛典集成」仍有許多未竟之功。因此，懇請大家慷慨解囊、熱情贊助，讓未來有更多更好的電子佛典。

您的捐款本會皆會開立收據，此收據可在年度中申報個人或企業的綜合所得稅減免。感恩諸位大德的善心善行，以及您為佛典電子化所做的一切貢獻。

---

## 信用卡線上捐款

本線上捐款與 netiCRM 及 NewbPay 藍新金流合作，資料傳送採用 SSL (Secure Socket Layer) 傳輸加密，讓您能夠安全安心地進行線上捐款動作。

不管您持有的是國內或國外卡，所有捐款最終將以新台幣結算，所以我們所開立的捐款收據也將以新台幣計。

線上刷卡支持定期定額與單筆捐款。(銀聯卡不支援定期定額)

## [前往捐款](#)

---

### 劃撥捐款

郵政劃撥帳號: 5 0 4 6 8 2 8 5

戶名: 財團法人佛教電子佛典基金會

欲指定特殊用途者, 請特別註明, 我們會專款專用。

---

### 線上信用卡 / PayPal 捐款

PayPal 是一個跨國線上付款機制的公司, CBETA 引用其服務, 提供網友能在線上使用信用卡或 PayPal 帳戶贊助 CBETA 。

PayPal is an online system of a global payment solution. CBETA uses its service to provide the uses to donate by using the credit cards or PayPal account to support the CBETA project.

相關收據開立事宜, 由於付款幣別為美元, 我們除了會依您所贊助之美元金額開立收據外, 另我們會依捐款當日公告匯率開立台幣收據, 此收據為國內正式合法報稅憑證。

Since the donation made is in US currency, hence all the receipts will be issued in the US dollars consequently. However for the domestic donators, a Chinese official receipt will also be made according to the foreign exchange rate for the purpose of tax deduction.

### [線上信用卡 / PayPal 贊助](#)

---

## 支票捐款

支票抬頭請填寫「財團法人佛教電子佛典基金會」。

For donations by check, please write the check to  
"Comprehensive Buddhist Electronic Text Archive  
Foundation".

---